

星武

제 40 호
2011. 7.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http://www.kafaaa.or.kr>

NO **CRYSTAL** **BALL** REQUIRED



IN THE AEROSPACE domain, the future is always present. And because most projects demand solutions or technology that do not as yet exist, the big challenge is foretelling what the future holds.

At Saab, we have found that the best way to achieve this is to be part of building it. That's what we've been doing for more than seventy years and of which the successful and continued development of the Gripen fighter system is a good example.

The challenge continues unabated.

When developing the next generation of unmanned aircraft systems, Saab is one of the partner industries. In the nEUROn demonstrator program, future technologies are already in evidence, and in the Saab lead MIDCAS project, solutions that will enable secure and safe operation of unmanned aircraft into civil operation are underway. Today, Saab can already offer a fully autonomous UAV: Skeldar – a versatile, mission ready VTOL system.

Looking to the future envisages demands for new surveillance solutions. Saab is already delivering a state-of-the-art aerial early warning radar system, the Saab AEW&C, and we are constantly working on new innovative and cost-effective solutions for increased security.

Saab, a committed partner no matter what the future brings. ●●●●



아시아나, 7월 1일 김포 ⇄ 베이징 취항

서울(김포, 인천) ⇄ 베이징 최다 운항 국적항공사
아시아나가 더 빠르고 편리하게 모시겠습니다



김포 매일 09:50 출발 10:45 도착 (OZ3315) 베이징 매일 11:55 출발 15:00 도착 (OZ3325)

■ 예약 및 문의 • 1588-8000 • flyasiana.com

아시아나항공

A STAR ALLIANCE MEMBER



한차원 높은 기술. 강한 책임의식. 헌신적인 고객지원.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낮은 유지비용, 강화된 안전성, 10년까지 창정비 주기를 연장해주는 Pratt & Whitney의 F100-PW-229EEP. 자세한 정보는 www.pw.utc.com 을 방문해주십시오.



Military Engines



Pratt & Whitney
A United Technologies Company

항공 선진국 G7 진입을 위한 새로운 10년의 도전 그 중심에 **KAI**가 있습니다.

국산 기본훈련기 KT-1의 해외 수출에서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과
한국형 기동헬기 KUH (수리온)의 성공적인 개발까지
지난 10년간 국산 항공기 수출과 개발을 위해
장인 정신으로 오직 한길만을 걸어온 KAI

2020년 세계 7위권 (G7) 항공국가 진입이라는
국가 항공산업 비전 달성을 위해
국민 여망을 담은 힘찬 도전을 시작합니다.

True Dream Partner

희망을 그리며 세계로 나아갑니다

국내최고의 방위산업 전문업체,
첨단미래산업의 무한영역을 개척하여
국내 방위산업을 선도하는 LIG넥스원이
첨단기술을 통해 대한민국 내일의 희망을
그립니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해 - **LIG Nex1**



다이내믹한 F-16 전투환경에서는
한 발 앞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



www.es.northropgrumman.com/solutions/sabr

▼ SAB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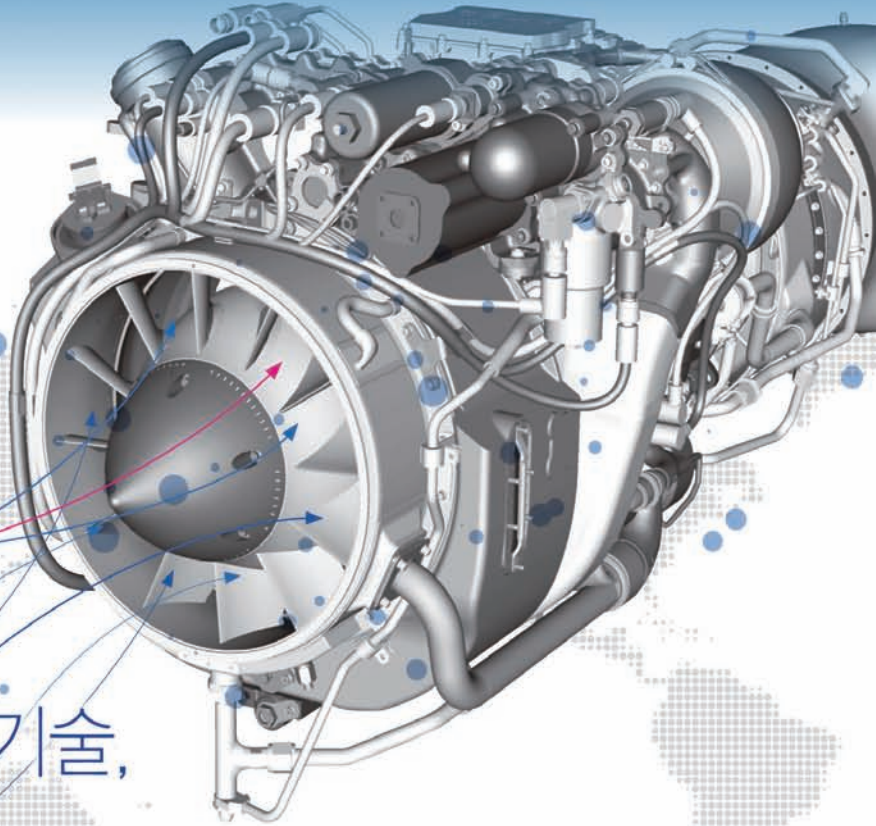
35년 이상의 전자주사레이더(AESA) 경험을 토대로, 노드롭 그라만(Northrop Grumman)은 대한민국의 KF-16 성능개량사업(Performance Improvement Program: PIP)을 위해 확장/축소가 가능한 고속 빔 레이더- 쉐이버(Scalable Agile Beam Radar: SABR)-를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쉐이버(SABR)는 현재 F-16 블록60, F-22 및 F-35에 탑재되어 운용 중인 노드롭 그라만(Northrop Grumman)의 전자주사레이더(AESA) 계열 중 최신 모델입니다. 공군의 KF-16 성능개량을 위해서 전자주사레이더(AESA)의 세계적 리더로부터 최고의 성능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THE WORLD LEADER IN INTELLIGENT ENERGY SYSTEM



한국형 수리온 헬기의 힘,
삼성/GE 공동개발

T700-701K TURBOSHAFT ENGINE



세계를 움직이는 기술, 삼성테크윈

삼성테크윈은 국내 유일의 가스터빈 제조업체로서 차세대 전투기 엔진 생산사업과 한국형 헬기엔진 개발사업 등을 통해 자주국방과 첨단 기계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항공기용 가스터빈 엔진 기술을 바탕으로 한 터보압축기, 발전기 등 에너지 장비분야에서 삼성테크윈만의 기술력으로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T-50 Golden Eagle / F404 Engine



F-16 Falcon / F-100



Ship to Ship Missile / SS-760K



KDX II/III / LM-2500



SAMSUNG

삼성테크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01번지 삼성테크윈 판교R&D센터 파워시스템 사업부 | 대표전화 031-7147-7000
www.samsungtechwin.co.kr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1

SEOUL INTERNATIONAL AEROSPACE & DEFENSE EXHIBITION 2011

서울공항 | 2011년 10월 18일(화) ~ 23일(일)

◆ 전문관람일 ▶ 10월 18일(화)~21일(금) | ◆ 일반관람일 ▶ 10월 22일(토)~23일(일)



SEOUL INT'L AEROSPACE &
DEFENSE EXHIBITION 2009



SEOUL INT'L AEROSPACE &
DEFENSE EXHIBITION 2009

www.seoulairshow.com

星武 Contents



공군 소식

모교 소식

총동창회소식

특집 I 성무대 모교사랑

- 42 2010 성무대 가을축제<화보>
- 50 무용과 공사십훈 | 박용태
- 56 졸업 및 임관 50주년을 맞으며 | 강민수
- 59 창공의 은하여 영원하라(임관 50주년 축시) | 박종권
- 62 우리에게 공군사관학교는 | 박지연
- 66 공군사관학교와 나 | 최우현

특집 II 올바른 국방개혁을 위한 제언

언론/토론회 발표문

- 70 합참의장 힘 너무 세지면 정치권이 군의 눈치를 볼 수도
| 국방부 설명회
- 73 거꾸로 가는 군 지휘구조 개혁 | 김홍래
- 75 팔다리 따로 노는 군대 만들 텐가? | 이한호
- 79 국방개혁안에 대한 평가 | 이선희
- 87 국방개혁안, 해·공군 유난히 반발 왜? | 이한호

국방개혁을 위한 기고문

- 93 군 원로들은 올바른 개혁을 원한다 | 김홍래
- 96 미래전에 대비한 한국군의 상부지휘구조 | 이한호
- 112 합동군사령부 신설보다 합참체제 보완이 바람직 | 이문호
- 114 MB정부의 국방개혁, '독재군대'를 추구하는가 | 이선희

회원논단

- 120 항공력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시대의 안보관 | 김구섭

항공력의 효율적 운용과 합동성 제고 이 찬	130
항공우주군 도약을 위한 전략의 디지털화 고덕천	138
항공무기체계 자주능력 향상의 필요성 전영훈	149

회 원 기 고

젊은 날, 거침없이 날아간 비행 배기준	162
참여하고 소통하는 동창회를 위하여 민신웅	166
TOP GUN 소감 우창효	168
대표 보라매상 수상 소감 최선규	170
서라벌에서 온 편지 이종학	172
낙동강이 없었다면 자유와 평화는? 이영순	177
지난날의 군수관리제도를 생각하면서 전승우	181
형사소송절차의 이해 신기훈	185
동방의 작은 땅 박소영	191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비결 김국창	197
산이 좋아 김석천	200
보람있는 안보해설사 활동 문태일	203
흑매로 살어리랏다 석현수	211



동 문 동 정

총동창회 알림

정기총회	220
회비 납부 안내	224
평생회비 납부 현황	225
공사재단 발전기금 현황	228
전역자 현황	232
주소 변경	235
각 기생회 임원 현황	238
편집후기/기고안내	239



공군사관학교 교가

작사 최용덕

작곡 김성태



1. 우 리 _는 피 끓 _는 배 달 의 _아 _ 들
2. 우 리 _는 하 늘 _을 배 우 는 _ 젊 은 이



높고 빛나는 한배님정신 이어_받아서
높고 참다운 군대의정신 새로_이룩해



누 리 에 떨 — 치 고 자 하 늘 로 솟 나 니
나 라 를 지 — 키 는 힘 하 늘 로 달 린 다



우 리 들	영 혼 의 기 지	공 군 사 관 학 교
우 리 들	충 성 의 원 천	공 군 사 관 학 교



하_____들은 우리의 일터요 싸움터



하 늘에 살 면_서 하 늘에 목 숨 바 친 다

訓士十空

正白從遂貫私敢罰範備
端潔服完一無果必垂兼
儀廉心任義平着賞先威
容清誠責信公沈信率恩



제31, 32대 공군참모총장 이·취임식



제31, 32대 공군참모총장 이·취임식이 9월 30일(목) 김태영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고위급 인사와 역대 공군참모총장, 가족, 친지 등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거행되었다.

제32대 공군참모총장으로 취임하는 박종헌(24기) 대장은 제20전투비행단장, 합참 인사부장, 공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장, 공군사관학교장, 공군교육사령관 등의 주요 보직을 역임하였으며, 작전뿐만 아니라 인사, 기획 및 교육분야에 두루 통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 박 총장은 『강하고 믿음직한 선진 공군육성』에 매진하여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국격을 향상하는데 기여함은 물론, 우리 공군이 미래의 안보 및 전장 환경에서 합동전장을 주도하여 조기에 전승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실전적 교육훈련체계 발전과 정예화된 공군인 육성에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박 총장은 의식, 행동, 문화의 선진화를 통해 참신한 공군문화 창달은 물론, 국정 이념인 공정한 사회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군을 합리적으로 지휘해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박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 공군은 최고의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적의 도발 기도를 사전에 억제하여 평화를 보장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안정적 발전을 힘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방부에서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에 적극 동참하여 공군 개혁을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이계훈 전 총장은 이날 이임 및 전역식을 끝으로 공군에서 보낸 40년간의 군생활을 마무리하고 명예롭게 전역하게 된다.

창군기의 여군 주역 초청행사



공군참모총장은 6·25 60주년을 맞아 7월 8일(목) 공군회관에서 공군 창군기 시절 활약한 공군출신 여군 초청행사를 갖고 감사 및 격려 오찬을 가졌다.

창군기의 주역으로는 1949년 1월 10일 창설된 여자항공대 1기에서 2기 출신기수별 여군 대표 각각 3인이 참석하였으며, 현재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현역 여군으로는 공군의 주력기종인 KF-16 여군 전투기 조종사 김효선 소령(55기)을 비롯한 3명이 참석해 뜻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공군참모총장은 창군 초기 열악한 환경에서도 공군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여자항공대원에게 감사를 전한 후 기념품을 증정하였다.

이날 참석한 여자항공대 1기 출신(예비역 대위)이자 공군 최초 1호 여성조종사인 김경오 극동지구 여성비행사기구 총재는 후배들을 일일이 격려하는 한편 대표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효선 소령은 “선배님들의 개척정신과 희생정신을 배우고 여성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선배님들의 기대에 부끄럽지 않은 전투 조종사가 되겠다.”고 참석 소감을 밝혔다.



공군 순직조종사 유자녀 위한 하늘사랑 장학재단 창립

공군은 조국 영공수호를 위해 비행 임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조종사 유자녀 지원을 위한 『하늘사랑 장학재단』을 창립하였다.



『하늘사랑 장학재단』 창립을 기념하기 위해 9월 6일(월) 참모차장 주관으로 헌판식을 개최하였고, 8일(수)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하늘사랑 장학재단에 후원을 결의한 기증단체 CEO 12명을 초청, 감사패 증정식을 가졌다.

이번 『하늘사랑 장학재단』 창립은 (故)박광수 중위('82. 7월 순직) 부모님께서 28년간 모아온 유족연금 중 1억 원을 순직 조종사 유자녀를 위한 장학기금으로 사용해 달라고 기증한 것을 발판으로 시작됐다.

이후 조종사 2,700여 명의 자율모금을 통해 2억여 원의 성금이 모아져 총 3억여 원의 기금이 형성되었고, 후원단체로부터 10억여 원이 기증되었다.

순직 조종사 유자녀에 대한 장학 및 원호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무소 소재, 재산관리, 임원 구성, 이사회 운영 등의 기준마련과 창립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 충청남도 교육청으로부터 정식으로 창립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조국 영공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조종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고, 순직조종사 유자녀들에게 금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필요한 장학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하늘사랑 장학재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일반인들이 자율적으로 모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으로, 이를 토대로 순직조종사 유자녀 장학금 지급 등 유가족의 장학 및 복지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10년 탑건(Top Gun)에 우창효 소령

‘2010 Top Gun’(공군 최우수 조종사)에 제19전투비행단 155전투비행대대 소속 우창효 소령(공사 47기, 주 기종 KF-16)이 선정됐다.

우 소령은 공군 최우수 조종사 선발을 위한 10가지 필수요소를 기준으로 한 평가에서 1000점 만점 중 830.67점을 획득해 최고득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0 보라매 공중사격대회’ KF-16 기종별 사격 최우수 조종사로 선발되는 영예를 동시에 안았다.

우 소령은 주기종 KF-16 900여 시간을 포함, 총 1,600여 시간의 비행시간을 보유한 베테랑 조종사로서 화려한 수상경력을 갖고 있다.

조종사로서 비행임무 유공으로 다양한 수상경력을 자랑하고 있지만, 이 중 가장 특별했던 상은 사관학교 동기생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임택순 대위의 위국헌신 정신을 계승하고 선양한 사람을 뽑는 임택순 상 수상이다.

임택순 상은 임관 10년 차를 맞는 조종사와 일반장교 각 1명에게만 수여되는 상으로 지난 해 처음 우 소령이 최초로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모든 일에 정성과 최선을 다하자’는 좌우명으로 비행임무 종료 후 늦은 밤까지 비행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며 비행연구에 임했고, 후배 조종사들에게 책임감 강하고 모범적인 선배로 정평이 나있다.

우 소령은 “조국 영공방위를 위해 밤낮없이 비상대기에 임하는 모든 조종사들과 지원요원들을 대표해 수상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비행대대 편대장으로서 적의 도발을 강력하게 응징 보복할 수 있도록 비행임무에 더욱 열정과 최선을 다함은 물론, 향후 군사전문가로서 소양과 자질을 습득하여 국가와 군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며 앞으로의 각오와 포부를 밝혔다.



공사 59기 졸업 및 통합 임관식 거행



공군사관학교 제59기 졸업식이 역대 공군참모총장, 역대 공사교장을 비롯 청주시장 등, 군 내외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월 25일(금) 공군사관학교 성무연병장에서 거행됐다.

올해는 3군 합동성 강화 차원에서 임관식은 3월 4일 계룡대에서 3군 합동으로 거행하고, 졸업식은 각 군에서 별도로 실시했다. 이에 따라 수상자들 가운데 대통령상은 임관식에서 시상하며, 졸업식과 동시에 소위 계급장을 달고 임관하던 과거 전례와 달리 졸업식장에서 소위 계급장 수여식은 하지 않았다.

이번 59기 생도들은 12명의 여생도와 태국 위탁교육생 수페차이 생도를 포함한 138명이며, 재학 중 전공에 따라 각각 이학사, 문학사, 공학사 학위와 함께 전원 군사학사 학위를 동시에 수여받았다. 이와 더불어 한국 공군사관학교에서 1년 수탁과정을 이수한 일본 방위대의 카기야마 레이코(여) 생도에게도 명예졸업장을 수여했다.

이번 59기 졸업식에서는 공사 개교 이래 네 번째로 전 학기 우등상을 수상하고 수석 졸업

하는 남연진(여) 생도가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박현주(여) 생도가 국무총리상, 김경원 생도가 국방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총 7명이 교육우등상을 받았다.

또한, 원인철 준장(32기)의 아들 원중식 생도와 예비역 최용준 준장(29기)의 아들 최선규 생도는 공군 장군을 아버지로 둔 부자동문이자 고교 동창으로 함께 입교·졸업하여 화제가 되고 있으며, 최선규 생도는 이번 졸업식에서 대표 보라매 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이 밖에도 조종사인 형(송민수, 57기)의 뒤를 이어 졸업한 송주영 생도, 보급장교로 근무하는 누나(김선인, 58기)의 뒤를 이은 김태훈 생도, 생도생활 동안 꾸준히 불우 이웃을 돌보아 온 김동규 생도, 일본 방위대 파견 중 과수석을 차지한 전병준 생도 등 많은 화제의 인물들이 졸업을 하였다.

오창환 중장은 이날 졸업식사를 통해 “4년간의 땀과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평화와 공군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정예장교로 성장한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그동안 사관학교에서 배우고 익힌 명예심에 기초한 위국헌신의 충성심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에 두려움 없이 도전하며, 국가의 안보와 공군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는 깨끗하고 정의로운 정예 공군장교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지난 3월 4일(금) 창군 최초로 6개 학교 기관의 초임장교 합동임관식이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내외 귀빈, 졸업생 가족 및 친지 등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이번 합동임관식에서는 각 학교 기관에서 총 8명이 대통령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상장을 친수 받는 영예를 안았다. 대통령상 수상자로 선정된 8명의 신입 소위들은 생도생활 내내 끈기와 성실한 태도를 바탕으로 학업과 생도생활 전반에 걸쳐 두각을 나타낸 결과, 각 학교에서 수석졸업의 영광을 차지하였다.

이번 합동임관식에서 신입 소위들은 조국수호에 대한 결의를 담은 ‘조국 수호 결의문’을 낭독하며 ‘적과 싸워 반드시 이기는 군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토를 수호하는 강한 군대가 될 것’을 결의하는 동시에, 모두가 합심하여 조국을 수호하고 국가에 충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5,309명 전원의 얼굴이 그려진 대형 태극기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임관식을 마친 초임장교들은 각 병과별 교육을 이수한 후 전국 각지에 산재된 부대에 배치되어 조국수호의 숭고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제42대 공군사관학교장 취임

공군사관학교장 취임식이 12월 28일(화) 박종현 공군참모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군사관학교 성무문화관에서 열렸다.

이날 제42대 공군사관학교장으로 취임한 오창환(25기) 중장은 박종현 참모총장으로부터 지휘권을 이양 받고 '강하고 믿음직한 선진공군'의 주역이 될 공군장교 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엄숙히 다짐했다.



신임 오창환 공군사관학교장은 취임사를 통해 “사관학교의 교육과정은 확고한 대적관으로 무장된 군인정신과 강인한 체력을 구비함은 물론 학문적인 목표까지 달성하는 전방위적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라며, “사관생도들을 정예요원으로 양성한다는 귀중한 소명을 명심하고 공군의 발전과 사관학교의 발전 그리고 정예사관을 양성하는데 헌신진력할 것을 당부하며 사관학교 전 소속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오창환 신임 공군사관학교장은 공군본부 참모차장, 공군 작전사령관을 역임하였고, F-5E/F(Freedom Fighter) 전투기 2,400여 시간의 비행경력을 지닌 베테랑 조종사이다. 또한 작전수행에 능하며 정책분야에도 탁월한 자질을 갖춘 인물로 정평이 나있어 정예 사관생도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핀 한국 공사생도의 꿈



미국 공군사관학교에 위탁 교육중인 대한민국 공군사관학교 배재진 생도(58기)가 외국군으로서는 공사 창설 이래 최초로 부전대장 생도(Vice Wing Commander)로 임명되어 화제다.

배 생도가 맡게 된 미 공사 부전대장 생도는 생도 대령급 직책으로 생도 대표인 전대장 생도의 최고 참모로서 생도대 지휘근무 중 두 번째 서열이다. 전대장 생도가 대표로서의 상징성을 가진다면 부전대장 생도는 4,500명에 달하는 생도들의 자치체인 생도전대의 운영을 실무적으로 책임지는 역할이다. 이 자리에 외국군 위탁교육생도가 임명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며, 미 공사 63년 역사에서도 최초라는 것이 미 공군의 설명이다.

항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의 마음으로 매사에 최선을 다해왔다는 배 생도는 “대한민국 공군사관학교에서 약 1년 4개월 간 생도생활을 통해 체득한 감투정신과 도전의식이 유학생활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미 공사의 전통을 지키고 전달하는 부전대장 생도로 선발되는데 밑거름이 된 것 같다.”고 전했다.

배 생도는 위탁교육 중 현재까지 7개 학기 우등상을 수상하며 대한민국 공군사관생도의 우수성을 증명해 보였다. 미 공사 우등상은 학업, 군사 및 체육의 3개 항목이 4.0만점 중 평점 3.0 이상인 자에게 수여하는데, 학기당 평균 상위 약 5%의 생도들이 우등상을 받고 있다. 배 생도는 미 공사로부터 우등상 수상자에게 주어지는 대학원 진학 기회를 제안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고, 졸업 후 귀국하여 대한민국 공군 발전에 헌신할 각오로 마지막 학기에 임하고 있다.

한편, 배 생도는 지난 학기부터는 KARS(Korean American Relation Seminar)라는 한국계 생도모임을 결성하여 한국 혈통을 가지고 있는 생도들의 단합을 도모하고, 나아가 한국에 관심을 갖고 있는 외국 생도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는 일에도 열심이다.

졸업 후 건강한 모습으로 한국에 돌아가는 것이 지금의 가장 큰 목표라는 배 생도는 “공사 58기 동기생들을 대표하여 미 공사의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남은 한 학기도 최선을 다해 교육에 임함으로써 많은 분들의 기대에 보답하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 · 터 공군사관생도 교환교육 MOU 체결

이스마일 타쉬(Ismail Tasi) 터키 공군사관학교 교장이 작년 7월 14일(수) 성일환 공군사관학교 교장의 초청으로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했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 양국 공군사관학교는 사관생도 교환교육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2011년부터 양국은 사관생도 교환교육을 추진하고, 4년 주기로 1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교환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합의는 1957년 양국의 수교 이래 지속되어 온 양국 공군 간 군사교류 협력의 일환으로 지난 2006년부터 사관생도 교환교육을 논의해 왔으며, 2009년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공군사관학교는 62기 생도 중 1명을 선발하기로 하고, 교환생도는 올 12월부터 내년 9월까지 터키에서 터키어 교육을 받은 후 4년간 터키 공군사관 학교에서 훈련받게 된다.

공군사관학교 교무처장 정연수 대령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 간 군사관계 발전은 물론이며, 더욱 성숙된 군사교류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터키 공군사관학교 교장 일행은 12일부터 5일 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있으며, 부산 유엔기념공원, KAI, 17비 등을 방문했으며, 서울문화 탐방과 제3땅굴, 도라OP 등의 안보현장을 견학했다.



제18차년도 이사회



공사총동창회는 '10년 7월 28일 공군회관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올 한 해 동안 추진 할 사업과 예산을 통과시켰다. '전 동문이 협력, 참여하는 동창회로 발전'을 18차년도 운영목표로 하고, 기존 사업의 내실화와 회원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 후배 및 현역회원들의 총동창회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적극적인 참여 유도, 모교와 공군의 유기적인 협조체

제 강화 등을 주요사업 방침으로 정하였다. 또한 공본 인사참모부장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공군의 현안인 '순직조종사 유자녀 지원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자문위원 간담회



'10년 9월 9일 공군회관에서 역대 총동창회 회장 및 사무총장들을 모시고, 공사총동창회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총동창회를 직접 운영하고 발전시켜 온 분들이라 관심도 많으셨고, "총동창회 행사에 계급이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 편하게 참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등 많은 제안도 해주신 뜻 깊은 행사였다. 진행은 이

선희 회장의 인사, 초대회장 손주현 회원님의 건배 제의, 총동창회 현황보고 및 토의, 자문위원님들의 격려 말씀으로 진행되었다.

선배기수 이사 간담회

'10년 9월 29일 성남체력단련장에서 선배기수 이사(10~17기)인 각 기생회장단 간담회를 가졌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빠짐없이 참석해주시어 총동창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의하고, 선배님들에게 부탁의 말씀도 올리며 계획된 행사에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부탁하였다. 특히 10월 30일에 계획된 성무인 가을축제에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렸다.



후배기수 이사 간담회

'10년 10월 13일 후배기수 이사(19~38기)인 기생회장단 간담회를 수원체력단련장에서 가졌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총동창회 활성화 방안을 토의하였고, 정다운 마음을 허심탄회하게 표현하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성무인 가을축제가 멋지고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후배 회원들이 참석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현역 후배 임원들과의 간담회



'10년 9월 15일 계룡대 무궁화 회관에서 현역 후배 임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총동창회 회장단 15명과 28기 기생회장인 공본 인참부장을 포함하여 41기까지 많은 현역 후배임원들이 참석하였다.

총동창회에서는 적립기금 이자만으로도 총동창회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평생회비의 조기납부에 대한 필요성과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현역 후배들은 공군에서 더 큰 비전을 가지고 국가적 인재를 육성하는 모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뜻을 같이 하고, 가입교 기간 및 임관 전에 공사 출신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정신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신규 전역회원 간담회



2010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전역한 후배회원들을 대상으로 '10년 10월 6일과 '11년 5월 25일 2차에 걸쳐 공군회관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그동안 군에서 소임을 다하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후배들에게 환영과 격려를 해주고, 총동창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공사출신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해주기 위해 금년 처음으로 실시한 행사였다.

참석한 후배들은 총동창회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높이겠다고 다짐하였다. 또한 전역 후 마음 둘 곳이 없었는데, 총동창회에서 후배들을 위한 모임을 마련해주어 마음의 위안과 더불어 공사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는 의견을 전하였다.

성무인 가을축제

'10년 10월 29일 공군사관학교에서 '성무인 가을축제'를 실시하였다. 1기~38기 회원 및 가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도 성무의식 참관과 공군의장대 시범을 관람하고, 웅비회관에서 오찬을 했다. 오후에는 성무종합경기장에서 생도 응원리더반 '이카루스'의 공연을 관람하고, 전체 몸풀기 리듬체조, 원로 회원들의 골프 어프로치 게임, 다양한 종목으로 꾸며진 추억의 명랑운동회를 하는 등 친목을 다지는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 특집 I '성무대 모교사랑', 2010 성무인 가을축제 <화보> 참조

공무원 진출 회원 간담회

'10년 11월 5일에는 국가 정책에 의거 동기생들보다 먼저 전역 후 공무원으로 진출한 회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18기부터 29기까지 대상자들을 초청, 그동안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선후배들의 만남은 특별한 기회가 되었으며, 특히 총동창회로부터 관심 밖의 회원들이었기에 더욱 의미 있는 모임이 되었다. 대부분의 회원들이



총동창회에서 주관하는 모임에는 처음이라 총동창회에 공군에 대한 건의사항도 많이 있었고, 총동창회 발전을 위하여 더욱 헌신하겠다는 다짐의 자리가 되었다.

친선 바둑대회



'10년 11월 11일에는 공군회관에서 8회째를 맞이한 공사총동창회 친선 바둑대회가 열렸다. 기우회 고문이신 윤자중 전 참모총장님을 비롯한 62명의 선수 및 참관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성황을 이룬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자리였다.

대회는 A, B, C 3개 조로 나누어 질서정연하게 진행되었으며, 생도시절과

공군생활을 통하여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필승의 신념을 익혀온 탓인지, 승부에는 냉정하면서도 한 치의 양보 없는 혈전의 한판이기도 하였다. 또한, 2005년부터 공사총동창회 지도사범으로 봉사해주고 있는 김수장 지도사범님이 참석하여 다면기(多面棋) 지도를 해주셔서 친선 바둑대회를 더욱 빛나게 해주었다.

시상 후 윤자중 기우회 고문님의 격려의 말씀과 건배제의로 만찬이 시작되었으며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행사를 마쳤다.



◇ 친선 바둑대회 결과

단식 A조(1~3급) : 우승 박창용(19기), 준우승 정지수(11기)

단식 B조(4급) : 우승 김수호(7기), 준우승 신동열(14기)

단식 C조(5~8급) : 우승 유성열(17기), 준우승 박진재(14기)

복식 A조 : 우승 송중호(10기), 서성도(23기)

복식 B조 : 우승 이재기(16기), 김수기(14기)

59기 졸업생 격려

지난 2월 22일 59기 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 축하를 위하여 총동창회 회장 과 사무총장이 모교를 방문하였다. 총 동창회장은 졸업 후 41년간의 군 생활 및 사회경험을 바탕으로 한 미래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한 덕목에 대하여 특강을 하였으며, 총동창회에서 준비한 USB 메모리를 선물하였다.



공사총동창회 등산

지난 5월 4일 맑고 화창한 봄날에 총 동창회 등산이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개최되었다. 3개 코스로 나누어 각자의 산행능력에 맞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으며, 250여 명의 많은 회원들이 참여한 즐겁고 건강을 다지는 행사였다. 14기 회원들이 19명으로 최다 참가상을, 모든 행사에 항상 모범이 되어주시는 1기 선배님들이 특별상을 받으셨다.



운영기수 동기생들의 수차례에 걸친 등산코스 사전답사와 코스안내로 동기생끼리 또는 선후배가 어울려 삼삼오오로 산행을 마쳤으며, 모든 회원이 함께 자리한 식당에서는 메추리 기수인 21기 후배들이 배식분배 등 적극적으로 진행을 도와주어 성황리에 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

제2차 이사 간담회



'10년도에 실시한 선배·후배기수 이사 간담회에서 대다수 이사들의 요청에 의하여 지난 4월 13일 제2차 이사 간담회를 성남체력단련장에서 개최하였다. 운동하기 좋은 쾌청한 날씨에 이사기수 20개 팀이 참여하여 총동창회의 활성화는 물론 선후배 간의 친목 및 소통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다.

운동결과 메달리스트에는 김두환(19기) 회원, 우승은 정해창(16기) 회원, 준우승 이종대(13기) 회원이 차지하였다. 또한 롱기스트 금기연(21기) 회원, 니얼리스트 윤관중(18기) 회원, 그리고 최우수팀상은 10조(조장 : 19기 임종태)가 차지하였다.

운동을 마치고 간담회를 통하여 5월에 있을 총동창회 등산대회 등 향후 주요행사 계획을 보고하였으며, 이번 간담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후원을 해준 최병철(20기) 회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했다.



공사총동창회 임관기념 행사

공군사관학교에서 지난 5월 20일 2011년도 총동창회 임관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임관 50·30·20·10주년을 맞이한 공사 9·29·39·49기생과 가족 등 1,0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석한 각 기생회 회원들은 후배들을 위한 발전기금을

을 전달하고, 이어 교가제창, 사관생도 분열에 직접 참가하는 등 순서를 통해 애틋 시절의 푸르렀던 기억을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졌다. 기념식은 블랙이글스의 축하비행을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한편, 오창환(25기) 공사 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오늘의 대한민국과 공군이 있기까지는 열정적이고 우수한 성무인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며 “정예공군장교 양성을 위한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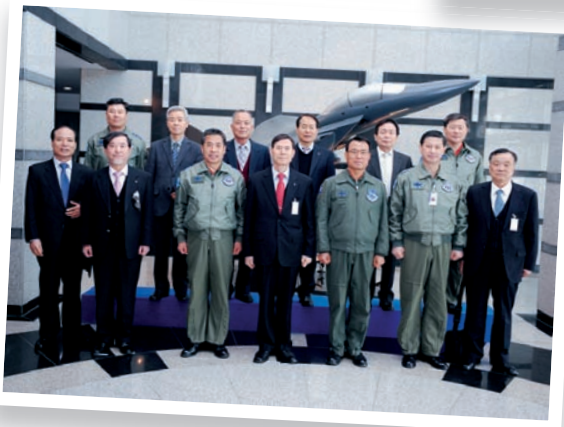
부대 방문



공군본부('10. 7. 13)



공군사관학교 ('10. 7. 15)



작전사령부 ('10. 3. 22)

교육사령부 ('10. 3. 23)



군수사령부, 남부사령부 및 제11전투비행단 ('10. 3. 22)



제1전투비행단('10. 3. 23)

자랑스러운 공사인 시상

10기 사관 강 위 훈

공사총동창회는 제18차년도 정기총회에서 자랑스러운 공사로 10기 사관 강위훈 회원을 선정하고 기념패를 증정하였다.



강위훈 회원은 모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미래 항공 우주인 육성에 기여하였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20년동안 근무하며 KT-1의 계획 및 선행 개발을 완료하는 동안 사업 책임, 본부장을 역임, 한국최초훈련기 개발책임을 맡아 수행하였으며 유도 무기 등 항공연구 개발에 큰 공헌을 하였다.

또한 한국항공우주학회 회장으로서는 한국의 항공우주 분야 발전에 이바지하였을 뿐 아니라 2001년 중국연변과학기술대학교 기계공학 교수로 임명된 후 유체역학, 항공공학 등을 가르치며 현재까지 대외협력처장, 학술발전처장, 학술발전연구처장, 동북아 협력기술개발원장, 국제교류협력위원장 등 중요보직을 맡아 민족교육과 동북아 교류협력 증진 및 발전을 이룩하는데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공사총동창회 정기총회



공사 총동창회는 2011년 6월 22일 공군회관에서 201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주요업무 및 결산보고와 '자랑스러운 공사인' 시상 및 감사패를 전한 후 총동창회 발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뜻깊은 총회를 가졌다.(총동창회 알림 참조)

제19차년도 공사총동창회장으로는 유병구 장군을 선임하였다. 총동창회 업무는 19기 사관이 운영기수를 맡게 되었으며, 총동창회 발전을 위해 19차 운영기수의 적극적인 활동이 기대된다.



제19차년도 총동창회 운영임원

회 장 : 유병구

부 회 장 : 홍강표, 김두환, 김명립, 김현진, 민주동, 손정환, 이계오, 임종태,
전재구, 정선구, 조명래

감 사 : 이성율, 정성진

사무총장 : 정하섭

후 원 : 공사 19기 사관 일동

이 임 사



존경하는 총동창회 회원 여러분!

선배님들께서 잘 가꾸어 오신 총동창회의 운영 책임을 맡아온 저희 18기가 이제 그 명예로운 책임을 다하고, 영광된 임무를 19기 후배님들에게 물려줄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걱정도 많았지만 선배님, 후배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참여로 지난 1년 동안 참으로 행복하였습니다. 저희 18기 운영기수는 선배님들이 쌓아 오신 업적들이 더욱 빛을 발하고 활성화되도록 노력하면서 그동안 총동창회의 관심이 소홀하였던 작은 부분도 채워보려고 노력하였습시다만,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저희의 하고자하는 마음만을 크게 보시고 허물에는 작은 꾸지람을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때마다 많은 회원님들이 참여하여 대성황을 이루어 주셔서 준비하는 저희 운영기수도 신명나게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선후배님들이 모여 정담을 나누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뭉클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공군과 공군사관학교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어느 조직보다도 더 강력한 응집력과 단결력을 보여 주신 우리 회원님들이 자랑스럽고 고마웠습니다. 회원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동창회를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회원 간 의사소통이었습니다. 총동창회의 의사소통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는 각 기생 동기회장님과 총무님들의 헌신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모든 행사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각기 회장님 총무님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총동창회의 만형님이신 1기 사관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행사에 솔선수범하여 많은 선배님들이 참여하여 격려해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조금이라도 후배들이 불편해할까 배려하시는 모습에서 만형님다운 도량과 진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21기 후배님들께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도근무 선배가 운영하는 해라고 해서 행사 때마다 굶은 일을 맡아 해주었고, 특히 지난 봄 등산대회 때는 총출동하여 식당에서 식사쟁반을 나르던 모습에서 40년을 훌쩍 뛰어넘는 생도시절의 진한 정을 새삼 느꼈습니다.

바쁘신 시간을 쪼개 주옥같은 글을 써서 성무지에 보내 주신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공군사관학교와 공군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회원님들의 마음이 성무지를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면이 넘쳐 이번 성무지에 옥고를 올리지 못한 회원님께는 참으로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인 가을 축제, 이사님들과의 체력단련 모임, 임관 기념행사 등 지난 1년 동안 공군과 사관학교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이 있었기에 총동창회의 모든 행사가 가능하였습니다. 박종현 참모

총장님과 오창환 공사교장님, 성일환 참모차장님 그리고 관련 참모님 및 실무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운영기수인 우리 18기 동기생은 지난 1년 동안 저와 함께 최선을 다 해주었습니다. 누구는 행사 지원을 위해 거금으로 카메라를 구입하고, 누구는 행사 때마다 아주 무거운 동영상 카메라를 메고 먼 시골에서 올라오고 누구는 직장에 휴가를 내면서까지 사무실에 와서 도움을 주었으며, 특히 성무인 가을 축제와 등산 대회 때 동기생들이 엉성하고 서투른 모습으로 음식 쟁반을 나르던 모습은 실소를 짓게 하면서도 마음을 훈훈하게 적셔주는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가장 보람을 느낀 것 중의 하나는 동기생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새삼 일깨워준 것입니다. 18기 사관은 과연 최고의 동기생이었습니다.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천기광 동기생 회장과 김정수 동기생 사무총장 그리고 동기생 한분 한분에게 선배님들과 후배님들이 보고 계신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영광의 그늘에는 항상 말없이 고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년 365일 24시간을 낮이나 밤이나 오직 총동창회만을 위해서 일해 온 송희전 사무총장은 여러 선배님들과 후배님들의 아낌없는 칭찬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 힘든 일에도 한 번도 얼굴 구김이 없이 즐겁고 유쾌하게 봉사해 온 송희전 사무총장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총동창회의 숨겨진 보배 설민진 실장을 칭찬에서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총동창회의 모든 역사가 설 실장의 마음에 살아서 우리에게 비쳐줍니다. 최선을 다해 총동창회 일을 맡아 해 준 설 실장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총동창회 운영을 위해 준비해 오신 유병구 회장님을 중심으로 하는 19차 운영기수는 총동창회를 한 단계 더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것으로 확신하면서, 이제 저희 18기 사관은 영광스러운 임무를 마치고 앞으로도 총동창회의 성실한 회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6월 22일

이임 총동창회장 이 선 희

취임사



존경하는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회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의 회장이란 중책을 맡겨 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책임의 막중함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19기생의 대표 일꾼으로서 동기생 모두와 함께 18기 선배님들의 뒤를 이어 앞으로 1년간 모교 총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겠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는 그동안 제반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총동창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오신 역대 회장님들과 선배님들 그리고 많은 애정을 갖고 총동창회 발전에 성원을 보내주신 동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공군사관학교 출신 9,000여 명의 동문들은 성무대 공군사관학교에서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는 교훈 아래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자랑스러운 호국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현역 동문들은 공군의 각 분야에서 조국의 영광을 굳건히 수호하기 위해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으며, 청춘을 공군에 바치고 전역한 예비역들은 사회 여러 분야에서 역동적인 활약을 펼침으로써, 우리 모교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님, 그리고 동창회를 아껴 주시는 동문 여러분 !

이제 저와 19기 동기생들은 모든 힘을 결집하여 선배님들께서 물려주신 총동창회의 훌륭한 전통과 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총동창회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잘 수립하고 이를 내실 있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먼저,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관련된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회원들의 끈끈한 유대감과 결속력을 더욱 증진되게 하고 전체 회원들의 총동창회 참여가 보다 더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모교인 공군사관학교와 모군인 공군의 발전을 성원하고 돕는 후원자 역할을 활발히 수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모교 후배 생도들에게는 공군 간부로서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불어 넣어 주는 활동을 전개하고, 공군에 대하여는 적절한 위문을 통하여 현역 후배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고 영공방위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데 보탬이 되는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현역과 예비역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는 교량적 역할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의 자긍심 고취와 총동창회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총동창회는 기본 임무인 회원 간의 친목도모 등 대내적 사업은 정상 궤도에 올라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대외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회원들의 자긍심을 증진하고 총동창회의 위상을 더욱 제고시킬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재원이 미약하긴 하지만 불우이웃 또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해외 6.25 참전용사를 돕는 등의 사업을 검토하여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과 같은 여러 사업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총동창회 회원님들의 훌륭하신 조언과 많은 협조가 절대로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요청드리오니 적극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1년간 총동창회 운영을 훌륭하게 수행하시고 저희 19기에게 총동창회 운영을 넘겨주신 이선희 회장님과 18기 선배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에게 공사 총동창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회원님들의 기대하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회원님들의 훌륭하신 조언과 많은 성원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원님들의 건승하심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6월 22일

신임 총동창회장 유 병 구

축 사



푸르름이 한층 더해가는 신록의 계절에 2011년 공사 총동창회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존경하옵는 역대 총장님과 원로 선배님을 포함한 많은 동창회 회원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울러, 1년 동안 많은 업적을 남기고 이임하시는 이선희 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내며, 신임 유병구 회장님을 비롯한 새로운 임원진 여러분들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특히, 이임하시는 이선희 회장님께서 공군 각급 부대 격려 방문을 비롯해 신규 전역회원·공무원 진출회원·현역 후배임원 초청 간담회, 59기 졸업축하 방문·특강과 대표보라매상 수여 지원, 성무인 가을축제, 친선 바둑·등산대회 활성화 등 공사 동문들의 단합과 유대활동 강화에 큰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고생하신 회장님을 위해 큰 박수 한번 쳐 주십시오.

한편, 새로 취임하신 유병구 회장님과 임원진 여러분 역시 훌륭한 리더십과 인품을 볼 때 공군과 총동창회를 위해 왕성한 활동이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최근 우리 공군은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공군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커진 상황에서 전 장병이 항재전장 의식을 견지한 가운데 완벽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적의 어떠한 안보위협에 대해서도 단호한 의지와 막강한 힘으로 강력히 응징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군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F-15K 3차 도입, 조기경보기 확보, FX 사업 등 주요 전력 사업들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각계 각층에 계신 동문 여러분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공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과 현안 해결을 위해 총동창회 회원 여러분들의 적

극적인 참여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공군 전 장병은 「강하고 믿음직한 선진 공군」 육성을 위해 언제 어디서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 가능하고, 전략환경 변화에 대비해 선진 군사역량을 구축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진 병영문화 창달에 나서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공사 총동창회 정기총회를 통해 선·후배, 동료간 옛 추억을 회상하고 정보를 교류하면서 미래를 위한 가치있고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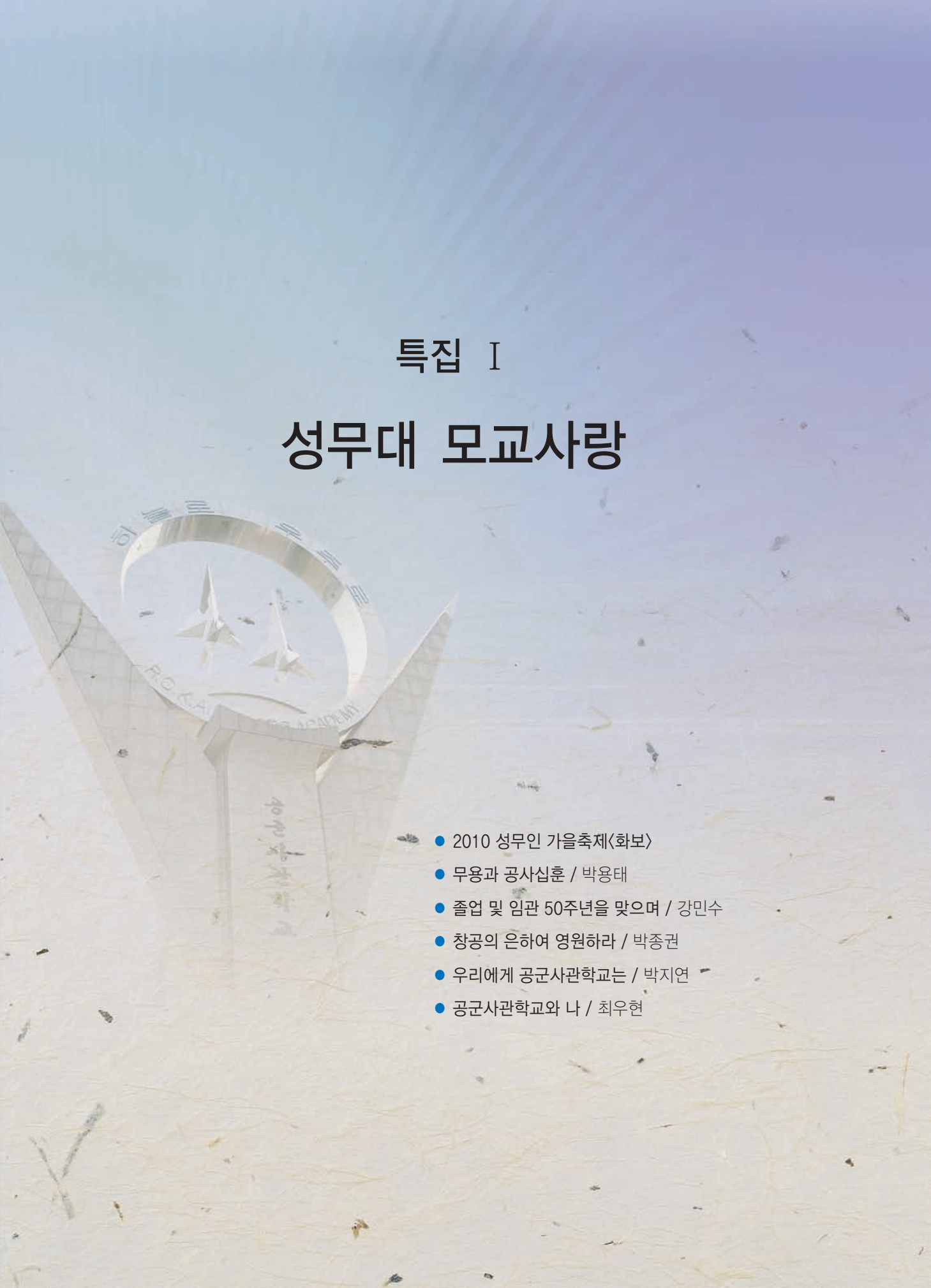
공사 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6월 22일

공군참모총장 대장 박 종 현

특집 I

성무대 모교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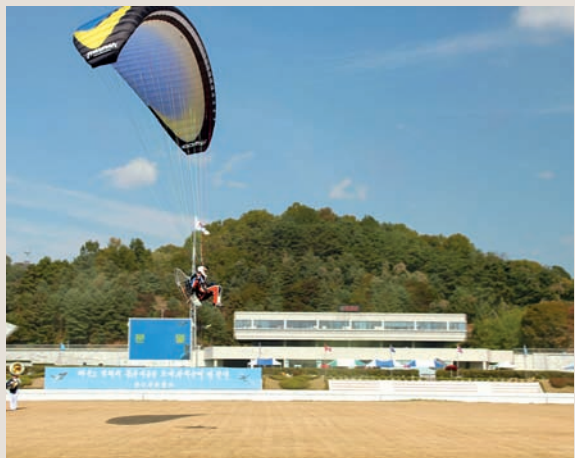
- 
- 2010 성무인 가을축제<화보>
 - 무용과 공사십훈 / 박용태
 - 졸업 및 임관 50주년을 맞으며 / 강민수
 - 창공의 은하여 영원하라 / 박종권
 - 우리에게 공군사관학교는 / 박지연
 - 공군사관학교와 나 / 최우현

성무인 가을 축제 (화보)

















무용(武勇)과 공사십훈(空士十訓)



5기 사관 박용태

I. 머리말

청주 공군사관학교 정문으로 들어서서 성무탑을 지나 박물관을 향해 가다보면 왼쪽에 공군사관학교 출신 첫 전사자인 1기 사관 고 임택순 대위의 동상이 서 있으며, 동상받침대에는 무용(武勇)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다. 고 임택순 동상을 지나 사관생도회관 앞 광장에 이르면 공사십훈(空士十訓)탑이 서 있다. 무용과 공사십훈은 우리 공군사관학교 출신 성무인(星武人)들의 영원한 정신적 지표이며 생활신조이다. 필자는 무용과 공사십훈의 제정유래와 그 속에 담긴 뜻을 음미해보고 공군사관학교 출신들이 무용과 공사십훈에 담긴 정신적 가치를 더욱 계승 발전시킬 것을 제안하기 위해 이 글을 쓴다.

II. 무용(武勇)의 제정 유래

무용은 공군사관학교가 진해캠퍼스에 자리를 잡은 후, 1954년 3월 1일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친필 휘호 무용을 공군사관학교에 하사하신 것을 계기로 공군사관학교 교훈으로 채택되었다. 무용이 공군사관학교 교훈으로 채택되기 전에는 공사십훈이 교훈을 대신해서 사관생도 훈육지침으로 사용되었다. 무용은 공군사관학교가 진해캠퍼스에서 서울캠퍼스로 이동한 후, 1966년에 교훈이 지(智), 덕(德), 용(勇)으로 바뀔 때까지 12년간 공군사관학교 교훈으로 계속 사용되었다. 그 후 공군사관학교 교훈은 한글전용 방침에 따라 1970년에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공군사관학교가 진해캠퍼스에 위치하고 있을 때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친필 휘호 무용을 현판에 새겨 학교본부 현관에 걸어놓고 사관생도들이 함양해야 할 정신적 가치로 받들었다. 1966년 이후 무용은 비록 교훈으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무용기쟁탈전(武勇旗爭奪戰), 무용체육대회(武勇體育大會), 및 무용편대(武勇編隊) 선정행사 등을 통하여 무용정신(武勇精神)은 오늘날까지 계승되고 있다.

Ⅲ. 공사십훈(空士十訓) 제정 유래

필자가 1953년 3월 진해에 있는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했을 때 교관들과 선배들로부터 전해들은 공사십훈 제정 유래는 이러하다. 1951년 5월 공군사관학교가 진해캠퍼스로 이전한 후 공군사관학교의 교육이념과 훈육정신을 제정할 필요성에 따라 당시 교장이시던 최용덕 장군 작사로 교가(校歌)가 제정되었으며, 이어서 최용덕 장군께서 사관생도의 생활규범으로 공사십훈을 제정하셨다고 들었다. 그러나 공군사관학교 50년사에 보면 공군사관학교가 진해캠퍼스로 이전한 후 당시 부교장이었던 김득룡 중령이 공사십훈 초안을 만들고 문관교수 이흥기 씨가 보완했다고 되어 있다. 어떤 쪽이 진실인지는 알 수 없으나 공사십훈은 사관생도의 생활규범과 군인정신함양을 위한 덕목을 제시한 것으로 1954년 무용이 교훈으로 채택되기 전까지는 교훈을 대신했으며, 오늘날도 공군사관학교 출신 성무인의 정신적 가치로 우리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다. 따라서 무용과 공사십훈은 공군사관학교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보존되어야 할 우리 성무인의 고귀한 정신적 지표요 실천가치(實踐價値)라고 생각한다.

Ⅳ. 고 임택순 대위 동상건립과 받침대에 무용을 새긴 경위

고 임택순 대위 동상건립 경위와 무용을 동상 받침대에 새긴 경위는 다음과 같다. 원래 고 임택순 대위 동상은 1960년 제8기 사관 졸업기념으로 서울캠퍼스에 세워졌으나, 재질이 동이 아닌 석고로 제작되어 필자가 1985년 1월 공군사관학교 제25대 교장으로 부임해보니, 그동안 석고상이 풍우에 마모 훼손되어 더 이상 보존이 힘든 상태였다. 더욱이 공군사관학교가 청주캠퍼스로 이전하게 되어 있는데, 이 석고상은 너무 훼손되어 이전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고 임택순 대위 동상을 차제에 청동으로 새로 제작해서 청주캠퍼스에 새우기로 결정했으나 갑작스러운 의사결정으로 예산 뒷받침이 되지 않았다. 궁리 끝에 공군사관학교출신들이 모교를 이전하는데 무엇인가 기여하는 것이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졸업생들의 정성을 모아 동상을 새우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공군사

관학교 출신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인원을 파악해보니 약 2,000명에 달했으며, 국내거주 동문 2,000명이 1인당 1만원씩만 헌금하면 고 임택순 대위 동상을 국고지원 없이 졸업생들의 정성으로 새울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그래서 공군사관학교 졸업 각 기생대표들을 사관학교에 초청해서 동상을 새로 건립해야 할 사정과 건립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더니 전원 찬성해 주었다. 이렇게 해서 고 임택순 대위 동상을 청주캠퍼스에 졸업생들의 성금으로 건립하게 되었다.

필자는 6.25한국전쟁 중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하늘에 살다가 하늘에 목숨 바친 고 임택순 대위야말로 무용정신의 표상이라고 판단되어, 동상받침대에 이승만 대통령 친필 휘호 무용을 새겨 영구보존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 친필 휘호 무용은 휘호도 현판도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었다. 궁리 끝에 진해캠퍼스에서 생활한 졸업생들의 앨범을 뒤져보았더니 무용현판을 배경으로 한 사진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필자는 사진 속의 무용을 전자현미경으로 복사해서 동상 받침대에 새겨 영구보존토록 했다. 원래 고 임택순 대위 동상은 박물관 앞에 세웠으나 2010년에 현 위치로 이전되었다.

V. 공사십훈탑 건립경위

공사십훈탑은 공군사관학교가 서울캠퍼스에서 청주캠퍼스로 이전할 때 고 임택순 대위 동상과 같이 공사출신 동문들의 성금으로 건립되었다. 필자가 고 임택순 대위 동상건립을 추진할 때 동상건립을 담당했던 조각가가 찾아와서 우연한 기회에 독수리모양의 현무암을 구했는데, 사관생도회관 앞 광장에 세우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왔다. 필자는 독수리모양의 돌판만 세우는 것은 의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독수리 앞가슴에 사관생도의 생활 규범인 동시에 성무인의 영원한 실천가치인 공사십훈을 새겨서 세우도록 했다. 그리고 공사십훈탑 건립비용은 고 임택순 대위 동상건립기금 일부를 할애하도록 하였다. 청주캠퍼스에 세워진 고 임택순 대위 동상과 공사십훈탑을 국고지원 없이 졸업생들의 헌금으로 세웠다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VI. 무용에 담긴 뜻

무용이란 무예(武藝)와 용맹(勇猛)을 나타내는 말로 싸움에 임해서 용맹스러움을 뜻한다. 무용은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숭고한 사명을 맡은 군인이 갖추어야 할 가장 귀중한 정신적 덕목이다. 중국의 사기(史記)에 강의이무용(剛毅而武勇)이라고 했다. 즉 강직하고 굳센 정신이 무용이라는 뜻이다. 무용은 이 한 몸 바쳐 나라를 지키겠다고 결심하고 군인의 길을 택한

우리 성무인이 영원히 계승 발전시켜야 할 지고지순한 정신적 가치다.

무용의 무(武)자는 일반적으로 군(軍:Military)을 의미하나 한문자 무의 원 뜻은 전쟁을 멈추게 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무(武)자는 지(止:멈춘다는 뜻)와 과(戈:창이라는 뜻)의 합성어로 전쟁을 멈추게 하고 평화를 수호한다는 뜻이 담겨있다. 현대어로 풀이하면 무의 근본 뜻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전쟁억제개념이다. 손자(孫子)는 ‘백전백승 비선지선자야(百戰百勝 非善之善者也) 부전이 굴인지공자(不戰而屈人之共者) 선지선자야(善之善者也)’라고 했다. 즉 백 번 싸워 백 번 이기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그러나 억제(抑制)가 실패해서 전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필승의 개념도 내포되어 있다. 손자는 병귀승(兵貴勝), 즉 전쟁을 승리하는데 가치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용(勇)이란 불굴의 투지와 위험을 당해서 겁내지 않음을 말한다. 중용(中庸)에 지인용삼자 천하지달덕야(智仁勇三者 天下之達德也)라고 했다. 즉 지(智:슬기), 인(仁:어짊), 용(勇:굳셈) 세 가지는 동서고금을 토하여 사람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덕목이라는 뜻이다. 또 맹자는 지와 인과 용을 무인삼덕(武人三德)이라고 했다. 그리고 논어 등 고서에 지자불혹(智者不惑:지혜있는 사람은 미혹당하지 않는다) 인자불우(仁者不憂:어진 사람은 우환을 만들지 않는다) 용자불구(勇者不懼:용감한 사람은 위기를 당해 겁내지 않는다)라고 풀이했다. 이 중 용기야말로 군인이 갖추어야 할 가장 귀중한 덕목이다. 용기가 없으면 평화를 지킬 수도 없고 또 싸움에서 이길 수도 없다. 6·25한국전쟁 당시 미국공군 F-86전투기조종사들은 멀리 압록강상공까지 출격해서 공산군 MIG전투기와 공중전에서 승리함으로써 한반도상공의 제공권을 확보하고 나아가 6.25한국전쟁을 승리로 종결짓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당시 미국공군 F-86전투기조종사들의 모토가 ‘No guts No glory’(용기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이었다.

무용은 비록 공군사관학교 교훈으로 더 이상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공군사관학교의 전통이며 사관생도훈육의 기본이다. 무용정신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의(義)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살신성인(殺身成人)의 군인정신으로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의 훈육지표인 동시에 우리 성무인의 영원한 생활신조이다.

VII. 공사십훈에 담긴 뜻

공사십훈은 사관생도들이 장차 장교가 되어 부대를 지휘할 때 갖추어야 할 필수덕목이요 성무인의 영원한 정신적 실천가치(實踐價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 | |
|-----------------|------------------|
| 1. 용의단정(容儀端正)하라 | 2. 청렴결백(淸廉潔白)하라 |
| 3. 성심복종(誠心服從)하라 | 4. 책임완수(責任完遂)하라 |
| 5. 신의일관(信義一貫)하라 | 6. 공평무사(公平無私)하라 |
| 7. 침착과감(沈着果敢)하라 | 8. 신상필벌(信賞必罰)하라 |
| 9. 술선수범(率先垂範)하라 | 10. 은위겸비(恩威兼備)하라 |

1. 용의단정(容儀端正)하라는 머리위에서 발끝까지 단정한 용모를 갖추라는 뜻이다. 청결하고 단정한 용모는 군인이 함양해야 할 무용정신의 외적표현이다. 고사성어에 신언서판(身言書判)이란 말이 있는데, 이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네 가지 조건, 즉 신수(용모), 언변, 문필, 판단력 중에 첫 번째가 신변(용모)을 단정히 하는 것이다.
2. 청렴결백(淸廉潔白)하라는 군인은 세상의 물질만능주의와 배금사상에 물들지 말고 부정부패의 유혹을 과감하게 물리치라는 뜻이다. 군인이 위국헌신의 숭고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명예와 금지를 존중해야지 물욕에 넋을 잃어서는 안 된다.
3. 성심복종(誠心服從)하라는 군인은 필요 시 이 한 목숨을 바쳐 나라와 거례를 지키는 숭고한 사명을 부여받았으므로 사명완수를 위해 명령에 절대 복종하라 뜻이다. 그리고 타인의 강요에 의한 타율적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정성을 다해 복종하는 것이 성심복종이다.
4. 책임완수(責任完遂)하라는 군인은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으므로 군인의 책임완수 여부에 국가의 존망과 민족의 사활이 걸려 있다. 군인에게 책임완수는 생명처럼 중요한 절대가치이며 의무이므로 부여된 책임을 완수하라는 뜻이다.
5. 신의일관(信義一貫)하라는 모든 언행에 믿음과 의리를 일관되게 지키라는 뜻이다. 신의는 전우애의 원천이며 부대를 화목과 단결로 이끄는 원동력이다. 군대 지휘관이 신의가 없으면 부하들이 따르지 않는다.
6. 공평무사(公平無私)하라는 모든 일을 편견과 사심을 버리고 공평하게 처리하라는 뜻이다. 공평무사는 군대지휘관이 부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는데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품성이다.
7. 침착과감(沈着果敢)하라는 매사를 경거망동하지 말고 심사숙고 후에 침착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일단 결정한 사항은 과감하게 실천하라는 뜻이다. 군대지휘관은 의사결정자(Decision Maker)이므로 의사결정 시 모든 관련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신중하게 최종결심을 해야 하며, 일단 결정한 사항은 우유부단해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과감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다.
8. 신상필벌(信賞必罰)하라는 군대지휘관이 부대기강을 세우기 위해 포상과 처벌 기준을 엄격히 지키라는 뜻이다. 제갈공명(諸葛公明)의 읍참마속(泣斬馬謖) 고사가 신상필벌의 중요한 본보기다.

9. 술선수범(率先垂範)하라는 군대지휘관이 부대를 통솔하는데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부하들에게 바라는 것을 지휘관이 먼저 보이라는 뜻이다. 술선수범은 어떤 미사여구보다 설득력 있는 지휘통솔 수단이다.
10. 은위겸비(恩威兼備)하라는 지휘관이 부하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사랑과 위엄을 겸비하라는 뜻이다. 사랑이 없는 위엄은 권위주의적 독재로 흐르기 쉽고 또 위엄이 없는 맹목적인 사랑은 방종을 낳기 때문에 지휘관은 사랑과 위엄을 겸비해야 한다.

VIII. 당부드리는 말

우리 성무인은 이와 같이 훌륭한 교훈과 훈육지침 아래서 4년간 군인정신을 함양하고 공군장교로 임관한 귀중한 보배들이다. 그럼에도 일부 공사출신의 의롭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 유신 사무관으로 발탁되어 지방행정관서의 책임자가 된 우리 동문 한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치부하려다가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자 해외로 도피하려다가 검거되었다는 뉴스를 접한 우리들은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었다. 또 어떤 장군 출신 동문은 군사기밀을 무기상에 제공하고 대가로 금전을 수수한 일이 들 통나 구속되었다는 보도를 접한 우리들의 심정은 창피를 넘어 비통했었다. 정말 이들은 무용정신과 공사십훈을 제대로 배우고 임관한 성무인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차제에 우리 모두 우리의 영원한 정신적 실천가치인 무용과 공사십훈에 담긴 참 뜻을 다시 한번 음미해보기를 권한다. 그리고 무용과 공사십훈을 우리의 생활신조로 새롭게 가다듬어 우리의 의로운 행실이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음으로써 우리 모교 공군사관학교의 명예가 온 누리에 빛나도록 힘써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이다.

졸업 및 임관 50주년을 맞으며



9기 사관 강민수

요즈음 登山모임에서나 體力단련장에서 同期生들을 만나게 되면 깊게 패인 주름과 검은 점투성이 얼굴에 白髮이 흩날리는 나이 70을 훌쩍 넘긴 老人들이 되어 있어 세월의 無常함을 새삼 느끼게 한다.

지금으로부터 54년 전, 靑雲의 부푼 꿈을 안고 鎮海灣의 바닷바람을 등지고 空士正門을 지나 자갈길을 걸어 올라가 학교본부에서 入校手續을 마친 며칠 후, 92명이 空士 9期生으로 정식 入校宣誓를 한 후 4년간의 生徒生活를 시작하게 되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운명은 청운의 부푼 꿈, 무지갯빛 희망찬 未來 등, 안이하고 사치스러운 생각을 갖기에는 너무도 거리가 먼, 엄격한 生活規範과 한 치의 여유나 한가로움이 허용되지 않는 日課, 그리고 육체적 試鍊이 연속되는 생활이었다.

海兵위탁교육으로 실시된 上南 훈련장에서의 혹독한 基礎 군사훈련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지녀왔던 안이하고 나약한 思考, 習慣 그리고 자유분방했던 行爲들을 송두리째 뽑아 버리기에 충분하였다. 또한 메추리로 부르는 新入生 特別優待(?)제도에 따라 直角보행과 직각식사, 식후 30분을 제외하고는 屋外 활동 시에는 반드시 驅步로 다녀야만 하였다. 담력을 키우기 위한 타이거 트레이닝, 한계상황의 인내와 체력을 요구하는 馬鎭터널 무장구보, 추운 겨울날 長川 앞 바다해수욕 등은 民間人의 땀물을 뺏기기에 충분한 이벤트들이었다.

國軍의 날 행사 시 사관생도들의 퍼레이드는 일반 관중들에게 큰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 퍼레이드를 위해 사전에 얼마나 많은 心血을 기울이는지 밖의 일반인들은 잘 알지를 못한다. 당시 校長이었던 申尙澈 장군께서는 全 生徒들의 웃통을 완전히 벗게 하고 집총행진하면서, 등 뒤의 양쪽

어깨뼈가 밀착되도록 앞가슴을 펴고 기백 있는 자세로 행진하지 않으면 몇 번이고 될 때까지 반복해서 훈련하도록 직접 독려하였다. 또한 턱걸이, 팔굽혀펴기, 텀블링 등 기초체력 및 機械體操 능력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면 휴가마저 제한하여 반복 훈련토록 하였다. 이처럼 생도들을 엄격히 훈련시키고 단련시켰던 교장님에 대하여 空士를 거쳐 갔던 모든 선후배들은, 당시에는 힘들어 했으나 학교를 떠난 후 어느 누구도 교장님을 원망하거나 불만을 吐露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생도들을 강인하고 올바른 참 군인으로 養成하려고 온 情熱을 쏟아 부으셨던 교장님께 대하여 깊은 尊敬心과 감사를 表하고 있다. 勇將之下 無弱卒이라는 말을 실감케 해 주신 분이다.

1학년시절 제일 큰 애로사항은 배고픔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가끔 지급되는 빵을 실컷 먹기 위해 외출 외박을 반납하고 외출자의 몫까지 배부르게 먹고 지나치게 과식하여 응급실에 실려가 4, 5일간 입원한 동기생이 있었다. 또한 외출 시 학교 앞 장천 어촌에 들러 감자와 고구마를 삶아 먹고 포만감을 즐겼던 일, 鎭海시내의 백장미, 진해 제과점 및 진해루 중국집은 외출 시 단골로 들러 주린 배를 채우게 했던 곳이다. 이와 같은 1학년 생활은 空士 弘報를 위해 母校 高等학교를 방문한 선배 생도들의 준수한 용모, 절도 있는 행동, 펄럭이는 망토자락과 세련되고 맛있는 복장에 홀려 空士의 門을 들어서게 된, 순진하고 단순한 入學 動機와는 거리가 먼 진해 캠퍼스에서의 나날이었다.

1958년 12월, 약 1년 반이 넘는 鎭海생활을 접고 서울 大方洞의 새로운 캠퍼스로 이전하게 되었으며, 진해의 假校舍와는 달리 비교 안될 만큼 좋은 시설에서 새로운 생도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새롭게 자리 잡은 학교 환경은 엄청난 일손을 필요로 하였다. 기본적인 日課를 제외한 잔여 시간들은 대부분 연병장 손질, 나무심기, 화단 및 공원 造成, 체육 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정비 작업 등 해도 해도 끝을 모를 정도였다. 그러나 진해 시절의 假校舍 환경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施設인 점을 감안하면 불평만 쏟아 놓을 수는 없었다. 달이 가고 해가 바뀔에 따라 학교 환경도 점차 개선되어 안정된 캠퍼스로 자리 잡게 되었다.

1961년 3월 23일, 드디어 4년 동안의 사관생도 정규과정을 마치고 65명이 졸업과 동시에 공군 소위로 임관, 현역장교로 각 部隊, 각 특기별 部署에 배속되어 말은 바 소임에 전념케 되었다. 초급장교 시절인 1960~1970年代 공군의 상황은 오늘의 공군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劣惡한 근무 여건 및 환경 속에서 無에서 有를 創造하는 자세로, 또한 안 되면 되게 하라는 鬪志로 각 분야에서 所任完遂를 위해 盡力하며 긍지와 보람을 쌓아 나갔다.

지난 50년, 반세기를 돌이켜 볼 때 우리 9期生은 개인별로 현역 복무 기간에 따라 소속부서 및

소관분야의 발전에 寄與해 왔다는 자부심을 결코 잃지 않고 있다. 우리 앞에 다가왔던 난관과 애로 및 시련 가운데서도 주어진 所任을 다하고 명예롭게 現役 服務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54年前 進해 사관학교 입교 후 서울 대방동 캠퍼스에서 졸업 및 임관하게 된 4년간의 생도 생활을 통하여 한계상황에 이르는 정신적 육체적 단련과 學校校訓, 空士十訓 그리고 名譽制度를 중심으로 한 정신적, 도덕적, 윤리적 綱領 및 생활 指針들이 우리들 몸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나를 만들어 준 母校, 空軍士官學校에 충심으로 감사한다.

지금의 老年의 삶을 끝마치는 날까지 자랑스러운 空軍人으로서 성실한 國民의 한 사람으로, 또한 모범적인 市民과 이웃의 한 사람으로, 生死와 苦樂을 함께한 同期生들과의 아름다운 戰友愛를 소중히 간직하고 살아가고자 하며, 우리 空軍의 무궁한 발전과 現役 후배들의 武運 長久를 衷心으로 기원한다.

‘우리들 靈魂의 基地 空軍士官學校여 永遠하라!’



蒼空의 銀河여 永遠하라 〈祝詩〉

－ 空士 9期生 任官 50周年에 부쳐 －



9기 사관 박종권

1957년 겨울과 이른 봄 사이
전국 八道江山에서 모여든 때 묻지 않은
젊은이 아흔일곱 명
護國飛天의 雄志를 가슴에 품고
靈魂의 基地 공군사관학교에 모였으니
그 이름 空士 9期生.
우리는 스스로 銀河會라 이름했다.

하늘은 우리의 일터였고 하늘은 우리의 싸움터였다.
4년의 갈고닦은 한배님 정신으로
각자의 재능을 담아 선택한 길에서
해동청 보라매되었으니
우리를 信念의 鳥人이라고 했다.

하늘에 살아 목숨 바쳐 온지 반 100년
지난날 태양처럼 뜨거웠던 그 忠正의 歲月을 두고
우리는 그 동안의 歡喜를 함께 느끼고
우리는 그 동안의 悲痛함을 함께 나누며
우리는 그 동안의 憤怒를 함께 했다.

오늘 임관 50주년의 긴 歲月속에
대한 공군은 이렇게
宇宙空軍으로 발전하고 성숙했다.

이제 젊음을 다 하늘에 바쳤던 그 긴 歲月이
西山 너머 붉은 太陽이 지고
黃昏의 노을 지어 오듯
우리들 모습에도 저 도도히 흐르는 江물처럼
人生의 落照가 우리 모두를 아름답게 했다.

누가 鳥人의 꿈을 鵬程萬里라 했던가
戰友여, 同志여, 銀河의 女人이 된 戀人들이여!
지나온 그 지난날들의 그리움이 밀려 올 때이면
밤하늘 별무리 되어 수놓는 銀河를 보러 나가자
그 星座 속에 우리의 生命이 살아 있고
그대들 이름이 그 속에 刻印되어 있어려니
이곳이 우리의 故鄉이요 또 무덤,
우리의 永遠한 望鄉이 아니겠는가?

銀河라 이름하여 하나 된 信念의 鳥人이여!
조국의 하늘을 지켜 온 空士 9期生이여!
임관 50주년을 맞는 오늘의 感動과 이 感激을,
어찌 흐르는 강물의 歲月이라고만 하겠는가?
그 긴 歲月은
때로는 거대한 바다의 激浪이기도 했고
때로는 地軸을 뒤 흔드는 하늘의 狂風이기도 했으며
그 苦難과 逆流의 긴 時間이기도 했다.
그리고 오늘처럼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다
廣闊한 宇宙의 空間 위에 남긴 우리들의 50년 발자취는

누구도 지울 수 없는 우리들만의 城砦요
대한 공군 歷史의 한 자락이러니...
온 누리 밤하늘 銀河는
오늘도 내일에도 그 光彩를 더 해 가리라
뒤 따르는 자랑스런 後裔들은
銀河의 은은한 별빛과 별 구름 모습에서
우리가 진정 누구였던가를 새삼 發見하리라

오늘 任官 50년의 紀念式을 맞아
지나간 모든 것을 가슴으로 새롭게 새기고 기억하자.
祖國의 하늘에 바쳤던 그 情熱을
자랑스럽게 간직하자!
그리하여 새로운 아침을 기쁘게 맞이하자.
손에 손잡고 열린 가슴으로 웃으며 노래하자.
“강직한 보라매들 공사 9기생”
“불굴의 보라매들 공사 9기생”
우리가 손수 만들고 외쳤던 하늘의 唱歌를
그러면 은하회의 메아리는 하늘에 살아
永遠하리라.

공사 9기생가

작사 박종권
작곡 현종건

제1절

검은 구름 헤치고 굽힘이 없이
하늘을 지켜 가는 은하를 보라
굳세게 한데 뭉쳐 깃을 펼치어
나라와 겨레 위해 이 몸 바치리
강직한 보라매들 공사 9기생

제2절

조국의 뉘이라 이름 지우고
불같은 일념 위에 살아 온 우리
오늘도 내일에도 영원 하여라
정의와 명예 위해 뭉쳐 나가자
불굴의 보라매들 공사 9기생

우리에게 공군사관학교는



49기 사관 박지연

포근한 아침이다. 하늘은 회색으로 흐리지만 북소리는 흥겹고 눈이 녹아 폭신한 잔디밭에 선 이들의 마음은 이미 구름 위 하늘로 날아가고 있을 듯. 10년 전 나도 저들처럼 잔디밭에 서 있었다. 올해는 사관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합동임관식을 치르면서 공군사관학교의 성무연병장에서는 졸업식만 열린 셈이다. 훈련 기간 동안 성무연병장이 바라보이는 교수부 4층에서는 북소리가 어찌나 가깝게 들리는지 나는 매번 아예 창문을 열어버렸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북과 징의 리듬을 쫓고 있다. 최초 여생도가 있는 기수라는 이유로 49기는 4년 내내 국군의 날에 퍼레이드를 하였다. 그만큼 퍼레이드에 일가견이 있다고나 할까, 전대본부와 대대본부, 각 중대의 분열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지적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는 흠칫 놀라기도 한다. 그런데 부대가 어딘지 모르게 초라하게 보인다. 10년 전에는 중대 내 9열 정대가 기본이었다. 지금은 7열이 전부, 입교인원이 감소하였으니 당연한 결과이다. 졸업생 138명. 외국수탁생도 1명을 제외하면 137명의 59기 생도들이 오늘 졸업을 하였다. 재교생의 규모 또한 4배수 정도이라고 본다면 ‘단출하다’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다.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비록 우스갯소리처럼 누군가 말하듯 애증에 가까울지라도 관심의 한 표현인 것이다. 졸업 후 장교로서 다시 이곳 사관학교에서 근무하기 전까지 나도 표면적인 관심을 갖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음을 고백한다. 졸업 전 비행훈련 1차반에 입과해서 초등, 중등, 고등, CRT 훈련을 마치고 전투비행단에 자대 배치 받아 편대장으로 승급하기까지 앞만 보고 내달렸다. 축구를 하다가 무릎을 다쳐 비행을 잠시 쉬게 되면서 임신과 출산, 위탁교육을 마치고 돌아온 이곳 사관학교에서 생도들을 대하고 처음 느낀 놀라움은 10년 전과 변화된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왜 변한 것이 없

는 생도들에게 실망하였나? 그것은 내가 지나온 생도생활 가운데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수동적인 태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에 부합하는 의무감보다는 행사할 수 있는 권리만을 강조하는 모습들, 그리고 졸업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등이 변화하기를 바랐던 모습이었던 것 같다. 그렇다면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공군사관학교를 60년이 넘도록 관통하는 뿌리와 전통은 무엇인가? 변하지 않는, 아니 변하지 말아야 하는 전통과 뿌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관학교의 존재가치가 부여되는 것이다.

오늘 졸업하는 59기 생도들을 보면서 나는 이러한 생각들을 자꾸만 하게 된다. 다음 주에 계룡대에서 임관하게 될 저 예비소위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나는 먼저 59기 후배들이 푸른 제복을 입고 있는 장교가 너무 적음을 깨닫고 놀랐길 바란다. 5,309명에 달하는 소위들 가운데 공사생도 137명 그리고 100여 명이 채 안 되는 항공대, 한서대 학군장교 모두 합쳐도 240여 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4년간 성무대에 피 끓는 청춘을 바치고 임관하는 사관학교 생도가 학군단에 소속되어 있긴 하지만 분명히 민간 대학생 생활을 마치고 임관하는 장교와 함께 나란히 어깨를 하고 있다는 현실을 아무런 지각없이 받아들이지 않길 바란다. 결국 나의 바람은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추가 도발의 가능성 때문에 군 수뇌부와 주요 정책결정자들의 동선을 고려해서 일회성 이벤트로 합동임관식이 이루어진 것이며, 따라서 이후의 임관행사는 다시 이전처럼 각 사관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출신의 우월성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다. 타 출신을 배타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바로 위에서 언급했던 사관학교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다. 우리의 의식 속에 항상 함께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인정되어지는 무형의 그것, 바로 그것이 사관학교의 존재 가치일 것이다. 공사십훈과 사관생도 신조, 명예관으로 대표되는 성무정신을 바탕으로 정예공군장교를 양성한다는 사관학교의 교육목표가 우리에게 통용되는 것 뿐 아니라, 우리의 밖에서도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내년에도 우리의 후배들은 계룡대에서 임관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이 정해진 일정을 뒤로 하고 1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미국인 참전용사의 장례식에 참석한 일이 기사화된 바 있다. 백악관을 포함한 미 전역의 공공기관에는 종일 조기가 게양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미국인들의 의식 중에 어떠한 이미지가 형성될까,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종종 동일 수준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을 포함시키는 오류를 범한다. 효율성은 경제학에서 중요한 개념이지만 국방이라는 공공재(公共財)는 효율성의 논리로 설명될 수 없다. 국방과 안보 분야는 시장 원리나 효율성의 경제 논리로 충족될 수 없는 공공재화이기 때문에 국가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관학교는 이러한 공공재를 제공하는 군이라는 조직의 중요한 뿌리이다. 4년간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치열한 삶을 통해서 형성된 국가관과 명예

심, 군인정신은 그 자체로 인정받아야 하며 지켜져야 한다.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군이라는 조직 내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담당하는 마지막 보루는 사관학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생도 1학년 첫 외출을 나가기 전 즈음이었던 것 같다. 아마도 지금의 계절이었나 보다. 화창한 주말 오후 내무실원과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훈육관님이 두꺼운 토플책을 두 권 가지고 들어오시더니 공부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그 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대뜸 물으셨다. “너희들 군인이 뭐라고 생각하냐?” 우리는 서로 눈만 껌벅이고 있었다. 갓 입교한 메추리들에게 군인이 무어냐는 질문은 참 어렵고 난감했다. 훈육관님은 매우 카리스마 있는 표정과 어투로 말씀하셨다. “군인은 잔칫날 잡기 위해 키우는 돼지야.” 내가 돼지라니,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때의 기억은 지금도 매우 또렷하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때 훈육관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돼지는 먹어야 산다. 마찬가지로 군인에게 음식은 ‘사기’이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군을 군으로서 기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앞서 사관학교의 존재가치에 대한 인식이 외부적으로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언급을 한 바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현재의 생도대 규모는 너무나 작다. 가입교를 지나 4년간의 생도생활 가운데 몇 명은 다시 민간인의 길을 선택한다. 그리고 임관하여 조종을 하는 경우 15년, 그리고 조종을 하지 않는 경우 5년의 의무복무기간이 주어진다. 국가 방위의 핵심전력이자 공군 전투력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조종사의 전역에 대해서는 일반 사회에서도 관심이 많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5년차에 사회로 나가는 후배들의 숫자가 부쩍 늘었다는 것에 주목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일시적 현상이라면 기우이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문제의 원인에서부터 해결방법에 이르기까지 여러 시각들이 존재할 터이나 여기에서 논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좀 더 큰 차원에서 인식의 전환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사회를 택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대학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사관학교는 단순한 일반학의 지식과 교양뿐 아니라 어느 민간대학에서도 다루지 않는 국가관과 도덕심, 인성과 명예를 이야기한다. 몸에 배어 있는 절도와 규율에 대한 인식은 일반 사회의 평균적 수준보다 당연히 높아야 하고 실제로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모두 군이라는 사회에 속해 있는 군인이지만 보다 넓은 범위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기도 하다. 사관학교에서 배우고 익힌 모든 가르침과 깨달음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최상급의 차원인 국민과 일반 사회 속에서 발현된다면, 군에 남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국가방위라는 고귀한 가치를 수호하도록 하는, 정예장교 육성이라는 커다란 목표와는 분명히 다르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로 인식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인식의 전환을 전제한다면 지금 생도대의 규모는 너무나 작다. 더 많은 사관학교 출신들이 군 안팎에서 뛰어야 한다. 이들이 뛰면서 내는 소리들이 모일 때 공군은 더 단단해지고 나아가 국방은 튼튼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상과 현실은 같을 수 없다. 우리는 현실에 속해 있으나 언제나 이상을 갈망한다. 사관학교는 우리에게 이상이다. 현실과의 괴리에서 오는 상실감이 이상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상을 버릴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사관학교의 존재가치는 부정될 수 없는 것이다.



공군사관학교와 나



61기 사관 최우현

성무제의 뜨거운 열기가 남아있는 생도대, 오늘은 졸업한 선배님들이 사관학교를 방문하는 날이다. 생도들은 선배님들께 학교의 자랑인 성무의식을 보여주기 위해 예복으로 갈아입기에 바쁘다. 하지만 나는 푸른 예복과 하얀 깃털 달린 예모 대신에 푸른 단복을 입고 부츠를 신고 머리를 손질한다. 나는 공군사관학교의 응원리더반인 이카루스이기 때문이다. 다른 생도들이 성무연병장에서 멋진 퍼레이드를 하고 있을 동안 우리들은 오늘 공연을 위한 마지막 리허설과 연습을 해야 한다. 단 10분간의 공연이지만 더욱 멋있고,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많은 시간을 연습한다. 성무제를 포함해 이를 동안 3번째 하는 공연이라서 이카루스 단원들 모두가 많이 지쳐 있었다.

“이번 공연은 총동창회 공연이라서, 10기 20기 선배님들께서 보시는 거니까 힘내서 하자!”라는 단장님의 말씀 중에 총동창회 공연이라는 것이 나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평소 생도나 일반 대학생들 앞에서 공연을 했는데 이번에는 대 선배님들 앞에서의 공연이다.

생도들의 퍼레이드를 포함한 멋진 성무의식이 끝나자 우리도 행사장으로 조금 일찍 출발했다. 아무도 없는 행사장을 둘러보면서 어떻게 입장하고 퇴장할지 미리 맞춰보고, 노래에 맞춰 동선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다. 공연 시작 전, 성무경기장의 텅 빈 관람석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쉬고 있었다. 화려한 단복 때문이었을까? 여러 선배님들이 지나가시면서 우리에게 음료수도 주시고 격려의 말씀도 건네셨다. 선배님들이 쓰고 계신 모자에는 자신들의 기수를 나타내는 숫자가 새겨져 있었다. 평소 내가 생도대에서 볼 수 있는 제일 낮은 숫자는 59이지만 여기서는 ‘1’이었다. 1, 공군사관학교의 시작을 의미하는 숫자였다. 6.25전쟁 때 출격하신 분들이다. 행사장은 말 그대로 공군사관학교의 살아있는 역사였다. 그러다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다. 학교를 졸업하고 몇 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학교에 대한 애정이 넘치시는 선배님들을 보면서, 지금의 나는 학교를 얼마나 사랑하

고 있는지 궁금했다.

바쁜 일과 속에서 불만만 늘어놓진 않았는지, 항상 옷매무새를 신경써야 하고 지하철에는 앉지도 못하는 정복이 불편하다고 느끼진 않았는지, 한 사람의 공군사관학교 생도로서의 내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 1학년 때에는 학교생활에 여유가 없고 워낙 바쁘다 보니 이런저런 생각할 겨를이 없이 지나간 것 같고, 2학년이 되고 나서야 학교와 생활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긍정적인 생각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교내에서 많은 생도들과 같은 공간, 같은 생활을 하다 보니 현재의 상황에 불만스런 말을 많이 듣게 되고, 나 자신도 불만이 생기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았다.

언젠가 경희대학교로 찬조공연을 갔을 때였다. 우리는 모교가 아닌 타 대학교에서 공연을 한다는 사실에 마냥 기뻐다. 그때, 사회자가 우리를 소개하면서 ‘자랑스러운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의 공연’이라고 표현했다. 평소 학교 안에서 생활하면서 바깥 사회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학교 밖에서 공연을 하다보면 사람들은 공군사관생도를 굉장히 멋있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된다. 나를 멋있는 사람, 자랑스러운 생도로 만들어 준 학교에 감사함을 느낀 순간이었다. 그 감사에 보답하고자 우리 학교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공연을 했던 기억이 난다.

이 일을 계기로 학교에 대한 애정이 커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래서인지 요즘은 이 카루스 공연을 할 때는 공군사관학교를 대표한다는 뿌듯한 자부심을 느낀다. 우리의 멋진 응원모습이 사람들에게 공군사관학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 연습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카루스는 학교에 어떤 존재일까? 단순히 학교의 동아리 중 하나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삼사체전에서 공사를 승리로 이끌기 위한 응원을 담당했다지만, 삼사체전이 없어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응원하고 있는 것일까? 그때는 승리를 위한 응원이었다면 지금은 학교 자체를 응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꿔 말하면 학교에 대한 홍보라고 할 수 있겠으며, 오늘 날 홍보의 중요성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우리의 활동으로 사람들에게 우리 학교를 알리고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게 된다면, 그것은 단순한 홍보 이상의 큰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이카루스는 공연을 통하여 열심히 응원하는 것이 학교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홍보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 중에서 제일 좋은 홍보는 생도가 직접 학교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정복을 입은 생도의 모습 그 자체만으로 큰 홍보가 될 수 있고, 생도가 직접 만드는 공사신문도 학교를 알리는 역할이 될 수 있다. 그러고 보면 요즘 각종 대회에서 수상하는 동료 생도들이 무척이나 자랑스럽다. 생도들의 수상으로 학교의 이름과 위상이 높아지고 덩달아 공군사

관생도인 우리들도 품격이 향상되는 느낌을 받는다. 이카루스도 그 중심에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조금 더 연습하고, 공연을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 학교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총동창회에서도 “후배들이 이렇게 멋있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준비했다. 하지만, 대 선배님들 앞에서 위축되었던 것일까? 평소 공연 때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아쉬울 따름이다. 공연이 끝나고 격려의 말을 해주시는 교장님과 박수를 보내주시는 선배님들이 있기에, 공연의 완성도는 부족했을지 몰라도 만족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공연이 전부 끝나고 생활실로 돌아가는 도중 한 선배님이 내게 물으셨다. “학교생활은 요즘 재미 있니?” 그 질문에 나는 자신 있게 “재미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다. 공연하는 것이 재미있고, 우리의 공연으로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보며 보람을 느꼈고, 나의 모교가 자랑스럽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희열을 느꼈다. 선배님들도 이런 후배들이 있고 보람 있었던 생활이 그리워서 학교를 사랑하게 되고 다시 학교를 찾아오시는 것 같다. 나에게도 졸업 후에 10년, 20년이 지나 다시 학교를 찾을 날이 올 것이다.

언젠가 내가 학교를 다시 찾았을 때, 우리 후배들도 오늘 모교를 찾아오신 선배들처럼 학교를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관생도인 지금의 내가 학교를 사랑하고 그 위상을 드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배님들께서 60여 년 간 쌓아 오신 공군사관학교의 모습, 올바르게 멋있으며 신사다운 생도의 모습을 후배들에게 계속 물려주고 싶은 나도 점점 선배가 되어 가고 있나 보다.

특집 Ⅱ

올바른 국방개혁을 위한 제언

언론/토론회 발표문

- 합참의장 힘 너무 세지면 정치권이 군의 눈치를 볼 수도
(국방부 설명회)
- 거꾸로 가는 군 지휘구조 개혁
(공군전우회장 김홍래, 한겨레 신문)
- 팔다리 따로 노는 군대 만들 텐가?
(전 공군참모총장 이한호, 주간동아)
- 국방개혁안에 대한 평가
(공사총동창회장 이선희, 평화토론회)
- 국방개혁안, 해·공군 유난히 반발 왜?
(전 공군참모총장 이한호, YTN)

국방개혁을 위한 기고문

- 군 원로들은 올바른 개혁을 원한다 / 김홍래
- 미래전에 대비한 한국군의 상부지휘구조 / 이한호
- 합동군사령부 신설보다 합참체제 보완이 바람직 / 이문호
- MB정부의 국방개혁, '독재군대'를 추구하는가 / 이선희

〈언론/토론회 발표문〉

합참의장 힘 너무 세지면 정치권이 군의 눈치를 볼 수도

－ 예비역 장성들의 거센 비판 직면한 국방개혁 307 계획 －

국방부 설명회

(중앙선데이 2011-03-27)



‘국방개혁 307계획’에 대한 ‘원 포인트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3월 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 돼 ‘307’이 붙은 이 계획은 73개 과제를 담고 있다. 그런데 유독 하나, ‘합참 개편’에 대한 반발이 갈수록 심해진다. 예비역 장성들은 김관진 국방장관을 야유하고, 영관급 현역들은 청와대에서 이 작업을 주도하는 김태효 대외협력비서관에 반발했다. 핵심은 ‘합참의장 권력 강화’다. 3월 23일 오전 11시쯤 국방부 대회의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국방 정책 설명회’에 재향군인회·성우회 회원인 ‘옛별’ 50여 명이 모였다. 육군 20여 명, 해·공군 20여 명이었다. 6·25 영웅 백선엽 장군도 나왔다. 장관은 307계획을 길지 않게 설명했다. 질의에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급랭했다. 예비역들은 ▶합참 개편 자체 ▶절차 ▶개편의 실효성을 짚었다. ‘한 시간 설명 뒤 점심’으로 예정됐지만 2시간 30분 비판과 질타가 이어졌다. 해·공군만이 아니라 육군 출신인 전 합참의장, 전 연합사 부사령관도 가세했다. 가히 ‘별들의 반란’이었다. 본지는 익명 참석자의 메모와 이문호 공군전우회사 무총장의 회의 기록을 입수해 재구성했다. 장관의 말이 끝나자 연합사 부사령관(4성 장군) 출신인 장성 장군(육사 21기)이 나섰다. 그는 군 개편을 ‘통합군제 개편’으로 규정하고 “통합군제는 나치와 일제, 러시아·중국·북한의 방식이다. 1인에게 무력이 집중된다. 권력이 집중되면 정치가 군의 눈치를 본다.”고 했다.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 정부 때 군은 ‘818 군 개혁’으로 군정권과 군령권을

분리했다. 군정권은 인사를 포함한 일반 지휘권, 군령권은 작전 지휘권이다. ‘총을 지휘하는 대장’과 ‘사람을 지휘하는 대장’을 각각 의장과 각 군 총장으로 나눈 것이다. 또 군사정권을 등장시킬 수 있는 ‘거대 군’을 막기 위해 당시 뜻있는 군인들이 온몸으로 노력한 결과다. 그런데 이번엔 거꾸로다. 의장에게 군정권과 각 군 총장에 대한 작전지휘권(군령권)을 준다. 군정·군령권이 거의 통합된 것이다. 국방부는 이를 ‘전투력의 효율적 통합’으로 설명하지만 쿠데타 걱정을 해온 예비역들은 아니라고 한다. 안병태 전 해군참모총장이 장 장군의 발언을 이었다.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면 안 된다. 현 개혁안은 각 군의 전문성을 결여시킨다. ’73년 해병대와 해군이 통합됐는데 지금까지 문제”라고 했다. 이석복 예비역 장군(육사 21기)은 “개혁안에 따르면 합참의장의 기능이 16개나 돼 지나치게 힘이 집중돼 있다”고 했다. 이성호 전 해군총장은 “현 합참 체제가 뭐가 잘못됐는가. 합동성의 기본은 지휘부의 능력에 있다”고 했다. 김창규 전 공군총장은 “G20 국가는 통합군제를 안 쓴다.”는 요지로 말했다. 김종환 전 합참의장(2003~2005)은 “합참은 지금도 강력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내가 합참의장을 해보니 충분한 권한이 있었다. 의장이 인사권을 가지면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현역 군인들이 국방안보를 정치적으로 잘못 판단한다. 해·공군만 아니고 육군도 예비역도 반대다. 군 이기주의로 몰지 말라”고 했다. 3월 7일 개혁안 보고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예비역의 압력을 받지 말고 자군 위주로 생각하지 말라’는 말을 한 데 대한 반발같았다. 그는 “개정안에 따르면 합참의장의 지휘 폭이 과대해 나보고 의장을 하려면 못할 것 같다.”고도 했다. 역사의 아이러니다. ’88년 당시 중령이던 김 장관은 ‘818 기획단’에 소속돼 조영길, 이석복, 조건환 예비역 장군 같은 선배들과 함께 ‘반통합군’ 개혁안을 만들었다. 그런데 23년 뒤 외나무다리에서 마주친 것이다. 이한호 전 공군총장은 “2012년은 안보상으로 가장 취약한 시기이고 2015년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준비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 이런 때 군의 근본인 군제를 왜 바꾸려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조영길 전 국방장관은 “나는 818 개혁의 책임을 맡을 때 통합군은 안 된다고 했다. ‘옷을 벗을지도 모른다’는 말도 들었다.(군 관계자는 “보안사가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공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개혁안의 출발점인 천안함 사태의 원인 진단도 비판 받았다. 김 전 의장은 “문제는 합동작전 능력, 지휘능력의 결여이지 제도가 아니다”라고 했다. ‘합참의 무능과 무지의 소치(안 전 총장)’ ‘사람이 잘못된 것(장성 장군)’이란 말이 나왔다. 위법성도 거론됐다. 안 전 총장은 “이런 계획은 청와대 보고 전에 해야 한다. 이미 확정된 뒤 이런 자리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절차가 생략됐다. 위법이다”라고 했다. 김태호 대외협력비서관은 22일 ‘3월 7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확정된 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개편을 하려면 각 군 참모총장의 군무회의를 거치고 국군 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없었다. 그런데 확정된 듯이 말하면 위법이란 것이다. 이갑진 전 해병대사령관은 “’73년 해병대 해산은 국군조직법의 변경 없이 해 나중엔 법을

수정했다”고 했다. 불편해진 듯 김 장관이 끝내려 하자 김종환 전 의장이 “합참의장을 지낸 사람의 말도 안 들느냐”고 했다. 김 전 의장의 발언 뒤 장관이 다시 “그만 질문하고 식사하자”고 했지만, 이번엔 조영길 전 국방장관이 “밥은 집에서 먹어도 된다. 할 말은 다 하자”며 나왔다. 마무리에 나선 장관이 “우리의 군제가 (패전 국가인) 일본·독일처럼 느슨한 합동군제”라면서 “개편안은 미래전에 대비하고, 군의 혼란을 가져오지 않으면서 합동성을 강화할 수 있는 안”이라고 했다. 그가 “통합군제가 아니다”라고 하자 거의 모든 참석자들이 “에이~, 우~우~”라고 했다. 오후 두 시였다. ‘307개편’에 대한 반발은 예비역만이 아니다. 전날 22일 서울 전쟁기념관에서는 국방개혁 세미나가 있었다. 김태호 대외협력비서관이 왔다. 김 비서관은 “자군 이기주의를 떨치고 원로와 선배들이 군의 변화를 격려해야 한다.”고 인사말을 했다. 그런데 이한호 전 공군총장이 군 구조 개편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307개편’을 비판하자 김 비서관 뒤로 앉아 있던 현역 영관급 참석자들이 두 차례 요란하게 박수를 쳤다. ‘쿠데타 가능성이 있다’는 플로어의 지적에도 박수를 쳤다. 1월 말 계룡대에서는 국방부 국장의 대령급 상대 ‘합동군 설명회’가 있었는데, “통합군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다. 또 1월 초 대령급 이상 ‘합동군 설명회’ 뒤에도 해·공군 위주로 반발이 심각하게 제기됐었다.(중앙SUNDAY 1월 9~10일자) 한 예비역 장성은 “성우회는 23일 발언들을 취합해 출판하면서 조직적인 움직임을 벌일 것”이라고 귀띔했다. ‘강력한 군권’을 왜 예비역 장성들이 반대하는지 이한호 전 공군총장에게 물었다.

– 왜 반대하나.

“문민 국방장관 때 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가정해보라. 군 경력 2~3년인 국방장관은 40년 군 경험자인 합참의장의 힘을 못 다룬다.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걸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현재 군 개편을 다루는 청와대 실무 책임자와 대통령의 군 경험은 전무하다. 818개편 때와 정반대다.)

– 다 천안함 같은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아닌가.

“천안함은 합동성 문제도 상부 지휘구조 문제도 아니다. 군의 정보분석 능력, 위기의식, 상황 판단 능력, 전력운용에 대한 결심, 응징 의지 부족이 문제다.”

– 현재 합참으로도 잘할 수 있나.

“그렇다. 합참의 결심과 지시만 있었다면 보복 작전을 할 수 있었다. 당시 출격했던 F-15 대대장은 ‘F-15가 울고 있다. 합참 승인만 있었으면 도발 원점을 박살낼 수 있었다’고 했다.”

– 그럼 뭘 해야 하나.

“합동성 강화다. 합참의장, 작전본부장, 작전부장, 작전처장이 모두 육군인데 어떻게 합동성이 나오나. 당장 육·해·공군으로 균형 편성된 참모진을 데리고 작전해야 한다.

거꾸로 가는 군 지휘구조 개혁

(한겨레 2011. 03. 06)

공군전우회장 김홍래

지난 3월 2일 언론에 보도된 국방개혁안은 통합군제 추진 때 야기될 수 있는 위험적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 최초의 개혁안을 교묘하게 현재의 명칭으로 살짝 바꾼 실질적인 통합군사령부 안이다.

특정 군의 40년 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군정과 군령을 일원화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상부 지휘구조 안에 해·공군의 의견을 일절 반영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금명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올해 안에 추진한다고 한다.

현대전은 무기체계의 발달로 전선을 형성하여 소총으로 싸우던 보병 위주의 전투에서 해·공군이 전쟁 억제와 전쟁 승리의 주역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군은 불행하게도 여전히 지상군 위주의 의사결정체제로 운영되어 합동성을 저해하고 있다. 국방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군 구조 개혁안은 결코 합동성을 보장할 수 없고, 오히려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지난 번 서해 도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은 우리 군의 이완된 대비태세와 해·공군 작전을 모르는 합참의장과 육군으로 구성된 주무 참모들의 전문성 부족이 주원인이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교묘하게 합동성 부족이 주원인이라고 언론을 통한 여론몰이로 국민을 호도한다. 합동군사령부라는 명칭 아래 군정과 군령을 합참의장이 함께 갖는 실질적인 통합사령부안을 만들었다. 합동참모부에서 작전을 운영하고 전력을 증강하는 의사결정라인에 해·공군은 한 사람도 없다. 처·과장, 부장, 본부장, 의장이 모두 육군이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안보라인도 모두 육군 출신이다.

그런데도 육군은 해·공군이 육군 작전을 모르며 전문성이 없다고 하고, 육군이 해·공군 작전을 모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는데, 큰 문제다. 현대전에서 3군의 균형발전 없이는, 또한 해·공군 작전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승리할 수 없다. 국방개혁은 합동성을 가장한 통합군사령부가 아니라

합동작전이 가능하도록 해·군을 적재적소에 보임해야 한다. 또 전략 및 작전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구비하여 균형 있는 전력구조를 갖추는 것이 과제다.

향후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은 서해 5개 도서와 공중에서의 국지전 형태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무기체계는 해·공군력이 될 것이다. 국방부는 스스로 안보에서 앞으로 2~3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면서 2015년의 전시작전권 이양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시기에 군의 화합과 단결을 저해하는 개혁안을 각 군의 공감대 없이 왜 만드느지도 이해가 안 된다.

또한 군의 힘을 바탕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독재국가나 소군(小軍)에서 운영하고 있고, 문민우위 정책을 운영하는 선진 민주국가에서 사용하지 않는 실질적인 통합군사령부를 왜 해·공군의 의견 수렴 없이 비밀리에 비공개로 성급하게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안보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개혁은 전시작전권 인수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합동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의 합참 의사결정구조 및 전력배비 등을 보완하여 3군의 균형발전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 군의 근간을 바꾸는 상부 지휘구조 개편은 현재 안보상황과 미래의 전략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시간을 갖고 각 군과 군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선진국형의 군구조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국가와 군을 사랑하는 예비역들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바란다. 국방부의 군개혁안이 헌대전에 부합하고 합동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공군의 의견도 충분히 청취하고, 군 원로들의 의견도 직접 들어보실 기회를 갖기를 기대한다.

팔다리 따로 노는 군대 만들 텐가?

- 국방 선진화 군 개혁 역행 설득력 상실 합동성 강화는 사람 아닌 시스템 문제 -

(주간동아 2011. 04. 04)

전 공군참모총장 이한호



“원래 서해북부 사령부는 군단급으로 해병대 사령관 예하에 육군 1개 사단,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 공군 2개 비행대대를 두는 것으로 구상했으나, 육·해·공 3군의 이기주의와 저항 때문에 결국 축소됐다.”

최근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책임을 맡았던 관계자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이 짧은 말에 ‘국방 선진화를 추구한다’는 우리 군의 현주소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과연 해병대 사령관 예하에 육·해·공 3군의 각 부대를 두자는 정부 구상은 현실을 얼마나 제대로 반영한 것일까.

3軍 이기주의? 현실 반영 못해

먼저 남북 대치 상황에서 중요 역할을 맡고 있는 공군 전력부터 들여다보자. 우리 공군의 전력은 한마디로 ‘중앙집권적 통제, 분권적 임무 수행’ 구도로 운용된다 하겠다. 공군작전사령부는 제주

도에서 백령도까지 전국적으로 분포된 레이더 기지와 공중 조기 경보기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토대로 방공식별구역으로 진입한 모든 항공기의 국적, 기종, 고도, 속도, 방향 등을 파악한다. 식별이 어려운 항공기가 포착되면 미식별 항적 혹은 적성 항적으로 구분해 우리 요격기를 출격시킨다. 특히 남쪽으로 향하는 북한 공군기가 포착될 경우, 휴전선 혹은 NLL 북쪽 40~50마일 지점에서부터 우리 전투기를 출격시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 이곳에는 인공위성, 정찰기에서 들어오는 영상, 신호, 통신정보도 모인다. 공중전이 부각되는 요즘의 전시 상황에서 공군작전사령부의 정보가 곧 군 전체의 전시 대응 전략의 핵심인 셈. 그래서 전시 상황에서는 한미 공군 전력뿐 아니라, 미 해군과 우리 해병대의 항공 전력까지 공군에서 작전을 통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병대가 이런 항공 전력을 예하에 두고 운영할 수 있을까. 이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해병대에는 다양한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공군 전력 체계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설령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공군 전력 체계 일부를 해병대사령부에 만든다고 해도 운영이 쉽지 않다. 어느 선에서 공군과 해병대가 임무 분담을 해야 할지 판단부터 흐려진다. 해상 표적 공격 시에는 선박의 종류에 따라 선택해야 할 무장이 다르다. 지상 표적 역시 넓은 지역에 분산된 것인지, 혹은 이동 중인 것인지, 아니면 지하에 견고화된 지역인지에 따라 출격 항공기가 달라진다. 장착해야 할 폭탄과 미사일도 따로 구분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해병대가 주도적으로 전시 대응을 하는 것은 무리다.

육·해군의 전력도 마찬가지다. 이 문제는 해병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3군이 모두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시키는 대로 따라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 유기다. 일각에서는 이런 3군의 반대를 자군 이기주의,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한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와중에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각 군의 작전사령부 지휘 체계 구조를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토, 영해, 영공 방위의 책임을 맡는 각 작전사령부를 모두 폐지하고, 각 군 참모총장이 작전사령관의 임무를 함께 수행토록 하겠다는 것. 또한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모두 합참의장 예하에 소속시킨다는 내용도 있다. 군정(軍政), 군령(軍令)을 일원화하고 합동 기능을 강화해 효율적인 군 운영을 도모한다는 취지인데,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는 해병대사령부에 육·해·공군 전력을 예속시키겠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

한 사람에게 권력 집중 탈날라

합참의장 한 사람 밑에 3군을 모두 두고 작전 지휘권, 인사권, 군수권 등 군 권력을 준다고 해서 합동성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작전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인사 등 전시 이외의 사안에 많은 시간을 허비할 위험성이 크다. 일선의 작전 사령관들은 전시 정보를 파악하고, 합참과 연합사로부터 하달되는 작전 업무까지 수행해야 한다. 하루 24시간이 너무 짧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진정으로 합동성을 강화하고 싶다면 각 군의 전투 능력을 효과적으로 결합시키는 시스템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우리 군 지휘관에게 필요한 것은 권력이 아니라, 시스템 관리 능력이다.

국방개혁 307계획 주요 과제		
목표	과제	내용
상부구조 개편	합참의장에겐 일부 군정권 부여	합참 근무 장교에 대한 인사 보직 징계 등 권한 부여
	작전 지휘 일원화	합참의장이 각 군 참모총장 작전 지휘
	장성 수 감축	2020년까지 15%(약 60명) 감축
3군 합동성 강화	의사결정 구조 개선	합참 의사결정에 육해공 2:1:1 참여 보장
	각 군 대학 통합	합동 군사대학 창설
	각 군 사관학교 통합교육 강화	학교별 8주 순환 교육
	국군군수사령부 창설	3군의 장비·물자·탄약 통합
	국군교육사령부 창설	영관급 이상 교육 통합
현존 위협 대응전 강화	서북 N.L. 지역 대비 태세 강화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
	비대칭 위협 대비 능력 강화	잠수함 및 정사정보 대응 전력 구비
	사이버 위협 대비 태세 강화	전자파 공격 방호기술 확보
	특수전 위협 대비 태세	보강 전담부대 구축

합동성을 강화하고 군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미군과의 연합작전체제가 잘 갖춰져야 한다. 미군과의 작전 통제나 협조 관계는 사령부 대 사령부로 이뤄진다. 만일 작전사령부를 해체하면 각 군 본부가 미군 사령부와 협조해야 하는데 그 모양새가 별로 좋지 않다. 공군의 경우라면, 미군 3성 장군 사령관 아래에 4성인 공군총장이 부사령관으로 자리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다. 게다가 당장 각 군 본부에 지휘·통제·통신 수단을 마련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한 사람의 군인이 군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면 국가 비상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합참의장이 국방부 장관과 군 운영을 놓고 의견을 달리하면 어찌고, 국군 통수권자와 의견 충돌이 빚어지면 그때는 또 어쩔 것인가. 구(舊) 공산권 국가나 이스라엘 등을 제외한 선진국들이 군정과 군령을 분리한 합동군제를 택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런데 우리 군은 권력을 한 사람에게 쥐여 합동성이 강화된다는 논리를 편다. 시대에 역행하는 셈이다.

현재 추진 중인 방안대로 군 조직을 개편하려면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돼야 하고, 국방 관련 대통령령과 각 군의 규정까지 바뀌어야 한다. 모든 작전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뿐 아니라, 지휘통제통신망을 각 군 본부를 거쳐 합참으로 가는 시스템으로 변경

해야 한다. 각 군사 전문가는 2012년을 우리 안보의 최대 취약기라고 입을 모은다. 전시작전권 전환이 2015년으로 늦춰진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시기에 군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한 시도로 보인다. 합참의장의 작전지휘 권한을 대폭 강화한 정부의 군 개혁 방안에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개혁안에 대한 평가

(평화토론회 2011. 4. 21)

공사총동창회장 이선희

인 사

공군 예비역 이선희입니다. 현재는 카이스트 초빙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 원로 선배님들 앞에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 개혁안에 대해 국방혁신의 전문가이신 권태영 박사님의 고견을 잘 들었습니다.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국방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방개혁 추진의 어려움을 다차원적 위협에 대한 대처와 예산의 제한성 및 조직 우선주의 팽배라고 보고 과제의 구체성이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국방개혁의 가장 중요한 기본과제는 전투형 군대로의 대변환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토 론

개인이나 군이나 국가를 막론하고 혁신을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변혁의 시대에 살고 있다. 국방혁신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권 박사님께서 첫 페이지에서 언급한 대로 처음에 잘 입안한 것처럼 보이는 개혁안에도 공론화 과정이나 구체화 과정에서 미처 생각지 못했던 미흡한 점이 노출되기 마련이다.

나도 다른 군인처럼 제가 몸을 담았던 공군을 사랑하고 군을 사랑하고 국가를 사랑한다. 자기의 출신 군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좋은 것인데, 개혁안의 공론화 과정에서 각 군의 전문가들이 올바른 개혁을 위해 전문가적 입장에서 지적하는 내용을 각 군의 집단 이기주의라고 매도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소수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다수세력의 횡

포와 정당한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편향된 시각이다.

이슈언급

- 문제 진단에 대하여

문제의 진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개혁의 방향이 흐트러져 질척거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40년 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국방개혁을 시도하여 왔으나 제대로 된 절차와 방법을 거쳐 개혁을 한 것은 현 합참조직을 탄생시킨 818계획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때 나는 공군대령으로 전략연구위원회와 818사업단에도 참여하여 당시의 개혁과정을 생생하게 지켜보아 왔다. 그때도 초기에 통합군의 시도가 있었으나 종래에는 합동군 형태인 현재의 합참 조직을 탄생시켰다. 일각에서는 그때의 통합군 시도가 불발된 것이 해·공군의 반대 때문이었다고 오도되고 있으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1인의 현역 장군에게 전군의 군정 군령의 지휘권을 주는 것에 대한 정치권의 우려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다.

현 상부 지휘구조는 완벽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많은 시스템이다.

문제는 원래 구상하고 설계된 대로 인력을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지, 시스템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상부 지휘구조를 개혁하려면 현 합참에 대한 조직 진단이 선행되어야 하고,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문제의 진단이 정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동성만을 최대의 화두로 삼으면서, 모든 것을 통합만 하면 합동성이 강화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합동조직의 운영이 문제인지 제도가 문제인지를 보아야 한다. 818개혁 시 육·해·공군의 주요 직위 비율을 2:1:1로 하는 것과 동일 군이 합참의장을 연임하지 않도록 하자는 안에 대해서, 모두 명분상으로는 동의하면서도 그 당시 국방의 의사결정자들이 법제화를 극구 반대하였다. 법제화가 되지 않음으로 인한 결과는 참담하였다. 모두가 아는 대로 현재까지 합참의장은 1인을 제외하고 전부 특정 군 일색이고 합참의 주요 보직은 대부분 특정 군으로 채워져 있다. 그리고 육·해·공군의 기능 조직(정보, 보안, 통신, 수송, 시설, 의무, 복지 등)들을 기회 있을 때마다 통합해 가면서 합동부대를 만들고 전부 특정 군으로 지휘관을 보임시켰으며, 이제 아직 통합이 안 된 남은 기능인 교육과 군수도 통합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육·해·공군의 병력비도 818 군 개혁 이후 20여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도 전형적인 가난한 후진국 형태인 8 : 1 : 1의 비율에서 변동이 없다. 무기 체계의 건설 면에서도 공군의 예를 보면 500대 공군에서 400대 공군으로 후퇴하고, 향후 획기적

인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300대 공군으로 감소하여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 국방부, 합참, 합동부대 전부를 특정 군 일색으로 채워 놓고 상부지휘구조 때문에 합동성이 발휘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사건은 합동성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합참의장의 권한이 부족해서도 아니며, 합참의 구조가 잘못되어서도 아니고 전투력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정보부족, 기습도발에 대한 대비태세 미흡, 그리고 국토가 유린되고 있음에도 교전규칙의 작은 개념에 익숙해 있었던 그때까지의 사고의 패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전혀 예기치 못한 허를 찔려서 일어난 사건을 두고 합동성을 최대의 화두로 삼고 있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현장 전투요원들은 참으로 침착하고 용감하였다. 만약 합동성이 문제가 되었다면 지금까지 합참의장의 정당한 작전 명령을 수행하지 않은 사례가 한번이라도 있는가 묻고 싶다. 과문해서 들은 사례도 없지만 있다면 군율로 다스리면 된다.

많은 불공정한 환경 속에서도 평생을 국가와 군을 위해 살아온 사람들의 순수한 우려의 소리를 소수집단의 이기주의로 거론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다. 바꾸어야 될 것은 소홀히 하고 바꾸지 않아야 할 것을 서두르는 것이 문제다. 합참의 운영 행태와 사건의 문제 진단부터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것이 일의 순서다.

- 상부 지휘구조에 대하여

상부지휘구조 개혁안을 두고 ‘합동군이다, 아니다, 통합군이다.’라고 해서 참 헛갈린다.

지금 개혁안의 핵심은 각 군종의 총수인 참모총장을 합참의장의 군령 지휘계선에 소속시키고, 각 군 본부와 작전사를 통폐합하는 것과 합참의장에게 작전지휘에 필요한 군정권(작전지휘와 관련되지 않는 군정이 어디 있단 말인가?)을 주는 것이다. 즉 현역 1인 장군에게 전군의 지휘권을 맡기는 엄청난 작업이다. 현재와 미래의 전장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합동성을 강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과연 1인 현역 장군에게 전군의 지휘권을 맡기는 통합군 구조로 가기만하면 정말 합동성이 강화된다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합동성은 강화되지도 않으면서 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전군의 지휘권을 1인의 현역에게 주고 부대를 통폐합하면 병력과 예산을 대폭 감소시키면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 일견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조금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머리를 흔들게 만든다. 총장을 합참의장 지휘계선에 위치시킴으로써 작전계선은 더 늘어나고 합참의장과 각 군총장의 업무 폭은 지금보다 훨씬 과다해져, 군정 군령 어느

쪽에도 전념할 수 없는 어정쩡한 상태로 만든다. 그러한 업무공백을 보완하려니 계속 이상한 형태의 편법들(공군작전의 전평시 작전지휘권, 합참 육군대장 직위 신설 등)이 동원된다. 현 고위직위(참모차장, 작전사령관 등)는 이름만 바꾸어서 존속시키면서 오히려 의장·총장 보좌를 위한 고위직을 더 신설하는 안들이 불거져 나온다.

가장 심각하게 우려되는 것은 각 군종(특히 해·공군)의 전문성이 훼손된다는 것이다.

기업의 구조조정과 군조직의 통폐합은 유사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전혀 다르다. 기업의 구조조정은 통합되기 전 기업의 전통과 정체성을 유지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각각의 정체성을 없애는 것이 맞다. 그러나 군조직은 각 군종의 정체성의 상실로 전문성이 훼손되면 군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사라진다. 어떤 사람은 통합을 하면서도 전문성을 보장하면 된다고 하지만, 전문성은 말로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법으로 강제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전문성과 조직의 통합은 양립하기 힘들다.

서로 다른 A,B,C 3개 기업이 통합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힘이 센 A기업 사람들만 살아남는다. 우리의 합참과 합동부대 전부가 이러한 모양새이다. 해군과 해병대가 통합되어 한 식구가 된지 오래되었지만 타군보다 협조가 더 잘된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현재도 국방부 합참의 주요직위, 합동부대 지휘관 전원이 특정 군으로 채워져 있는데, 추진되는 개혁안은 이러한 편중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고 군종별 전문성(특히 해·공군)은 질식할 수밖에 없게 된다. 군의 속성상 상명하복이 엄격하고 수직적 사고방식에 익숙한 한국적 군대 문화에서 직속상관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군별 전문성이 전제되지 않는 합동성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합동성은 조직의 통합이 아니고 노력의 통합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다.

노력의 통합은 장관도 전투형 군대지침에서 밝힌 대로 OODA(Observe-Orient-Decision-Action) 루프를 통해서 달성되는 것이다. 작전적 수준에서 정보-합동, 표적 선정-무기체계 할당 등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달성되는 것이다. 한 울타리 안에만 있어야 하고 같은 학교를 나와야 노력의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전 세계를 무대로 삼는 미군은 어떻게 최고 수준의 합동작전을 수행하였으며, 걸프전에서 다국적군은 국가도 인종도 언어도 다르면서 어떻게 노력의 통합을 훌륭하게 이루어 내어 승리로 이끌어 냈단 말인가? 노력의 통합과 조직의 통합을 동일하게 보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군대를 국내 권력의 유지수단으로 삼는 독재국가와 공산국가를 제외하고는 통합군 조직을 유지하고 있는 선진 민주국가는 없다. 유일하게 이스라엘이 단일군에 가까운 통합군 조직을 유지하고 있다. 금일 발표한 권 박사님의 논문이나 장관의 전투형 군대지침을 보면 이스라엘군에 대한 관심

이 지대하다. 저도 이스라엘만 다섯 번 이상 방문한 경험이 있다. 우리가 이스라엘로부터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많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이 강한 것은 군 구조 때문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경상북도 정도의 크기에 군대는 20만도 되지 않고 더구나 해군은 지리적 환경으로 수천 명에 불과하다. 그들이 강한 것은 세계 최고의 국방과학 기술력과 천재적인 용병술,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계속된 전쟁경험 등이 어우러진 결과이지 군 구조 때문에 강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와는 너무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다르다. 병력이 20만도 되지 않는 군대수준이기 때문에 통합군 형태의 수용이 가능한 것이며 우리군의 병력은 2020년도에 50만 군대를 목표로 삼고 있다. 50만 군대를 통합군 구조에 밀어 넣는 것은 대학생에게 초등학교 옷을 입히는 것과 같다.

합참의장의 지휘폭 과다

각 군 총장의 군정 군령 참여시 발생하는 지휘 공백, 전시 미 공군과의 지휘관계 등, 실질적 문제들이 지적되자 비합리적 대안(합참 내부에 작전 지휘하는 합참 차장직위를 육군대장으로 보임, 공군 부총장제 신설, 공군만 전평시 다른 지휘 책임 부여 등)들이 속출하고 있다. 그러한 대안들은 지휘계선을 더 늘리고 조직의 머리 부분을 더 무겁게 하고 고위직을 더 양산하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상부지휘구조 개선 목적 중의 하나가 만약 각 군 총장의 식견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현재의 합동참모회의를 보완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충분하며, 군정과 군정의 협조도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다. 합동성 발휘의 목적은 사라지고 모든 것을 오직 통합군 구조에 맞추려는 목표 대치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마치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이야기 형국이다.

통합군 구조라는 침대를 정해놓고 사람을 눕게 해서 팔이 밖으로 나오면 팔을 자르고, 다리가 밖으로 나오면 다리를 자르며 종국에는 머리까지 자르려고 하는 형국이다.

상명하복이 생명인 군대에서 전문성이 없는 상급자가 하급 전문가를 간섭하게 되면 국방태세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게 된다. 해상전력, 항공전력을 비전문가인 보병적 사고방식으로 육성하고 사 용함으로써 올 수 있는 결과를 생각해 보라.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해군함정과 비행대대를 배속시 킴으로써 보병이 비행대대를 지휘하게 하려했던 최초안은 심장을 멈추게 할 정도의 충격이었다.

- 병력 비용 절감 방법에 대하여

군 개혁을 통해 병력집약형 군대를 기술집약형 군대로 변환시키려는 노력은 과거부터도 계속 추

진해왔던 방향이다. 비용과 병력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무기체계 기술 발전에 따르는 전투 단위부대의 슬림화, 계급의 하향 조정, NCW 수행을 위한 지·해·공 전력구조의 근원적인 재구성 등 대단히 많다. 무수히 많은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지 않고 손쉽게 민간 기업 구조조정처럼 통합만하면, 마치 비용과 병력이 대폭 감소되는 것처럼 검증되지도 않은 수치를 제시하면서 현혹시키면 안 된다. 민간기업 구조조정과 달리 군은 3개 독립군종으로 존재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 각각의 독립군종이 타 군종의 영향을 받아 훼손되고 전문성이 약화된다면 그 군은 생명력을 상실한 죽은 군이 될 것이다.

군간 무기체계 화력의 범위 확대로 생기는 무기체계의 중복성은 노력의 통합이라는 합동성 강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기업처럼 단일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지상, 해상, 공중에서 싸우는 방식 즉, 군간 기본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성의 확고한 보장을 위해 3개 군종을 독립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외형적으로 통합을 해가면 내부적으로는 오히려 옥상옥의 구조를 만들어서 비용이 더 들어가면서 효율은 더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삼군사관학교를 통합한다고 해보자. 육·해·공군의 전문성에 맞도록 각 군의 사관생도를 육성하면서 통합도 하려면, 외형적으로는 통합 사관학교의 형식을 취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육·해·공군 사관학교가 그대로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통합 사관학교 설치비용만 더 들어간다. 조직의 통합과 전문성은 양립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리한 통합은 계속 옥상옥 구조를 만들게 된다.

- 군 개혁 예산에 대하여

개혁에 드는 비용을 621조원으로 기준을 삼고 예산이 부족해서 개혁목표 연도를 지연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621조원은 어떤 객관적인 검증을 거친 비용이 아니라, 해·공군 전력은 기 계획 전력을 고정 상수로 정해 놓고, 육군 병력의 감소를 상쇄할 무기체계의 소요를 육군에게 제출하게 하여 단선적으로 산출된 비용이다. 육·해·공 전체전력을 대상으로 NCW를 수행할 전투 실험이나 시뮬레이션도 거치지 않고 산출된 비용을 근거로 군 개혁의 시기를 판단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늦게나마 소요 검증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하니 다행이지만, 그 이전에 군사력 건설에 대한 육·해·공군 간 균형 있는 합리적 전력 구성비가 새로이 창출되어야 한다. 군사력 건설은 소요창출이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획득 및 조달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소요에 대해서는 관심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위원회의 인적구성이 균형 있게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적 수준에서 철저히 객관화할 수 있도록 민과 군의 배분을 나누고, 군 간의 비율도 동수로 해야 하며 예비역도 출신 군 간의 비율을 동수로 해야 한다.

－ 민군관계에 대하여

1인 현역 장군에게 전군의 지휘권을 주는데 대해 군의 정치 개입을 우려하면 ‘지금 이 어느 세상인데 쿠데타가 일어나겠는가’하고 냉소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아주 소규모 군인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독재국가와 공산 국가만이 통합군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과 선진 민주국가일수록 철저한 문민 통제의 원칙이 지켜지는 것에 유념해야 한다. 선진 민주국가는 민간 정부기관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철저한 통제하에 있으면서도 군이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다. 쿠데타 가능성 여부를 떠나 군의 정치적 힘이 강화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다. 전 군의 군사 지휘권한을 현역 장군 1인이 가지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대단히 심대하다. 혹여 군의 국내 정치적 입지 강화를 즐기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믿는다.

사족 같지만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공군은 2성 장군이 최고계급이라고 특별히 예를 들었다. 왜 특별히 공군 사령관만 예를 들었을까 해서 인터넷을 뒤져 보니, 이스라엘은 국방군 참모총장만 3성 장군이고 예하 사령관 모두 소장이고 소장 밑에 소장 직위도 많다. 우리 한국의 육군과 해공군 사령관 계급에 차등을 두는 것과 대조적이다.

제도의 법적 장치와 신뢰의 문제

3군의 교육과 군수의 공통기능을 통합하여 군수사령부와 교육사령부를 만들고 처음 지휘관은 해·공군으로 보임한다고 하며, 처음 지휘관은 해·공군으로 보임한다고 한다. 이 글을 보고 공군 예비역으로서 대단한 모욕감을 느꼈다면 과민한 것일까? 지금까지의 모든 합동 부대장을 모두 육군으로 보임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단편적인 처방은 참으로 딱한 일이다. 지금까지의 편중현상을 시정할 근원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지, 국가의 안위가 달린 중요한 의제를 자기 주머니에서 사탕하나 빼주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선진화위원회 안건 중에서 선순위에 있던 육·해·공군의 주요직위 배분을 1 : 1 : 1로 법제화하자는 의제의 우선순위는 제일 뒤로 돌리고, 후순위에 있던 상부지휘구조 의제는 제일 앞으로 가져왔다. 이러한 처사들은 국방부의 개혁 의도에 대해 신뢰를 흐리게 하는 것들이다.

현 합참 및 합동부대가 합동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인력과 보직의 편중을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지금 마련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개혁의 속도와 수준

중국의 스텔스항공기 쟈의 시험비행 기사와 함께 중국 전체 병력을 2020년까지 250만에서 180만으로 1/3감소하고, 해·공군 전력은 전력비율을 각각 25%가 되도록 확충하며, 군 감축에도 불구하고 첨단화된 장교단 육성을 계속 추진한다는 기사를 보고 우리의 개혁안이 오히려 초라해짐을 느꼈다. 우리는 2020년도에 50만을 목표로 하면서 해·공군 병력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육군 병력을 1/3정도 감소할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현재의 8:1:1의 육·해·공군 비율이 약간은 개선 되겠지만, 중국 및 일본의 수준에 비교하면 미래 전을 대비한 해·공군 전력 강화 수준은 턱없이 부족하다. 개혁안을 보아도 아직도 한국군은 병력 수에 집착하고, 지상군 중심의 재래식 전쟁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개혁의 초점도 미래의 빅 픽처에 있지 않고 지엽적인 수단 개선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미래전에 적합한 더 강력한 변혁의 내용과 속도가 필요하다. 전투형 군대라는 캐치플레이어는 군이 본래적으로 갖추어야 할 가장 기초적인 것이지 비전이 될 수 없다. 미래를 향한 대전략을 과감하게 변혁시키고 이를 수행할 전력 구조를 새로운 틀로 재구성한 후, 그 다음에 고려해야 하는 것이 군 구조의 형태이다.



국방개혁안, 해·공군 유난히 반발 왜?

(YTN FM 2011. 05. 19, 11:08)

전 공군참모총장 이한호



강지원(이하 앵커)

YTN 94.5 인터뷰입니다. 국방개혁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국방개혁 대토론회를 열어 국민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국방개혁안 설명회 첫날인 17일, 참석대상자인 육·해·공군 예비역장성들 가운데 해·공군 전직참모총장들이 대거 불참했습니다. 오늘은 국방개혁에 반대하는 쪽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전 공군참모총장을 역임하셨죠, 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이하 이한호)

안녕하세요?

앵커

국방 개혁을 두고 찬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국방부는 국방개혁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이런 국방부의 입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한호

반대의견을 수렴해주면 좋겠다고 봅니다. 반대의견을 수렴한다면 해·공군 예비역들이 설명회에 참여하지 않거나 그런 일이 없겠죠. 이번 개혁 중에 핵심인 군 상부 지휘 구조 개편과 관련된 사항들은 국군 조직법을 비롯한 몇 개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방부는 이 법률 개정안을 법제처로 넘기고, 입법예고 법제처에 법률 검토가 이미 끝났습니다. 국무회의를 거쳐서 국회로 넘어갈 단계거든요. 그러니 지금 진행중인 의견수렴이라는 것은 형식적인 명분 갖추기 위한 요식행위에 지나

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또 200명 가까운 사람 한꺼번에 모아놓고 한두 시간 설명하고 30, 40분 청취한다고 의견수렴이 되겠습니까? 전달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만약 국방부가 정말 의견을 수렴할 의지가 있다면, 현재 법제처로 제출된 개정법률안을 철회하고 다시 시작해야 국방부의 업무 추진에 신뢰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앵커

그러니까 설명회를 한다는 것이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는 말씀이시군요?

이한호

의심스러운 정도가 아니고 확실히 진정성이 없는 것이지요.

앵커

국방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2015년까지 대장직 1개를 포함해 30여개의 장성, 별이죠. 직위 없애고요. 현재 444명인 장성의 수를 2020년까지 380여명으로 축소하고, 또 육·해·공군 참모 총장을 합참의장의 작전지휘 개선안에 포함시키자는 거 아닙니까? 내용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어떤 점에 대해서 반대하고 계신가요?

이한호

우선 장성 수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외국군과 비교해도 우리가 좀 많은 게 사실입니다. 필요하면 줄여야죠. 그런데 이걸 각급 부대 직무 분석을 통해서 줄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상부 지휘 구조를 개편해야 줄일 수 있는 것처럼 엮어서 홍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저희들이 반대하는 것은 합참 의장에게 삼군을 모두 소속시키고 군정권까지 부여함으로써 합참의장 1인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는 데는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국방 정책이 한 사람의 독단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각 군의 전문성 자율성이 심각하게 저해되는 것이고, 국방부에서는 합참의장에게 많은 권한을 줘야 군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합참의장은 이미 전시작전 지휘권 지휘관 임명 동의권 운영통제권 등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강력한 지휘권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많은 권한을 준다는 것은 오히려 업무 부담을 너무 과중하게 맡겨서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작전에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대안으로 합참에 4성 장군이 차장을 두어서 작전지휘를 맡기겠다고 하는데, 합참 차장이 각 군 총장을 작전 지휘하는 복잡하고 기형적인 구조가 될 수밖에

에 없거든요. 각 군 총장도 군령권과 군정권을 모두 함께 행사하게 되면 결국 참모 차장들이 작전 지휘한다는 그런 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군 상부 지휘 구조 개편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군령권, 군정권 모두를 합참의장에게 주는 것 이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거군요?

이한호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형태를 유지하는 게 최선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한호

지금 형태를 유지하는 게 최선이라기보다 사실 지금 현재의 작전 지휘구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구조는 우리 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해서 대부분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적용하는 체제기도 하고요, 물론 앞으로 전작권을 전환 받아야 하고 계속적으로 군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군 구조도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게 사실이지만, 짧은 기간에 법률부터 개정시키고 보자는 식으로 밀고 나가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특히 우리 안보 취약기라고 하는 내년 후년,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이런 위협하에서 군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는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모두 주면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한 권한 집중이라고 보시는거군요. 반대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비대칭전력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각 군의 전문성보다는 군 전체의 합동성이 강화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이번 국방개혁은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이한호

전문성보다 합동성을 강화해야 한다, 혹은 합동성보다 전문성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은 옳지가 않습니다. 축구 시합을 예로 들면 개인기가 없는 사람에게 공격전술만 가르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아무리 개인기가 좋아도 전술이 없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성은 약화되어도 감수해야 한다는 말은 있을 수 없고요. 각 군은 각 군대로 전문성을 극대화해야 하고 합참과 각 군은 합동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할 겁니다. 합동성을 강화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각 군을 물리적으로 합참의 장에게 소속시킨다고 해서 합동성이 강화되는 점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상부구조만 개혁하면 만병통치약처럼 도깨비방망이처럼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더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앵커

국방개혁안에 대해 주로 반발하는 쪽이 해군과 공군이 아니냐, 이렇게들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해군과 공군의 반발은 합참의장에게 모두 소속이 되었을 때, 육군 출신들이 주로 합참의장을 맡아서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다, 군 이기주의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한호

우선 해군과 공군이 반대하는 말 자체가 옳지 않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지난 3월 23일, 국방부에서 성우회 소속 예비역 장성들을 불러놓고 정책설명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때 당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보면, 해·공군은 물론이고 육군참모총장 지내신 분, 합참의장 지내신 분과 국방부 장관 지내신 분들까지도 많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단지 지금 목소리를 내는 쪽이 해·공군 쪽이 많다는 것일 뿐이지, 정말 작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은 육·해·공군 구분 없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에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비역들이 자리를 보존하면 뭐 하겠으며 밥그릇 싸움한다고 뭘 얻어먹겠습니까? 충정에서 나오는 것을 두고 자군 이기주의라고 폄하하는 것은 진심으로 안보에 대해서 걱정하는 예비역들에게 모독입니다. 각 군에서도 의견을 제시하면 자군 이기주의나 밥그릇 싸움이다 처벌하겠다, 이렇게 몰아붙이는데 이런 식으로 언론을 막아버리면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군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현역과 예비역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자해 행위라고 봅니다.

앵커

아무래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해·공군 쪽이 많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해·공군 쪽에서 특별히 많은 이유는 뭡니까?

이한호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합참의장에게 권한이 집중되고, 육·해·공군이 균형을 이루어서 합참의장과 함께 합동참모회의를 통해서 군발전을 논의해야 하는데, 합참의장이 육·해·공군의 상관이 되어버리면, 해·공군의 입장, 대부분의 경우 합참의장을 육군이 하게 될 테니까, 육군은 그런 면에서 큰 불편은 없겠지만 해·공군의 경우는 대등한 입장에서 회의를 해야 할 협의체가 자기 상관이 되어버리니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지 않느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야기죠.

앵커

지난 6월에 말이죠. 해군이 작전 참모 부장을 맡았었죠? 그러다가 반 년 만에 육군으로 환원이 되었죠?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이한호

참 좋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3개 군의 작전과 무기체계를 다 통달하는 사람은 많지 않겠죠? 타군의 작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면에서는 해군 뿐 아니라 육·해·공군이 마찬가지죠 그래서 합동작전을 위해서 소위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육·해·공군이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해나가야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 지휘 구조 개편을 통해서 합동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방부가 왜 육·해·공군이 머리를 맞대야 합동작전이 가능하다는 가장 기초적인 과제는 외면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육·해·공군 섞어놓으면, 육군끼리만 모여 있을 때보다 불편하고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그래도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고 넘어야 할 산입니다. 그래서 합참의 작전 전략 분야는 반드시 삼군 균형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저번에 해군이 맡은 것을 육군으로 환원된 것에 대해서는 불신이 있다는 것이죠.

이한호

그렇습니다. 그것은 합동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합동작전을 해야 하고 해군과 공군전력이 함께 투입해야 한다는 작전을 계획하는데 육·해·공군이 같이 앉아서 해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앵커

그러면 지금 현상태에서 국방 개혁의 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보세요?

이한호

우리 군 지휘구조 자체가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든 완벽한 지휘체계는 없고 계속 보완발전시켜야 하는 게 사실이기에 현 지휘구조를 기초로 단계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당장 급한 것은 현존하는 북한의 가장 큰 위협이 뭘니까, 핵미사일, 장사정포, 특수전부대, 국지도발 이런 건데요. 그런 것을 항상 감시하고 필요하면 정밀 폭격 등으로 결정적인 타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최우선적으로 갖추어나가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개혁해 나가야 할 것이고, 특히 2015년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비해서 합참은 24시간 전쟁만 생각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합니다. 교육 인사 이런 것은 오히려 각 군에 맡기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상부 지휘 구조 문제는 끊임없이 연구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군 구조도 생명체와 같아서 계속 진화해야 하거든요. 그렇지만 몇몇 짧은 의견을 모아서 단시간 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과제로 계속 연구하고 북한 위협상황이 큰 위협상황이 있을 때 바꿀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과 함께 했습니다.

군 원로들은 올바른 개혁을 원한다



10기 사관 김홍래
(공군전우회장)

군 원로들이 개혁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우리군은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 그러나 그 개혁은 군을 알지 못하는 몇 사람의 비전문가에 의해 만들어지는 개혁이 아니라,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경험을 통해 다져진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된 올바른 개혁이어야 한다.

이것이 국가와 군을 위한 길이며, 어려운 시기에 한평생 군에서 보낸 군 원로들의 염원이다. 지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피폭사건은 분명히 작전 지휘권을 갖고 있었던 합참의 정보 분석과 판단 미흡, 타군작전 이해 부족, 안이한 위기의식, 응징의지 부족에서 나타난 결과라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합동성 부족이 근본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군령권과 군정권을 부여한 막강한 국방참모총장격의 실질적인 통합군제를 위헌적 요소를 피하기 위하여 명칭만을 그대로 사용한 상부지휘구조 개선안을 확정하였다.

많은 군사 전문가와 군에서 한평생을 보낸 예비역 장성들은 혁명적인 이 대안이 적절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추진하려는 것에 대하여 하나같이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군 원로들이나 군은 국방개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부지휘구조인 실질적인 통합군제를 반대한다.

국방부업무 보고 시 장관이 갑자기 들고 나온 상부지휘구조안은 유사시 싸워 이길 수 있는 지휘구조라기보다는, 장군 수를 줄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 급조한 안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민주주의의 국가는 문민통제에 반하는 막강한 군령과 군정권을 가지고 대군(大軍)을 통치하는 통합군제를 운영하지 않는다. 북한과 같이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장기집권하고자 하는 독재국가

에서 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한 사람의 현역군인이 군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국가 비상시에 민간인 국방부장관과 군사력 운영에 관한 의견을 달리할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3군을 작전지휘를 하고 미 합참 및 주한미군과 협조도 해야 하며, 인사 및 군수 등 군정권을 행사해야 하는 합참의장은 지휘 폭 과다로 효과적인 작전지휘를 할 수 없다. 단순한 작전지휘도 제대로 못하여 우리를 부끄럽게 한 연평도 피폭사태는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합동성은 각 군의 전투능력을 효과적으로 결합시키는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한 사람에게 많은 권한을 준다고 이뤄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절차상에도 큰 문제가 있다. 상부지휘구조안은 밀실에서 비공개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국방개혁추진점검단, 국방선진화추진위에서 연구안과 다르게 국방부 업무보고 시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개혁안이다. 군의 상부지휘구조는 군의 근간으로 바꾸면 완전히 적응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그러나 각 군의 의견은 일체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각 군 총장을 배석시켜 국민에게 확정된 안으로 발표하였다. 중요한 정책결정 시 각 군 참모총장이 참석하여 확정하는 합동참모회의도 없었고 군무회의도 없었다. 대통령은 “각 군 총장은 예비역 말 듣지 말고, 반대하는 현역은 엄벌한다고” 하였다. 각 군의 협조 없이 군을 지휘한 경험이 없는 일부 학자들이 주도한 개혁안은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다.

한·미 지휘관계도 고려하지 못하여 전시에 4성장군인 공군총장은 3성인 7공군사령관 지휘 하에 들어가게 되었고, 조직을 슬림화한다고 하였으나 합참의장과 총장의 지휘 폭 과다로 작전사에 준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하니 실질적으로 줄이지도 못하게 되었다. 또한 새로 지휘통제통신망을 각 군 본부에 설치하여야 하니 많은 경비가 소요될 것이다.

시기적으로도 큰 문제다. 향후 1~2년이 6·25이후 가장 안보적으로 취약한 시기라고 대내외 군사 전문가들이 말하는데, 귀를 막으면서까지 조급하게 서둘러서 가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2015년 전작통제권인수 이전에 새로운 상부지휘구조 안이 정착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군조직법을 고쳐야 하고, 이와 관련된 각종 규정과 절차를 보완해야 하며 작전계획 5027을 새로 만들어 연습하고 평가하여 보완해야 한다. 완벽한 대비태세를 확립하여야 할 시기에 정착되지 않은 지휘구조로 유사시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지 걱정이다.

합동성은 육군만으로 구성된 합참과 국방부의 작전운영부서와 전력증강부서의 의사결정계선상에

해·공군요원을 보임하고 3군을 균형 발전시키면 강화된다.

전투를 지휘하고 작전계획을 만드는 합동참모부의 작전본부에 처장, 부장, 본부장, 의장이 특정 군으로 구성된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 이와 같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꾸는 것부터 보완하는 것이 국방부가 할 일이다. 또한 지금까지 국방부가 물리적으로 통합해온 정보사, 수송사, 화생방사, 통신사 및 복지단은 전문성과 효율성 차원에서 평가하여 제자리에 놓아야 한다. 각 군의 전문성을 훼손하면서 통합만이 효율적이라는 논리는 옳지 않다.

개혁의 업적으로 삼고자 하는 장군 숫자는 1984년确定的 육군의 지작사만 만들어도 많은 장군수를 줄일 수 있고, 직무평가에 의해 군에 관계없이 줄이면 된다.

군 원로가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정을 말하면 자군 이기주의라하고 밥그릇 싸움이라고 매도한다. 완벽한 대비태세 등 할 일이 많을 텐데 최근 국방부와 합참 장군들이 국회에서 살다시피 한다고 한다. ‘장군수를 줄여 전력을 증강하고, 일상불란한 지휘체제를 확립하여 합동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이 상부지휘구조개선’이라는 말로 군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국회의원이나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군에서 한 평생을 보낸 군 원로들을 설득 못하는 것이 문제다.

대통령이 건설 분야와 경영의 전문가이듯이 군 원로들은 군사 분야의 전문가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국방개혁은 반드시 해야 하고 성공해야 한다. 그러나 그 개혁은 유사시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혁이 되어야 하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충분히 각 군의 의견도 수렴하고, 군 원로와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권이 바뀌어도 튼튼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상부지휘구조로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님! 국방개혁은 올바른 선택이었고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상부지휘구조개혁안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각 군의 의견과 군 원로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미래전에 대비한 한국군의 상부지휘구조



17기 사관 이한호

1. 서 언

창군 60주년을 넘긴 우리군은 그간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다. 세계최고수준의 각종 지상 장비들, 이지스함과 잠수함, F-15K 전투기 등을 보면 창군 당시나 6·25 당시와는 비교할 의미조차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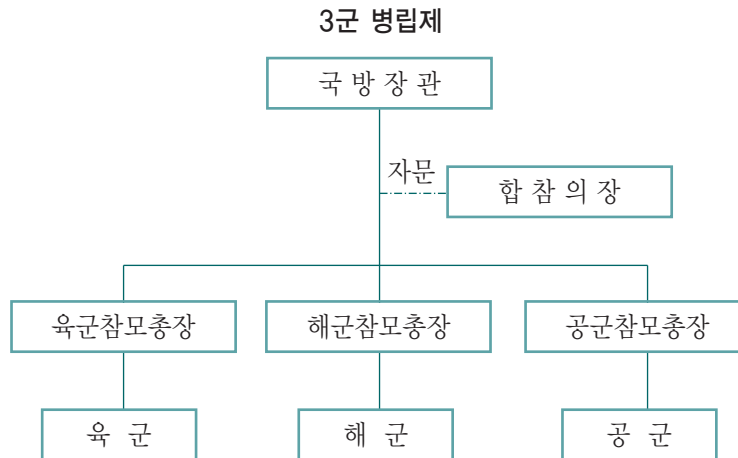
이와 같은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의 경이적인 경제발전에 힘입은 것이지만, 우리군 선배들의 피나는 노력과 미국의 든든한 안보 뒷받침의 결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간 우리군은 최고의 전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전력 발전을 추구해왔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많은 개혁과제들을 발굴하고 추진해왔다. 이런 과정에서 완성되지도 않은 과제를 덮어버리고 다른 과제를 들고 나오기도 하고, 서랍 속에 있던 폐기된 과제를 다시 내세우기도 해서 개혁 피로감이라는 부정적 반응을 보인 경우도 있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국방개혁은 주요 국정과제 중의 하나였고, 특히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와 국방선진화 위원회에서 70여 개의 개혁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이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국방부는 2011년도 국방업무보고에서 국방개혁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여러 과제 중에서도 군 상부지휘구조개편 문제가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미래 한국군의 군 구조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세계 각국의 군 구조, 우리군의 군 구조변화, 한미 연합작전체계와 현재 추진 중인 개편안 등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미래 한국군의 상부지휘구조를 제안하고자 한다.

2. 군 상부지휘구조의 유형

세계 각국의 군 상부지휘구조는 국가별 안보환경, 국가전략목표, 경제역량, 군사력 규모 등에 따라 특정 유형으로 구분짓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현역군인이 군정권과 군령권을 행사하는 형태에 따라 3군 병립제, 합동군제, 통합군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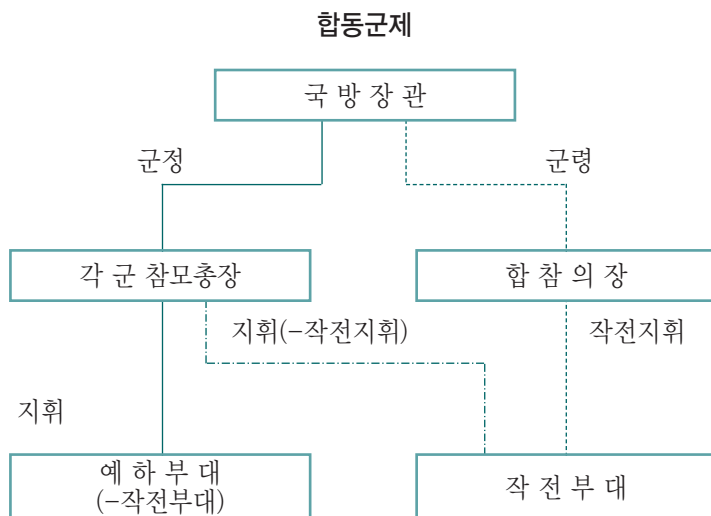
3군 병립제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정권과 군령권을 모두 행사하고, 합참의장은 자문역할만을 담당하는 체제로 각 군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보장되고, 권한의 집중을 방지하며 유연성 있는 정책 창출이 가능하나, 작전지휘의 일원화와 군 간의 조정통제가 어려운 구조이다.



※ 적용 : 독일, 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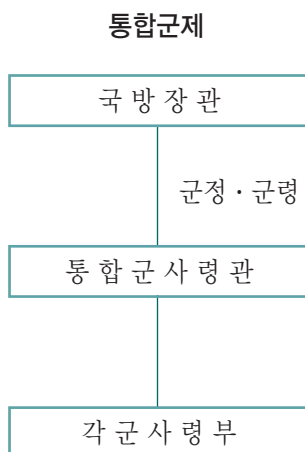
합동군제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정권을 행사하고 합참의장이 군령권을 행사하는 체제로, 각 군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면서도 작전지휘의 일원화를 기할 수 있어 많은 군사 선진국이 선호하는 형태이나, 강력한 지휘권의 발동이 다소 제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단, 미국의 경우는 합참의장이 NSC에 대한 자문역할만 수행하며, 실제 전투를 수행하는 지역별 통합사령관은 국방장관으로부터 직접 군령에 대한 지휘를 받고 있으며, 군정에 관한 사항은 각 군 본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전시가 아닌 평시부터 합참의장이 각 군의 작전부대를 지휘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찾기조차 힘든 구조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합동군제의 단점인 강력한 지휘권 발동이 제한된다는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된 형태로 볼 수 있다.



※ 적용 : 영국, 프랑스, 일본, 한국, (미국) 등

통합군제는 군정과 군령을 모두 행사하는 총사령관에게 3군을 예속시키는 형태로 신속한 의사 결정과 지휘일원화를 이룰 수 있으나, 과도한 권한의 집중으로 각 군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제한되어 각 군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고, 지휘통제 범위가 지나치게 방대하여 효과적인 지휘가 어렵다. 중국, 북한 등 구 공산권 국가와 군사력의 규모가 비교적 작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 적용 : 터키, 스위스, 이스라엘, 중국, 북한 등

각각의 상부지휘구조는 나름대로 장점과 단점을 안고 있어 반드시 어느 체제가 좋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각국의 안보환경과 국가전략에 따라 채택되고 또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서는 군 지휘 구조도 바뀔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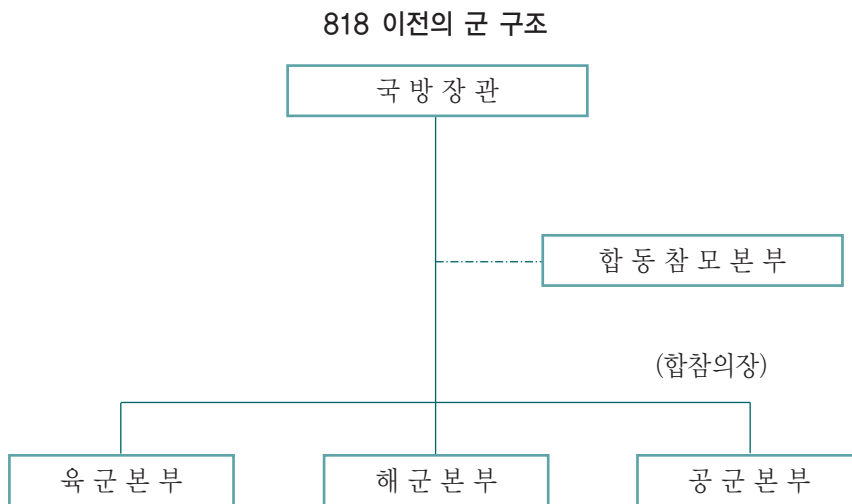
그러나 군의 규모가 작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통합군제를 채택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의 정치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볼 때, 군제와 정치체제는 관련성이 높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군의 규모가 큰 국가가 통합군제를 선택하지 않은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3. 한국군의 상부지휘구조

가. 군 구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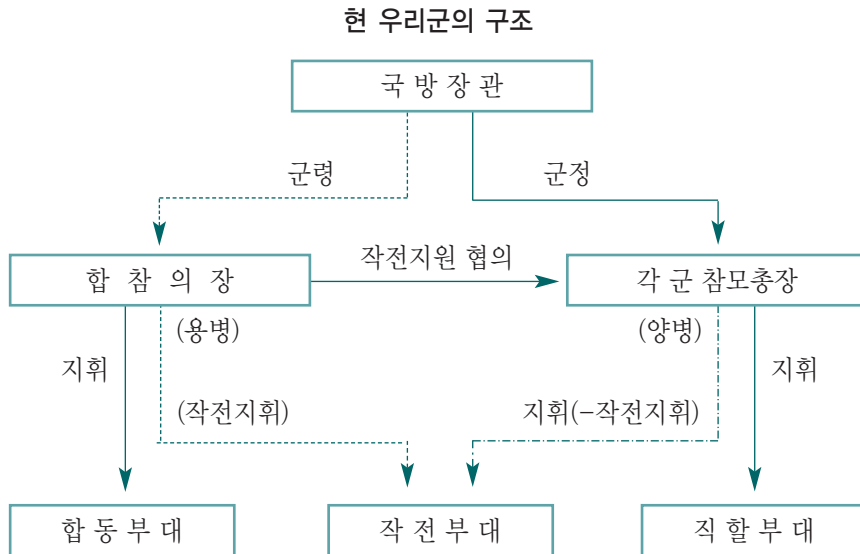
1948년 11월 30일 국군조직법이 제정 공포되고 이 법을 근거로 육군과 해군이 창설되었고, '49년 10월 1일 공군이 독립 창설됨으로써 3군 병립제의 틀을 갖추었다.

1963년 5월 20일 제3공화국 헌법 개정과 더불어 국군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자문형 합동참모본부 창설되었으나 3군 체제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 1975년 합동참모회의의 → 합동참모본부

1988년 8월 18일 당시 대통령의 「제2 창군의지로 장기 국방태세 발전방향 연구」 지시에 따라 2년 가까운 연구과정을 거쳐 군정권은 각 군 총장을 통해, 군령권은 합참의장을 통해 행사하게 함으로써 작전지휘의 일원화와 함께 각 군의 전문성과 자율성도 보장할 수 있는 합동군제를 채택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나. 군 구조의 검토 경과

우리군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3군 병립제로 출발하여 합동군제로 변경된 후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그 간 여러 차례에 걸쳐 상부지휘구조 변경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1970년 12월 당시 국방부 특검단은 주한미군 움직임에 대비하여 통합군체제로 전환하는 안을 수립하여 보고하였으나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받지 못했다. 1982년에도 군 구조연구위원회에서 각 군 본부를 해체하고 통합군제로 가는 안을 수립하였으나 여러 반대에 부딪혀 연구를 중단하였다. 1985년에는 620사업(3군 본부 계룡대 이전)과 연계 국군총사령부 창설안이 제기되었으나, 각 군의 반대로 88올림픽 이후에 재검토하는 것으로 유보되었다.

818 계획 당시에도 통합군 형태인 국방참모총장제가 강력히 추진되었으나 최종단계에서 합동군제인 현재 체제로 결정되었다. 그 이후에도 1998년 국방개혁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통합군제를 추진하려 하였으나 중도에 백지화된 바 있다.

지난 시대 국군 통수권자들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통합군제로 전환하도록 검토를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택되지 않았던 것은 통합군제가 가진 몇 가지 결정적인 결함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 한 사람의 현역 지휘관에게 3군의 군정권과 군령권을 모두 집중시켜 주면 독선과 전횡이 우려되고, 문민통제의 원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권력균형의 불안정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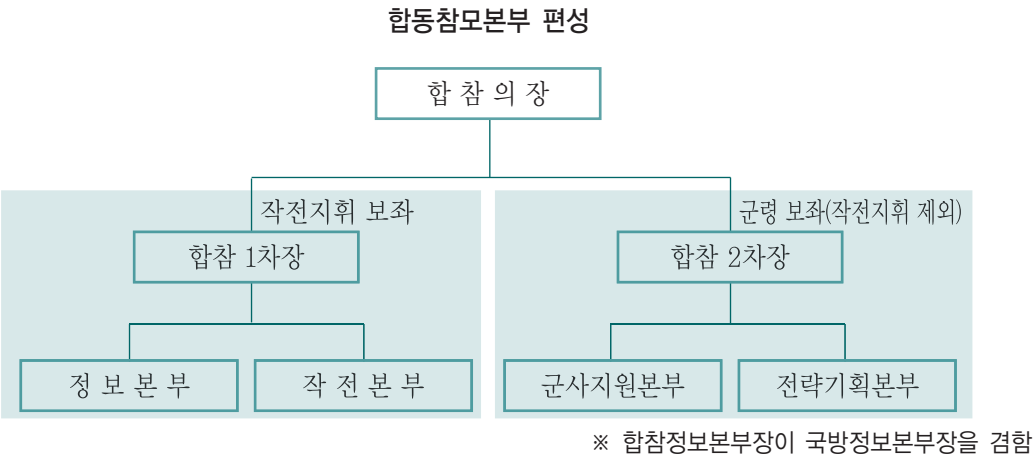
둘째, 각 군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훼손되어 각 군 고유의 전투력 발휘가 제한된다. 특히, 우리나라

라 같이 3군의 불균형이 심한 구조에서는 특정군 중심의 정책수립으로 군간 균형발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셋째, 한 사람의 지휘통제 범위가 지나치게 방대하여 효율적인 군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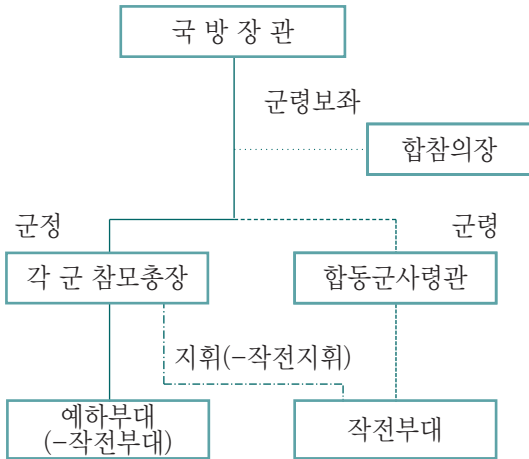
다. 최근 추진 중인 상부지휘구조안

2009년 12월 합동참모회의에서는 전작권 전환에 대비하여 합참에 1·2차장을 두어 1차장으로 하여금 연합·합동작전을 지휘토록 하는 안을 의결하였고, 국방백서에서도 이 안이 수록되어 있다. 이 안은 우리군의 지휘구조와 전작권 전환이후의 한미연합작전 수행체계를 함께 고려하여 도출된 안이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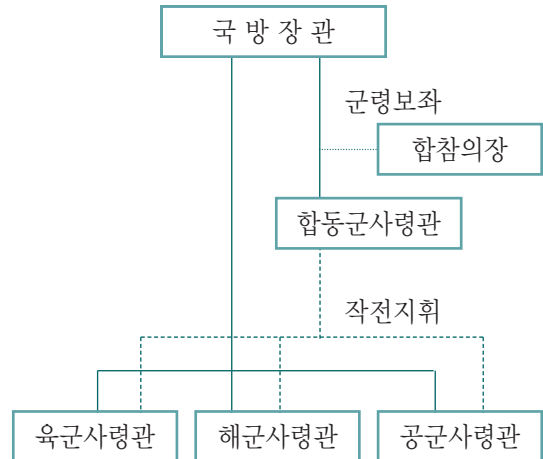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구성되어 우리군의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고, 국방선진화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제시된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은 아래 표와 같이 두 단계로 나누어져 있었다.

합동군사령부 창설 및 자문형 합참의장제
(현 정부임기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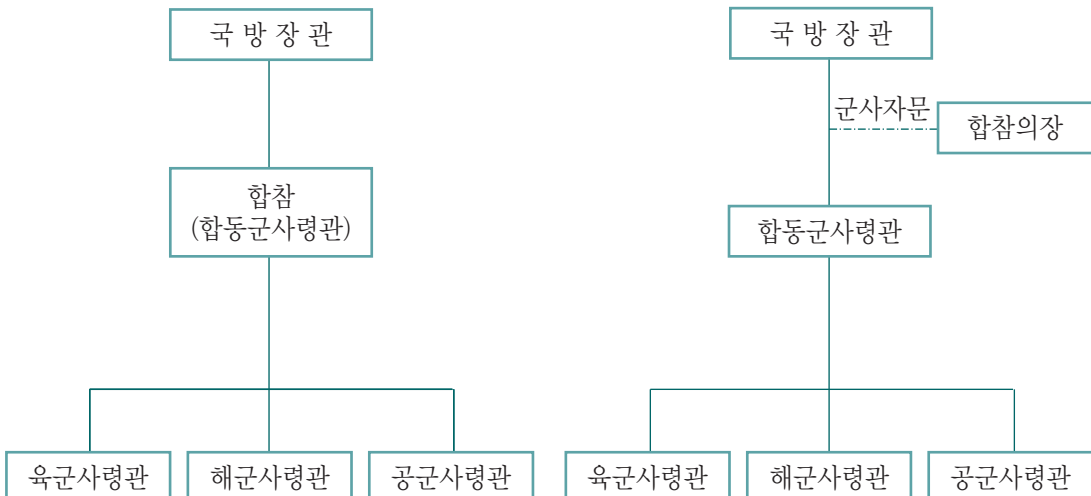


각군본부-작전사 통합 및 각군사령부 창설
(전작권 전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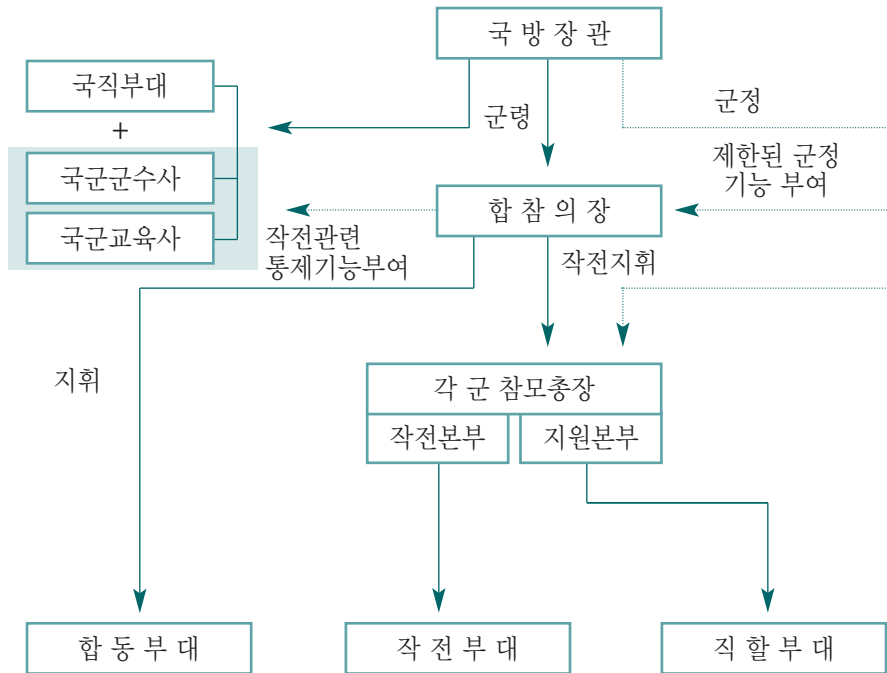


현 정부 임기 내에는 합참의장을 군령보좌 역할을 담당하는 자문형으로 전환하고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여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를 행사토록하고, 전작권 전환 이전까지는 각 군 본부와 각 군의 작전사령부를 통폐합하여 군정권은 국방부 장관이 직접, 군령권은 합동군사령관을 통하여 행사토록 한다는 안이었다.

2010년 12월 29일 국방부 업무 보고 시에는 국방선진화위원회에서 보고된 안과 전혀 다른 통합군형의 두 가지 지휘구조가 제시되었다.



지난 3월 8일 발표된 국방부의 검토안은 선진국형 지휘구조로 개편하고 전작권 전환에 대비 효율적인 한반도 전구작전 수행체계를 구축하며, 합동성 강화 및 3군 균형발전을 위한 의사결정체제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합참의장에게 합동군사령관 기능을 함께 부여하고, 각 군 본부는 작전사령부와 통합하여 합참의장 예하에 소속시키면서 합참의장은 군령권과 함께 일부 군정권도 행사토록 한다는 것이다.



불과 두 달여 만에 이와 같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은 헌법에 언급도 되지 않은 합동군사령관을 신설하거나, 헌법에 명시된 각 군 참모총장을 폐지할 경우 예상되는 위헌 논란을 피해가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합참의장은 명칭만 의장일 뿐 사실상 통합군사령관에 해당하는 권한을 독점하게 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국방부는 이번 개편을 선진국형 군 지휘구조로 가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한 사람의 군인에게 3군을 모두 소속시키고 군령권과 군정권까지 부여하는 국가는 구 공산권 국가나 군 규모가 작은 일부 국가일 뿐 선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구조이다.

둘째, 각 군 본부와 작전사령부를 통합하면서 작전본부를 두고, 국군교육/군수사령부를 창설하면 인력 및 예산절감 효과는 미미할 뿐이다. 우리군 작전의 핵심인 작전사령부를 폐지하고 국군교육/군수사령부를 창설한다는 것은 현 우리의 안보상황에 맞지 않는 발상이다.

셋째, 각 군 총장의 의사결정 권한 및 참여비중을 증대한다고 하면서 합참의장의 예하부대장으

로 소속시킨다는 것은 수사법(修辭法)에 지나지 않는다.

넷째, 한반도 전구작전수행 구조면에서 볼 때 현재 우리 합참의 작전지휘에 가장 큰 문제는 전쟁지도 능력과 작전기획/계획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합참에 3군을 소속시키고 군정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군을 지배하는 권력이 비대해지고, 업무 부담이 과중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작전기획/계획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질 뿐 이다.

하물며, 전작권 전환 시 연합사의 전시 작전통제권을 우리 합참이 인수하려면 합참 조직을 비대화할 것이 아니라, 연합·합동작전체계를 간명화하고 하부조직으로 권한을 위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전작권 전환 전·후의 한·미간 작전협조 체계가 대단히 복잡하고 비능률적이다. 현재의 연합사 체계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연합작전 체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측 작전사령부들과 미측 구성군으로 구성되는 연합구성군을 작전통제하는 비교적 간명한 통제체계이기 때문이다. 상부구조를 개편하게 되면 각 군 본부가 연합구성군에 포함하기에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각 군 본부의 일개 부서인 작전본부가 맡는다는 것도 대단히 불안정하고 어색한 모양이다.

전작권 전환 후에도 현재의 연합구성군 구성체계를 협조관계로만 바꾸면 큰 문제없이 연합작전체계를 구성할 수 있는데, 군 구조를 개편하면 합참의 역할부터 각 군 총장 그리고 각 군 작전본부장의 역할이 복잡하고 불명확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공군은 미 7공군사령관이 연합공군사령관이 되고 공군총장이 부사령관이 되는 모양이며, 만약 연합공군부사령관이라는 직책을 따로 둔다면 공군총장의 전시 작전통제권은 없는 것이고 권한과 책임관계도 모호한 형태가 될 것이다.

여섯째, 업무의 신속성, 간결성, 집중력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합참의 권한 집중은 전쟁계획에 대한 집중력을 분산시키고 각 군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이며, 작전사령부에서 합참으로의 직보체계를 작전본부에서 각 군 본부를 거쳐 합참으로 보고할 수밖에 없어 신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2군사와 합참의 지휘관계는 현 상부구조상에서는 당연한 관계지만 각 군 총장에게 군정·군령권을 부여하는 개편 구조하에서는 엄청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2군사가 한·미 지상군 협조관계에는 어떻게 적응하고 전후방 접경지역에서의 작전은 어떻게 지휘될 것인지 혼란스럽다.

일곱째, 이와 같이 중요하고 복잡한 군 상부지휘구조를 충분한 연구와 공감대 형성 없이 금년 전반기까지 안을 확정하겠다는 것은 더욱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이 개편안은 합참이 군을 지배하는 권력이 커질 뿐 전쟁수행체계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4. 합동성과 군 구조의 문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의 참담한 결과는 모든 국민을 실망시켰고, 군은 당연히 환골탈태의 각오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으로 거듭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된 것이 합동성의 문제였고 일반국민이나 정치권에서도 합동성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합동성을 강화하는 것은 끊임없이 연구 발전하여 3군이 필요 시 최고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우리군의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할 최우선 과제이다.

그러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천안함이 적 잠수정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격침당한 사실과, 그 뒤 각종 보고의 혼선, 후속조치 미비 등 모든 문제는 본질적으로 합동성의 문제가 아니었고 상부조직의 문제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이다. 아무리 완벽한 합동성을 갖춘 군대라 해도 초계함과 잠수정이 불시에 교전하는 상황에서는 육군이나 공군이 도와줄 방법이 없다. 물론 적 침공세력은 억제하고 후속으로 투입되는 적 함정이 있다하면 해·공군이 긴밀히 협조하여 저지·격파하고, 결과에 따라 응징 보복이 필요하다면 육·해·공 전력 모두 투입될 수 있지만, 그러한 작전은 현 체제에서도 합참의 의지와 명령만 있었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한 번 지시도 안 해보고 지시해도 안 될 것처럼 분석하고, 우리군의 지휘구조를 통합군형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합동성에 문제가 있었다면 합참의 인적 구성이 문제다. 합참의 합동작전과장, 작전처장, 작전부장, 본부장, 의장이 모두 같은 군이다. 일개 군만 모여앉아 작전을 하면서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간결성이 갖추어진 합동성을 논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합동성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합참의 작전·전략 부서의 인적구성을 3군 균형으로 편성해야 하는 것이다. 합동성을 강화한다고 해서 각 군의 전문성을 경시해서도 안 된다. 실전 상황에서는 각 군 고유의 작전이 합동작전보다 많다. 공군이 공중전을 벌이거나 적 후방의 핵시설이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때 육·해군의 전력은 거의 필요치 않다. 우리 구축함이 적 잠수함을 잡는데도 육·공군이 도움 방법은 많지 않다. 각 군은 그러한 각 군의 고유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선 갖추어야 합동작전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공지 합동작전을 계획하여 전투기의 폭격에 이어 지상군의 반격작전을 계획하였는데, 전투기는 적 대공포에 추락당하고 오히려 적기가 나타나 우리 지상군을 공격하는 상황을 상상해보면,

왜 각 군의 전문성과 합동성간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합동성이란 각 군이 전문성을 먼저 갖추고 자율성이 확보된 가운데 각 군의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여 작전을 수행하는 것인데, 한 사람이 3군을 획일적으로 지휘한다고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5. 한미연합작전체계의 변화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은 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하였고, 정전 후에도 작전통제권은 유엔군 사령관에게 두기로 합의하였으며,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이양되었다.

1994년에는 평시 작전통제권이 한국 합참의장에게로 전환되었고, 2006년 9월 1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시작통권을 2012년 3월 이전에 한국군으로 전환하고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2007년 한미군사위원회에서는 2012년 4월 17일로 전환 시기를 확정해 바 있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한미연합이행 실무관을 구성하여 「한미연합사령부로부터 한국합참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행을 위한 전략적 전환계획」에 서명하고 구체적 전환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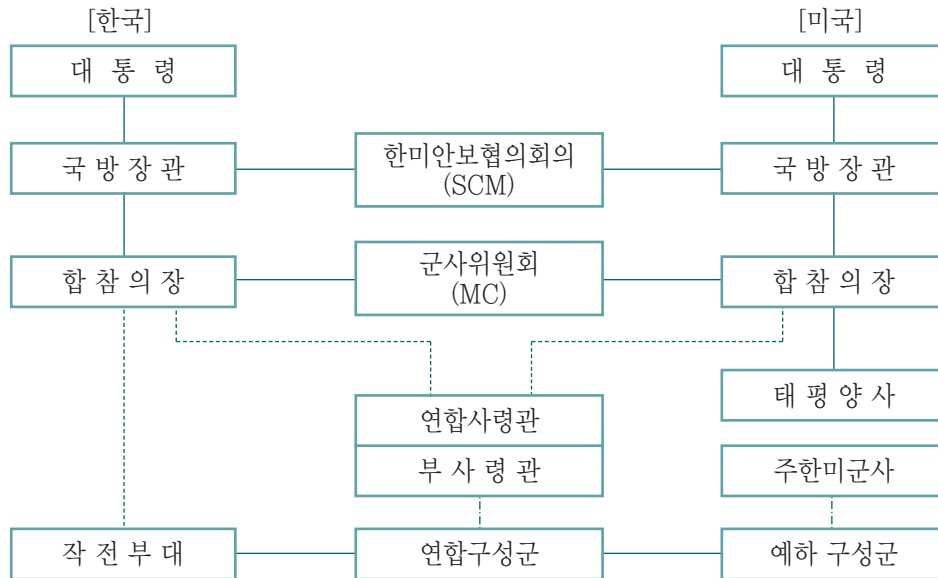
2010년 6월 26일 한미 양국 정상은 한반도 안보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내실 있는 전시작통권 전환을 보장하고, 안보상황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시작통권 전환 시기를 2015년 말로 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6·25전쟁 초기에 참전한 패전을 딛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전후 우리 국군에 비해 월등한 전력을 갖추고 있었던 북한군의 전면적 도발을 억제하고 우리나라가 오늘의 번영을 이룰 수 있게 된 것도, 주한 미군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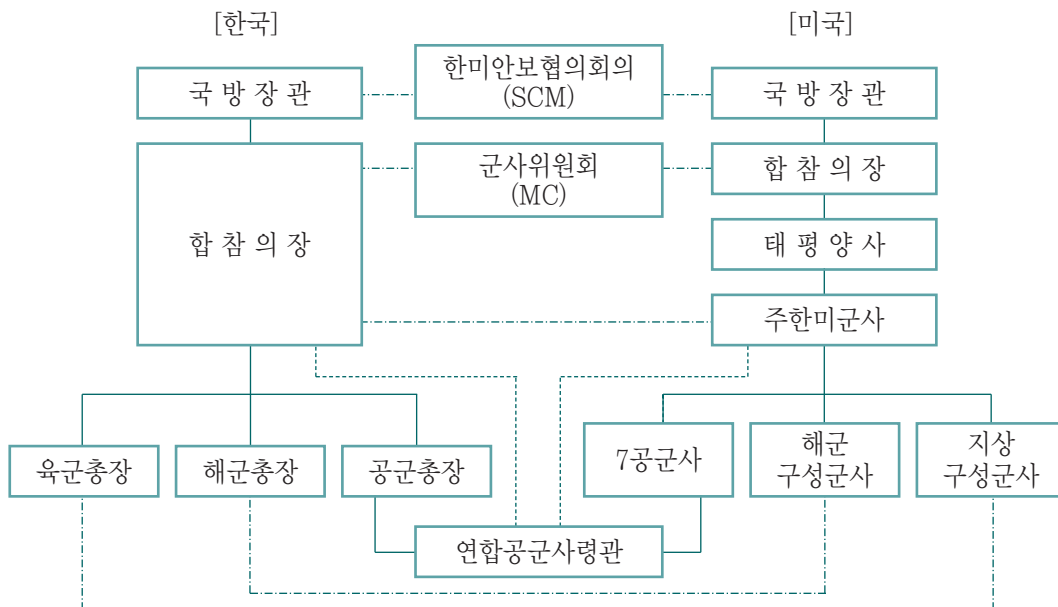
전시 작전통제권이 전환된 이후에도 주한 미군의 역할과 한미연합작전체계는 우리 안보에 있어 핵심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간의 한미연합작전체계를 살펴보자.

한미 양국의 합참의장은 대등한 협조관계에서 연합사령관에게 전략지시를 하달하고, 양국의 사령부급 작전부대들은 연합구성군으로 편성되어 전시 한미연합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는다. 복잡한 지휘, 협조 체계이기는 하나 양측이 비교적 대칭적 군 조직을 갖고 있어, 한미 간 협조와 전시작전 통제에 큰 어려움 없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연합작전체계라는 평가를 받아오고 있다.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지면 연합사는 해체되고 우리 합참 1차장과 주한미군사령관이 협조 관계가 되고, 양국 공군은 연합공군사를 구성하며 기타 작전 부대들은 연합구성군을 편성하지는 않지만, 현재와 같은 위치에서 상호협조관계를 구성한다는 개념하에 한미협조관계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상부지휘구조개편이 추진되고 있으니 한미연합작전 체계도 당연히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 국방부에서 추진 중인 안대로 상부지휘구조가 개편되면 한미연합작전체계는 다음과 같은 모양이 될 것이다.



우리 합참의장은 미 합참의장과 협조관계이면서 동시에 주한 미군사령관과 한반도에서의 연합작전에 대해 협조해야 할 것이며, 각 군 총장도 미국의 각 군 총장과 협조관계이면서 동시에 주한 미군사령관 예하의 지·해·공군 구성군사령부와 협력관계가 될 것이며, 특히 공군총장은 한미연합공군사령부의 부사령관 역할을 겸임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합참의장이나 각 군 총장은 공히 엄청난 지휘 폭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며, 특히 한미 연합작전을 위한 협조관계가 매우 불편하고 명확하지 못한 관계가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군의 지휘구조가 어떻게 변하든 최우선 고려요소 중의 하나는 한미연합작전을 위한 안정되고 합리적인 협조관계를 구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6. 미래 한국군의 상부지휘구조

미래 한국군의 지휘구조는 다음 몇 가지 요소들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우리 군이 안정된 가운데 당면하고 있는 북한의 도발위협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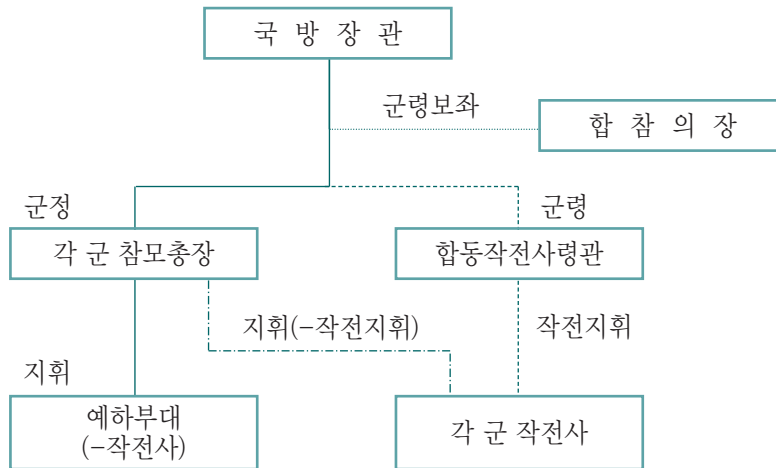
북한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에 이어 추가적인 도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심리전 발원지에 조준사격, 서울 불바다 등을 거론하면서 군사위협이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기지 준공, 핵실험 시설준비 등 극도의 긴장상태를 조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군은 안정된 체제를 유지하면서 최상의 전비태세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연합사의 전시 작전통제체계 유지를 위한 모든 협조·통제 계통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며, 2015년으로 계획된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연합사 해체 이후에도 완벽한 한미연합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 구조와 협조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합참의장이나 각급 작전부대 지휘관들은 연합·합동작전에 전념할 수 있는 적절한 지휘통제 폭이 전제되어야 한다.

넷째, 미래 무기체계의 발전과 전쟁양상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각 군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합동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각 군간 균형된 발전과 합동성이 요구되는 조직의 균형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현 합동군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합동성을 대폭 강화할 수 있는 다음 방안을 제시한다.

합동작전사령관 신설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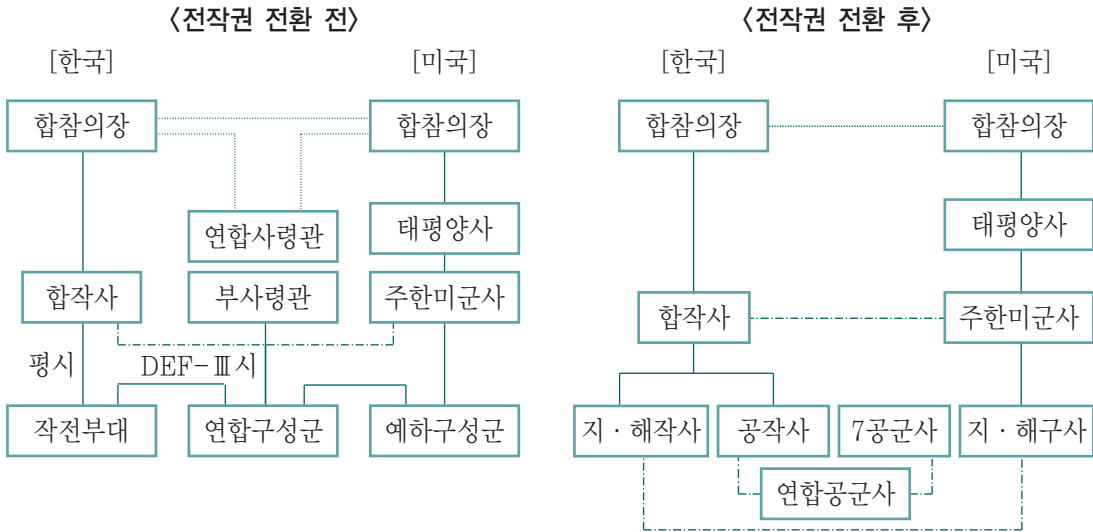


현재의 합참의장도 군령보좌 기능과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지휘폭이 과다하다. 더구나 제한된 군정기능까지 부여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복잡해질 것이 분명하다. 이를 위하여 예하에 차장을 둔다고 하더라도 책임의 위임이 불가능한 것을 고려 시 지휘폭 경감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합동작전사령관을 신설하여 각 군 부대를 작전지휘하게 하여 연합·합동작전의 계획과 시행에만 전념하게 함으로써 합동성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고, 작전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백하고 간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군 총장의 역할은 군정 기능 보좌에 주력하여 각 군의 전문성 유지와 정체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며, 군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 합참의장은 작전지휘계선에서 벗어나 대외군사협력, 전략지침수립, 군사력 소요 검토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지휘폭을 경감시켜주어야, 전쟁수행 간에도 지근거리에서 대통령과 국방장관에 대한 군령 보좌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조직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추진해온 각 분야의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시킬 수 있고, 전작권 전환 이후의 한미연합작전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다.

즉, 기본적으로 2010 국방백서에 제시되어 있는 군령권과 군정권을 합참과 각 군 총장이 나누어 행사하는 합동군 체제를 유지하되, 합동작전사령부를 신설하여 지작사·해작사·공작사와 다른 작전부대들을 작전 지휘하고, 미 한국사령관과 협조관계에서 한미연합작전의 계획과 시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합참의장은 작전지휘를 제외한 군령보좌 기능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미연합작전체계의 변화



군제를 바꾸는 것은 간단한 작업이 아니다. 특히, 국방부 안대로 추진할 경우 헌법 개정은 피해 가더라도, 국군조직법은 물론 각급부대의 직제를 통째로 개정해야 한다. 이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전 작전부대의 작전계획과 예규도 전문 수정이 불가피하며, 특히 연합 작전에 관련된 규정은 미측과 협의과정을 거쳐야 하는 난제를 수반하게 된다.

연합사가 해체되면 전작권을 우리가 행사하면서 한미연합작전체제를 확립해야 하는 엄청난 변화가 기다리고 있다. 1·3군 사령부를 통합하여 지작사를 창설하는 것도 결코 작은 변화가 아니며 일부 군단을 줄이고 병력을 감축하는 것도 엄청난 개혁과제다.

우리 국민은 군의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군 고위 관계자를 중심으로 인력을 감축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조직을 간명화하여 효율적이면서도 강력 전투력을 갖춘 군을 원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비능률적이고 불안정적인 조직을 만들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현재 각 군 작전사령관은 합참의장에게 직보하던 것을 각 작전본부장이 각 군 총장을 거쳐 보고하게 하는 것이 결코 효율적이라 할 수 없다. 그리고 작전사령부를 폐지하고 작전본부를 창설한다면 줄어들 인력도 없다. 국군군수사령부와 국군교육사령부는 그야말로 옥상옥 외 구조가 되고 말 것이다.

인력감축은 지작사 창설과 군단 구조조정으로 대부분 달성할 수 있고 각 군 본부, 각 군의 교육사령부, 각 군의 군수사령부 등을 개편하면 장군 15%정도 감축은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다.

합동성 강화를 위해서는,

첫째, 합참의 작전 및 전략 분야에 3군 균형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둘째, 각 군 작전사령부 간에 ASOC(항공지원작전본부), BCD(전장협조반), JTCB(합동표적협조

위원회) 등의 기구를 보장하고, 지상군·함정·항공기간의 Data Link 체계 확립 등, 합동 시스템 강화를 위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현 국방대학교를 대폭 증·개편하여 합동교육을 강화하고 공지학교와 같은 합동교육기관의 활성화와 군 간 교환근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합참의 군수기능은 작전관련 주요 장비, 물자, 탄약에 대한 기획 통제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인사기능을 작전부대에 대한 징계권을 부여하고, 합참본부에 대한 인사권과 작전부대 지휘관에 대한 임명동의권을 행사하는 수준으로 보완하면 합동성을 강화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2015년 전작권 이양을 위해서는 하루 속히 우리 군의 지휘구조를 확정짓고, 추진 중인 각종 개혁과제들을 늦어도 2013년까지는 완성하여야 안정된 가운데 최상의 전비태세를 유지하면서 군전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다.

7. 결 언

미래전에 대비한 상부지휘구조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한다면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과학기술과 정보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인데, 현재의 상황과 전작권이 이양될 2015년까지의 과제만을 다루어서는 주최 측이나 참가자 여러분들이 실망할 수도 있겠다.

우리는 그간 한목소리로 2012년이 최대의 안보취약기라고 말해왔다. 우리나라의 총선과 대선, 미국의 대선, 북한의 강성대국 완성 목표연도,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권력이양 및 러시아의 대선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이 집중되어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다.

여기에 북한은 무력도발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고 핵미사일 시험을 시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3대 세습에 따른 내부 불만을 잠재울 돌파구를 찾고 있는 점 등, 향후 3~4년 간 우리 군이 안정된 가운데 높은 사기를 유지하여 대북경계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할 시기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IISS에서 한반도가 6.25전쟁 이후 최대의 위기국면을 맞고 있다고 분석했다고 한다. 유사시에는 사태의 경중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고 필요하면 강력한 응징정보복을 퍼부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나가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들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군의 조직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려한다면 우리군의 변화와 전작권 전환이 맞물려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고, 북의 위협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최상의 전비태세 유지에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소한의 변화로 합동성을 강화하고 연합작전체계도 쉽게 정착시킬 수 있는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다.

합동군사령부 신설보다 합참체제 보완이 바람직



17기 사관 이문호
(공군전우회 사무총장)

최근 군 개혁은 야전성(野戰性)과 합동성(合同性)이 화두(話頭)다. 야전성과 합동성 부족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의 주원인으로 진단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근본 문제는 아니다. 과학기술과 무기체계의 발달로 걸프전 이후 현대전의 전략 및 작전 환경은 크게 변했다. 산업화시대에는 전선(戰線)을 형성하여 소총으로 싸우던 보병 중심으로 전투가 행해졌지만, 오늘날에는 적(敵)의 지휘시설 등 전략목표만을 선택하여 타격하는 외과 수술적 공격(Surgical strike)이 가능해지면서 해·공군력으로 승패가 결정되는 형태로 전쟁 양상이 바뀌었다. 해·공군이 제공권(制空權)을 확보하고 전략폭격으로 적의 전의(戰意)를 상실케 한 후, 지상군이 전쟁을 마무리하는 형태가 된 것이다.

이 때문에 걸프전 이후 모든 국가가 군의 정예화에 초점을 두고 무기체계를 첨단화하고, 병력(兵力)을 줄이는 대신 부사관(副士官) 중심으로 간부화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군 개혁을 실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군 개혁을 추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했다.

현재 우리 군의 가장 큰 문제는 지상군 중심의 전력(戰力)증강과 합동성을 가로막는 의사결정체제이다. 전력을 증강하는 부서와 전력을 운영하는 부서의 처장(과장), 부장, 본부장, 의장, 청와대 안보라인 모두가 육군 출신이다. 선진국에서는 합동작전이 가능하도록 처장이 육군 출신이면 부장은 공군 출신, 본부장은 해군이나 해병대 출신을 보임하는 식으로 합동성을 강화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육군 위주의 군 의사결정체제는 ‘미군이 있는 한 절대로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안이한

생각과 '전쟁 억제와 승리의 주체가 육군'이라는 편견에서 온 것이다.

앞으로 예견되는 북한의 도발형태는 전면전(全面戰)보다는 공중, 해상 그리고 서해도서(島嶼)에 서의 국지전(局地戰)이 될 것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군 의사결정 라인에 해·공군 출신이 들어가야 한다.

일방적·강압적 군 개혁은 곤란

최근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마련한 개혁안에 따르면 합동군사령부를 신설한다고 한다. 현재도 우리는 합동군제를 택하고 있다. 단지 지상군 위주로 구성되어 합동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합동군사령부 신설안은 그동안 합동성이 왜 부족했고 행사되지 못했는지 정확히 판단하지 못한 결과이다.

이번에 나온 합동군사령부 창설안(案)은 사실상의 통합군(統合軍)을 지향하는 것이다. 통합군은 과거 공산주의국가나 군대 규모가 작은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식이다. 하지만 현재의 합참(參)을 그대로 두고 새로이 합동군사령부를 만드는 것은 경제적인 군 운영에도 맞지 않고 한 사람에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는 우(愚)를 범하게 될 것이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代案)은 현재의 합참체제를 보완하는 것이다. 합참의 작전상황실을 강화하고, 전력운영과 전력증강부서의 지휘체계라인에 해·공군 출신을 보임해야 한다. 보직에서 각 군간의 수적(數的)인 균형이 문제가 아니라, 분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지휘결심이 필요한 자리에 해·공군이 없는 것이 문제다.

국군통수권자인 이명박(李明博) 대통령은 군 개혁을 직접 챙기겠다고 선언했다. 기대가 크다. 그러나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국방부로 넘긴 71개의 과제를 국방부 장관이 주관한다고 하니 걱정이 앞선다. 국방부 장관 산하의 개혁연구위원회에서 군 개혁방안을 추진할 경우, 다시 육군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이번에도 국방개혁은 실패하기 쉽다. 군 개혁연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되, 동수(同數)의 육·해·공군 출신 인사와 민간 군사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특정군 출신만으로 구성한 안보라인을 보완하고, 해·공군 원로를 직접 만나 합동성 강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청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안보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각 군의 공감대 없이 일방적, 강압적으로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진정으로 합동성을 강화하고, 각 군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이 만들어질 때 군 개혁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MB정부의 국방개혁, ‘독재군대’를 추구하는가



18기 사관 이선희
(공사총동창회장)

대한민국의 국가체제를 결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가체제를 지키는 국가안보의 근간이 되는 틀에 해당하는 상부지휘구조 개혁안에 대해서 국민은 여러 갈래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권리가 있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 중 군 상부지휘구조 개혁안을 두고 시끄럽다. 본인은 이 안을 찬성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모두 국가안보를 위한 충정이라고 믿고 싶다.

그러나 이 안의 찬반을 두고 육군과 해·공군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자군 이기주의’, ‘연고주의’로 매도하는 일부 언론보도와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다양한 의견을 소아적 갈등으로 폄하하는 것은 민주적 공동체의 공론과 토론을 압살하는 매우 권위적이며 전문성이 결여된 태도다. 게다가 이런 왜곡된 주장은 사실과도 다르다. 상부구조 개혁안을 반대하는 사람 중에는 육군 출신 장관, 합참의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군사령관 등 다수의 육군 출신 조직 전문가도 포함되어 있다.

국방부는 지금 20여 년 전 노태우 대통령 시절 검토되었다가 민간정치인 여당과 야당 모두가 반대하여 무산되었던 ‘통합군 제도’를 다시 끄집어내어 강화된 합동군 제도라고 포장한 후 법제화를 시도하면서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통합군제도와 합동군제도의 차이는 군 조직에 낯 설은 국민은 물론이고 군사전문가에게도 매우 어려운 문제다. 국가안보의 근간을 바꾸려는 일은 쉽지도 간단하지도 않다. 현재의 찬반 갈등구조를 우려하는 시각도 많으나 발전을 위한 논쟁과 토론은 필요하며 특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보문제는 일방적 설명회가 아니라 심층적인 토론이 필요하다.

사실상 통합군 제도 지향

상부지휘구조는 국가별로 국가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군제를 취하고는 있으나 20여 년 전에 쟁점이 되었던 것은 각 군 총장을 합참의장의 지휘권 안에 귀속시키느냐의 문제였다. 그 당시 각 군 총장을 합참의장의 지휘계선에서 배제시킨 것은 1인의 현역군인에게 군권을 집중시키는 위험을 경계하면서 각 군의 전문성 침해를 막기 위함이었다.

국방부는 상부지휘구조 변경의 필요성을 최초에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폭격의 교훈으로 인한 합동성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최근에는 2015년에 해체되는 한미연합사 기능을 흡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논리를 바꾸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상부지휘구조는 이미 한국이 향후 행사해야 하는 전시 전작권 인수까지 염두에 둔 지휘구조다. 한국의 합참의장은 미국 합참의장의 권한과 기능에 더해서 전시 한반도 전구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 연합사령관의 권한과 기능을 행사할 수 있다. 합참의 인력 편성이 연합사 인력의 2배 이상을 상회하는 것을 보아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현 합참의 내부조직을 보강함으로써 충분히 연합사 기능을 수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금 가장 큰 쟁점은 20여 년 전의 쟁점이나 똑 같다. '참모총장을 합참의장의 지휘계선에 넣을 것인가'와 '합참의장에게 군정권을 부여할 것인가'이다. 국방부는 20여 년 동안 합참을 운영한 결과를 교훈으로 첫째는 각 군의 최고 작전운영의 전문성을 지닌 참모총장을 지휘계선에 넣어야 작전운영의 질을 높일 수가 있고, 둘째는 군정과 군령의 획일적 구분으로 합참의장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합참의장의 지휘권으로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실상 20년 전의 통합군 제도 추진 논리다.

더 비효율적인 군사제도 만든다

연평도 피폭 시 전투전력 대응이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여론이 비등해지자 모든 초점을 군령권에 맞추고 군령권만이 가장 중요하고 참모총장이 책임지고 있는 군정권은 마치 행정적 업무인 것처럼 폄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군인은 한번 써먹기 위해 10년 양병을 한다. 1번 써먹는 것이 군령에 해당하고 10년 양병하는 것은 군정에 해당한다. 더욱이 군정업무는 10년 양병하는 일

에 더하여 전시에는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물자를 제공해 주는 일을 한다.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방대하고 복잡한 참모총장 임무의 집중도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속도전에 걸맞지 않게 군령계선은 더 복잡해지고 길어지며 참모에게 작전지휘를 하게 하는 이상한 조직 구조를 만들면서도 국방부는 군령 업무에 참모총장이 참여하기만 하면 전투력의 질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싸우는 임무(군령)에 집중하는 작전사령관과 참모(군정)의 총장인 참모총장은 임무 분야 성격도 다를 뿐만 아니라 필요로 하는 능력 자체도 다르다. 참모업무에 능통하고 야전군 사령관의 경험을 하지 못하였으나 준장에서 이십 명의 소장과 네 명의 중장 선배를 뛰어 넘어 미국 육군 참모총장으로 발탁된 마셜 원수는 야전사령관으로써 경험은 일천하지만 미국 최고의 육군 참모총장으로 존경받는다.

패튼장군은 야전 지휘관으로 났지만 참모총장의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참모총장은 참모총장으로서의 역할에 맞는 장군을 발탁하여 임명하는 것이고 작전사령관은 작전사령관에 적합한 장군을 인선하여 보임한다. 계급이 높기만 하면 모든 면에서 가장 우수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형적인 권위주의적 사고의 발로는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합참의장과 각 군 총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 합동참모회의 기능을 보강하면 충분히 각 군 총장의 경륜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손자병법에서 “승리하는 군대는 이겨놓은 후에 싸우고 패배하는 군대는 먼저 싸우고 후에 승리를 찾으려고 한다”는 말이 있다. 군정은 이겨놓기 위한 임무(양병, 정병)를 평시에 수행하는 것이며 전시에는 전쟁능력을 제공해 주는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한다. 참모총장은 군령지휘계선에 빠져 있어서 전시에 할 일이 없다고 주장하는 일부 국방부 찬성론자들의 의견에 대해서 참으로 할 말이 없어진다.

국방부는 또한 군정 군령을 반드시 일원화해야 하고 이원화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군정과 군령은 어느 수준에서인가는 반드시 이원화가 되게 되어 있다. 실제로 합참의장 또는 통합군 사령관 수준에서 군정과 군령을 일원화하는 국가는 대부분 공산국가나 독재국가이며 문민통제를 중시하는 서방 선진 민주 국가에서는 대부분 이원화되어 있다. 미국의 어느 전구사령관도, 그리고 걸프전 이라크전을 승리로 이끈 어느 전구 지휘관도 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전구사령관은 육·해·공 참모총장이 양성한 정예 장병과 제공되는 물자를 가지고 작전을 지휘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문민통제도 위태로워진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공산국가나 국내 정치권력을 군대의 힘으로 유지하려는 독재국가는 군과 정치의 구분이 모호하다. 군 경험이 없는 민간인도 계급을 갖는다. 정치권력을 국민이 선택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군의 최고사령관이다. 군의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은 자기의 대리인인 문민 국방장관을 통하여 군을 통수한다. 이것이 문민 통제의 기본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지금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의 국방에 관한 거의 모든 권한을 현역군인 1인에게 법적으로 부여해 주려는 시도를 하려고 하는 중이다. 첨단 정보통신(IT) 네트워크 시대에 20여 년 전에 시도하다가 무산되었던 통합군 제도를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향후 순수 민간인 출신 장관의 출현에 대비해서도 장관을 더 잘 보좌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더 잘 보좌하기 보다는 오히려 군 내부 사정에 어두운 민간 출신 장관을 현역 군인이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더 크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기되어 있는 합참의장과 참모총장의 명칭은 그대로 둔 채 합참의장에게 전군을 지휘하는 통합군사령관직을 총장에게 작전사령관직을 편법으로 부여하여 헌법의 기본정신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명한 우리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하리라 믿는다.

회 원 논 단

- 항공력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시대의 안보관 / 김구섭
- 항공력의 효율적 운용과 합동성 제고 / 이 찬
- 항공우주군 도약을 위한 전략의 디지털화 / 고덕천
- 항공무기체계 자주능력 향상의 필요성 / 전영훈

항공력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시대의 안보관



19기 사관 김구섭
(한국국방연구원장)

I. 서 언

기원전 5세기경,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 중국의 전략가 손자(孫子)는 전쟁과 국가안보의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파하였다.

무릇 용병의 법은, 나라를 온전하게 함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고 나라를 파괴하는 것을 그 다음으로 여긴다. 그러므로 백번 싸워서 백번 이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고, 싸우지 않고도 적을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전쟁을 오래 끌어서 나라에 이로울 것이 없으니... 전쟁의 목적은 천하의 모든 것을 온전하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¹⁾

손자에게 있어 전쟁의 정수(essence)는 부전승(不戰勝)과 결정적 승리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었다.²⁾ 전쟁은 피해야 할 정책수단이지만 만약 전쟁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속전속결의 방식으로 종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 지연되고 결정적이지 않은 다른 어떤 형태의 전쟁도 회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또한 국가와 국민의 안전(security)을 최우선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손자의 전략사상은 민주주의적 전쟁철학이

1) 노병천, 『기적의 손자병법』(서울: 양서각, 2006), pp. 43~46; 오수양, 『손자병법』(서울: 도서출판 주춧돌, 2008), pp. 19~24. 참조.

2) Michael I. Handel, 3rd ed., *Masters of War: Classical Strategic Thought*,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6), pp. 135~154.

라 할 수 있다.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전쟁을 배제하지 않되, 이를 국가안보의 문제와 결부시킨 손자의 전략사상은 이후 오랜 기간 동안 기술적 난제로 인해 관념의 영역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손자의 사상은 1940년대 초 군사적 항공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비로소 현실적 가능성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군사적 항공시대가 개막된 지 약 50년 후 인류는 마침내 그 역사의 현장을 목도할 수 있었다. 1991년의 걸프전은 바로 그 전형이었다.

미국의 항공전략가 와든(John A. Warden)의 동심원 모델로 대변되는 걸프전의 전쟁수행 방식은 손자의 전략사상을 전장에서 구현해 낸 혁명적 사건이었다.³⁾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공력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이는 초기 항공전략 사상가들이 구상했던 전쟁방식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걸프전 형의 전쟁수행방식은 비단 전략적 사고의 전환과 기술적 뒷받침이라는 두 가지의 조건만 충족된다고 해서 가능한 것은 아니다. 개별 주권국가의 정치적 속성은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필요조건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의 국가안보에 대한 관점은 어떠한 형태의 것이 되어야만 하는가의 문제에 대하여 이들 조건들을 중심으로 피력해 보고자 한다.

II. 항공력 시대의 태동과 전쟁에서의 특별한 공헌

1903년 12월 키티호크(Kittyhawk)에서 인류 최초의 유인비행이 성공하고 1920년대의 초기 항공전략사상가들이 항공력의 위력을 예언한 이래 항공력은 특별히 “유혹적인 형태의 군사력”이었다.⁴⁾ 두헤(Giulio Douhet), 트렌차드(Hugh M. Trenchard), 미첼(William Mitchell), 세버스키(Alexander P. de Seversky) 등으로 대표되는 초기 항공전략사상가들은 한결같이 앞으로의 전쟁에 있어 항공력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과감한 육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항공력은 전장이라는 실험실에서 그 진정한 가치를 시험받아야만 했으며, 선구적 항공전략사상가들의 예언은 이후 70여 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실현될 수 있었다.

돌이켜보면 오늘날의 항공력은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호전투의 살육장에서 탄생한 것이었다. 철조망과 참호 그리고 기관총으로 무장한 기나긴 전선의 교착상태로 대변되는 제1차 세계대전은 수많은 인명의 희생을 초래하였다.⁵⁾ 이에 정치지도자들과 군지휘관들은 그러한 파멸적 형태의 전쟁이

3) 걸프전 전쟁수행방식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John A. Warden III 저, 박덕희 역, 『항공전역』(서울 : 연경문화사, 2001), pp. 219~238. 참조.

4) Eliot A. Cohen, “The Mistique of U.S. Air Power”, *Foreign Affairs*, Vol. 73, No. 1(January and February, 1994), p. 109, 강성학, 『이아고와 카산드라 : 항공력 시대의 미국과 한국』(서울 : 도서출판 오름, 1997), p. 167에서 재인용.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쟁수행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⁶⁾ 바로 이때 항공력은 지상전의 교착상태를 피하면서 적국의 전략적 힘의 중심지를 직접 공략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었다.

손자의 전략사상과 상통하는 그러한 사고는 일부 참전국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고 제1차 세계대전에서 상처받은 대다수 국가들에게 공통된 것이었다. 그러나 항공력의 중요성은 영국과 미국 등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보다 급속히 발전되어 나갔다. 그것은 피보다는 기계로 전쟁을 수행하려는 전략문화의 소산이었다. 그 결과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연합국은 적국의 산업중심부를 파괴하는 전략폭격을 통해 유럽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⁷⁾ 항공력은 연합국뿐만 아니라 추축국에게도 막대한 이득을 안겨주었다.

독일군이 1939년에 폴란드, 1940년에 노르웨이, 베네룩스 및 프랑스, 그리고 1941년에 발칸 제국들과 러시아를 침공할 때 항공력은 전승의 핵심 요소였다. 독일의 침략에 대한 최초의 저지로 평가되는 1940년의 영국전투 또한 항공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1944년 6월 6일 프랑스에 대한 D-Day 침공부터 종전 시까지 연합군의 항공력은 서부유럽에서의 전역 수행을 지배하였다. 1941년 12월 7일 진주만에서 발생한 미국 태평양 함대의 파괴 역시 항공력의 전략적 가치를 실증한 사건이었다. 일본군의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및 네덜란드령 동인도 침략 성공 또한 강력한 항공력 덕분이었다. 태평양 지역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연합군의 역공세 시에도 항공력이 연합군 군사능력의 핵심요소였다.⁸⁾ 1945년 8월에는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막강한 항공공격과 함께 전쟁이 종결되었다. 항공력을 이용한 원자탄 공격은 일본본토에 대한 상륙작전을 불필요하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은 본격적인 군사적 항공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이후 전개된 치열한 냉전구조하의 군사적 각축장에서 항공력은 양대 초강대국들, 특히 미국의 억제전략을 지탱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다. 비록 월남전에서 항공인들의 핵심적 믿음이었던 전략폭격의 효과가 중력의 중심부(Center of Gravity)가 모호한 게릴라전 앞에서 무력감을 표출함에 따라 항공력의 가치는 큰 타격을 입었지만 결코 폐기되지는 않았다.⁹⁾ 1991년의 걸프전에서 정밀유도무기 등 첨단 과학기술로 무장한 동맹국의 항공력이 그 선각자들이 기대했던 바로 그것을 성취해 낸 것이다.

6) 강성학(1997), p. 174.

7) 강성학(1997), p. 174.

8) Andrew G. B. Vallance, *The Air Weapon : Doctrines of Air-Power Strategy and Operational Art*(New York : St. Martin's Press, Inc., 1996), Chap. 1.

9) 강성학(1997), pp. 174~175.

동맹국의 공군들은 미국이 월남전에서 11년간 투하했던 폭탄의 약 1%로 초전에 이라크의 전략적 중력의 중심부들의 대부분을 거의 동시에 병행적으로 파괴함으로써 후세인의 전쟁수행 의지를 말살시켰다.¹⁰⁾ 동맹국 조종사들은 압도적 항공력을 어느 곳에서도 집중시킬 수 있으며 적의 어떤 힘의 구조와 목표물도 공격할 수 있음을 과시하였다. 더구나 그러한 표적들을 아주 정확히 24시간 내내 공격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동맹국의 월등한 항공력은 이라크군에게 신이 내린 재앙과도 같은 물리적, 심리적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다.¹¹⁾ 이라크의 전략적 중력의 중심부들에 대한 거의 동시적 공격과 파괴의 결과, 동맹국들의 지상작전이 개시되기도 전에 이미 이라크는 전략적 마비 상태에 빠져 들었고 전쟁은 신속하게 종결되었다.

사막의 폭풍작전은 이후 탈냉전기의 불확실한 신세계질서 속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항공력의 강화에 매진토록 한 계기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항공력의 선각자들이 예견한 새로운 형태의 전쟁과 전쟁종결자로서의 위력적 항공력이 1991년 이라크에서 발현된 것이다. 나아가 이 신속하고도 결정적인 국가안보 달성방식은 이데올로기적 ‘역사의 종언’과 더불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안보수호자들에게는 하나의 정언명령이 되었다.

Ⅲ. 자유민주주의의 정언명령 : 평화친화적 · 인도주의적 안보 증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20세기 국제정치를 지배하였던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간의 이념적 대결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승리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는 이를 역사의 종언이라 선언하였고¹²⁾ 그것은 거시 국제정치적 차원에서 사실이었다.

폴란드를 기점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전환 이후 지구촌의 민주화 추세는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대세가 되었다. 민주화의 물결에 채 승차하지 못했던 일부 구소련 진영의 국가들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민주화 또는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향한 열망을 분출시켰다. 이는 2003년 그루지야의 장미혁명, 2004년 우크라이나의 오렌지혁명, 2005년 키르기스스탄의 툴립혁명 등 소위 색깔혁명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차원의 이같은 민주화 열풍은 2011년에 와서도 거세게 타오르고 있다. 튀니지에서의 재스민혁명은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민주화의 도미노 현상을 견인하고 있다.

10) 강성학(1997), p. 162; 박덕희 역(2001), p. 227.

11) 강성학(1997), p. 168.

12) 프랜시스 후쿠야마 저, 이상훈 역, 『역사의 종말 : 역사의 종점에 선 최후의 인간』(서울 : 한마음사, 2003)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확산은 국가안보를 달성함에 있어서 전략적 사고의 전환과 새로운 안보관을 요구한다. 민주국가의 국민들이 요구하는 안보는 가능한 한 군사력의 폭력적 사용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국가안보를 굳건히 달성해 내는 것, 즉 평화적이고 인도적인 방식의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에 의한 지도자의 선출, 인권의 보장, 권력분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구조와 제도를 구비하고 있다는 데서 연유한다. 이러한 평화친화적, 인도주의적 안보관은 21세기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하나의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들의 그와 같은 정치구조와 제도는 정치지도자들이 전쟁을 안보의 수단화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만든다. 민주국가의 국민들은 전쟁을 다른 수단에 의한 외교정책의 연장이 아니라, 외교정책의 실패로 보며 전쟁으로 인한 생명과 재산의 손실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정치지도자들은 그러한 국민여론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으며, 그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에서는 대규모의 폭력을 사용하는 결정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줄어든다.¹³⁾

그러나 민주국가가 평화지향적 성격을 가졌다고 해서 폭력수단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국가안보의 문제에 있어 비민주국가들과의 협상이 실패했을 경우, 민주국가들도 폭력적 수단의 사용을 고려하게 된다. 비민주주의 국가의 정책결정자들이 국내정치의 갈등이나 다른 나라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폭력이나 폭력의 위협을 빈번하게 이용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자행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은 그 전형적 사례에 속한다.

국가 간의 갈등을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비민주국가에 대응하여 설득과 타협의 평화적 규범만을 고수하는 것은 그들에게 잘못된 학습효과를 주입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영토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존속 문제와 같은 사활적 국가이익에 대한 침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비민주국가들의 폭력사용을 억제하는 데 실패했을 경우, 민주주의 국가들도 자신의 안보를 위해 폭력수단에 의존한다. 그러나 민주국가들의 폭력 사용 방식은 질적인 측면에서 중대한 차이점을 나타낸다.

그 차이점은, 폭력의 사용을 용인하면서도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들은 여전히 평화친화적이고 인도주의적인 군사력의 사용을 선호한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군지휘관들은 최단시간 내에 최소의 희생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전쟁, 전후(戰後) 교전국과의 정치적 관계까지도 염두에 둔 전쟁을 고려해야만 한다. 이는 국내·외적 여론에 민감한 국가적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패전국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또 다른 피의 악순환을 예방하려는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날의 국제사회는 고도로 상호의존적이어서 한 국가의 피폐화는 국제적 차원의 안보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13) 최상용, 『평화의 정치사상』(서울 : 나남출판, 1997), pp. 270~271.

따라서 현대의 전쟁과 미래의 전쟁은 평화친화적이고 인도주의적인 성격의 것이어야만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항공력 중심의 군구조는 현재와 미래의 국가안보를 위한 최선의 군사적 형태로 평가된다. 전·평시 그리고 국제적 위기 시에 항공력이 발휘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주요한 특성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안보요구에 가장 잘 부합되기 때문이다.

Ⅳ. 민주주의 친화적 안보역량으로서의 항공력

오늘날의 항공력은 정책결정자들이 안보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광범위한 선택지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러한 선택지들은 신속하고도 결정적인 전쟁의 수행뿐만 아니라 평화의 유지와 위기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항공력의 다양한 기능들 때문에 가능해진다.

우선 평화의 시기에 항공력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선의의 국제관계를 증진함으로써, 그리고 잠재적 적대국의 의도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국제안보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¹⁴⁾

① 홍수나 기근 등 다양한 형태의 재난에 직면한 국가에 신속하게 구호물자를 전달할 수 있는 항공력의 대응속도는 재난으로 인한 고통을 완화시키는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그와 같은 가시적 운용능력은 국가 간에 친선정신을 창출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우호적 관계를 증진시켜 줄 수 있다.

② 항공력은 또한 실재나 상상의 양 측면에서 안보불안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3차원에서 감시능력을 통해, 항공력은 잠재적 적대국의 군사적 의도를 판단할 수 있게 해 준다. 뿐만 아니라 항공력은 군비통제협약을 검증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증진시켜 줄 수 있다.¹⁵⁾

다음으로, 항공력은 폭력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국제적 위기를 관리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¹⁶⁾

① 항공력은 의도된 공격행위에 대한 사전 경보를 제공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예방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해준다. 1962년의 쿠바위기는 그 전형적 사례로 꼽힌다.

② 항공력은 공개적 대비태세의 증가, 평시 연습과 훈련의 강화 혹은 현시비행(presence flight) 등의 조치를 통해 명확한 정치적 신호를 전달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들

14) 이하 ①~②의 상세한 내용은 공군사관학교, 『항공전략론』(청주: 공군사관학교, 2008), pp. 74~75. 참조.

15) 비준국 간에 상호의 영토 상공을 자유로이 감시비행할 수 있게 허용하고 그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영공 개방협정(The Open Skies Agreement)은 상호 신뢰구축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16) 지표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원거리에서도 신속하게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특징은 항공력을 국제위기 관리를 위한 이상적 수단으로 만들었다. 이하 ①~⑨까지의 세부내용은 공군사관학교(2008), pp. 76~79. 참조.

은 의도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며 잠재적 적대국의 오산(miscalculation)을 감소시켜 준다.

- ③ 항공력은 위기 시 동맹국과 우방국을 위해 적시의 정신적, 물리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침략행위에 대한 대응 결의(resolve)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1948년~1949년의 베를린 공수는 위기에 처한 우방국에 대한 서구 강대국들의 지원 능력과 의지를 과시한 것이었다.
- ④ 항공력은 1976년 이스라엘이 우간다의 엔테베 공항에서 수행한 인질 구출작전과 같이 위기 상황에서 비치명적 구조작전을 위해 사용될 수도 있다.
- ⑤ 항공력은 또한 내란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지역 혹은 지역분쟁이 이웃국가들로 파급되어 위협을 받고 있는 지역 등에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군이나 지상군 전력을 투입하는데도 사용될 수 있다.
- ⑥ 위기관리의 차원에서 항공력은 묵시적 억제력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정찰 또는 감시 항공기를 전개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은 잠재적 적대국에게 자신의 행동이 감시당하고 있으며 대응공격에 직면할 수 있음을 경고함으로써 잠재적 침략자에 대한 억제효과를 창출한다.
- ⑦ 항공력의 신속한 중심타격 능력은 잠재적 침략국에 대한 강력하고도 명시적인 억제력이 된다. 19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지 수 일 만에 연합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항공력을 급파한 것은 더 이상의 이라크의 침공을 억제하는 신호로 작용하였다.
- ⑧ 위기관리의 최상위 수준으로 진전되는 과정에서 항공력은 물리적 폭력에 호소하지 않고도 잠재적이거나 실제적인 침략국을 굴복시키는데 사용될 수 있다. 소위 비치명적 강압능력이다. 1976년 8월 한국의 비무장지대에서 자국의 병사 2명이 살해당하는 사건에 대응하여 미국은 한국에 항공력을 급파하였다. 그러한 대응은 북한의 신속한 공식적 사과를 이끌어내었다.
- ⑨ 필요 시 항공력은 전면전을 피하면서 외과수술과도 같은 처벌작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예의 하나가 바로 국가에 의해 후원받은 게릴라나 테러리스트들에 의한 공격행위에 대한 대응이다. 그 같은 경우, 침략당사자들을 직접 공격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으나, 그들을 지원하거나 부추기는 행위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대체로 가능한 일이다.

위기관리에 실패하여 무력분쟁이 초래되면, 항공력은 최소한의 인명손실로써 성공적 작전을 수행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이는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 화력을 투사할 수 있는 항공력의 독특한 능력에서 주로 기인한다.¹⁷⁾

- ① 전시 적의 활동과 전개상황에 대한 감시는 정보기획과 성공적인 군사작전의 수행을 위한 기

17) 이하 ①~⑧까지의 상세한 내용은 공군사관학교(2008), pp. 79~82. 참조.

반이 된다.

- ② 항공력의 가장 명백한 전시 적용은 파괴를 위한 것이다. 걸프전 당시 항공력은 쿠웨이트 전역에 전개된 이라크의 탱크, 야포 및 병력수송을 위한 장갑차들의 거의 절반을, 연합군의 지상공격이 시작되기도 전에 파괴하였다.
- ③ 시간에 무관하게 적 영토 중심 깊은 곳에 도달할 수 있고 표적군(target sets)의 전 영역을 공격할 수 있는 항공력의 능력은 분쟁 시 적을 강압하는 데에도 유용성을 가진다. 1972년 12월 북베트남이 파리 평화협상을 교착상태로 만들자 미국은 공중폭격을 하노이와 하이퐁까지 확대하였다. 폭격을 통한 강압이 시행된 11일 후에 북베트남은 평화협상 복귀에 동의하였다.
- ④ 항공력은 또한 적국의 효과적 군사력 사용능력을 거부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영국전투에서 영국공군은 독일의 침공을 거부하는 실질적이고 유일한 수단이었다. 1973년 욜 키푸르 전쟁 당시 이스라엘의 항공력은 시리아의 기습공격을 봉쇄함으로써 국가적 재앙을 피할 수 있게 한 결정적 요소였다.
- ⑤ 항공력에 의한 표적파괴와 그로 인한 부수적 피해는 적군의 사기에 충격을 가함으로써 정신적, 도덕적 그리고 물리적 일탈(dislocation)을 야기시킬 수 있다. 일탈은 지연과 혼란을 초래하고 부대의 응집력을 파괴하며 모든 종류의 후속공격에 적이 보다 더 취약하도록 만들어 준다.
- ⑥ 항공력은 적의 군사력과 자원을 임무전환(diversion)시키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 민감한 표적군에 대한 공세적 전략폭격은 적의 지상군에 필요한 야포를 방공전력으로 전환하도록 만들 수 있다. 또한 교통 요충지를 공격함으로써 적 지상전력의 도착을 지연시키거나 혹은 봉쇄나 파괴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만들 수 있다.
- ⑦ 일탈, 파괴 혹은 전환으로 인한 효과는 또 다른 전시 항공력의 중요한 효과인 지연을 창출해낼 수 있다. 방어적 상황에서, 적에 대한 지연의 부과는 아군의 방어를 강화해주거나, 적의 공격템포에 영향을 줌으로써 우군 전력이 적의 공세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해준다. 공세의 상황에서는 적의 도피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 ⑧ 항공력은 효과적으로 적의 사기저하를 창출해낼 수 있다. 공중공격은 가해진 피해와는 상관없이, 사기를 저하시키는 특별한 효과를 항상 가진다. 항공력에 의한 사기저하 영향의 가장 좋은 사례도 걸프전에서 찾을 수 있다. 쿠웨이트와 이라크 남부에 대한 연합 지상공격 작전이 개시될 즈음, 공중폭격은 대부분의 효과적 방어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이라크 군의 사기를 저하시켰다. 연합군이 단 5일 만에 약 10만 명의 전쟁포로를 창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공중공격의 사기저하 효과에 의한 것이었다.

상술한 바와 같은 항공력의 전·평시 및 위기 시 다양한 활용성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인도주의적 그리고 평화친화적 안보요구에 가장 잘 부합되는 군사적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항공력의 이 같은 특성은 1999년 유고슬라비아 폭격 이후 더욱 결정적으로 진전되었다.¹⁸⁾ 걸프전에서 정밀유도 무기 사용비율은 총 투하량의 약 8%에 불과하였으나 코소보전에서는 40%, 2001년의 아프가니스탄전에서는 60.4%, 2003년의 이라크전에서는 67%를 차지하였다.¹⁹⁾ 고도의 정보·통신기술과 항공력이 결합된 정밀폭격 능력은 대규모의 전력투입이 없이도 전쟁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러한 군사기술의 발전은 오늘날 효과중심 작전(EBO), 신속결정적 작전(RDO), 네트워크 중심전(NCW) 등의 전쟁수행개념으로 진화되는 데 기여하였다.

국가안보의 관점에서 중요한 점은 이들 개념의 핵심이 피아 간 물리적 접촉을 최소화하면서도 최단시간 내에 원하는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전투원과 비전투원 모두에 대한 위협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국가의 온전한 보존을 지향하고 있으며 그 토대는 항공력이라는 점을 간파하는 데 있다.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방향으로 우리의 사고를 전환하는 것이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국민적 안보요구에 가장 올바르게 부응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직시하는 것이다.

V. 우리의 바람직한 안보관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는 방식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세련되어져야 하고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다. 국가안보의 문제에 대한 관점과 관련하여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은, 국내 정치적 특성과 국제사회의 규범을 고려하여 이를 최대한 발현시킬 수 있는 형태로 안보관을 정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군사적 도발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관계가 한층 악화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군사적 대응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관계개선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정치적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며 북한에게 그러한 선진규범을 학습시킴으로써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고자 함이다. 그러나 북한이 당장 민주주의적 규범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북한 김정일 정권이 생존전략으로 내세운 선군정치는 그 아버지의 유산이며 민주적 규범과는 본질적으로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이다. 김일성에게 있어 역사는 모순(矛盾) 간의 갈등해소 과정이며 대화와 타협으로 해소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최선의 국가형태는 폭력수단의 사

18) 신길순, 『전쟁과 평화 : 21세기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서울 : 도서출판 삼인, 2003), p. 50.

19) 공군사관학교(2008), p. 301.

용에 능숙한 국가일 수밖에 없다.²⁰⁾ 따라서 국가체제는 그렇게 조직되어야만 하고 전쟁과 그 수행방식은 어떤 형태라도 정당화된다.

우리 한국의 안보딜레마는 바로 이러한 현실에서 비롯된다. 대화와 타협을 우선시하고 평화와 안정을 지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강력한 힘으로서 북한에 의한 폭력적 위협에 대비해야만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것을 사용해야만 한다. 국가의 물리적 존립과 정치적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만 하고 나아가 이를 평화적 남북통일로 승화시켜 나가야만 하기 때문이며, 군사적 역량은 이를 위한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베게티우스(Flavius Vegetius)도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Si vis Pacem para Bellum)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베게티우스보다 한층 더 세련되어야 한다. 역사의 종언 시대에는 “평화를 원하면 평화지향적이고 인도주의적인 전쟁을 준비하라”고 해야 한다. 그래서 항공력 중심의 국가안보관과 대비태세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마치 정언명령과도 같이…….

참 고 문 헌

- 강성학, 『이아고와 카산드라 : 항공력 시대의 미국과 한국』(서울 : 오름), 1997.
공군사관학교, 『항공전략론』(청주 : 공군사관학교), 2008.
노병천, 『기적의 손자병법』(서울 : 양서각), 2006.
신길순, 『전쟁과 평화 : 21세기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서울 : 삼인), 2003.
오수양 편역, 『손자병법』(서울 : 주춧돌), 2008.
최상용, 『평화의 정치사상』(서울 : 나남출판), 1997.
프란시스 후쿠야마 저, 이상훈 역, 『역사의 종말 : 역사의 종점에 선 최후의 인간』(서울 : 한마음사), 2003.
John A. Warden III 저, 박덕희 역, 『항공전역』(서울 : 연경문화사), 2001.
Handel, Michael I., 3rd ed., *Masters of War : Classical Strategic Thought*, London and New York : Routledge, 2006.
Hodge, Homer T., “North Korea’s Military Strategy”, *Parameters*(Spring 2003).
Vallance, Andrew G. B., *The Air Weapon : Doctrines of Air-Power Strategy and Operational Art*, New York : St. Martin’s Press, Inc., 1996.

20) Homer T. Hodge, “North Korea’s Military Strategy”, *Parameters*(Spring 2003), pp. 71~72.

항공력의 효율적 운용과 합동성 제고



21기 사관 이 찬

I. 서 론

손자가 전쟁의 목표는 정치적 목표들의 성취를 의미하며, 정치적 목표의 핵심은 국가이익이라 하였다. 따라서 최선의 전략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며(不戰而勝者 最善之善者也), 만약 전쟁을 선택해야 한다면 최선의 전략은 국가의 손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능한 짧은 시간에 가장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승리를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손자의 교훈은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의 군사력 운용에 있어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우리는 세계 어느 곳보다도 좁은 지역 내에 파괴력이 강한 군사력이 밀집되어 있으며 강대국의 이익이 충돌하는 지정학적 환경에 처해있다. 또한 국가 국력의 중심축인 경제력에서 자원이 부족하고 농업이나 산업생산력에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어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며, 한번 중단되거나 파괴되어 세계의 발전 추세에서 뒤떨어지면 영원히 따라갈 수 없거나 많은 시간과 노력, 고통이 요구되는 지식 중심의 분야에서 부를 창출해야 하는 경제적 환경에 처해 있다. 2차 대전 시 영국이 독일의 무차별적인 도시폭격에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으면서도 나라를 지켜낸 것은 처칠(Winston Churchill)의 지도력에 묵묵히 따랐던 런던 시민의 인내력과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신념이 강했던 사회적 환경의 덕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가치 아래 전장지역에 파병된 부대의 병사 1명이 희생되자 파병부대가 국제사회와의 신의와 믿음을 뒤로하고 철수해야만 했던, 사회적 인내력의 변화와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는 정치·사회적 환경에 처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환경 하에서 전·평시 국가

안보목표를 달성하기에 적합한 군사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맞는 군사력을 건설하고 있는지, 현대전 수행에 적합한 군의 지휘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며 양병 체제를 갖추고 있는지, 아니면 옛날의 전투 방식에 안주하여 기득권 다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군은 오랫동안 군사연습을 하면서 워게임이라는 도구를 기반으로 하여 연습을 실시하고 있다. 워게임이라는 툴(tool)은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설계되어 전쟁을 수행하는 제도와 절차(System and Procedure)를 발전시키고 주어진 작전적·전술적 환경 내에서 지휘관의 판단 능력을 향상시키며 수립된 작전계획을 검증할 수 있는 좋은 툴이다. 그러나 주어진 상황에서 결과를 산출하는 방식은 전투를 수행하는 쌍방의 전력(화력, 장비, 병력 등)의 양적 세기를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워게임은 적이 싸우고자 하는 방식대로 준비한 전력과 이에 대응하는 전력 간 세력의 강약을 기반으로 판단토록 논리가 설정되어, 적의 전쟁수행 능력의 핵심이 되는 적의 지휘통제 체제를 마비시켜 전투력을 사전에 사용 못하게 하고, 우리의 DIE(Diplomatic, Information, Economic) 역량을 활용하여 적의 총체적 전쟁수행 능력을 저하시키며, 심리전을 통한 전쟁수행 의지를 저하시키는 등 전략적 수준의 노력이 반영되지 못하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워게임 환경에 너무 익숙해지면 적이 준비한 강한 군사력을 어떻게 격퇴하고 파괴시킬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우리의 전력을 작전적·전술적 목표에, 즉 단기적이고 전면적 직면한 적의 전투력에만 집중함으로써 소모적이고 섬멸적인 작전계획이 수립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면 전쟁이 종료된 후에는 대량파괴로 인하여 우리의 핵심 생존 역량까지 파괴됨으로써 우리가 추구하는 국가의 안보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전략적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군사전략을 수립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원하는 최종의 목표가 어떤 것인가(End State가 무엇인가), 목표 달성에 필요한 전력은 무엇인가, 가용한 전력으로 어떻게 싸울 것인가(How to Fight)등이다. 이에 대한 고려가 우선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이해하면서도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에서는 각 군의 군사력 건설의 방향과 규모, 지휘 결심체계의 구조, 양병 등의 이해관계가 연결되어 이견이 종종 발생되고 있다. 각 군이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기 전에 지·해·공 전력의 특성과 장단점을 이해하고, 전쟁의 목표(전략적, 작전적, 전술적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력이 가장 적절하며, 적절한 전력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각 전력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합동성을 유지할 것인지를 우선 생각한다면, 자연히 각 군의 이견을 없앨 수 있다고 믿기에 먼저 항공력의 특성과 효율적인 운용이 어떤 것이며 항공력을 활용한 합동성 제고가 어떻게 되어야 하나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항공력의 올바른 이해와 효율적 운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항공력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전에 적과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 적의 군사적 중심(Center of Gravity)은 무엇이며, 항공력의 특성은 어떤 것인가를 이해함으로써 항공전력을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1. 어떻게 싸울 것인가? (How to Fight?)

어떻게 싸울 것인가는 군사력을 건설하고 지휘체계를 구성하며 전력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군사전략 수립의 핵심사항이다. 프랑스는 1차 세계대전 후에 전 군사력을 마지노선 건설에 투자하고 50여개 전투사단을 배치하여 독일 공격에 대비하였으나, 독일이 기계화 기동 전력으로 마지노선을 우회하여 공격함으로써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여 준비한 방어선과 전력이 싸움 한번 못하고 무용지물이 되어 1주일여 만에 수도 파리를 적에게 내주고 항복하였다. 이 예는 프랑스가 과학의 발전 추세와 독일군의 강·약점을 잘못 판단하여 앞으로의 전쟁도 선형적이고 소모적일 것이라는, 즉 전쟁 수행방법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잘못 판단하여 전쟁에서 패한 좋은 사례이다.

북한은 주민의 수백만 명이 굶주림에 죽어가고, 야간 위성사진을 보면 북아프리카 사막보다도 더, 태평양 한가운데의 암흑세계와 같이 전력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120만의 군대를 유지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광분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을 대적해야 하는 우리가 전쟁 후에도 번영을 지속하여 이어 갈 수 있도록 핵심가치를 보존하고, 전쟁복구에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 소모적이고 섬멸적인 전쟁을 피하려면 전쟁 초기에 북한 군사력의 중심 내 적의 약점에 전력을 집중 투자하여 단시간 내에 전쟁을 종결시킬 수 있는 How to Fight가 돼야 한다.

2. 북한 군사력의 중심과 약점

북한의 군사적 중심(강점)은 수준별로 아래와 같이 판단된다.

수 준	중 심(강 점)
전략적	● 중국, 러시아의 지원 ● (공산당)의 강력한 군 통제 체제 ● 핵/미사일 전력
작전적	● 전/후방지역의 기계화 군단/사단 ● 20만의 지·해·공 특작 부대
전술적	● 전방 배치된 장사정포와 강한 포병 전력

이러한 북한군의 전략적, 작전적, 전술적 중심은 강력하지만 동시에 약점도 갖고 있다. 먼저 북한의 전략적 중심인 김정일의 강력한 군 통제체제는 군 지휘관의 군사적 상황보다는 당 군사 지도원의 지침하에 작전을 수행해야하므로 상부와 지휘체계상 연결고리가 단절될 경우 다양한 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없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핵미사일 전력은 사용하기 전에 지상에 노출시켜 준비해야 하는 취약점을 갖고 있다.

둘째로 북한군의 작전적 중심이 되는 강력한 기계화 부대는 북한의 산악지형과 열악한 도로 사정상 전선 투입을 위한 이동 간에 공중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특작부대 역시 침투수단을 이용하기 위해 특정시설(해·공군기지)에 집결해야 하며 침투수단은 자체 방어력이 약하다는 약점이 있다.

셋째로 전술적 중심이 되는 강력한 화력(포병 전력)은 전선에 가깝게 배치되어 정찰전력에 쉽게 노출되며, 공격을 위해서는 엄체화된 시설에서 사격지역으로 나와야 하는 약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북한군의 중심들은 전쟁 초기, 전투력이 발휘되기 이전에 공격한다면 무용지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다.

3. 항공력의 특성과 현대 전략사상

결론부터 말하자면, 항공력은 적의 군사적 중심(강점)들이 능력을 발휘하기 이전에 무력화시키고 파괴하여, 소모적이고 섬멸적인 전투를 하지 않고서 전쟁을 조기 종결하여 국가안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전력이다. 항공력의 특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항공력은 육지와 바다 상공의 공중과 우주공간에서 자유롭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력으로 2차원 표면의 자연과 인공 장애물에 의한 제한요소를 뛰어넘어 목표 지역에 도달할 수 있다.

둘째, 요구되는 시간과 장소에 전투력을 신속하게 집중하거나 동시에 다양한 지역에 전력을 투사할 수 있고, 단시간에 여러 장소에서 군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셋째, 항공력은 먼 거리까지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는 지·해상 전력과 구별되는 능력으로, 이를 활용하여 중심 표적을 직접 공격할 수 있고, 전선을 고립시키기 위한 항공차단 작전이 가능하다.

넷째, 높은 정확도를 이용하여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표적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효과 달성에 지·해상 전력보다 적은 전력으로 임무가 가능하다.

다섯째, 항공력은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운용 가능하고 주변 환경과 요구조건, 상황의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여 전장을 원하는 방향으로 조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현대전의 전략사상은 이러한 항공력의 특성을 바탕으로 발전되고 있다. 걸프전 시 ‘사막의 폭풍

작전'과 이라크전의 '이라크 자유작전'의 전역계획은 존 보이드(John Richard Boyd)의 OODA 이론(전쟁은 관찰-판단-결심-행동의 연속으로 적의 이러한 고리를 끊음으로써 승리로 이끌 수 있음)과 존 와든(John Ashley Warden Ⅲ)의 5개 동심원 이론(국력은 리더십, 유기적 필수요소, 기반구조, 인구, 야전전력으로 구성되어 동심원의 중심부 쪽에 해당하는 리더십의 타격이 중요함)에 기초하여 계획되었다. 또한 우리 군이 적용하고 있는 효과기반 작전(EBO: Effects Based Operations)도 군사력의 운용을 적의 군사력 파괴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적의 전쟁수행 의지와 핵심 기반능력의 저하 및 적 중심의 파괴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달성함으로써 전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항공력의 특성(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다.

4. 항공력의 효율적 운용

항공력을 어떻게 운용하는가의 문제는 항공력이 갖고 있는 능력을 어떻게 최대한 발휘시켜 목표를 달성하느냐의 문제이다. 항공력을 화력의 운반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운용한다면 항공기는 값비싼 또 하나의 대포일 뿐이다. 항공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하여 전쟁에서 패한 예가 베트남전이다. 미국은 막강한 항공력을 정치적인 이유로 적의 전쟁수행 의지 저하나 능력 파괴보다는 지상군의 근접전투나 베트공의 지원물자 차단에만 주력함으로써 모든 전술적 전투에서 승리하였으나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다.

그렇다면 항공력을 어떻게 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성을 높일 수 있나?

첫째, 전략목표에 중점 운용해야 한다.

북한과 같이 1인 독재하에 강력한 재래식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체제에 대하여는 적의 전쟁수행 능력과 전쟁을 지속하려는 의지를 조기에 무력화할 수 있는 곳에 중점 운용하여 신속한 행동변화를 강요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적의 전력에 항공력 운용의 초점이 맞추어지면 장기적이고 섬멸적인 전쟁으로 변하여 전쟁에 승리하고도 생존 전략에 실패하게 된다.

둘째, 공세 전력으로 운용해야 한다.

적의 작전적, 전술적 중심들이 능력을 발휘하기 이전에 파괴될 수 있도록, 항공력의 장점인 기동성, 신속성, 정밀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공세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불행히도 많은 군사연습 중에 지상전에 익숙한 지휘관에 의해 공격전력이 방어적인 전력으로 전환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물론 근접지원으로 항공전력이 운용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근접지원을 전문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력을 별도로 육성해서 운용해야지, 고가치 전력을 전환시켜 방어진력으로 운용하는 것은 전쟁을 소모적이고 섬멸적인 전쟁으로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병행전쟁을 수행토록 운용해야 한다.

전쟁의 과정은 지휘결심의 연속된 과정이다. 적보다 먼저 옳은 결정을 하고 행동할 수 있다면 적은 항상 대응하기에 급급하게 되고 당황하게 되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상실하고 전쟁에서 패하게 된다.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항공력이다. 적의 중심을 동시에 공격하여 적을 당황하게 만들고 전략적으로 마비시키면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군의 손실을 최소화시키면서 신속히 전쟁을 종결시킬 수 있다. 스텔스, PGM(Precision Guided Munition), GPS, 야간 저고도 항법/표적장치(LANTIRN : Low Altitude Navigation and Targeting Infrared for Night) 등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병행전쟁을 수행토록 운용해야 한다.

넷째, 제공권을 조기에 확보토록 운용해야 한다.

제공권의 조기 확보는 지·해상전력의 자유로운 행동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적의 활동을 억제하여 적 전력이 전장에 투입되지 못하게 한다. 초기에 적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항공력을 근접전투에 집중 투입하면 제공권 확보가 지연되고, 따라서 적의 공중공격에 대비토록 지·해상 전력이 자체 방공에 병력 및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 지·해상군이 공군의 방공지원이 안 되는 원거리에서 작전하는 환경이라면 몰라도, 우리와 같이 좁은 전역에서 작전 시에 많은 재원을 방공에 투자한다는 것은 전력 낭비적 사항인데 안타깝게도 현실이 되고 있다.

Ⅲ. 합동성을 어떻게 제고시킬 것인가?

과학의 발전에 따라 각 무기체계의 파괴력, 정밀성, 도달거리가 획기적으로 변하면서 지·해·공 전력 운용의 전통적 영역이 서로 겹치게 되고 운용방식이 변화됨에 따라, 이 전력들을 어떻게 조화시켜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인가 하는 전력운용의 합동성 문제가 점점 심각한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우리군 내외에서도 합동성 제고를 위해 군의 지휘조직의 구조와 교육체계 등을 변화시키겠다고 여러 의견들이 제기되고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들을 보면 전력운용의 합동성을 전투지역에서 각 군의 화력 협조지원 정도의 전술적 차원에서 합동성에 접근하는 것은 아닌가? 천안함 사태 시 상황보고 계통에 있던 한 장교의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교육에서 비롯된 군인의 가치관 부재 및 개인의 욕심에서 발생한 문제가 합동성이 부족하여 발생한 문제라고 진단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합동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이라고 접근하는 오진에 의한 오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합동성의 제고라는 명목하에 고도의 전문성이 있어야 발휘되는 현대 무기체계의 특성을 희생시키면서 자군에게 더 좋은 자리를 만들려고 조직을 바꾸고 통합시키려는 의도를 포장하여 합동성의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과연 우리가 추구하고 있고 추구해야 할 합동성이 무엇인가, 합동성을 추구해서 얻으려는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

들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생각하게 된다.

전쟁사를 보면서 합동성의 문제를 정말 잘 이해했던 장군은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이 아니었나, 하는 마음이 든다. 칸네(Cannae) 전투에서 최소의 희생으로 무적의 로마군단을 섬멸시킨 결과 때문이 아니라, 장군이 지휘했던 전력(병사)의 운용 능력(용병술)과 지도력이 현대 합동성의 정신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지중해 최고의 부자나라 카르타고가 로마의 군사력에 굴복하여 돈으로 로마에 평화를 사려했던 정치가들의 압력을 물리치고(정치적 지지가 약했던 환경을 극복해야 하는 불리한 여건), 각각의 문화가 다르고 싸우는 방식과 무기 및 능력이 상이한, 각지에서 돈으로 고용한 용병(추구하는 목표가 국가의 안보가 아닌 개인과 자기 집단의 이익이 목표인 충성심이 약한 조직)을 갖고 세계 최강의 전투력을 갖춘 로마군단을 섬멸하였다. 이것은 각 용병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능력을 잘 이해하고, 잘못 통합시키면 모래알 같이 무너질 수 있는 각각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조직·배치·운용한 용병술, 그리고 용병들을 융합시킬 수 있는 지도력의 결과이다.

지상군의 관점에서는 전쟁의 승리는 전면에 전개된 전력을 파괴하고 지역의 점령, 주민의 지배, 그리고 점령된 지역에 승리의 의지를 강요하는 것으로부터 온다고 보기 때문에 가용전력 사용 시 제일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지상전이라고 판단하기 쉽다. 한편, 해군의 시각에서는 해양의 통제에 의한 경제적 생존력을 유지하고 적의 측방을 위협·공격하여 적의 전력을 분산시킴으로써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해양통제에 우선적으로 가용 전력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또한 공군도 지·해상군과 비슷하게 적의 전쟁 수행의지와 핵심능력을 파괴하는 것이 승리의 길이요, 적의 지·해상군 전력은 적의 여러 전쟁수행 핵심 중에 하나라는 관점을 갖기 때문에 적의 핵심을 자유롭게 파괴할 수 있고 환경 조성 및 핵심타격에 주(主)전력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자원의 제한을 받는 합동전역에서 각 군의 우선순위가 상이하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이해하지 못하고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는 지휘관에 의해 전력이 편향되게 운용되고 통제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휘통제의 문제를 야기하고 합동성을 저해하게 된다. 특히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최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현대전에서는 더욱더 심각해진다. 합동성의 문제는 조직을 단순히 통합하거나 각각의 전문성을 상실할 수도 있는 단순 혼합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따라서 합동성을 제고시키려면 첫째로 전력운용의 합동성, 즉 전력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의 합동성이 이루어져야 지·해·공 전력의 능력을 최대·최선으로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불행히도 우리군은 지상전투에 익숙한 사람들이 최종결심의 위치를 모두 점하고 있

으며,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고위 참모들도 지상전투에 익숙한 사람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합동성이라는 의미가 전술적이고 화력협조 수준의 합동성만을 추구하게 되어, 단거리적이며 소모적이고 섬멸적인 전략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되어 전쟁에서의 승리 및 국가안보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둘째, 구성원의 전문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합동성은 음악의 오케스트라와 같다. 아무리 훌륭한 지휘자가 있더라도 각각의 악기를 다루는 연주자들이 자기 악기에서 좋은 음을 낼 수 있는 전문성(능력)이 부족하다면 좋은 하모니를 이룰 수 없듯이, 자기 무기체계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도록 교육되지 못하면 훌륭한 합동성을 이룰 수 없다. 합동성을 제고한다고 제시한 방안들을 보면 전문성을 상실할 수 있는 조직의 통합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셋째, 합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최고의 합동성은 전쟁을 하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합동성이다. 즉, 도발의지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무기체계와 도발 시에는 즉시 적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는 스텔스기 같은 무기체계를 갖춘다면 도발의지를 꺾고 전쟁을 하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不戰而勝者 最善之善者也”

IV. 결 론

IT 산업의 발달로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했다. 스마트폰 속에는 무한한 기능이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활용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각종 기능(Application)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은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기능을 얼마나 이해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전화통화와 문자나 보내는 기능을 발휘하는 사람에서부터 세계의 모든 정보를 활용하고 생활의 편리함을 넘어서 무한한 능력을 창출하는 사람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우리 군도 스마트폰의 모든 기능을 훌륭히 활용하는 ‘스마트한 유저(User)’처럼 군의 모든 능력을 사용할 수 있고, 새로운 능력을 창출할 수 있는 ‘스마트한 군’이 되자.

항공우주군 도약을 위한 전략의 디지털화



25기 사관 고덕천
(항공우주정책연구원장)

I. 들어가는 글

2010년 3월 23일 북한 잠수함의 어뢰에 의한 한국해군 초계함인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한국군의 대비태세와 군사력 건설방향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해군의 '대양해군 육성'과 공군의 '항공우주군 육성' 비전이 현실적이지 못하며 환상적이라는 것이었다. 군이 약간은 이상적인 방향으로 군 건설에 매진하는 동안에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의한 국지도발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는 방향으로 여론이 전환되었다. 이러한 바람을 타고 세계 최대 규모의 북한 특수부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방개혁의 지상군 병력 감소계획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정전상태하에서 북한의 잠수함이 해군의 전투함정을 기습적으로 공격한 상황을 해석하는 틀이 정확한 방향이었던지는 판단이 어렵지만, '강한 항공우주군 육성'에 비전을 두고 착실하게 전력증강을 해 나가고 있는 공군이 공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허망한 질타를 받았다.

공군의 작전 영역은 남북으로는 마라도 남단에서부터 두만강까지, 동서로는 서해에서 독도 동쪽까지, 수직으로는 지상에서 우주까지이다. 현재의 공군이 전체 한반도 영역을 방어하고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전 작전 영역에 걸쳐 한국의 의지를 투사하고, 적의 도발을 억제하며, 유사시 항공우주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항공우주군 육성이 시급한 데 DMZ와 NLL만을 보는 수평적 시각에서 국가안보를 보는 게 아닌가 우려되기도 한다.

공군은 현재도 항공우주작전을 하고 있다. 공군작전사령부에서 실제 작전을 지휘통제하고 있는

부서의 명칭에 ‘항공우주작전본부’가 있다. 항공우주작전본부는 걸프전 이후 미군에 의하여 발전시켜 온 지휘통제체제의 하나로 그 기능 내용에 우주작전 요소가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다.

GPS를 활용한 항법, 정밀유도무기 공격, 통신인공위성을 활용한 통신과 데이터 링크 체계, 전구미사일 방어체제(TMD), 정보감시정찰(ISR), 기상예보 등이 실제 공군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항공우주작전 기능들이다.

물론 많은 기능들이 미국의 항공우주자원들을 활용하고 의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술력을 발전시키고 항공우주작전 기능들을 하나하나 구축해 나가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미군이 항공과 우주를 분리하는 개념이 아닌 Air & Space Power란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항공우주군이란 용어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왜 그러한 논란이 있었는가? 나름대로 생각해 본 바로는 디지털 사고와 아날로그적 사고의 충돌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사전적으로 아날로그란 용어는 ‘어떤 수치를 길이나 각도 또는 전류 등의 연속된 물리량으로 나타내는 것’이며 디지털이란 용어는 ‘자료를 수치로 바꾸어 처리하거나 숫자로 나타내거나 하는 것’이다. 일반 상식으로 아날로그는 ‘기계적’인 것이며, 디지털은 ‘전자적’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결국 아날로그는 1 : 1 전달 개념으로 크기와 무게가 있어야 성능도 증가하며, 1 : 1개념을 발전시키려면 자동화해야 하는 3차원적 방법이다.

반면에 디지털은 정보처리의 양이 빠르고 많기 때문에 소형화가 가능하고 광역화할 수 있으며, 실시간 전달이 가능한 시간적 개념이 추가되는 4차원 개념이다. 3차원의 문화와 4차원의 문화가 충돌하는 것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 것인지 이것이 우리의 숙제이다.

II. 항공우주군 도약을 위한 고려사항

공군이 항공우주군으로 정착이 되고 발전을 시키기 위한 선결과제가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해 본다.

1. 항공우주군의 개념 정립과 대내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이다.

공군이 왜 항공우주군으로 비전을 정하고 나아 가야 하는지 개념정립을 하고 이를 대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군에서는 기본교리로써 항공우주군에 대한 개념을 이미 정립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홍보의 부족으로 항공우주군하면 스타워즈 같은 우주전쟁을 떠올리고 그러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늘로! 우주로!’외치는 한국 공군이 꿈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을 받는 것 같다. 항공우주군은 미래의 목표가 아니고 현재 항공우주작전을 하고 있는 공군의

능력을 더욱 향상 발전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

2. 합동작전의 개념정립이다.

요즈음 한국군에게 합동작전이란 말처럼 만병통치약으로 쓰이는 말도 없는 것 같다. 국방개혁의 논리에는 합동작전이 최우선이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 합동작전을 저해하는 자군 이기주의 언행으로 몰아 부치는 경향이 있다.

미군은 걸프전, 보스니아전과 아프가니스탄전 등 현대전을 치루면서 합동작전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실전경험을 통하여 합동작전체제를 구축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러한 미군에서 현대전의 핵심적 작전개념인 ‘효과중심작전(EBO)’ 개념을 개발하고 효율적인 합동작전을 주장하고 있는 미 공군의 (R) Lt General Deptula 장군이 2011 서울 KODEF 주관 국제안보세미나에서 정의한 합동작전의 정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o What jointness is not :

합동성이란

– It is not using every force, every place, all the time

모든 군을, 어느 장소에나, 언제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 It is not four separate service components aligned under a single commander

한명의 지휘관하에 육 · 해 · 공 · 해병대를 배속시키는 것이 아니다.

– It is not equal share of the action or applied resources

역할과 적용 가능한 자원을 균등하게 배분/공유하는 것이 아니다.

– It is not homogeneity among services

군 간의 균등성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다.

o Jointness is using the right force at the right place at the right

합동성이란 어느 특정한 상황에 정확한 시간과, 정확한 장소에, 올바른 time for a particular contingency 전력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필자가 수년간의 연합연습과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미군은 각 군의 전문성과 문화, 특성을 존중해 주면서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어떻게 각 군의 전력을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통합하여 운영할 것인가에 주력하는 것을 보았다. 이를 위한 C4ISR의 시스템 구축과 작전절차개선, 합동작전의 절차 연습에 주로 연습훈련의 중점을 둔다. 그리하여 절차수행에 핵심적

인 요소인 C4I시스템을 하나의 무기체계로 간주하고 있다. 즉, 디지털화된 군의 기능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한 지휘관이 전 기능을 이해하고 지휘할 수 없다. 각 군의 전문성과 전투력을 극대화하는 것은 각 군에게 일임하고, 어떤 상황에 각 군의 기능 중 어떤 전력을 얼마나 어느 시점에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합동작전 측면에서 계획하고 협조하며, 시행하고 평가하여 차기 작전에 환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각 군의 참여범위에 대한 판단도 각 군의 지휘관에게 가능한 최대한의 재량권을 부여하며, 합동군 사령관은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각 군의 기능을 적절하게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예를 들면, 해병대사령부에 사령관을 보좌하고 자군과 협조 연락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공군의 장군을 배치한다. 공군의 중령, 대령급 연락장교로서는 해병대 사령관에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서 합동작전을 위한 의견개진이나 협조를 할 수 없음은 물론, 자군의 사령관에게도 어떠한 상황을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이나 기능이 디지털화 되어서 지휘요소가 더 바쁘고 복잡 다양해지고 있으며, 민간상업수준의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미군은 비전투적 요소를 가능한 아웃소싱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인 군 경영을 하자는 측면도 있지만 지휘관의 지휘 부담을 경감해주는 효과도 있다.

전문적 기능은 다른데 유사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직을 통합하는 한국군의 방향은 가장 중요한 전문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런 논리라면 육군의 항공작전사령부는 공군에 통합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서해상에서 교전이 이루어지면 합동작전요소는 정보와 해군, 공군이 합동작전요소가 된다. 이때 지휘통제기능의 핵심요원들은 물론 해군과 공군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육군요원이 된다.

그러므로 항공우주력을 건설하고 작전을 효율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먼저 민관군 모두가 국가적으로 합동작전을 위한 합동작전의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합동작전을 잘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3. 국가적인 항공우주자산 확보전략의 수립이다.

현재 대부분의 항공우주자산을 운용하기 위한 지원자산은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통신, 정찰 인공위성을 운용하고 있지만 아직 기능이 미약하고 정부와 군, 상용의 혼용으로 공군작전을 보장하기 위한 충분한 지원은 어려움이 있다. 군사위성이라면 어느 기능 군이 가장 필요한지 검토하여 그 운용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공군기가 적지 중심으로 침투하여 전략핵심표적을 공격할 때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우주자산

의 지원이다. 정확한 항법을 하여야 하고 표적을 식별하여야 하며, 정확하게 파괴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휘부와 항공기간에 실시간 필요한 통신과 정보전달을 하여야 한다. 임무 중요도와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군 우주자산의 운영우선권을 주어야 하는 이유이다. 산 넘어 부대의 통신지원을 원활하게 하는 전술적 차원의 운용에도 우주자산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전쟁의 승패에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 전투기의 전략표적공격 지원을 위한 우주자산의 지원 필요성과 비교할 수는 없다.

정부나 군이나 힘 있는 부서에서 우주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필요한 부서에서 주도하고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미군도 각 군이 경쟁적으로 우주자산을 구축하는 경쟁을 하다가 미국이 우주위원회에서 2001년 법령으로 우주작전을 위한 조직, 훈련 및 장비구축 권한을 공군에 부여하고, 공군성을 우주에 대한 국방부 집행기관 및 우주자산 획득기관으로 지정한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Ⅲ. 한반도 안보 상황

한국군은 아날로그 군에서 디지털 군으로 전환하기 위한 군 개혁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2011 국제안보세미나에서 국방개혁이라는 용어에 이제는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어느 기자의 코멘트는 의미심장하다.

군이 군의 전용구역으로 성역화되어 있던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민주군대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사회적 관심도 증대되어 가고 있다. 문민통제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민간인 중에서 군 전문가가 부족한 현실 때문에 사회는 군을 불신하고 군은 방어적 펜스를 치려고 하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북한의 다양한 도발의 대처에도 어려움이 있다. 평화를 추구하던 한반도에 북한의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과 11월 연평도 포격사태는 상식적인 도발 수준을 넘어 섰다. 이 두 번의 도발 형태는 분명 정규전의 형태로서 북한의 기습적인 도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전 능력 확충에 주력하고 있는 군의 전력증강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여론이 일고, 북한의 국지도발, 사이버, 특수전에 중점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몸집을 줄여서 저비용, 다기능, 고효율의 첨단과학화 군으로 가야 한다는 국방개혁도 다시 검토되고, 대책의 중점은 합동군이 모든 해담인 것처럼 국방조직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론의 분열은 물론, 군도 현역과 예비역, 육군과 해·공군으로 나누어 갈

등을 빚게 되었다.

안보는 비정규전, 정규전에 병행하여 동시에 대비하여야 한다. 또한 현대 첨단과학의 발달과 함께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를 운영하는 군인이 디지털화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한국의 안보전략이 한미연합방위전략이기 때문이다. 함께 연합작전을 하고 있는 미군이 5세대 무기와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 한국군이 3세대 무기와 아날로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면 효율적인 연합작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5년에 계획된 전작권 전환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견고히 하고 한국군의 첨단과학화와 지휘능력의 발전계기가 될 것이다. 또다시 국론 분열을 초래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야 한다. 미군의 전략이 바뀌고 이에 따라 군 운용개념도 변하고 있는데 과거의 틀 안에서 미래 연합방위개념을 논하는 것도 발전적이지 못하다.

연합합동작전의 리더십과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군의 다기능 효율화를 위하여 첨단과학화를 지속 추진하여야 한다. 국방개혁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개념이다. 2020년, 2030년에 목표를 설정하고 여건의 변화를 수용하여 보완하고 수정되어야 한다. 어느 한 순간에 미래를 예측하여 확정적인 개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정하지 못하게 법으로 규정하여야 할 사안은 아니다.

또한 국가 안보의 문제가 군의 전유물이 아니고, 군이란 정치적 목표의 하위개념이고 수단이기 때문에 국가안보전략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치적 우선순위를 높여야 한다. 그래야 국가가 안정되고 주변국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북한은 국가재정의 어려움과 과학기술의 제한으로 군의 첨단 5세대 무기 확보는 추진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북한은 특수부대, 지대지 유도미사일, 생화학 무기, 핵무기, 사이버전 등 중심으로 전력증강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무기들은 한국군 대비 비대칭 무기들로서 대부분 저장시설들을 지하화하였다. 그 결과 정전 시에는 이와 같은 비대칭 전력을 국지도발의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 전시에는 대량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무기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대칭 WMD 무기들은 소위 비인도적인 무기이면서 상대방에게는 방어를 어렵게 하고 심리적인 부담을 많이 갖게 하는 Dirty Weapons들이다.

또한 김정일의 후계자를 세워야 하는 정치적 변환기로 미래 상황판단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정치적 불안과 경제상황의 악화는 북한체제 붕괴도 예상하게 한다. 이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남 도발을 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지금까지는 선군 정책을 사용하여 군을 통치수단으로 삼아 왔으나 100만 이상의 병력과 에너지 고유가 시대를 맞아 대량의 재래식 장비의 운영유지가 오히려 군 운용을 더 어렵게 하고 국가 리더십에 큰 부담이 되는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군이 한국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 회원논단

첫째, 선군주의의 강력한 국가적 리더십을 들 수 있다.

둘째, 막강한 특수부대와 WMD능력을 구비하고 있으며 사이버전 능력을 계속 증강시키고 있다.

셋째, 상기한 두 가지의 강점을 활용하여 필요시에 수시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전략 적용 융통성이 광범위하다.

넷째, 한·미군의 공군과 해군력의 강력함에 대비하여 대부분의 주요 군사시설과 장비를 지하화하고 유사시 운용을 위한 전력이동 운영 개념이 발달해 있다.

북한군의 약점으로는

첫째, 경제력에 비하여 군사력의 과다 보유로 운영유지비가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유류부족과 노후화된 기계장비의 수리부속 지원, 식량문제, 지하화 시설의 운영유지 문제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다.

둘째, 경제적인 어려움은 군의 현대화 첨단화 증강에 큰 제한요인이 될 것이다. 재래식 장비의 도태를 대체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무기 확보가 어렵고 기존 무기의 가동률 상태도 예상외로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군 지휘의 단일화는 강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도 될 수 있다. 유사시 지휘통제체제를 차단한다면 군은 심각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걸프전과 이라크전시에 경험한 교훈으로 후세인의 지휘통제력이 차단된 후에 예하 부대들이 지리멸렬한 사례가 있다.

한국군의 북한군 대비 상대적인 강점으로는

첫째, 첨단과학군으로 지속적인 전력증강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한·미 연합방위전략이다.

셋째, 최근의 북한의 이해할 수 없는 도발양상으로 인하여 국민의 대 북한 안보의식이 강화되고 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사태는 해병대를 기피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자가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성숙해지고 있음을 보이는 증거이다.

넷째, 북한을 이탈하는 주민들이 점점 증가하여 이들이 한국을 돕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을 통한 정보 채널을 통하여 북한의 장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으며 유사시에는 이들을 활용한 대 북한전략도 미리 구상할 필요가 있다.

한국군이 안고 있는 약점으로는

첫째, 군에 대한 정치적 작용 요소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들 수 있다. 과거 군에게 군의 운용을 전적으로 맡기던 시대를 벗어나 민주군대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군의 비밀유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군을 정치적 차원에서 간섭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지휘력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둘째, 전력운영과 작전운영체제의 의사결정과정의 균형적이지 못함에 따라 특정군 위주의 편중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셋째, 한미연합방위전략은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정치적, 전략적, 기술적으로 대미 의존도를 강화시킴으로써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IV. 항공우주력의 육성

북한의 강점을 약화시키고 약점을 공격하며 아군의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강하는 것이 전략의 기본이다.

기존의 작계5027은 지상군 기동중심의 전략으로 2차 세계대전이나 6·25전쟁 같은 전략개념이 아닌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지상군 기동 중심 전략은 대량소모전과 장기전이 되는 전략으로 군인이나 민간인의 대량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기간시설이 대부분 파괴되어 승자나 패자나 모두 공멸할 가능성이 있는 전략이다.

지금은 정밀한 항공우주전으로 필요한 핵심표적만 공격하여 전쟁의 목표를 달성하자는 효과중심 전쟁의 시대이다. 걸프전이 현대전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 주었다.

현대전의 교훈을 토대로 한반도에서는 영역지배 전략 (the Strategy for Dominated Region)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지상, 해상, 항공우주영역으로 구분하여 북한군 대비 상대적 우위 영역을 설정하여 지배하는 개념을 적용하는 전략이다.

한국의 안보 목표는 어떤 형태이든 도발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며, 국지도발이나 정규전 또는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혼합 형태이든 도발 시에는 도발을 성공적으로 격퇴하고 승리하는 것이다. 또한 전투나 전쟁 시에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북한군의 강점을 거부하고 약점을 이용한 효과중심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략의 개념이 영역지배전략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상의 영역은 현 전선을 고수하면서, 후방지역에 대한 특수부대와 WMD 공격에 대비하여 민관군 통합방위체제를 강화하고, 원활한 군수지원체제를 통하여 지속작전을 보장할 수 있는 현 아군 지상영역의 지배력을 확보 유지하는 것이다. 아군의 잘 구축된 방어진지와 기설치된 C4I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지상전투를 수행할 수 있다.

항공우주의 영역은 압도적으로 우세한 한·미항공우주력을 활용하여 아군 지역은 물론 북한지역의 전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 유지한다.

항공우주력은 북한의 특수부대, WMD, 지대지 유도탄시설의 생산 및 지하 저장시설 등의 근거지를 정확하게 공격하고, 이동표적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수단이다. 특히 한국공군이 조기에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스텔스 전투기는 국지도발 시 응징보복은 물론, 개전 초부터 적지중심지역에서 자유롭게 작전을 수행하며 지휘통제체제를 마비시키고 이동표적을 무력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적의 전력이다. 따라서 항공우주력은 개전 초부터 한반도 전 영역에 걸쳐서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을 확보하고 전략개념을 정립하여야 한다.

해군력은 한·미 해군력을 바탕으로 동서남해의 전 작전영역에서 지배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북한의 잠수함, 공기부양정 등에 의한 특수부대의 침투에 대비하기 위하여 아군지역에서 점차 북한 해역으로 지배영역을 넓혀야 한다.

영역지배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합동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즉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전력을,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투입하도록 지휘결심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중심지역에 효과적인 전력을 근접지원작전 지역에 투입한다든지, 해군 전력으로 충분히 제압 가능한 상황에 공군기를 투입하여 전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 중심지역의 국가 지도부 감시 및 정찰을 위하여 필요한 ISR자산을 지상군 전선에 투입한다든지, 지하병커 파괴를 위하여 필요한 무장을 포병 공격에 투하하는 일 등이 없어야 한다.

이와 같이 합동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각 군의 전문적인 기능 요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합동작전 지휘통제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각 군의 지휘참모 요원들이 균형적인 조언을 하고 지휘를 할 수 있게 하지 않으면 전력의 낭비나 작전의 실수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함에 따른 핵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현재의 개념은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추구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도모하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갖고 있다. 북한

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미국이 한국의 핵우산을 제공하는 것을 보장하여 억제력을 발휘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미국이 핵으로 보복하겠다는 전략을 표명할 수 있으나 한국도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는 핵무기뿐이다. 이것이 제한적일 경우의 대안은 항공우주영역의 지배권을 통하여 생산, 저장시설 및 투발수단을 감시하고 무력화할 수 있도록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항공우주력이 최선의 대안이다.

즉, 북한의 전력을 고려할 때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가용한 수단으로는 지대지 미사일과 항공기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수단을 제압할 수 있는 방안은 항공우주력이 가장 유용한 수단이다. 그 중에서도 스텔스 능력을 가진 항공기가 최상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적지중심에서 성공적인 항공작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GPS항법 및 정밀폭격, 통신, ISR, 기상 등 우주자산의 지원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우주자산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단계적으로 한국군의 우주자산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 국가적인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또한, 영역지배전략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항공우주전략을 정립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적정 항공우주전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북한의 전력 배비를 보면 위협양상을 예측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먼저 특수부대를 투입하여 전후방 지역의 혼란을 조성하는 동시에 생화학 무기로 한국군의 주요 기능들을 마비시키면서, 전방의 장사정포로 한국의 지상군 기동을 제한시킨 후에 북한 지상군을 기동시켜서 미군의 증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수도권을 조기에 확보하는 전략일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전략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항공우주전력을 초전부터 북한 전 지역으로 투입시켜서 지휘통제체제를 차단하는 동시에 특수부대의 투입을 저지하고 생화학무기의 투발수단제압과 장사정포를 무력화시켜야 한다.

현재 2, 3, 4세대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공군이 질적으로 우세하다고 하나, 마찬가지로 2, 3, 4세대 항공기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북한 공군을 초기부터 제압하고 북한 중심으로 진입하여 영역지배전략을 구사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다.

따라서 개전과 동시에 북한 지역으로 진입하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F-X)의 확보가 시급하다. 스텔스 전투기는 개전과 동시에 북한 지역으로 진입하여 지휘통제체제, 대공제압, 특수부대, 생화학 무기 투발수단과 이동표적 등을 제압하고, 비스텔스 항공기는 아군지역의 방공임무와 지해상군 지원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공중우세가 확보 되면 4세대 항공기(F-16, F-15K)를 스텔스 항공기와 혼합전력으로 투입하여 북한군을 무력화시킨 후에 걸프전과 같

이 지상군을 전진시켜서 지상군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지상영역을 확보할 수 있다.

V. 나오는 글

디지털 시대를 맞아서 전투나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도 변화해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들은 디지털 군으로 변하고 있다.

북한은 막대한 재래식 군대에 가용한 디지털 부품을 붙여 놓은 것 같은 군을 운용하고 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기능 하나 하나에 일일이 대응하려고 하면 아날로그도 아닌 디지털도 아닌 군대가 되기 쉽다. 특수부대에 특수부대로 대응하려면 몇 배의 특수부대 전력이 있어야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총체적인 전략개념을 정립하고 핀셋으로 집어내듯 핵심노드만 제거하여 전체를 마비시키는 효과 중심적 전략을 위한 디지털 사고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효과중심작전의 유용한 수단은 항공우주력이다. 왜냐하면 효과중심의 핵심노드는 대부분 적지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군을 위한 이기주의로 국가의 안위를 망치려고 하는 군인은 없다. 다만 아날로그적 사고로 디지털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착각이 있을 뿐이다.

항공우주력을 구축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고 하나 강력한 항공우주력이 도발과 전쟁억제의 핵심수단이 되고, 항공우주력 중심의 전략을 구사하여 전쟁을 조기에 종결하고 피해를 최소화한다면 그것이 바로 저비용, 고효율의 군사력 운용개념이 될 것이다.

항공무기체계 자주능력 향상의 필요성



18기 사관 전영훈

1. 한반도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다. 우리는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살아 왔다. 과거에도 전쟁이 있었고 현재도 진행 중이며 미래에도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전쟁은 인류가 살아 나가는데 피할 수 없는 일인지도 모른다.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다. 반만년 역사를 돌이켜 보면 끊임없이 외침을 받아왔다. 역사가들은 우리가 크고 작은 외침을 932회나 받아 왔다고 한다. 수많은 외침에서 우리는 이를 막아낼 마땅한 무기가 없어 당해왔다. 이렇게 살아온 우리의 역사가 우리 민족의 의식구조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역사는 문화를 낳고 문화는 의식구조를 낳는다.’라는 말이 있다. 이렇게 강한 자에게 당하다보니 스스로 강자가 되려고 권력이나, 재물, 명예 등 여러 가지 면으로 갖으려고 온갖 방법을 추구하게 되고, 이는 곧 부정, 부패, 사치, 교육의 일류병 등의 사회적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러한 외침이나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때를 대비하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무기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만일 앞으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떤 양상으로 전개 될 것인가?

2. 항공무기체계의 중요성

현대전이나 미래전에서 항공무기체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Gulf전, 포클랜드전 및 중동전 등에서 보아왔으며 이미 군사상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는 오늘날

항공무기체계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목표물을 치명적으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무기체계의 특징은 조그마한 결함이 있어도 사용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지상무기체계인 전차나 해상무기체계인 함정은 웬만한 결함이 있어도 사용할 수 있다. 쉽게 설명하면 전차나 함정은 문짝이 하나 없어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항공기는 조그만 결함이 있어도 사용할 수 없고, 공중에서는 고칠 수도 없는 특이한 무기체계이다. 그러다 보니 이를 위한 후속 군수지원이 결정적인 요소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항공무기체계는 전부 외국에서 구매하여 온 것이고, 군수지원 또한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들이 적시에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고성능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없을 것이며 지상에 세워두어야 하는 실정에 놓이게 된다. 이에 대한 실례가 바로 이란-이라크전이다. 이란은 팔레비 왕조 시절 미국과의 절친 사이로 세계 어느 나라에게도 판매하지 않았던 F-14와 같은 고성능 항공기를 구입해 보유하고 있었지만, 호메이니 정권 시절 미국과 단교된 후 부품조달을 차단하자 많은 항공기들을 지상에 쓸모없는 쇳덩어리로 세워 놓아야 했던 것이다. 그래서 이란-이라크전쟁에서는 항공전이 없었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면 우리의 항공무기에 대한 군수지원체계가 완전히 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항공기를 전시에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꿈쩍없이 그 무기체계를 수입해온 나라들과의 관계에 달려있다. 현재 우리는 그들이 도와줄 것으로 믿고 있지만, 이는 그들이 우리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국익에 이롭기 때문이다. 만일 그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참으로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란이 당한 것이 그 실례가 아닌가? 또한 그들이 도와준다고 해도 얼마나 많이 우리가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영향을 받고 있는가에 따라 되로 받고 말로 주는 격이 될 수도 있다. 그것도 그들에게 불이익이 될 때는 다른 명분을 내세워 언제든지 헌신짝처럼 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아찔하지 않은가? 요사아 리비아에서 일어나는 상황도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3. 한반도의 전장 환경

1) 중 국

근래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체제로 유지될 때와는 달리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채택된 후로는 상황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중국은 해마다 무섭게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또한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군사력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머지않아 중국은 미국을 넘보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에 붙어 있는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 보니 중국은 한국에 더욱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것이며,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거대한 국가 사이에 놓이게 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게 됨을 우려하게 되고 자국의 국익을 계산해 볼 것이다.

2) 일 본

한국은 일본과 역사적으로 영토와 민족적인 감정 문제가 있다. 중국도 과거 일본에게 당한 민족적 감정과 영토문제가 남아 있어, 일본의 입장에서는 근본적으로 한국이나 중국과 가까이 되기는 어려운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이나 중국이 크게 성장하면 할수록 불안감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은 미국을 강력히 붙잡을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자주국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 관계로 미국과 일본은 더욱 긴밀한 관계로 발전될 것이다.

여기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기로 하자. 한국은 과거 36년 간 일본의 식민지 생활에 처참하게 유린당했던 아픔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으며, 또한 여기에 독도의 영유권 문제가 걸려있어, 서로가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는 자존심에 관한 문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것이다. 일본은 독도가 자기나라 땅이라고 점점 강도 높게 주장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서부터 교육시키고 있다. 이는 당장은 아니라도 먼 미래를 보고 준비하는 것이며 그때는 정말로 견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 가령 우리와 일본이 독도문제로 무력행사가 발생된다면(이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일이다) 바로 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예를 들어 영국과 아르헨티나와 벌여졌던 포클랜드 전쟁의 실례가 그러하다. 남미 아르헨티나 동쪽 포클랜드 섬을 두고 아르헨티나와 영토 분쟁이 일어난 것이다. 서로 자기의 영토라고 주장하다가 영국이 무력으로 점령하여 영국영토로 확고하게 한 것이다. 만일 우리도 일본과 독도를 서로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는 상황하에 무력충돌로 인해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떠한 상황이 될 것인가를 상상해보자. 미국의 입장은 어떠한 것인가? 미국은 먼저 자국의 이익을 따질 것이며 아마 한국보다 일본 편을 들어주는 것이 분명 전략적으로나 자국의 이익 측면에서 나을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만일 미국이 일본 편을 들어준다면 상황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의 항공 전력은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인가? 한참을 양보하여 미국이 중립을 지킨다고 가정하자. 그래도 일본은 완전 자주능력을 갖추어 미국의 도움 없이도 전쟁을 치를 수가 있는 나라이며 국방비는 우리보다 몇 배가 된다. 그들은 항공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지·해상 무기체계에 대해서도 자주능력을 갖추고 있는 나라이다. 우리의 항공무기체계는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 간의 문제는 결국 힘이 있는 자가 승리를 한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

다. 말로만 ‘독도는 우리 땅’ 구호를 외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3) 북 한

북한의 호전성은 여전하다.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도발사건이 그들의 호전성을 입증해주고 있다. 그들은 어떤 구실만 있으면 서슴없이 무력도발을 저지르고 있다. 그들은 핵을 보유하고 있고 강성대국을 만들겠다는 목표아래 한반도를 긴장시키고 있으며, 핵 보유를 위해 굶주림을 견디는 많은 주민들을 이끌어왔다. 따라서 그들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또한 김정일은 아들인 김정은에게 3대 세습을 물려주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긴장시키고 수시로 도발이라는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농후하며 국지전 아니면 전면전도 불사할 것이다.

4. 우리 공군력의 현실

앞서 언급한 한반도 전쟁에서는 물론, 현대전에서 공군력이 전승을 좌우한다는 상식하에 우리의 공군력을 살펴보자. 군사력은 우리의 의지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실질적인 군사력이라 할 수 있다. 만일에 후속군수지원이 중단되어 그 무기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된다면 그 무기체계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다. 항공기는 조그마한 결함이 있어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후속군수지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우리 공군의 전투력은 거의 전부가 외국으로부터 구매한 것들이다. 후속 군수지원에 필요한 부품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그들의 국익에 따라 판매를 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의 항공무기체계 운영은 사실상 어렵게 된다. 이런 경우의 실례가 이란-이라크전쟁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은 앞서 언급하였다. 우리가 항공무기체계를 판매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제정세 변화와 자국의 국익에 따라 우리의 무기체계 운영에 직접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하루속히 항공무기체계 자주능력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5. 항공무기체계 개발 능력

지금까지 우리나라 항공 관련 사업을 살펴보면 개발사업 이전에는 군 보유 항공기에 대한 창정비, 500MD 및 제공호(F-5E/F) 조립, KF-16 면허생산 사업이 있었으며, 그 후 개발 사업으로는 군용기로 KT-1, T-50 사업은 개발완료 후 실용화 되었고, KUH 사업 및 무인기 사업은 개발 진

행 중(일부 완료 일부 계획 중)에 있다. 민용기 사업으로는 항공업체가 외국으로 생산 수주 받는 소량의 기체부품 생산 등이 있으며, 개발기로는 8인승 복합재 쌍발 항공기, 창공 91호, 보라호 및 반디호 등이 항공우주연구소(항우연)에서 개발되었지만 모두 실용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T-50 초도비행 이륙 장면

개발 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항공기 외형 및 기체설계 면에서는 KT-1, T/A-50 개발 경험으로 외형 및 기체 구조설계능력은 충분이 갖추었다고 보며, 이를 위한 Software Tool 도 전부 갖고 있다. 두 번째는 항공기가 설계된 대로 안전하게 조종할 수 있도록 하는 비행조종 계통(Flight Control System) 능력을 살펴보자. 우리는 T/A-50 개발을 록히드와 공동개발을 함으로써 Digital Flight Control System 기술을 T/A-50에 적용시켰고 이것을 습득하였다. 그래서 현재 T-50 및 KF-16급 항공기를 개발하여 적용하는데는 별 무리가 없겠지만, 보다 향상된 개념을 적용 시에는 원천적으로 해본 경험이 없어 응용력이 미흡하고 엄청난 Risk가 따를 것이라고 본다. 세 번째는 전투기의 가장 중요한 성능의 하나인 항공전자 탑재 장비에 대한 기술은 현재 T/A-50을 개발로 여기에 적용된 기술은 대부분 습득하였다. 그리고 이를 Integration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 하지만 T/A-50보다 더 진보된 첨단 무기 탑재기술에는 문제가 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탑재 무기 제조국의 I/O(Input/Output) Data 지원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독자적으로 T/A-50 이상의 첨단 탑재무장(공대공, 공대지 및 공대함 정밀 유도무기)은 할 수 없으며, 탑재 첨단 무기체계 생산국의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현재 T/A-50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KF-16 Plus급 한국형 전투기 개발이 현재 T/A-50이나 KF-16보다 상위 개념일 때는 탑재 무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진

정 항공무기체계 자주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항공기 개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탑재될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유도탄 개발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도 전투기 개발과 동시에 개발 시는 전체 사업 즉 무장개발의 Risk와 항공기 개발의 Risk가 중첩되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Risk가 커지게 된다. 이러한 것들이 현재 우리의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6. 항공무기체계 자주능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자

1) 핵심기술을 준비하자

핵심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항공기를 개발하게 되면 외형개발에 치중하게 되고 실질적 제품의 질이 타 항공사 제품보다 좋을 리가 없다. 제품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성능이 같을 때에는 가격이 저렴해야 하고, 가격이 같을 때는 성능이 우수해야 한다. 이 중 가격이 저렴하려면 우수한 기술력으로 가격을 저렴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인건비가 저렴해야 한다. 우리나라엔 아직 우수한 기술력도 없고, 그렇다고 인건비도 저렴하지 않아 핵심기술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가격이나 우수한 제품에 경쟁력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핵심기술이 연구개발되어야 진정한 기술로 우수한 제품을 만들 수가 있다. 우리가 핵심기술이 없는 이유는 핵심기술을 개발해야 할 기관이 기체 중심의 체계개발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 모든 나라는 체계개발은 업체에서 담당하고 핵심기술은 국가연구소가 담당한다. 즉, 미래에 개발될 체계에 대해 국가연구소는 이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미리 개발해 이를 업체에 전수시키고, 업체는 그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제품을 개발하여 국제시장에 내놓는다. 하지만 우리는 국가연구소나 업체 모두가 체계를 하려다보니 정녕 필요한 핵심기술은 개발되지 않고 있으며, 이런 식의 개발로는 제품을 만들어 봐야 국제 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없다. 항공산업이 기술적 파급효과(업체에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핵심기술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핵심기술을 소홀히 하다 보니 항공산업을 시작한 지 30년이 지나도 업체의 파급효과가 미흡하다. 따라서 이러한 방향과 목표 설정에 대한 업무분장의 전체적인 관장 및 조종 통제를 정부 관련부처에서 해주어야 한다. 정부 관련부처는 핵심기술의 중요성을 감안해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를 국가연구소에 집중적으로 부여하고 육성해야 한다.

2) 부품국산화를 서두르자

지금까지 개발한 KT-10이나 T/A-50은 기체 중심의 개발이었다. 보통 항공기를 개발할 때 처음에는 기체 위주로 개발을 한다. 중요부품은 구매해 일단 시제기를 만들어 비행시험 등을 통해 항

공기의 성능시험을 한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산업체를 활용하여 부품생산에 들어간다. 개발 초기부터 부품과 함께 개발을 한다면 체계개발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개발비가 체계개발비의 몇 배로 증가되므로 초기에는 기체중심으로 출발하는 것이 정석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도 초창기 시절에는 자동차 외형을 위주로 하고 내부부품은 모두 수입하여 만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부품을 국산화하여 오늘날 세계시장에 우뚝 설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하였으며, 수많은 부품 업체들이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산업을 성장시켜왔다.

이와 같이 지금부터는 기 개발된 항공기에 대해 부품 국산화를 서둘러야 한다. 부품 국산화(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되지 않으면 애써 개발한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왜냐하면 사업 착수 목적이 항공무기 자주능력 배양(후속군수지원능력)과 산업 파급효과 때문에 항공산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부품 국산화가 되지 않으면 후속군수지원능력을 갖출 수 없어 자주능력 확보는 불가능하게 되고, 부품 국산화가 되지 않으면 협력업체들이 할 일이 없어 산업파급효과가 없게 되어 항공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근본 목적에 도달할 수가 없게 된다. 혹자는 부품 국산화를 하게 되면 부품가격이 오히려 해외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한다. 물론 비싸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품을 개발할 때는 영세 하청업체들이 개발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부품개발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는 물론 초기에는 비쌀 수가 있지만 점점 가격이 내려가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가격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 올 것이다. 가격이 비싸지는 것 때문에 국산화를 회피한다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후속군수지원과 산업파급효과가 제대로 되지 않아 항공산업을 해야 한다는 명분을 잃게 된다.

후속군수지원 능력이란 반드시 부품국산화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만약 부품국산화가 어렵다면 면허생산 능력을 갖춰 해당 부품을 만들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떤 품목을 국산화해야 하느냐가 관건인데, 기술집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들을 선정해야 한다. 특히 가격 경쟁력이 큰 품목들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시작해야 하는데, 이는 한꺼번에 전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은 전략 품목들로서 그 무기체계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외국에서 EL(Export Licence)을 잘 주지 않는 품목을 개발해야 한다.

무기체계의 자주능력은 무기체계 후속군수지원이 자주능력을 갖추었을 때 가능하다. 따라서 후속군수지원 능력이 없는 무기체계는 아무 쓸모가 없는 무기체계이다. 우리는 KT-1과 T/A-50을 개발했고, 지금부터는 이 무기체계의 후속군수지원 능력을 어느 정도 향상시킨 후 그것을 바탕으로 또다시 체계개발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부품국산화도 서두르고, 많은 경험을 쌓은 후 진정 미래 한국형 전투기를 우리의 손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3) 탑재무장의 개발을 서두르자

우리가 전투기를 독자개발을 하게 되더라도 이 전투기에 탑재될 무장에 대하여 I/O(Input/Output) 데이터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항공기에 탑재시킬 수가 없다. 특히 외국에서 개발한 신형무장에 대하여는 더욱 I/O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정 전투기 독자개발은 거기에 탑재될 무장도 함께 개발이 되어야 한다. 물론 재래식 무기라든가 아니면 오래된 유도무기는 그 자료를 일부 보유하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신형무기나 향후 개발될 무기는 확보할 수가 없어 스스로 개발을 해야 한다. 그것도 항공기 개발 이전에 개발하여 검증된 무장을 개발항공기에 탑재해야 그만큼 리스크(Risk)가 줄어든 것이다. 대만도 IDF 개발 시 자국에서 개발된 무장을 탑재했다.

4) 기존항공기(T/A-50) 개조개발로 기술을 쌓자

필자가 생각하는 현재 및 가까운 미래의 전투기 성능은 Stealth, Thrust Vectoring 기능을 갖는 것이 기본이다. 앞으로 10년 이후는 이 성능보다 더욱 진보된 개념이겠지만, 지금 당장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시작하여도 10년 후에야 실용화가 될 것이다. 이러한 성능을 갖추지 못한 전투기라면 그때 가서는 구세대 전투기가 될 것이다. 가장 효과적으로 실질적인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투기를 개발하기 전에 이러한 기반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다.

첫째는 현 A-50을 통하여 기반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것은 공군의 요구도를 보다 강화하여 먼저 A-50 복좌를 단좌로 만들어 최첨단 무기 시스템을 탑재하는 것이고, 엔진에 Thrust Vectoring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로서는 우리 단독으로 개발할 능력이 없으므로 (능력이 있더라도 록히드의 허락 없이는 T-50에 적용 불가능) 록히드의 도움을 받아 최고의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통하여 기술획득을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가 T/A-50 개발 시 항공전자 및 Flight Control System(FCS) 기술을 록히드로부터 습득한 방법과 똑 같다.

어차피 T/A-50 개조개발은 록히드의 도움을 받아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진보된 기술(Stealth, Thrust Vectoring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의 도움은 T/A-50으로 끝내며, 한국형 전투기는 진정 우리 손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사전에 기반기술을 쌓자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Stealth나 Thrust Vectoring 기술만 습득하면 당분간은 그것으로 대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5) 연구개발 체계를 재정립하자

우리나라의 항공기 연구개발체계(다른 무기체계도 동일함)에서 대부분 설계는 국가연구소, 제작

및 생산은 업체로 이원화되어 개발되어 왔다. 이렇다보니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었다. 첫째는 업체가 설계 및 개발 능력이 없이 제작 및 생산에 치중하다보니 국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고, 주로 자국의 단순 생산 납품업체로 전락하게 되어 영세성을 벗어날 수 없게 되었으며, 개발 후 소비자 요구에 따른 개조개발에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도 없다. 특히 개조개발을 위해서는 설계한 국가연구소에 의뢰해야 하는데, 이때는 국가연구소 설계 및 개발팀이 이미 해체된 후여서 지속적인 지원이 어렵게 된다. 뿐만 아니라 양산 후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책임회피에 급급하게 되고, 개발 2원화로 일정 및 비용 상승의 원인이 된다.

또한 국가연구소와 업체가 경쟁적으로 서로 체계개발을 하려고 한다면, 상호 협력적 관계가 아닌 경쟁적 관계가 되어 서로 상대방이 하면 안 된다는 논리를 만들어 주장하게 된다. 이는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며 체계개발이 착수되더라도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고객이 원하는 하나의 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체계개발기술, 필요 핵심기술, 기본적으로 이를 뒷받침해주는 기초과학이 필요하다. 여기서 제품에 대한 체계개발 담당은 업체, 핵심기술은 국가연구소, 기초과학은 학계 등이 서로의 역할분담을 하고 협력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핵심기술을 담당하는 국가연구소가 기술을 선도하여 업체를 이끌어내야 하는 삼위일체형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가연구소가 핵심기술체계보다 체계개발을 하겠다고 업체와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 체계를 개발해놓고 보면 결국 알맹이(핵심기술) 없는 껍데기만 개발하는 격이 되고 만다. 당연히 타 산업에 기술을 선도한다는 항공산업이 기술 파급효과가 없어지고, 부품개발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개발해 놓은 체계는 기체중심이 되고 만다. 이렇다보니 항공기 가격도 높아져서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항공사업을 하는 세계 모든 나라는 설계에서부터 개발 및 제작, 그리고 생산 및 후속지원까지 모든 것을 업체에 맡기고 책임을 지게 하는 일원화된 개발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한국만 2원화된 방법으로 추진하다보니 관련 업체는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모든 무기체계(육·해군·공군)는 전략무기이든 전술무기이든 업체가 체계 개발을 맡고, 국가연구소(예, 미국의 국가연구소 NASA, DARPA, 일본의 TRDI 등)는 국가적 핵심기술개발 및 국가전략사업(우주탐사 사업 등)을 맡아, 업체가 못하거나 하지 않은 핵심기술 등을 개발해 전수시켜 주거나, 개발 사업에는 기술관리 업무 등을 하며 상호 협력관계로 이끌어 나간다.

T-50 경우를 보면 당초 탐색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가 진행했지만, 진행 과정에서 무기체계개발은 업체 한 곳에서 책임을 지고 해나가야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달아 체계개발부터는 업체에 책임을 맡겼던 것이다. 이 결과로 T-50 사업은 주어진 기간 내에 주어진 예산으로 끝났으며, 이렇게 성공적으로 완료한 사업(주어진 예산과 주어진 기간 내)은 처음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발을 하는 데 커다랗게 두 가지 기관이 필요하다. 하나는 개발을 관리하는 기관, 다른 하나는 개발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 중 개발을 관리하는 기관은 사업단이 된다. 물론 소요군이 직접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소요군이 사업을 관리할 능력이 되지 않거나 다른 이유가 있을 때는 다른 기관(국가연구소 등)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다. 개발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은 업체가 돼야 한다. 이는 체계종합(System Integration) 업체가 개발에 책임을 지고 하청업체 및 관련업체를 조종 및 통제하며, 계약은 개발관리 기관과 개발담당 기관 사이에 일대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화된 원칙이다.

책임과 권한 및 통제력은 계약에서 비롯된다.

6) 독자적 전투기 개발을 하자

우리가 현시점에서는 능력이 갖추어 질 때까지는 High급 전투기는 도입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Low급과 Midium급 항공기는 우리가 개발한 항공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T-50 개발 경험을 통한 교훈은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T-50 기술력을 갖고 있는 록히드와 공동개발을 하다 보니, 항공기 개조 개발 등을 우리 단독으로 할 수가 없으므로 록히드의 승인과 록히드의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우리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이러한 것들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공동개발을 하였지만, 앞으로 항공기 개발은 이러한 일이 없도록 독자개발로 가야 하며 기술이전 공동개발은 T-50으로 끝나야 한다. 그래서 T-50을 여러 방면으로 개조 개발하여(항공전자 Upgrade, 단좌, Stealth 기능, Thrust vectoring 등) 우리가 차기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T-50은 어차피 록히드를 통해야 하니 이것을 이용하여 차기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차기 세대에 걸맞은 항공기를 개발하려면 T-50 개조개발을 통하여 기술을 확보한 후에는 T-50이나 KF-16보다 발전된 항공기 독자개발 시 Risk를 감당할 수 있으며 그 가치가 있다고 본다.

7. 맺는 말

손자병법에 '식량과 무기는 외국에 의존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러한 중요한 교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것을 무시해 왔고 잘못 판단해 왔다. 비근한 예로 조선 선조 때 일본 정세를 파악키 위하여 통신사로 두 사람(황윤길, 김성일)을 보냈지만, 당시 한 사람(황윤길)은 일본이 반드시 침략할 것이니 준비하라고 했고, 또 다른 한사람(김성일)은 일본의 침략 조짐은 없다고 보고 하였다. 이때 선조는 태평성대에 경제력을 소모해가며 전쟁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쪽을 택했다가 임

진왜란을 당하였다. 구한말에도 일본침략을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 없이 허송세월 보내다 힘 없이 당하여 36년간이나 일제의 노예가 되지 않았는가? 율곡선생의 10만 양병설에 귀 기울여 일본의 침략에 대한 준비를 했더라면 임진왜란이나 일제 36년간의 식민지 생활은 없었을 것이다. 지금도 우리는 그때의 상황과 비슷하다. 일본은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고, 엄연한 우리의 땅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다. 지금 세계의 분위기는 해빙무드이며, 우리나라를 보존해야 된다는 의식이 쇠퇴해가고 있다. 우리를 지키는 무기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그 의미가 있는데, 지금도 우리는 경제성이 없느니, 사오면 되느니, 경제력이 없느니 하고 있다. 군대를 유지하는 것을 경제성으로 따지면 군대를 없애야 한다. 무기를 사오면 된다고 하면 이것은 그 판매국에 종속성을 면치 못하게 된다.

경제력 측면에서 볼 때 국민소득 2만 불정도 되는 나라에서는 항공무기체계 자주능력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다.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가를 지키는 힘을 길러야 한다. 우리의 지상 및 해상 무기체계는 미흡하나마 어느 정도 개발했지만, 실제 전쟁 시 전승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항공무기체계는 전적으로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항공무기체계의 자주능력을 서둘러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항공무기체계 자주능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빨리 향상시키는 방법은, 빠른 시간 내에 F/A-50 개조개발을 통하여 진보된 개념의 항공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다. 동시에 자체 핵심기술개발, 부품국산화 및 국산화 능력 확보, 탑재유도무기 개발 등을 통하여 능력 확보 후,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Risk를 줄이고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항공무기체계 자주능력 향상의 지름길이라고 본다.

회 원 기 고

- 젊은 날, 거침없이 날아간 비행 / 배기준
- 참여하고 소통하는 동창회를 위하여 / 민신웅
- TOP GUN 소감 / 우창효
- 대표 보라매상 수상 소감 / 최선규
- 서라벌에서 온 편지 / 이종학
- 낙동강이 없었다면 자유와 평화는? / 이영순
- 지난날의 군수관리제도를 생각하면서 / 전승우
- 형사소송절차의 이해 / 신기훈
- 동방의 작은 땅 / 박소영
-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비결 / 김국창
- 산이 좋아 / 김석천
- 보람있는 안보해설사 활동 / 문태일
- 흑매로 살어리랏다 / 석현수

〈獻詩〉

젊은 날, 거침없이 날아간 비행



12기 사관 배기준

젊은 날
거침없이 날아 간 비행……
성난 독수리 되어 조국하늘 지키던 나날들……
그 낮과 밤, 하늘에 묻었다

하늘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
지금, 가슴 뛰는 비행이 가장 그림다

어둑새벽
지축을 흔드는 엔진 굉음은 불의를 잡아 삼키려는 포효
차라리 대자연을 향한 맹수의 울부짖음
선홍빛 불기둥 터지며 비상하는 자태는 공포 넘어 전율이었다

그 시절
비행편대는 순식간에 올라가 한 점으로 사라져 간 고도에서
날쌔게 달려드는 상대를 꺾고 꺾어 물고 늘어지던
전투기동은 사활이 걸린 마지막 몸부림

어느 해 뜰 무렵

저공으로 숨어 날아가 갑자기 솟구쳐 폭탄을 퍼붓고

뒤돌아 아래를 본다

치솟는 검은 화염에 천둥번개가 친다

작전은 끝났다

밀집대형으로 접근해 오는 2 - 3 - 4번기 날개 품에 안고

거친 숨결 몰아쉬고 활주로에 내리면

격납고 저쪽 관제탑 너머 붉은 노을이 진다

비로소

땀에 젖은 헬멧 벗어 들고 활짝 웃는 모습, 아름다웠다

시퍼런 산소마스크 주름살은 자랑스런 훈장

거기에는 투혼이 고동치고

생존의 애착과 고단한 여정이 흘러내린 계곡이었다

비행을 사랑했다. 열정도 바쳤다

소낙비 속 가까스로 비상착륙, 처절과 기적이 뒤섞인 긴 이야기

야간비행은 등불 들고 집으로 가는 외로운 별들, 어두운 침묵과 고독

어쩌다 무리에서 작별한 깃털 하나, 피에 물든 붉디붉은 죽음도 보았다

그렇다

소용돌이 쳤던 희로애락 한 평생, 그 업(業)은 빨간 마후라였노라

우리는 20세기 후반 격동의 계절 그 약속, 영공을 지켰노라

공군이여 !

순간을 영원으로, 하늘에서 우주로 가는 길목에서

시공을 초월하는 열망은 우리의 꿈이자 이상이거늘

역사와 전통은 끝없는 도전으로 살아 인계인수될 뿐이다

조종사여 !

출격명령은 단 한줄, 강력하고 언제나 냉정하다

제공권을 장악하라

적 심장부를 파괴하라

지 해상 근접지원하라

단독 정찰비행하라

상륙 교두보를 확보하라

공수낙하 침투하라

즉각 헬기 인명구조 들어가라

이것은 실로 육지에서 바다에서는 속수무책

공군, 오직 조종사 너만이 할 수 있는 고난도 무거운 전투 임무다

보라, 날아가는 새

국경은 이름뿐 실상은 없고

산맥이나 파도가 장애물은 아닐지라도

목표는 중심 깊숙이 좀처럼 난공불락

허허로운 공중에 눈부신 태양만 잠시 등질 뿐 막아주는 방패는 없다

전장은 적지, 난처한 적지 상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최 일선 현장 당사자이자 지휘관

최후의 의무 수행자이자 전쟁 종결자

이렇듯 알찌니

아침 이슬에 부서지는 어리석은 꽃잎이 되지 말고

천리안으로 쏘아 보는 매서운 눈

물어뜯는 부리

움켜잡는 발톱

억센 날개로

야생의 들판에서 먹이를 사냥하는 독수리, 지혜로운 독수리가 되라

젊은 날

거침없이 날아 간 비행

성난 독수리 되어 조국하늘 지키던 나날들

그 낮과 밤, 하늘에 묻었다

하늘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

지금, 가슴 뛰는 그 비행이 가장 그림다

* 시작(詩作) 메모

공군과 하늘, 비행과 조종사의 이야기입니다. 꽤 오랫동안 영공을 지켰던 시절이 한없이 그림고 자랑스럽습니다. 그 소중한 날들을 후배 조종사에게 물려주고 미래 공군을 간곡히 부탁하는 마음을 적었습니다. 2011년도 현역과 예비역 공군인사회(2011. 1. 19, 공군회관)에서 영상시로 낭송되었습니다.



참여하고 소통하는 동창회를 위하여



14기 사관 민신웅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지난 해 가을 공사총동창회가 주관한 모교방문 가을축제에 참석하여 사관생도들의 열병분열을 받고, 그들의 절도 있고 늠름한 모습과 모교의 발전상에 대하여 참석자들은 칭찬과 자랑을 아끼지 않았다.

이어서 하늘을 지키다 순직한 모든 공중 근무자들을 위한 ‘영원한 빛 추모비’와 (고)박명렬 소령과 (고)박인철 대위 부자의 흉상 등을 돌아보고, 건립취지와 추모시 등을 차분히 읽어 가던 중 감정이 북받쳐 눈시울이 뜨거워 졌다. ‘하늘에 살면서 하늘에 목숨 바친다’는 공군이 대목을 되새기며 본인이 겪었던 전투비행훈련 중 위기의 순간들이 영화필름 같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1969년 12월 21일 고도 3만 피트 고공에서 F-86F 항공기로 전투기동 중 캐노피가 파열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갑자기 폭음 및 강풍과 함께 영하 54도의 혹한과 지상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기압에 노출되어 무의식중에 급강하 조치를 하면서 의식을 잃어 버렸다. 저고도에서 겨우 의식이 회복되어 고속으로 추락하는 항공기 자세를 바로 잡고 보니 모든 계기가 얼음판이 되어 방향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사방을 살피던 중 멀리 장항 제련소 굴뚝 연기를 보고 가까스로 비행장을 찾아 온몸이 땀에 젖고, 행동이 자유스럽지 못한 상태로 무사히 비상착륙하여 웰던상을 받았던 꿈만 같은 기억이 되살아나기도 했다. 현재 당시 웰던상장 복사판이 공군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남모르게 눈물을 닦으면서 오늘 모교방문 가을축제에 참석하기를 정말 잘했구나 생각하고, 주관한 공사총동창회 회장단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모교 방문에 적극 동참하여야겠다고 다짐을 했다.

일상생활에 묻혀 주위를 잊고 사는 도시생활에서 모교방문의 기회는 어느 관광여행보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힘이 솟아나게 한다. 그 이유는 우리들이 이력서를 쓸 때 ‘공군사관학교 졸업’이

라고 기록하고 있는 모교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흐뭇한 자부심의 발동이 아닐까 싶다.

요즈음 세 가지의 특별한 금이 있다고 하는데, 그 첫째는 생활에 필요한 값비싼 ‘황금’이고, 둘째는 맛을 내는 ‘소금’이며,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바로 ‘지금’이라고 한다.

통상적으로 모교, 동창회 하면 과거에 있었던 옛 추억에서 화재의 꽃을 피우고 말지만,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우리들의 공군사관학교와 공사총동창회 활동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 특히, 우리들 각자의 주위에는 여러 동창회와 친목 모임들을 유지하고 있겠지만 ‘하늘에 살면서 하늘에 목숨 바친다’라고 외친 친구들만이 갖고 있는 반가운 친구들, 헤어지면 다시 보고 싶고, 다시 보면 더욱 반가운 친구들이라고 생각된다.

친구는 자주 만나야 친구라고 한다. 자주 만나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가운데 좋은 아이디어를 얻어 활용하면 자신의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공사총동창회 행사 및 각 동기별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 엔돌핀을 충전해 보자.

그리고 2010년도 모교방문 가을축제에서 공사 14기생(총조회원)이 최다 참가상을 받았다. 그 후 생각에 남는 것은 전화 많이 하고 자주 소식 전하며 소통이 원활할 때 참여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비즈니스의 경쟁력도 소통에 달려 있다고 한다.

요즈음 분위기는 큰 모임 보다 친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반창회, 동기회 및 동호인회 등에만 참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동문들 간의 소통과 공감으로 공사총동창회를 활성화시켜나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법원에서 민사소송을 조정하면서 느낀 점도 대부분 송사의 원인은 소통이 되지 않아서 법정에서 까지 오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원고와 피고를 만나서 서로가 품고 있는 속마음을 충분히 귀담아 들어주고 조언을 하면 대부분의 원고와 피고들은 상호 다툼을 끝내고 싶다는 말이 나오면서 결국 조정에 쉽게 동의하게 된다.

탈무드 내용 중에 ‘인간에게 두 귀와 하나의 입이 있다는 것은 많이 듣고 적게 말하기 위함이다. 남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그 의견을 잘 들어봐야 하며, 그러고 나서 내 의견을 말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의견 보다는 자기 의견이 옳다는 생각을 쉽게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주장을 내세우는데 지나친 나머지 너무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다. 잘 보고 잘 듣는 일이야말로 사람을 지혜롭게 만드는 비법이다.’라고 했다.

모교와 동창회의 활동을 눈여겨보고, 귀담아 들으면서 참여하고 선후배 간, 동료들 간에 소통과 공감하는 동창회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

TOP GUN 소감



47기 사관 우창효

성무대를 떠난 지 어느덧 12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모교인 성무대는 언제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여 저의 군생활의 밑거름이 되어주는 제2의 고향 같은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올 2월 초 공사 63기 생도들을 대상으로 「군인의 자세」라는 주제로 강의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어떻게 강의를 진행해야 하나?’ 고민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앞으로 조종사로서의 꿈을 키우는 예비생도들에게 사관학교와 비행교육, 그리고 전투조종사로서의 생활에 대해 짧은 시간이나마 이야기해 주었고, 강의 내내 초롱초롱한 후배들의 모습에 뿌듯한 마음과 앞으로 저의 군 생활에도 신선한 자극제가 되는 소중한 경험을 했습니다.

조종사로서 12년간 비행생활은 ‘새옹지마(塞翁之馬)’라는 고사성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1999년 임관 후 비행훈련을 시작하여 16비 202대대에서 F-5E/F로 첫 전투비행대대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2004년도 보라매 사격대회에 첫 출전하여 최우수 대대가 되는데 일조했지만, 과격한 운동으로 6개월 간 비행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202대대가 CRT대대로 임무전환하기 전이라 DACT 수료한 편대장 이상은 교관으로 남고, 나머지 대대원은 전속을 가야만 했습니다.

저는 비행을 잠시 쉬는 동안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도 하게 되었고, 2005년도에 19비 155대대로 전입하여 KF-16으로 전환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편대장 자격으로 후배들과 함께 전환 과정을 하면서 힘들기도 했지만, 동료들의 도움으로 자격복귀 및 각종 자격을 획득하여 비로소 KF-16 조종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7년 초에 예기치 못한 항공기 결함으로 비상 탈출하여 위험한 순간을 맞기도 했습니다. 2008년 다시 155대대로 돌아와 일반 재자격과 편대장 재자격 훈련을 마치고 이듬해에 교관승급 및 NVG 교관자격까지 획득하여 대대에서 중추

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대 복귀 후 보라매 사격대회 참가, 제공훈련, Soaring Eagle, Max Thunder, F-15K와의 이기종간 훈련, 표준화 평가 및 전투태세검열 수검준비과정 등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한껏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2010년은 개인적으로 정말 최고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둘째 아이가 예쁘고 건강히 잘 태어났고, 매년 시행되는 전투기 보라매 공중사격대회에 출전하여 「최우수 사격수」와 함께 「TOP GUN」의 영예까지 안게 되었습니다. 공군 최우수 조종사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과연 내가 이런 큰 상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라는 의구심과 함께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땀 흘리며 저마다의 자리에서 묵묵히 주 임무 완수를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동료, 선·후배 조종사들 모두가 진정한 「TOP GUN」이라 생각하고, 정비·무장사 및 지원요원의 땀방울 없이는 비상할 수 없음을 알기에 모두에게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표 보라매상 수상 소감

-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의 보라매가 되어 -



59기 사관 최선규

2011년 2월 25일 대한민국 공군사관학교의 59번째 졸업식이 있었다. 서해에서는 천안함 사건에 이어 연평도에 북한군의 포격이 연이어 벌어지는, 북한정권이 대한민국의 국민과 재산을 위협하는 그때, 2011년에 공군사관학교 59기 사관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리라 맹세하고 졸업하였다. 4년간의 생도생활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이제 장교가 된다는 사실에 기쁜 얼굴들을 감출 수 없었지만, 그 어느 누가 다가올 편안함과 안락함을 기대하며 기쁘기만 했으랴. 졸업생들의 표정에는 그동안 배우고 익힌 것을 조국과 하늘에 바치려는 그 열정과 의지가 역력히 비쳤다. 이렇게 우리는 보라매가 되어 등지 밖을 향해 날개를 폈다.

나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비행을 마치고 퇴근하실 때 달려 나가 조종복에 매달리곤 했다. 활짝 웃으시는 아버지의 얼굴에는 헬멧의 마스크자국이 선명했다. 그 자국에 숨겨진 땀과 고생을 모르는 나는 그저 좋아만 했다. 학교 가는 길에 내 머리 위를 지나가는 F-4팬텀을 바라보며 늘 '아버지인가 보다.'라고 혼잣말을 하곤 했다. 아버지가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시고 나면 어머니 손을 잡고 집 앞에 나가 하늘에서 아버지가 타고 계신 비행기를 찾기도 했다. 세월이 흘러 이제 아버지는 군문을 나서시고 나는 대한민국 공군 소위가 되었다.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해서는 후배들의 군사훈련대대장이 되고, 성무철인이 되어보기도 하고, 전 대장생도로 활동하면서 사관학교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다. 선배님들께서 이룩하신 공군사관학교의 역사와 전통에 벅찬 감동을 느꼈고 그것을 지키고 배우고자 최선을 다하였다. 이제 4년의 생도생활 과정을 마치려는 찰나, 공군사관학교 공사총동창회에서는 나에게 '대표 보라매 상'이라는 값지고도 감개무량한 상을 주었다. 모자란 내가 감히 '대표 보라매'라는 영광된 이름을 받을 수 있

을까 고민도 많이 하였다. 하지만 총동창회장님께서 수여하는 메달을 받고 돌아설 때 눈앞에 정렬해 있는 동기생들을 바라보며 느꼈다. ‘대표 보라매 상’은 최선규라는 졸업생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59기 사관 전체에게 바라는 선배님들과 조국의 기대와 바람이라는 것을.

그 기대와 바람에 충성과 믿음으로 답하는 59기 사관들이 될 것이라고 굳게 다짐한다. 대한민국의 보라매가 가는 길은 절대 쉽지 않을 것이며, 때로는 잠시 날개를 접고 쉬고 싶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을 넘보는 위협 세력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절대 잠들지 않는다. 언제 어디서 적과 조우하든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어떤 힘든 과정도 이겨내고 날개를 펴고 하늘에 올라 날카로운 눈매로 적을 바라보고 부리와 발톱을 다듬을 것이다. 수없이 날아오르고 연습하고 단련하여 강해지고 또 강해질 것이다.

나 최선규 공군 소위 역시도 ‘대표 보라매’라는 영광을 잊지 않고 하루도 쉼 없이 전우들과 함께 할 것을 동기들을 대표하여 약속하면서 다시 한번 쏫사의 정신을 되뇌인다.

‘배우고 익힌 몸과 마음을 이젠 정말, 조국과 하늘에!’



서라벌에서 온 편지

— 한 군사학도의 지난날의 단상 —



3기 사관 이종학
(충남대평화안보대학원 겸임교수)

박형, 그동안 안녕하셨소?

그런데 박형이 질문한 내용 즉, “80여 평생에 있어서 가장 보람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 일은 무엇이라 생각하오?”에 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그것은 2005년 12월 1일,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 전사부에서 「한 군사사학도의 연구궤적」이라는 제목으로 3시간 발표회를 가졌던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발표 요청을 하야시 요시나가(林吉永) 전사부장이 필자에게 했는데, 거기에는 사유가 있던 것으로 짐작합니다. 즉,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에서 다음과 같이 하루 3시간씩 한 제목으로 연구발표를 했고, 또 공저로 책을 발간하는 등이라 생각하오.

- 「일본의 서양군사이론 수용에 관한 연구」(2000년 1월 25일)
- 「태평양 전쟁사관」(2000년 1월 26일)
- 「조선전쟁사관」(2000년 1월 27일)
- 「바람직한 역사인식을 위한 전사연구」(2001년 3월 6일)
- 郷田豊・李鍾學・杉之尾宜生・川村康之 共著,
『『戦争論』の読み方—クラウゼヴィッツの現代的意義—』
(東京：芙蓉書房出版, 2001)
- 우리나라 최초의 ‘명예 군사학 박사’ 학위의 수령(2003년)

박형, 내 인생에 있어서 다시 이런 기회가 찾아오기 어려울 것 같아서 치밀한 준비를 했소. 즉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정리·소개하는 것과 왜곡되어 있는 ‘고대 한일관계사’를 시정해야 하겠다는 생각이었고, 또 연구방법은 학제적 접근법(interdisciplinary approach)으로 규명을 시도했으며, 그 주요 내용의 제목은 아래와 같소.

1. 군사학이란 무엇인가?

- 가) 군사학(military art and science)
- 나) 군사사학(military history)
- 다)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1832)에 관하여

2. 한국에서의 6·25전쟁 연구에 관하여

3. 군사사학에 의한 고대사 산책

- 가) 일본열도의 고대의 조선술과 항해술
- 나) 『고사기(古事記)』(712)와
『일본서기(日本書紀)』(720)의 사료비판
- 다) 광개토왕 비문의 신묘년 기사
- 라) 가와우찌(河内) 거대 고분의 수수께끼를 캔다-5세기 전후를 중심으로-
- 마) 신라의 화랑도와 일본의 무사도



박형, 여기서는 다만 「하내신대고분(河内巨大古墳)의 수수께끼를 캔다」만 소개해 보지요.

5세기 중반부터 일본열도의 가와우찌 지방(오사카(大坂))에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큰 고분이 등장했는데, 그 유래에 대한 학설이 일본 고대사학계에서 논란이 많았지요. 나는 원고 집필의 마무리 단계가 되어, 1994년 9월 직접 답사를 하고 놀랐소. 예컨대, 인덕천황릉(仁德天皇陵)이라고 일컬어지는 고분의 길이가 486m나 되고, 그 주위는 호를 파서 물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런 거대한 토목공사는 정복왕조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굳혔소.



仁德天皇陵(추정)



하늘에서 본 仁德天皇陵(추정)

● 회원기고

1991년 1월 8일, 부산시립박물관에서 개최된 「신비의 고대왕국, 가야특별전」을 가서 관람하고 설명서를 가져왔는데, 그 속에 “광개토왕의 남정(南征)이 있는 후, … 김해 대성동 유적에서 수장급의 묘가 급격히 소멸되어…”라는 기사를 읽고 번쩍하는 암시를 얻었소. 고구려군이 신라의 원군 요청에 의해 김해의 임나가라를 정복했다는 기록은 『삼국사기』(1145)나 『삼국유사』(1285)에는 전연 없고, 다만 ‘광개토왕 비문’에만 있습니다. 그리하여 광개토왕 비문의 연구 성과, 에가미(江上波夫, 1906~2002) 교수의 「기마민족 정복왕조」설, 『송서(宋書)』 「왜국전(倭國傳)」에 있는 ‘왜왕 무(倭王武)의 상표문’을 근거로 하여 아래와 같이 가설을 수립했습니다.

400년 고구려군에 항복했고, 또 404년 대방지역(帶方地域)에 침입했다가 궤패당한 임나가라 왕조(任那加羅王朝)는 준비를 갖추어 408년경 기마부대와 수군을 이끌고 일본 열도의 가와우찌 지방(오사카)에 상륙하여 미와(三輪) 왕조를 정복하여 가와우찌 왕조를 수립했고, 정복왕조로서 거대 고분을 축조했다. 이것이 『송서』 「왜국전」에 등장하는 ‘왜오왕(倭五王)’의 시대이리라.

이런 가설에 바탕을 두고 아래와 같이 논의했습니다.

- a) 인류학 : 일본인의 기원에 대하여 쇼크바라(埴原和郎) 교수의 ‘2중모델’을 수용했다. 즉, 한반도에서의 도래계 집단은 먼저 기타규슈(北九州)에 살기 시작하여 그 수가 많아짐에 따라 긴키(近畿)지방으로 진출했고, 마침내 조정을 성립시킨 것은 야마도(大和) 왕조의 주체 세력이 임나가라로부터의 도래계의 정치집단으로 해석한다.
- b) 언어학 : 일본어의 문법적 그리고 구문적 구조는, 한국어를 포함하는 알타이 언어형에 속하지만, 특히 남인도의 트라비타어와 계통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외국인 선교사에 의해 지적되어 왔다. 이 문제는 한국어에 있어서도 동일한 현상이나, 전래 루트에 대한 증거가 없어서 지금까지 설득력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김수로왕의 황후 허황옥이 인도 고사라국의 중심도시였던 아유다(Ayudhya) 출신이라는 것이 최근 규명됨으로써, 언어학상으로 보아도 일본왕실은 가야계라고 하는 언어학자의 견해는 가와우찌 왕조의 출신을 나타내는 훌륭한 증거이다.
- c) 고고학 : 에가미(江上波夫) 교수는 진 왕조辰王朝에 의한 ‘기마민족 일본정복’설을 주장했다

는데, 그 이론적 기초인 8가지 근거에 대해 필자는 대체로 수용한다. 그러나 정복왕조의 주제, 도래지·정복시기에 관해서는 견해를 달리하며, 필자가 주장하는 가설의 근거는, ① 말(馬)의 문화, ② 스에기(須惠器)의 원류는 김해토기(金海土器), ③ 가와우찌 거대 고분의 축조 등이다.

d) 문헌사학 : 『송서』 「왜국전」의 ‘왜왕 무의 상표문’은 귀중한 사료이다.

- ① 왜왕 무의 조상은, “동쪽의 모인毛人(九州地方)을 정복하고, 서쪽의 중이衆夷(關東地方)를 복종시켰다”고 했는데, 이것은 출신이 일본열도 밖에서 온 정복왕조이며, 또 5세기 초에도 국내 통일전쟁이 수행되었다는 증거이다.
- ② “바다를 건너 북쪽(한반도)을 평정하기를 95개국”이라 했고, 또 고구려를 ‘무도(無道)’라 비방함으로써 정복왕조의 출신이 비문에 의해 임나가라임이 확실하리라.
- ③ 『일본서기』(欽命天皇 23年條)에 의하면, 임나(고령)가 신라 진흥왕에 의해 멸망당했을 때(562), “군부(君父)의 원수를 갚지 못하는 것은 죽어서도 신자(臣子)의 도를 다하지 못한 한을 남길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기록했다.

박형, 나는 가와우찌 왕조 및 천황가(天皇家)의 출신은 한반도의 임나가라(김해)의 왕조임을 주장했는데, 거기에 참석한 일본인 군사사학자 및 방위연구소 교수들은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소. 일본 클라우제비츠학회의 고다(郷田豊) 회장은 외국에 갔기 때문에 발표회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배포했던 요약문을 보내달라기에 보냈던 바, “한 군사학도의 연구궤적”은 어느 뜻으로는 충격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생의 깊은 식견(識見)에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선생의 조선전쟁(6·25전쟁을 뜻함)은 물론이고, 고대사 산책은 방위연구소 연구관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불러일으켰음에 틀림없습니다.”는 회신이 왔소.

고다 회장이 말하는 “충격적인 내용”이란, 아마도 일본 천황가가 김해에서 왔다는 주장일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는 일제 때의 육군사관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황국사관(皇國史觀)으로 머리가 굳어져 있었을 것이며, 오늘날에도 우파에 속하는 인사들은 아직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황국사관이란, 일본은 신국(神國)이며, 천황의 선조는 하늘에서 내려왔고, 천황의 신성(神性)과 그 통치의 정당성 및 영원성을 뜻하는 내용이지요. 일본의 패전(1945. 8.) 이전에는 아무도 여기에 이론(異論)을 제기하지 못했소.

그러나 에가미 교수는 1949년 『민족학연구(民族學研究)』라는 잡지에 「기마민족 일본정복설을 발표했다」으나, 우익단체의 압력으로 공개석상에서는 발표하지 못했지요. 그러다가 28년 만에, 즉 1977

● 회원기고

년 11월 19일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소 주최의 학술회의 공개석상(200여 명의 참석자)에서 최초로 그의 학설을 발표하면서, 70세가 넘는 노학자는 감사하다며 눈물을 글썽이던 모습을 맨 앞자리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소.

박형, 나는 일본의 천황가가 김해에서 왔다는 학설을, 일본 도쿄(東京)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방위청 방위연구소 전사부 강당에서 군사사학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강사료까지 받았으니, 지금도 통쾌하게 생각하고 있소.

그러면 오늘은 이만 줄이고, 박형의 건승을 빌겠습니다.



낙동강이 없었다면 자유와 평화는?

외 시 1편



19기 사관 이영순

(한국문인협회칠곡지부장)

잊고 싶은 한 역사의 좌표, 지우려 하여도 지워지지 않는 한민족의 아픔이 되살아나는 6·25 한국전쟁! 하지만 반세기를 넘어가는 긴 세월의 흐름 속에 경제성장의 급물살에 휩쓸려, 사회적 가치관 혼돈과 사상적 소용돌이 뒤편길로 역사적 소중한 교훈들이 망각의 그늘로 묻혀버리는 세태를 무기력하게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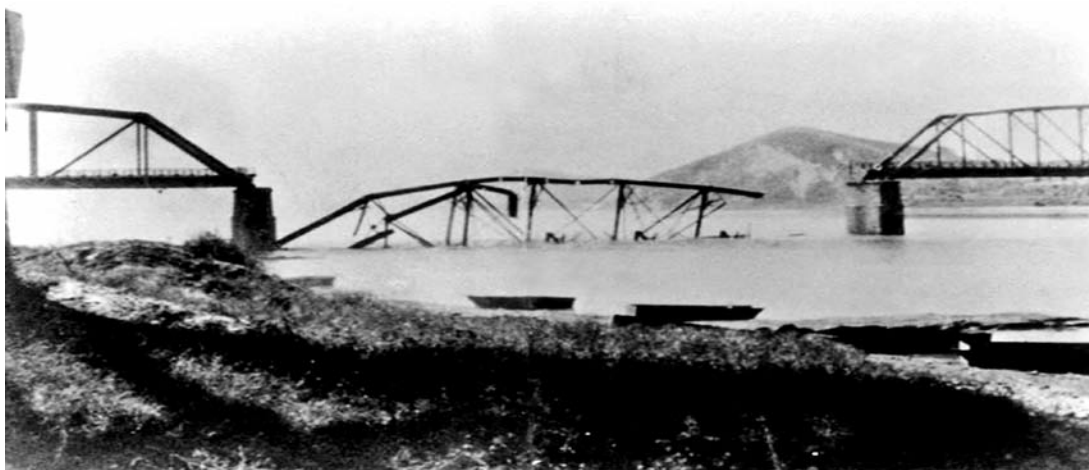
“왜 아픈 상처를 들추느냐?”고 반문하는 세대가 있을지 모르지만, 너무나 큰 희생을 치렀던 이 조국 땅에서 전쟁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한 의지를 우리 후손에 일깨워 주어야 한다. 아울러 한국전쟁에 참가한 16개국 병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소홀히 여기거나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그 가족과 후손들에게 보은의 마음을 우리들의 가슴에 묻고, 세계평화 정신에 보루의 역할과 혈맹의 연으로 국가외교에 초석임을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나는 6·25전쟁이 일어나기 만 4년 전, 왜관 아랫개(=下浦) 갯빈(=江邊)에서 태어나, 다섯 살 나이로 왜관에서 대구까지 피난갔었던 기억 중, 몇 가지 회상은 아직도 선명히 되살아나며, 피난 후 본 집에 돌아오니 집은 불타버렸고, 주변은 유엔군 주둔지가 되어 있었다.

내가 공군사관학교를 졸업 후, 군인신분으로 전사(戰史)를 통해 막연하게 한국전쟁 중에 낙동강 방어선이 지형적인 여건으로 최후의 보루로 여겼지만, 이번 [칠곡신문]에 특집 기사를 집필하면서, 놀라움을 금할 길 없는 항공전사(航空戰史)를 재인식하게 되었다. 바로 B-29 폭격기 대량 편대군에 의해<웅단폭격>의 전과(戰果)가 세계적인 항공근접지원(Close Air Support) 작전의 성공사례임을 재삼 깨닫고, 이렇게 대 성공적인 항공전사가 호국의 고장인 이곳 현장에서 전혀 부각되지 못하고, 마치 지상군의 <다부동 혈전>만이 호국의 고장과 6·25전쟁 최후의 보루로 대명사처럼 각

인되었는지... 34년간 영공방위에 인생의 대부분을 소진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불철주야 영공수호를 위해 헌신했던, 또 지금도 임무에 여념이 없는 우리공군은 깊이 인식하여 허물어진 옛 성터의 꼴이 되지 않도록 범 공군적으로 지혜를 모아야할 것이다.

6·25전쟁이 발발 후, 1개월 22일째인 8월 16일, 마지막 고비처럼, 풍전등화의 국운(國運)의 위기. 왜관철교 북서쪽에 전쟁을 종식시킬 북괴의 주공격부대가 끊어진 왜관철교를 건너지 못해 발목이 잡혀 혈안이 된 인민군의 병력은, 그 당시 미8군 정보부 정보판단에 의하면, 인민군 보병 4개 사단과 수개의 기갑연대 등, 총병력 4만여 명이였다. 이런 대 부대가 집결한 것을 관측한 사단장 게이장군은 큰 위협을 감지하고, 왜관 북서지대 일대에 대대적인 항공폭격을 하도록 항공근접지원(CAS) 작전을 요청하였다. 이미 춘천과 안동축선을 연결하는 조공은 팔공산을 점령하여, 120mm박격포탄이 대구역전에 투하되고 있었다. 또한, 동해 해안선을 축으로 남하한 조공은 포항을 거쳐 영천-경산까지 진격한 전황이었으므로, 왜관철교에서 발목이 잡힌 주공 괴뢰군들이 도강을 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을 목격한 증인에 의하면, 주로 야간을 이용하여 가마나 돌, 자루 등을 사용하여 강물 수면 1m 아래까지 밤새도록 축대를 쌓아 놓으면, 그 당시 수량이 많았으므로 주간에는 대부분 유실되는 상황이 되풀이되면서 천운의 지연시간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1950년 8월 3일 북한군의 도하 방지를 위해 왜관철교 경간 한 곳이 폭파되고 있다.

미8군 사단장 게이장군의 요청에 의하여 8월 16일, 왜관 낙동강 북서쪽 폭 3.5마일(6.5km), 길이 7.5마일(14km)의 27평방마일(92km²)의 항공작전으로는 대단히 좁은 밀집지역에 B-29폭격기 98대가 공격방향 북에서 남쪽으로 웅단 폭격으로 투하된 폭탄은, 500파운드(227kg) 폭탄 3천 84개, 1천 파운드(454kg) 폭탄 150개를 동시다발로 소낙비처럼 쏟아 부었으니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할만한 것이었다. 다음날 그 지역을 항공정찰한 정보에 의하면 전장(戰場)에 북한 인민군의 모

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괴뢰군들이 경부선의 주공격부대 총공세를 위한 집결된 병력 및 군수물자의 수치와 물량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인적 물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치명타로 인한 전의상실(戰意喪失)로 적의 숨통과 아킬레스(Achilles)건을 끊어 놓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만약 이 시기를 놓쳐 인민군들이 왜관 낙동강을 도하했다라면, 인민군의 주력부대를 어디에서 어떻게 집중적으로 일격에 격멸할 수 있었겠는가? 왜관 낙동강 상공에서 시기적절한 대성공적인 항공작전의 사례를 재조명하여, 항공력(Air Power)의 위력과 특히, 현대전에서 관건임을 고취시켜야 할 것이다.

왜관 낙동강에서 융단폭격으로 인민군 주력부대가 괴멸된 지 꼭 한 달 후인 9월 15일에 맥아더 장군의 지휘아래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져, 전 남한지역에서 인민군들은 썰물처럼 퇴각하였고, 작금에 대한민국은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중대한 역사적 사실에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전투조종사로 24년간 조국영공을 수호하였고, 또 공군사관학교에서 9년간 비행교수로 후배 전투조종사를 양성하면서, 34년간 총비행시간은 5,612시간을, 하루 24시간으로 나누어보면 234일(7, 8개월) 동안 하늘에서 체공하였다.

이제 공직에서 퇴임 후, 호국의 고장인 고향에서 정착하려고 한다.

그동안 전직 두 대통령과 정부의 눈치만 살피면서 침묵으로 일관할 때, 왜관철교를 지나가는 기차소리가 승자도 패자도 없는 6·25혈투 속에 숨겨진 수만의 원혼들에게 기차 지나가는 ‘구~령 구~령’하는 음률이 신음소리와 울음소리처럼 들리지 않겠는가? 이제는 호국평화사업으로 평화공원조성과 낙동강전투 승전행사를 작년(2010)에 실시하였고, 올해도 60주년 2차 연도 행사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

나로서는 혁혁한 전과를 남긴 <융단폭격과 항공 전력>의 소중한 교훈들이 무관심이나, 망각의 세월 속에 묻혀버리거나, 전승기념행사에서 항공 전력이 배제된다면 이루 형용할 수 없이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눌 길이 없을 것이다. 차후 낙동강 전투 전승(戰勝)행사에 [참전국 국제항공쇼(Air Show)]를 개최하여, 세계평화유지 사상과 항공사상의 고취뿐만 아니라, 미래 항공 산업 발전에 큰 기틀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현재 나는 지방자치체에 협력하여 경비행기학교 설립과 전국대회 및 국제 민간 에어쇼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항공사상고취와 보다 훌륭한 인재육성과 영원한 공군의 발전과 자긍심을 격상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조직과 심도 있는 연구와 선후배 간에 협심된 단결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 이 글은 2007년 6월 7일 [칠곡신문]대기자로 특집기획으로 발표한 내용임.

웅단 폭격

이 영 순

육이오 전쟁 발발 후, 한 달 이십이일
풍전등화의 막바지 위기
왜관서북쪽 철교건너, 집결한 주력 인민군
끊어진 철교를 넘지 못한 탱크들과 4만여 명

야간에만 햇불 밝혀 교두보를 물밀기로 쌓아 놓으면
낮이면 유실되어 버리는 발광 속 지면에 덜미 잡힌
항공근접지원작전의 B-29폭격기 98대가 동시에
장대비 쏟아 붓듯, 중 포탄 3만 발에 초토화되어
주력 적군의 숨통을 끊어버린 대작전, 8월 16일

천년의 요새, 왜관낙동강!
세계적 위대한 항공작전이 침묵 속에
그 공적의 빛을 발하지 못하는가?
이 왜관 낙동강이 없었다면
작금의 자유와 평화가 존재하리요.

* 이 敍事詩는 (사) 한국문인협회 칠곡지부에서 주최한 7개 문인단체들이 2010년 6·25전쟁 60주년을 맞이하여 호국 평화를 주제로 詩畫展에 출품한 글임.

지난날의 군수관리제도를 생각하면서



3기 사관 전승우

군수는 역사적인 어원으로 그리스어인 LOGISTKOS 즉 계산을 숙련되게 하는 것이다. 또는 계산의 과학(The Science Of Computation)이라는 의미이다. 군수는 전략적, 전술적 차원에서 부대의 작전실행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넓은 의미에서 군사경제학(Military Economics)이라 한다.

1960년대 미국국방장관 맥나마라의 국방기획-계획-예산체계(PPBS, 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와 과학적인 관리기법(OR/SA, Operation Research/System Analysis)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수리적 접근을 강조하였다. 군수의 결심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창의성, 통찰력, 직관, 결단력 및 융통성 같은 특성이 전장의 불확실성을 다루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전략적 군수는 ‘한 국가의 경제와 사회적 힘’을 국가 방위를 위하여 작용할 수 있게 하는 과학과 기술이라고 하였다. 군수란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보급, 정비 및 수송에 이르는 군무분야에 걸쳐서 생산으로부터 사용과 폐기에 이르기까지 군수품의 유통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과학인 동시에 술이라고 군수지원 기능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였다.

군수지원관리(Logistics Support)는 정비계획 수립, 체계의 운용 및 지원을 위한 인력과 보급 지원, 지원 장비와 시험장비, 기술자료 훈련과 훈련지원, 시설, 포장취급 저장 및 수송 그리고 컴퓨터 자원의 지원과 설계에 대한 연계를 말한다.

군수 관리의 목표는 인원, 물자, 시설 및 용역 등의 가용자원을 효과적이며 경제적으로 관리하고 능률적으로 수용하는데 있다.

보급기능의 보급 활동은 군수 관리의 목표인 효과성, 경제성 및 능률성의 달성, 적시적소 정량의 정확한 군수품을 분배하는 것이다.

정비기능은 장비와 물자를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거나 사용 불가능한 상태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기 위한 일체의 활동이다. 여기에는 정비운영, 정비기록의 유지관리, 정비관리 분석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합참의 '합동 인사군수'(2003년)에서 7가지 군수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적절성(Responsiveness), 간명성(Simplicity), 융통성(Flexibility), 경제성(Economy), 충분성(Sufficient), 지속성(Sustainability) 및 생존성(Survivability)이며, 이것이 한국 합참교리상의 원칙이다. 군수의 고려 상황으로 는 전략, 전술 및 군수의 3개 요소가 혼합되어 나타난다.

국방기획 관리제도에 있어서 관리란 집단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조직적인 노력으로 내부환경을 계획하고 유지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국방기획관리체계를 기획, 계획, 예산집행, 평가체제(PPBEES : 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Execution, Evaluation System)라고 부른다. 종합군수지원의 개념은 장비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군수지원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기체계 소요단계부터 설계-개발-획득-운영 및 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제반군수지원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사업 관리의 기법으로는 PERT(Programming, Evaluation, Review, Technique)의 계획평가 및 검토의 기법을 활용한다.

오늘날 2006년 1월 1일부터 방위사업청의 신설과 방위사업법의 개선사업을 추진하였다. 국방과 학연구소를 방위사업청의 예하로 변경하였으며, 8개 기관으로 분산된 획득조직을 통폐합하여 방위사업청을 신설하였다. 앞으로 첨단기술의 보유가 자주국방의 요체이며 전쟁 억제력의 핵심력을 담당할 것이다. 따라서 첨단 핵심기술의 독자적 개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방위력 개선, 사업의 획득정책수립 및 제도의 발전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구매사업의 관리 및 평가, 군수품의 중앙조달, 방위사업의 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비용과 효과의 균형을 얻기 위한 의사결정이며 현재는 과거의 결과요 미래의 원인이다. 기업조직의 '창조적 경영'과 창의와 자율의 조직 문화의 대표적 예이다.

조직은 구성원의 도전정신, 창의성, 자율성 및 독창성을 중시한다. 오늘날의 한국기업이 추구하는 창조와 혁신이란 하나의 가치관이다. 사려 깊은 의사결정이란 체계적이며 논리적인 의사결정을 말하며 이는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다.

전략을 뜻하는 단어 스트래태지(Strategy)는 그리스어 '스트라태고스(Strategos)'에서 나왔다. 스트라태고스(Strategos)의 원래 의미는 '장군의 기술(The Art Of The General)'이다. 몇 번의 작은 싸움에 집중하기 보다는 전체의 상황을 고려해 전략을 짜야 한다. 좋은 전략은 종합과 조화

를 통해 나온다.

새로운 리더십은 정책보다 비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즉 리더십의 어원인 리드(Lead)는 동사로서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나간다는 ‘동태성’의 핵심이지 ‘정태성’의 개념이 아니다.

이론은 실제와 결합시켜야 한다. 이론과 실제가 기업의 창의성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복잡할 때 단칼로 끊어라. 우리는 단순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너무 복잡하게 풀려고 할 때가 있다. 이럴 때 쾌도난마(快刀亂麻)의 전술을 기억한다. 훌륭한 지도자나 관리자가 되는 자질 가운데 하나가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처리하는 능력이다. 장고(長考) 끝에 오히려 악수(惡手)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택현(擇賢)의 명분으로 왕위에 오른 세종(世宗)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의 수많은 인재를 불러 모은다. ‘현명한 자를 모아놓는 집’인 집현전의 역사가 등장하였다. 세종시대의 최대의 싱크탱크로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세종이 다방면에 걸쳐 훌륭한 치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지도력과 결단력 때문만이 아니다. 철학 있는 정치를 실천하고 모든 사고의 틀을 혁신시켰으며 새로운 조선의 비전을 공유했기 때문이다. 의사결정을 과거의 경험에만 의존하다가는 판단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다. 경험은 과거의 것이다. 그러나 의사결정은 미래에 무엇을 할지를 선택하는 행위이다. 엄밀히 말하면 의사결정은 세상 살아가는 사람 모두의 문제이다. 삶의 매순간 의사결정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성찰 없는 행동은 발전이 없고 공허할 수밖에 없다.

눈앞에 닥친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고 희망의 믿음을 잃지 않는 합리주의자라고 표현할 수 있다. ‘Doing First’와 ‘Thinking First’에 있지 않고, 계획을 세운 다음 행동하는 ‘Thinking First’ 방식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와익 교수의 주장도 항상 ‘Doing First’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아니다. 의사결정 시한별로 불확실성과 급변성의 정도에 따라 ‘Doing First’와 ‘Thinking First’를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초경쟁 환경이 요구하는 창조적 혁신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수한 시행착오와 일시적 실패가 따를 수 있다. 전 직원은 각자의 분야에서 개선을 위해 새로운 업무방식을 고안해야 한다. 전체 조직 내에 혁신이 속속들이 파고들어야 한다. 창조적 아이디어 개발이 일상 업무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창의성은 독창적이고 적합한 무언가를 창조해 내는 능력이다. 창의성을 높이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경영자만이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직급에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협동을 장려하고 촉진하여야 한다.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창의적인 일에서 필수적이다. 세종(世宗)의 창조적 사고는 모방에서 먹고사는 시대에서 우리 것을 스스로 만들어 내야하는 창조적 시대인 것이다. 세종(世宗)의 집현(集賢)과 합금(舍金)은 창조적 사고의 근본이라 하였다. 세종은 다양한 식견

● 회원기고

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을 합치는데 고민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창조적 역량을 발휘하였다. 우리의 의사결정 하나하나가 창조적 행위이다.

손자병법(孫子兵法)에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병법(兵法)의 으뜸이라고 했다. 요청의 마법을 실천해야 한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있는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지 못하면 사회적 자본을 극대화할 수 없다. 논어(論語)에서 ‘젊었을 때 네 스승을 찾아라.’라는 공자(孔子)의 말씀을 읽고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였다.

* 전승우 회원님은 본 원고를 총동창회에 제출 후 2011. 4. 14 작고함.



형사소송절차의 이해



46기 사관 신기훈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저는 사관 46기생으로 서울법대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제47회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37기로 수료 후 현재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군사법운영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는 신기훈 중령(진)입니다. 성무지를 통해 여러 동문 선후배님들과 만나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교육사령부 법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일반적인 형사소송절차의 흐름 및 검찰 처분 및 법원의 주문에 대하여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문의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형사 절차의 일반론 및 검찰의 처분과 법원의 주문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면서 형사소송 절차의 개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형사 소송절차의 흐름

형사소송절차는 크게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재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한 결과를 토대로 법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일단 헌병이나 경찰이 수사하여 군검찰관이나 검사(이하 ‘검사’로 통칭합니다)에게 사건을 송치시키면 검사는 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일 유죄의 증거가 없거나 사건이 형법상 죄가 되지 않는 것이라면 혐의없음을 이유로, 소송조건(예를 들어 강간처럼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기소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혐의는 인정되나 사건이 기소할만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재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일단 검사가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여 법원에 기소를 하게 되면 피의자의 신분은 피고인으로 바뀌게 되고, 법원에서의 형사절차가 개시됩니다. 법원의 형사절차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하나는 약식명령이고 다른 하나는 정식 재판절차입니다. 약식명령은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사건인 경우에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내리는 명령입니다.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부과되는 형벌이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밖에 없을 뿐 그 효과는 정식재판절차와 똑같습니다. 정식 재판절차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법정에서 하는 재판 절차이니 긴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법원이 사건을 심리한 후에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데 판결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가 모두 갖추어진 경우라면 유죄판결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보강할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무죄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도 갖추어져 있으나 다른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형을 집행하지는 않는 처분인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무죄 판결은 아니나 다른 이유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면소 또는 공소기각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용어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II. 검찰의 처분

1. 혐의없음

혐의없음 처분은 피의자의 행위가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범죄인정안됨) 혹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증거불충분)에 행하는 처분입니다. 만약 기소하면 무죄판결이 나올 만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2. 공소권 없음

피의자의 행위가 소추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또는 필요적 형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하는 처분입니다.

소추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 함은 피의자를 기소하여 유죄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는 이미 같은 사건으로 확정판결이 있는데 또다시 입건되어 조사받은 경우, 일반사면을 받은 사건이 다시 입건된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친고죄에 고소·고발이 없거나 반의사불벌죄¹⁾에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1) 피해자의 처벌 불원이 의사가 있는 경우 검사가 소추를 하지 못하는 범죄를 의미하며 예를 들어 명예훼손죄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

‘필요적 형면제사유에 해당한다’ 함은 형법 및 형사특별법에 특별한 정책 목적상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여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도록 해 놓은 법규가 있는데, 당해 사건은 그러한 법규에 해당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경우의 대표적인 예로 친족간의 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른바 친족상도례 규정을 들 수 있습니다.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가족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처벌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검사가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아버지의 돈을 훔친 경우 아들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지, 법원에 기소되거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두고 있는 범죄로는 권리행사방해죄,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가 있습니다.

3. 죄가 안됨

죄가안됨²⁾ 처분은 범죄성립요건 중 구성요건해당성은 인정되나 위법성 및 책임 중 어느 하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행하는 것입니다. 범죄성립요건은 형법이론상의 문제이므로 자세한 설명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죄가안됨 처분이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정당행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형사미성년자의 행위, 심신상실자의 행위, 강요된 행위, 과잉방위 및 과잉피난행위, 범인은닉죄에 있어서 친족간의 범행, 증거인멸죄에 있어서 친족간의 범행의 경우가 있습니다.

4. 기소유예

죄가 인정된다면 검사는 기소를 하고, 사건은 재판절차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피의자의 죄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고 유예할 수 있는데 이를 기소유예라고 합니다. 즉, 공소제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연령 등 제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행하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의 재량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사유 내지 기준을 확일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관은 형벌을 과하지 않는 것이 피의자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할 것인가 또는 그렇게 하더라도 사회질서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2) 죄가안됨 처분은 검찰의 처분으로 범죄행위에 대하여 정당행위 등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를 의미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 여부를 결정합니다.

참고로, 소년인 피의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범죄예방위원의 선도보호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선도조건부기소유예³⁾, 전문적인 선도가 요구되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보호관찰소의 선도를 조건으로 하는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가정폭력 범죄의 피의자에 대하여 관계기관과의 상담을 조건으로 하는 상담조건부기소유예제도⁴⁾도 있습니다.

Ⅲ 법원의 주문

1. 선고유예

법원에 기소가 되어 피고인의 죄가 인정된다면 법원은 유죄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를 하지 않고 유예할 수 있는데 이를 선고유예라고 합니다. 형법이 인정하는 처벌 가운데 가장 가벼운 처벌입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재범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할 수 없습니다.

선고유예의 효과로는 그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면소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는 아니지만 소송이 계속될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소송을 종결시키는 처분입니다.

선고유예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가벼운 처분이기는 하지만,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범죄를 일으켜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가 된 후에 그 결정요건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즉, 종전의 선고가 유예된 형에다가 이번에 범한 범죄에 대한 형이 같이 선고된다는 뜻입니다.

2.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

3)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하면서 일정기간 동안의 선도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 예를 들어 일정기간의 사회봉사활동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등이 있다.

4) 일정범죄의 경우에 관계기관과의 상담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하는 기소유예를 의미

한 때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유죄판결이기는 하지만 형의 집행만을 유예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입니다. 다만, 종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을 받고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된다는 것은 형의 집행이 면제될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형의 선고가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는 없어지지 않으므로 형의 선고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법률효과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형법 개정 전에는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로 범한 범죄까지도 집행유예의 실효사유로 규정하였지만, 과실에 의한 범죄(예를 들어 교통사고)까지도 집행유예의 실효사유로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비판이 있어 고의범의 경우에만 실효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집행유예의 결격 사유(당해 범죄가 종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을 받고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인 경우)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됩니다. 또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감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 역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면소판결

면소판결은 일단 발생한 형벌권이 사후의 일정한 사유로 소멸한 경우에 법원이 선고하는 판결입니다. 면소사유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다른 사유로 면소판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면소사유는 ① 확정판결이 있을 때, ② 사면이 있을 때, ③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④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입니다. 검찰관이 하는 공소권없음 처분의 사유와 같습니다. 요컨대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기소 전에는 검찰관이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고, 기소 후에는 법원이 면소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4. 공소기각

공소기각의 재판은 법원이 소송조건의 흠결이라는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공소가 부적법하다 하여 선고하는 재판입니다.

소송조건이 흠결이 중대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전자는 공소 기각의 판결, 후자는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공소기각을 하는 경우도 역시 법에 정하여져 있는데 ①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②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③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④ 공소가 취소된 경우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⑤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친고죄)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을 때, ⑥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고, ①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 ②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③ 관할권의 경합이 있는 경우 관할이 없는 법원에서 재판하는 사건인 때, ④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역시 공소권없음 처분과 상당부분 중복됩니다.

IV. 마치며

이상으로 형사소송과 관련된 몇 가지 법률용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낯설고 어려운 용어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경우 형사절차 전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기회에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법률문제에 대한 사례형 글을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법률상담 선택도 좋을 듯합니다. 여러 동문이 참여하는 동문지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2011년도 모든 동문들의 일상에 항상 기쁨과 감사함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동방의 작은 땅



공군가족 박소영

감사합니다.

동방의 작은 땅,

그러나 가늠할 수 없는 저력과 가능성을 품은 작지만 큰 나라.

‘대한민국’이 나의 사랑하는 조국임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잠시라도 세상 밖 지구촌의 어디든 낯선 땅을 밟게 된다면

조국의 소중함은 금세 피부에 와 닿게 되지요.

나라 없는 민족의 설움을 그 어떤 아픔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만 하는 나라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커다란 복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삶에

더불어 한 가족으로 아련한 추억들을 남기며,

보이지 않는 울타리가 되어 주었던 ‘공군’이 함께하였음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인연 속에 새삼 그 넓이와 깊이를 헤아려 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한없이 귀한 만남의 축복을

● 회원기고

새로이 다져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집에도... .

감사합니다.

이에 더한 큰 감사를 날마다 깨달아 돌아가게 하시며
수시로 무너져 내리는 마음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더 멀리 뻗어 내려가게 하여 주심을.
그리함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매순간 붙드시고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삶에 오르막이 있다면 내리막도 있음이 우리의 인생이겠지요.
때로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이 없는 시간이 찾아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면한 위기 앞에서 잠시 모든 생각을 멈추고,
그저 빈 마음으로 겸손히 아직 남아있는 것들을 조심스레 헤아려 봅니다.
비록 현실은 가슴시리도록 아플지라도,
그래도 잃은 것 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에,
그리고 그 어떤 최악의 경우라 할지라도
최소한 두 가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반드시 있다는 깨달음 앞에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서서히 회복은 시작됩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사는 동안 때로는 앞뒤좌우 어디에도 희망의 빛은 보이지 않고,
언제가 되려는지 그 끝 또한 절대 오지 않을 것만 같은
막연한 두려움과 넘치는 염려에 휩싸이기도 하지요.
긴 터널을 통과할 때, 그 끝으로 가면 갈수록
빠져나가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고난의 터널 끝에서 만나게 될 찬란한 희망의 빛을 기대하며
인내로 참고 견뎌내야만 하는 짙은 암흑의 시간들..... .
아울러 흐르는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깨달을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세상에서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잠간의 즐거움과 만족은 줄 수 있겠지만
영원하지 못하고 잠시 머물다 지나갈 뿐입니다.
아무리 힘든 고통과 아픔의 시간도
그 역시 지나가고,
즐거운 것도 슬픈 것도, 기쁜 것도 괴로운 것도,
언젠가는 모두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떠한 경우든 스스로 지나치게 자만하거나
과도히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마치 어떤 시간표처럼 때를 따라
삶속에 스쳐 지나가는 것일 뿐.
수많은 점들이 모여 선을 이루듯이
기나긴 역사의 시간을 살펴 볼 때,
우리는 어느 한 시점을 찍고 사라져 가는 유한한 존재와 같답니다.
찰나를 살고 떠나는 나그네.
하지만 준엄한 역사의 심판 앞에서 시간의 여행자인 각자에게
맡겨진 몫을 다함에 있어,
그 시대에 대한 성실함과 책임의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삶에 크고 작은 영향력을 끼치신 분,
아버지.
살아오면서 언제 어디서든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묻는 질문에
늘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내 아버지'라 답해왔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완전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성실과 정직을 늘 삶으로 보여주셨던 그 모습에
항상 깊은 신뢰와 존경심을 품어 왔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런 아버지께서 몸 담으셨던 공군을 그 분을 통해 보고자라면서
공군을 생각하는 마음과 감정 역시 오랜 시간 남달랐던 것은

● 회원기고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한때 금녀의 구역이었던 공군사관학교를 향해
아쉬움과 안타까움의 한숨을 내쉬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아무쪼록 지난 날 공군 안에서 지내오며 적지 않은 세월동안 누려왔던
평안함 가운데에서의 지극히 평범했던 일상들이 문득문득 떠오르며
가벼운 미소를 짓게 하는 추억들에 감사합니다.
이젠 그간의 익숙했던 것들로부터의 결별을
부단히 연습해 나아가야만 하는 시간이
예상보다 너무도 빨리 그리고 갑자기 찾아왔네요.

지난 3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엄연한 현실 앞에서 정신을 가다듬어야했던
머릿속에는
온통 두 가지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첫째,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다.
둘째, 나는 공군 전투지휘관 참모의 부인이다.
그에 합당한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갖추기 위해
스스로를 가다듬으며 무던히도 애썼던 시간들.
그 어느 것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기막힌 현실 앞에
죽을힘을 다해서 지켜내고자 했던 것들... .
많이 힘들고 아팠지만 회한 없습니다.

강릉을 떠나기 전 실컷 울고 싶을 때 가끔 찾던 곳이 있었습니다.
푸른 바다가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언덕,
그 날도 차를 세우고 하염없이 수평선을 바라다보고 있던 그 때
조그만 어선 하나가 눈에 들어 왔습니다.
왼편에서부터 수평선을 따라 전속력으로 거침없이 곧장 달리던 배가
갑자기 한순간 멈춰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곤 무엇을 하는지 그 자리에 한참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너무 먼 거리에 있었기에 그 곳에서 그물을 거두며 고기를 잡는 것인지,

아니면 열심히 달리던 어선에 문제가 생겨 잠시 수리 중이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서야 그 배는 마침내 다시 방향을 잡고
속도를 높여가며 어디론가 내 눈 앞에서 빠르게 사라져 갔습니다.
순간 정신이 들면서 갖게 되었던 궁금증,
무엇이었을까? 그 멈춤의 시간은…… .
그 배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 시간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멈춘 듯 보이나 그 안에선 분명히 어떤 의미 있는 움직임들이 있었을 텐데.
어쩐지 나의 현주소와도 같은 상황을 보고 있는 듯했습니다.
좌우 살필 겨를 없이 결눈질 하지 않고 인생의 한 방향을 향해
쉽 없이 달려오던 삶이 한 순간 멈춰버린 기분.
너무나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지만,
어쩌면 이것이 인생의 Half Time이란 것인지.
그렇다면 이제부터 주어질 생의 후반전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잘 뛰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또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당장의 조급함 보다는 긴 호흡으로 바라보고
내딛음이 마땅한 것인지…… .
새로운 삶의 시작과 힘찬 도약을 위해서 힘겹지만,
잠시 주어진 휴식과 같은 시간.

삶은 누구에게나 한 번 뿐이고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정해진 운명입니다.
먼저와 나중의 차이가 있을 뿐,
언제든 때가 되면 우린 너나없이 이 세상을 떠나야만 하지요.
한번 지나는 인생에서 언제일지 모르는 삶의 끝자락을 마주하는 순간이
기어이 다가온 그 때, 우린 과연 무엇을 남기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아마도 그것은 창조 이래 모든 피조물에게 던져진
오랜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이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

● 회원기고

이제 다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인생의 배를 새로이 정비하고,
미래를 위해 거두어들이고 버려야 할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분명 이유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두에서 고백했듯이 앞으로도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기를 결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에 물론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다시 감사의 힘으로 일어서려고 합니다.
우리가 미처 의식하지 못하고, 언제나 습관처럼 이루어지는 호흡이
지금 허락되고 있다는 것은 오늘이란 기회를 얻은 자들에게 무엇인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겠지요.

언젠가는 앞서 간 사랑하는 이들을 기쁨으로 뒤통스레 만나기 위해
오늘도 성실과 최선을 다짐하며,
진정 가슴을 뛰게 하는 소명으로
나의 자리에서 뜨거운 열정을 마음껏 쏟아낼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 이 글은 2010년 3월 2일 강릉기지를 이륙한 F-5전투기 사고로 순직한 오충현 대령의 부인 박소영씨가 기고한 글임.

** 고 오충현 대령은 순직 후 그의 유서가 된 일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오늘도 살아 집에 올 수 있을까, 하며 집을 나선다.’

또 먼저 간 동료의 장례식에 참배하고 쓴 일기에는 ‘먼저 내가 죽는다면 우리 가족, 부모형제, 아내와 자식들은 아들과 남편, 아버지로서 보다 훌륭한 군인으로서의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담담하고 절제된 행동을 보였으면 한다.’로 시작하여 ‘나 자신이 조종사임을 깊이 감사하며, 나는 어디서 어떻게 죽더라도 억울하거나 한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럽고 떳떳하다는 것을 확신한다. 군인은 오직 충성, 이것만을 생각해야 한다. 세상이 변하고 타락해도 군인은 변하지 말아야 한다. 그의 영원한 연인 조국을 위해서 오로지 희생만을 보여야 한다.’라고 기록하였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비결



7기 사관 김국창

몇 년 전, 제가 미국에 잠시 머물고 있을 때 시사 주간지 '타임'을 뒤적이다 우연히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란 흥미로운 특집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보스턴 대학을 비롯한 여러 권위 있는 기관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한 내용이었는데, 그 중에서 특히 관심을 끌었던 내용을 여기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람의 수명을 결정하는 요건은 대개 유전적 요인이 20~30%를 차지하고, 나머지 70~80%는 생활 스타일 등에 의해 좌우된다.

둘째, 세계적 장수국가인 일본, 일본인들 중에서도 가장 장수하는 오키나와 사람들은 된장국 등 콩으로 만든 음식을 많이 먹는 특징이 있다. 일본인들은 타국인들에 비하여 콩을 많이 먹는 편으로 하루 평균 30~50g을 먹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오키나와 사람들은 그 두 배(60~120g) 이상을 섭취한다. 또한 중국 사람들은 하루 평균 10g을 먹고 미국인들은 거의 먹지 않는다.

셋째, 오키나와 장수인들은 '하라 하찌부'라 하여 위(胃)의 80%만 채우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 인간생존의 필수 열량인 1,800칼로리 정도를 섭취하는데 비하여 미국인들은 보통 2,500칼로리 이상을 섭취한다.

넷째, 빈부의 문제가 장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부유하지는 않더라도 농촌에 살며 직접 땅에서 재배한 유기농 곡물과 채소를 먹고, 계속 몸을 움직이며 '땅과 밀착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장수한다.

다섯째, 여러 나라 100세 이상의 장수인들은 가족이나 형제자매, 친구 등과 각별한 인간적 유대를 가지고 살고 있다. 이러한 두터운 유대를 형성함에 있어 20세 정도의 나이 차가 나더라도 함께 어울려 지내며 밀접한 친구(Confidant)관계를 유지, 강한 사회적 연결고리 안에서 서로 돕고 의지

하며 서슴 없이 살아간다.

앞의 5가지 장수요건을 살펴보면 어떤 대단한 ‘장수의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면 능히 장수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한다. 우선 첫째 항목은 유전적인 요소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 해도 둘째와 셋째 요건은 음식의 섭취에 관련된 사항으로 콩 음식을 많이 먹거나 절식(節食)을 하는 등 조금만 노력하면 능히 해낼 수 있는 요건입니다.

다만 넷째와 다섯째 항목은 이것저것 다 손 떼고 이제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 그 노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제시란 생각이 듭니다.

65세에 은퇴를 한다면 아직도 일할 여력이 있는 나이로 다시 일자리를 확보, 일을 계속하거나 아니면 한적한 시골로 내려가 텃밭을 가꾸며 자연을 벗 삼아 살아가는 등 인생의 제2막을 열어 갈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일자리를 확보하지 못한 채 여생을 보내거나 다행히 일자리를 확보, 인생의 제2막을 산다 해도 중국에는 누구나 다 인생의 종막(終幕)에 이르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 종막이 바로 가정이라는 마지막 무대이며 부부가 함께하는 이 무대에서의 성패가 인생을 행 또는 불행으로 마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지요.

그럼에도 가정이라는 무대에서 부부가 펼쳐야 할 역할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성별도 명예도 권위도 지식도 필요 없고 그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할 뿐이지요. 과거사는 다 묻고 부부간에 서로 위해 주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취사와 요리, 청소와 정돈은 물론 건강관리 등 모든 것을 함께하며, 서로 보살피 주고 돕는 가운데 성숙한 사랑을 나누며 살면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저의 생각에 대하여 “요리, 청소 좋아 하네”하며 혹 책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나, 장수인의 다섯째 요건인 ‘두터운 인간적 유대’를 만듦에 있어 부부간의 헌신적 사랑(관심과 배려)보다 더 효과적인 대안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간에 서로를 향한 헌신적인 ‘도움 행위’야 말로 육체적 활동의 지속성 유지는 물론 감성적, 정신적 유대를 형성함에 있어서도 가족이나 친구보다 강한 ‘컨피던트(confidant)’가 되어 장수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념할 사항은 어떤 일에 임하여 ‘이 나이에 무슨...’ 하고 자기 인생에 한계를 긋지 말라는 것이지요. 한계를 긋는 순간 남은 생애는 단지 죽음만을 기다리며 사는 무의미하고 지루한 삶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나이에 무슨...’ 하는 부정적 생각을 가진 분이 있다면 “이 나이에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고 적극적으로 살아갈 때, 뇌세포의 쇠퇴와 노화를 지연시켜 준다는 뇌(腦) 과학자들의 주장에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보람 있고 건강한 백년해로의 꿈을 이루어 감으로써 인생의 종막(終幕)을 아주 멋지게 장식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빌겠습니다.



山이 좋아



7기 사관 김석천

산이 저 멀리서 꿈쩍도 않으니 내가 그곳으로 갈 수밖에….
영국의 유명한 등산가 조지핀치는
“등산은 스포츠가 아니라 삶의 방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태초(太初)에 인류는 산에서 태어났고 산에서 살았으며
마지막엔 산에 묻혔습니다.
심신(心身)을 아우르는 특효약(特效藥)은
뭐니뭐니해도 역시 등산이 최고이지요.
아침 해도 산에서 떠오르고 저녁 일몰도 산 너머로 숨어듭니다.
산은 낮은 곳에서 높은 쪽을 볼 수도 있고
반대로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볼 수 있으며,
가파르고 힘든 오르막이 있는가 하면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내리막이 있어
마치 우리들 인생행로를 보는 듯합니다.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땀 흘려 정상에 올라
발밑에 펼쳐진 세상을 내려다보면
마치 온 세상을 모두 정복한 듯한
그 쾌감, 어찌 글로써 이루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산은 수많은 동식물들 서식(棲息)을 보호하며
혹한(酷寒)이나 혹서(酷暑)에도 잘 견디고,
폭풍이나 폭우에도 능히 소화하여 홍수를 막아
자연 재난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울창한 숲 속 산허리 바위틈에 붙어있는 검푸른 이끼는
어미 바위와 함께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동안
풍우한설(風雨寒雪)을 잘 견디며 곳곳이 산을 지키고 있지요.
그래서 많은 식자(識者)들은
'산은 침묵과 장엄미를 배우고 조화와 진실, 우정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측정케 한다.' 라고 읊기도 하였습니다.

산의 울창한 숲 속에서 뿜어내는 음이온이나
산소 속의 풍부한 피톤치드 같은
여러 종류의 유익한 원소들이 인체의 모든 질병들을
자연 치유케 하는 요소는 감히 값으로 정할 수 없는
고귀한 영양소라 하겠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폐암수술의 권위자인 심영목 교수의 논술에 의하면
사람은 누구나 평상시 약 40%의 노폐물이 체내에 축적되어 있으나
등산을 하면 맑은 공기와 숨가쁜 호흡으로 인하여
몸속의 노폐물이 완전히 배출된다고 합니다.
또한 산은 만인의 가슴을 따뜻하게 감싸 줍니다.
등산인은 물론 정치인을 비롯하여 각 기업체의 경영 세미나,
산악 극기훈련 그리고 흠어진 동창들의 정기 친목 모임,
가족 단위의 등산, 그 외에도 매일 공부의 노예가 되고 있는
각급 학생들의 기분전환 등,
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들이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신비함으로 가득합니다.

● 회원기고

우리 동기생 일행 15명 모두는

곧 77세 희수(喜壽)를 바라보는 백발노장(白髮老將)이지만, 사시사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화요일이면 틀림없이 약속장소에 집결 후 서울 근교의 산들을 오른답니다.

매주 화요일을 등산일로 택한 이유는 공군 기상대 과거 수십 년 자료를 통해 주중(週中) 화요일이 가장 날씨가 좋다는 정보를 참고로 했답니다.

그리고 때로는 계절에 따라 매년 2~3회 정도는 충남 계룡산(845m), 경북 백암산(1,004m) 등, 꽃과 단풍 그리고 온천욕을 겸하여 장거리 원정 등산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각자 간편하게 먹을 것을 준비한 배낭을 메고 출발하게 되면 남에게 뒤질세라 희희낙낙(喜喜樂樂) 밀도 끝도 없는 옛 추억담을 쏟아내며 시간가는 줄 모르고 지내다보면 어느새 하루해가 저물곤 합니다. 아무리 산이 높고 골이 깊다 한들 우리들의 끈끈한 전우애(戰友愛) 만큼이야 더 하겠습니까!

의리(義理)와 신의(信義)가 통하는 60여년 지기의 “7星 登山會”가 있어 우리들은 늘 행복하답니다.



송년 서울대공원 일주



계룡산 등산

보람있는 안보해설사 활동



20기 사관 문태일

(전쟁기념관 안보해설사 서울문화관광해설사)

전쟁기념관의 안보해설사인 나는 전쟁기념관을 방문하는 장병 및 학생들은 물론 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설을 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서울문화관광해설사로서 경복궁 코스를 비롯하여 서울시에서 선정한 13개소의 도보관광코스와 인사동 등 3곳의 상설안내소에서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서울의 문화유산을 해설해주는 자원봉사를 하면서 큰 보람과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공군에서 퇴역을 한 후 나는 한얼그룹,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한토목학회, 한양공대 등 일반 회사와 학교에서 근무를 하다가 아는 사람의 부탁을 받고 캐나다로 건너갔다. 그곳에서 2년 간 자녀 유학 생활지도와 부동산 중개관련 일을 하다가 돌아왔다. 귀국 후 취업을 하려고 했지만 60살에 가까운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찾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꼭 취업에 목적을 두기 보다는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회봉사활동을하기로 결심했다.

군에서 장기복무를 했기에 우선 국방부 인터넷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정책모니터를 시작으로 서울시 시정모니터, 국방일보 모니터, 서울매트로 모니터, 바둑TV 모니터, 수도권교통본부 리포터 등이 되어 각종 봉사활동을 하던 중 서울시로부터 서울문화관광해설사들의 고궁 안내 해설을 점검하라는 과제를 부여받았다. 점검하는 날, 우리 문화재를 열심히 설명해주는 해설사의 안내와 해설을 들으며 이와 같은 해설 활동이 상당히 보람 있고 또 건강에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해설사 활동은 서울시에서 1년에 한 번 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개 언어로 구분해서 모집을 하며, 시험을 보고 합격자는 3개월간의 수습교육과 평가를 거친 다음에 서울시에서 정한 여러 해설 코스에서 해설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영어회화도 할 수 있지만 전역 후 1년간 학원에서 일본어를 배웠고 또 일본 월간군사잡지

● 회원기고

인 군사연구를 2년간 번역해본 경험을 살려 일본어 해설에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고 주 2회 일본어 학원에 다니면서 서울시 문화재에 대한 공부도 시작하였다.

잊어버린 일본어 능력을 회복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공부를 시작한지 1년 반 정도가 지난 2008년 초에 서울문화관광해설사 모집 공고를 보고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그 후 3개월간의 수습교육과 3회에 걸친 한국어와 일본어 해설 실기평가를 받았으며, 드디어 2008년 8월부터 제6기 서울문화관광해설사로서 시에서 지정한 문화관광코스에 대해 국어와 일본어로 안내와 해설을 시작하게 되었다.

당시 서울시에는 경복궁·효자동코스 등 13개소의 도보관광코스와 남산한옥마을 등 2곳의 상설근무가 있었는데, 6기 해설사인 나에게는 암사동·몽촌토성코스 등 3곳의 도보관광코스에 대한 해설과 남산한옥마을 상설근무의 기회가 부여되었다. 나는 궁궐에 대한 해설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이 섭섭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주어진 코스에 위치해 있는 문화유산들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올바르게 알려주고자 나름대로 정성을 기울여 많은 자료를 준비했다.

그 후 8월 말부터 나에게 배정된 관광객에 대하여 서울문화관광해설사로서 도보관광해설활동을 시작했다. 암사동·몽촌토성코스는 신석기시대의 유물과 백제시대의 유물이어서 초등학생과 중학생가족들이 많이 신청을 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시대로 변천하게 된 배경을 알려주고, 또 암사동의 움집을 해설하면서 영국, 미국, 중국 및 일본 등의 색다른 모습의 움집사진들을 구해서 보여주었으며, 가죽을 걸치던 시대에서 삼베옷을 발명하여 입게 된 배경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다.

또 다른 최순우옛집·길상사코스는 그곳에서 소개되는 전통한옥과 함께 근대문학가 다섯 명이 등장하며, 해설 신청자들도 대부분 고등학생 이상 성인들과 일본인관광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한옥마을에 가면 더 상세하게 볼 수 있는 전통가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그 가옥들과 관련이 있는 근대문학가 한용운, 이태준, 최순우, 백석, 법정스님의 작품을 연구한 후, 좋은 작품을 일부 발췌하여 프린트를 해서 나누어 주고 문학가들의 업적과 작품의 우수성을 종합해서 설명해 주었다.

예를 들면 오랫동안 옥중 생활을 하신 독립투사이자, 종교인이며 문학가이신 만해(萬海) 한용운(韓龍雲) 선생의 작품 중에 관광객에게 제목이 없는 시조 한 수를 소개해 주고 나서, 한용운 선생께서 그와 같은 시조를 쓰시게 된 배경을 알려주었다.

이순신 사공삼고 을지문덕 마부 삼아
파사검 높이 들고 남선북마 하여볼까
아마도 님 찾는 길은 그 뿐인가 하노라

〈한용운 선생께서 이 시조를 쓰시게 된 배경〉

3·1독립만세운동 후 일제에 체포되어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될 때 한용운 선생은 33인의 민족대표들에게 모두가 역경을 이겨내며 옥중에서도 독립투쟁을 지속하자면서, 3원칙 ①변호사를 대지 말 것 ②사식(私食)을 넣지 말 것 ③보석(保釋)을 요구하지 말 것을 끝까지 지키자고 제의했다.

그런데 미결수로 있는 동안 일제의 협박에 일부 민족 대표들은 벌벌 떨고 있거나, 극형에 처한다는 헛소문을 듣고 대성통곡하는 인사도 나타났다. 이 분은 공포에 떨며 울고 있는 몇몇 인사에게 인분을 퍼부으며 질책을 하면서, 민족대표라고 도장을 찍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거나 비겁한 행동을 하면 당신을 따르는 민중은 장차 어디로 간다는 말인가라고 하며 크게 탄식을 하셨다. 사실 당시 지도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저항과 투쟁을 포기하고 적당히 타협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친일을 하여 부귀와 영화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한용운 선생은 일제와 한 치의 타협함이 없이 형무소에서 장기간 외롭게 옥중투쟁을 하면서, 이순신 장군과 을지문덕 장군과 같은 민족 지도자가 나타났으면 하는 간절했던 바람을 이 시조로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다섯 분의 문학작품을 소개하고 이 분들의 문학인으로서의 공적과 독립운동 등 사례를 들어가면서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이 코스를 신청한 일본인 관광객에게는 발췌한 작품들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소개해주고 우수성을 설명해주었다.

이렇게 수개월 간 꾸준히 배정받은 코스에 대한 해설에 정성을 기울인 결과 해설을 다 듣고 난 관광객과 학생들, 학부모들은 유익한 내용을 재미있게 해설해 주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받고 나면 3시간 이상을 함께 걸으며 해설하면서 피곤해진 심신이 모두 풀리고, 보람 있는 일을 했다는 행복감과 만족감에 잠겨 돌아오곤 했다.

한편, 내가 전쟁기념관과 인연을 맺게 된 계기는 서울문화관광해설사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동료 한 분이 전쟁기념관에서도 전시실 해설봉사자가 되어 6·25전쟁실을 해설하고 있다면서 나에게도 권하였다. 그 뒤 나도 전쟁기념관 해설봉사자가 되어 활동을 하던 중에 안보해설사로 채용이 되어, 준직원으로서 전쟁기념관을 방문하는 장병과 학생은 물론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설활동을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전쟁기념관의 전시실은 크게 6·25전쟁실과 전쟁역사실 그리고 해외파병실과 국군발전실로 구

성되어 있으며, 안보해설사는 주로 6·25전쟁실을 대상으로 해설을 하던 중, 작년 3월 26일에 북한 어뢰가 천안함을 침몰시키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정부와 국방부에서 국민과 장병들을 대상으로 안보교육을 강화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그 때문에 나는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근무일에는 하루에 3회 이상 장병, 학생, 공무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6·25전쟁실 해설을 통한 안보교육에 열성을 갖고 임했다.

해설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을 소개한다면, 2010년 12월 10일 전쟁기념관을 방문한 공군사관학교 군사전략학과 3, 4학년생도 30여 명에게 해설하는 중에 개인화기전시대에서 '이 M1소총의 유효사거리는 450m이고, 반자동이며 성능이 좋은 반면에 무게가 4.3kg이나 되며, 착검을 하면 5kg이나 된다.'라고 소개하였다. 또한, 내가 생도 때에는 매년 국군의 날이 되면 여의도에서 기념식을 하고 서울역에서 종로 5가까지 시가행진을 했으며 끝나고 나면 오른팔이 아파 서로 주물러주었다고 설명하고 나서, 작년에 성무인 가을축제에 참석해서 열병분열을 관람할 때 대대장 생도 한명이 여자생도라 어떻게 구령을 할까 궁금했는데 "차리어", "받들어 총" 등 너무 멋지게 구령을 해서 관람하던 선배들이 모두 큰 박수를 쳐주었다고 했다.

이어서 낙동강방어전투, 인천상륙작전, 평양탈환작전, 장진호전투, 지평리전투를 유엔군훈약상, 피난생활상 등을 해설하면서 1시간 20분간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장병들의 정신무장으로 기본임무 철저와 체력증진을 제시하고 맥아더 장군과 미 육사(West Point)의 실바너스 상(Sylvanus Thayer Award)과 엔테베 작전(Operation Entebbe) 등의 예를 들어 설명해주었다.

해설을 하다 보면 가끔 대단히 뛰어난 초등학생을 만나게 된다. 2008년 8월부터 해설을 시작한 후 지금까지 나는 전쟁기념관과 서울도보관광코스에 대한 해설활동을 하면서 목포에서 온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인데 책을 수백 권 읽었다는 홍주완 군 등 5명의 뛰어난 초등학생을 만나 해설해 주었다. 그런 학생들의 공통점은 일단 해설에 열심히 귀를 기울리며 반드시 메모지나 노트를 들고 기록을 한다는 점, 그리고 이해가 가지 않는 단어나 내용이 있을 때는 곧바로 질문을 하는 점이다. 또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고 물으면,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하며, 부모에게 반드시 존댓말을 하는 점 등이다.

나는 이와 같이 뛰어난 학생을 만나면 기쁘고 한편으론 긴장이 된다. 그래서 나의 경험과 배운 것 모든 것을 통 털어 알기 쉽게 논리적으로 해설을 해주었다. 그리고 그 학생의 부모에게 미래에는 한 명의 뛰어난 학자나 리더가 수천만 명을 먹여 살리는 발명이나 공헌을 할 것이므로 잘 키워 줄 것을 부탁했다. 또 사후 관리로 그 학생의 정서함양에 도움을 주기 위해 평소 즐겨 듣고 있는 가곡이나 팝송파일 300여곡 중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노래 몇 곡을 골라 보내주며 그 학생 가족의 근황을 물어보기도 했다.

초등학생으로부터 질문 받았던 것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한다면, 전쟁기념관 전시실에 조종복을 입고 있는 남북한 공군 조종사 마네킹을 가리키면서, 내가 공군 장교출신이며 전시된 조종복을 입고 비행했던 경험이 있다고 알려주자, 전시된 군복들을 살펴보면서 어쩌서 주머니가 바지 옆구리에 있는 육군, 해군, 해병대 전투복과 다르게 공군 조종복에는 무릎 위에 주머니가 있냐고 물었다. 그래서 나는 조종사가 좌석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맨 다음 비행을 시작하면, 비행기는 자유롭게 날아다니지만 조종사는 비행 도중에 일어설 수 없기 때문에 무릎 위에 있는 주머니에서 지도나 암호문 등을 손쉽게 꺼내 사용했던 경험이 있다고 알려주었으며, 아울러 조종복에 주머니가 많은 이유와 가슴 앞의 주머니가 경사진 이유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었다.

전쟁기념관에는 6·25전시실의 경우 2010년부터 공식적으로 영어통역해설사가 상근하면서 오전 오후 시간별로 해설을 원하는 관광객들에게 영어로 해설을 해주고 있지만, 일본어나 중국어 등 다른 언어는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고 영관장교출신 안보해설사들은 국어 해설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일본어 통역 서울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대사관 또는 다른 국내 관공서로부터 일본 자위대 장교들이나 일본인 공무원 교직원 등에 대한 해설의뢰가 있을 때와 틈이 나면 일본인 관광객들에게도 일본어로 해설을 해주고 있다.

일본인에게 해설해준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2010년 1월 2일 일본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코바야시 치요미(小林 千代美)와 동년 7월 7일 기타큐슈시(北九州市) 산업의과대학 교수 세이치 호리에(堀江 正知) 그리고 동년 7월 21일 일본 방위성 정무관(政務官) 나가시마 아키히사(長島 昭久)와 그 일행 6명과 동년 9월 건축설계사 나카타니 타츠카이(中谷 龍海)에 대한 해설이다.

이 가운데 일본 중의원 코바야시 치요미는 6·25전쟁실을 개인적으로 방문하여 관람했던 40대 중반의 여성이며, 자신이 안보담당 국회의원이라면서 대단히 진지하게 경청을 하기에 함께 점심식사를 하면서 6·25전쟁실과 해외파병실 그리고 국군발전실까지 4시간에 걸쳐서 해설을 해주었다. 이 의원은 설명을 들으면서 제일동포 학도의용군의 참전 진열대에서 출병 직전에 태극기에다 이름과 각오 등을 기록한 것들을 꼼꼼하게 읽어보았으며, 또 부상병을 치료하는 사진 모습에 중공군복장의 부상자를 치료하는 사진을 보고 우리 국군이 중공군도 치료해주었냐고 묻는 등 매우 치밀함을 보였다. 또 인천상륙작전을 설명하면서 현재 일본해라고 부르는 우리 동해를 ‘한·일해’나 ‘일·한해’라고 부르면 어떻겠느냐고 묻자, 미소만 지으며 대답을 하지 않았던 기억이 난다.

또 세이치 호리에 교수의 경우는 자신은 의사지만 국제정치와 안보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다닌다고 하였다. 그는 남북 분단 패널에서 1945년 9월 2일 도쿄만의 미조리함에서 일본이 미국에 무조건항복 조인식을 했으며, 그 당시 일본어로 쓰여진 항복문서를 보고는 일본 내의 전시실 어느 곳에도 항복문서는 볼 수가 없었다며 사진을 찍었다. 그러면서 전쟁 당시 일본 사람들은 천

황을 신적인 존재로 알고 있다가 맥아더 장군이라는 사람과 함께 서 있는 사진을 보고 많이 놀랐다고 하며, 본인은 당시 일본 천황의 신적 우상화의 잘못된 점을 일본 대학생들에게 가르쳐준다고 했다. 그는 일본으로 돌아간 후 나의 해설에 대한 감사서신과 사진을 보내왔다.

2010년 가을에 접어들자 오후에 전쟁기념관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했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 나는 주로 외국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해설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일본어는 일본인만을 대상으로 해설하지만, 영어로 해설을 하게 되면 영어가 통하는 세계 각국 사람들에게 해설을 해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영어해설을 준비하고 연습했다.

그리고 9월부터 시간이 날 때마다 전쟁기념관 현관에서 전쟁기념관 팸플릿을 받아 중앙홀로 올라오는 백인 등 영어권 관광객들에게 찾아가 전시관의 구조를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준 다음, 나는 일어해설담당이지만 영어해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해설 듣기를 원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쟁역사실과 6·25전쟁실에 대해 영어로 해설을 해주기 시작했다.

해설 도중에 웬만해서는 질문을 하거나 자기생각을 말하지 않는 일본인과는 다르게 영어권의 백인들은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곧바로 물어보고 또 자기의 견해를 말하기 때문에 질문이 많은 편이며, 만약 해설 내용이 알맹이가 없고 지루하다고 느껴질 때에는 그만 듣고 싶다고 말하고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 그러나 해설자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런대로 들을 것이 있다고 생각되면 끝까지 경청을 한다. 그래서 나는 내가 배운 스토리텔링기법(Storytelling Technique)을 발휘하여 해설 주제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아내어 설명하는 등 영어 해설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영어권 관광객에게 설명해준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을 몇 가지 소개하자면, 2010년 7월 5일 남산마을에서 캐나다 토론토 초등학교 여교사 포피(poppie butler)와 어머니 모녀와 동년 12월 25일 전쟁기념관에서 미국인 남녀대학생 로스(Ross Buchanan)와 린치(Linch Hyunh), 그리고 2011년 1월 15일 영국인 남자 매튜(Matthew)와 미국인 여자 에멀리(Emily Lenox)에 대한 해설과 동년 1월 23일 퇴역 미 해군 장교 에드워드(Ed)와 용산 외국인중학교 영어 및 과학선생 마샬(Marshall) 부부에 대한 해설이며 이 가운데 2명의 해설사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캐나다 초등학교 선생 포피 모녀에게는 남산한옥마을의 유래를 설명해주고 순정효황후 윤비 친가를 설명하면서 사대부들의 안채와 사랑채의 가구배치와 한옥의 구조를 설명해주었다. 이어서 선조들이 사용한 온돌난방시스템의 독창성과 탁월한 난방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해풍부원군 윤택영 재실에서는 고조고비, 증고조비, 조고비, 고비순으로 4대를 모신다는 것과 장독대를 설명하고, 우리 선조들이 겨울에도 신선한 야채 대신에 먹었던 야채 즉 발효식품인 김치와 깍두기를 보관했던 김치각에 대하여 재미있게 설명해주었다. 이렇게 좀 서투른 영어지만 성의를 다해 충실하게 해설을 하다보면 주의를 기울여 경청하는 캐나다인 모녀와 마치 가족과 같은 친밀감을 갖

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정자인 청류정을 설명한 후 해설을 끝내겠다고 하자 캐나다인 모녀는 여러 번 고맙다고 나에게 인사하고 떠난 뒤 서로 메일로 소식을 전하는 친구가 되었다.

다음은 미국인 남녀대학생 로스와 린치에 대한 해설이다. 토요일 오후 3시경에 전쟁기념관 현관에서 미국인 남녀 대학생이 영어로 해설을 원한다는 연락이 와서 해설을 시작하게 되었다. 현관에서 이들에게 전쟁기념관의 전시실 현황을 설명해주자 전쟁역사실과 6·25전쟁실 모두 해설을 듣고 싶다고 한다. 나는 전쟁역사실에서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의 건국과 멸망의 과정 그리고 고려시대의 몽고 침입, 이어서 조선시대의 임진왜란 등에 대하여 전시물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면서 조선군은 왜군과는 다르게 검 보다는 활과 창이 주무기였고, 양국 갑옷 모양이 다른 이유 그리고 전시되어 있는 커다란 조선시대 무과 합격증서를 가리키며 나는 장교로 임관되는 공사 졸업식 때 작은 졸업증명서 한 장을 받았는데 조선시대 무과 합격자는 이렇게 큰 합격증서를 받았다고 비교해주었다.

그리고 6·25전쟁실에서 전쟁의 발발과 전개과정을 해설하면서 장진호 전투에서 사단장 올리버 스미스 장군의 명언 “후퇴라니 천만에 우리는 후퇴하지 않고 방향만 바꿔서 공격한다.(Retreat, hell! We’re not retreating, we’re just advancing in a different direction.)”와 작전내용을 설명해주고 한국 해병대 구호 중에 미 해병대에서 수입된 구호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Once a Marine Always a Marine)’의 유래를 설명해주면서, 6·25전쟁 직후 한국을 방문한 맥아더 장군이 완전히 폐허가 된 한국이 복구하려면 100년이 걸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군 지프를 이용해서 시발택시를 만들기 시작하여 30년 만에 세계 5대 자동차 생산국이 되었고, 화물선을 만들기 시작한지 35년 만에 톤수로는 세계 1위까지 올라가는 등 눈부신 발전을 했다고 알려주면서 처음으로 3시간 동안 영어로 해설한 것을 기념으로 함께 사진을 찍었다. 이번 해설은 나에게 영어해설에 자신감을 갖게 해준 뜻 깊은 해설이었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점심 식사하러 가는 길에 현관에서 식당의 위치를 알려달라고 해서 함께 식사하고 해설을 하게 된 미 해군 퇴역장교 에드워드와 마샬의 경우이다. 에드워드는 나처럼 장기간 군 생활을 했던 공통점이 있기에 정성을 기울여서 한 시간 동안 6·25전쟁실과 UN군참전전시실을 해설해주었다. 나라는 다르지만 장기복무 군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가족처럼 친근하게 느껴졌다. 며칠 후 영어선생 마샬로부터 감사의 편지가 왔다. 그리고 편지 내용 아래에 추서로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라며 포스터(William Foster)의 명언 “좋은 결실은 거저 오는 것



● 회원기고

이 아니다(Quality is never an accident)”라는 제목과 구체적인 실천내용을 써 보내주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며 나는 앞으로 마샬이 나에게 알려준 명언을 잊지 않고 항상 이해하기 쉽고 알찬 내용의 해설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생각이다.

끝으로 요즈음은 직장에서 은퇴한 후 국어 또는 외국어해설사가 되어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으며, 해설 분야도 점점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는 물론 구청에도 문화관광해설사가 있으며, 서울시의 경복궁 등 왕궁에는 궁궐지킴이라는 해설사가 있다.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 전쟁기념관, 민속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등 각종 박물관에는 도슨트, 즉 관람객에게 전시물을 해설해 주는 해설사가 있다. 또한 이름 있는 산이나 명소에는 숲해설사, 생태해설사가 있어 해설사의 활동의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 따라서 군에서 퇴역한 후 제2의 인생으로 해설사가 되어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보람도 있고 건강에도 매우 좋다고 확신하며, 군에서 퇴역하신 선후배 동문님께 자신의 적성에 맞는 분야의 해설사가 되어 해설활동으로 제2의 인생을 출발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흑매로 살어리랏다

외 1편



18기 장관 석현수

그해

내가 아일 낳았더라면

지금 마흔 일거야

복잡한 셈 았더라도

올해 우린 '졸업 40주년'을 맞았으니까

훗날

그 아이 환갑 맞는 날엔

우린 '졸업 60주년' 걸개그림 걸겠지

아직 쇠지도 빠지지도 았은 머리를 한 체

할배, 할매들은 팔순을 훌쩍 넘겼을 테고

그깟 나이

숫자에 불과하다며

억세 풀기로 살아남아 갈수록 팔팔하니

'졸업 80주년'에는

빠짐없이 백수(白壽)도 하겠지

똑 같은

'공사 10훈'을 익혔어도

유독 사납고, 사내다웠던 돌연변이 기수

욕이야 얻어먹을 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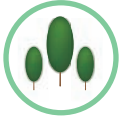
거친 것들이 질겼다고



명 함

귀잡이가
닿은 명함을 꺼내
옛 직함에 가로 두 줄 짝 굿고
바뀐 전화 고쳐 넣는다
행여
달라질까 싶어
햇볕에 말렸더니
노르땡땡
더 물 날랐다
음,
그 때
그 사람 것일 수가 없을 테지
오랫동안 묵혔으니
꽃감이 되어
이름위에 하얀 서설이 올랐다
바람 한번 씹었으면
안으로 들거라
겨울 해는 짧고 무척 춥단다
깊이
숨어도 좋다
날이 좋아도 너 찾을 일은 없을 테니까
이젠 아주 괜찮아
쉬어, 꼭 쉬도록 해





▶ 평균 68.5세 실버축구단 허윤정(8기) 감독

다 함께 100세까지..... 슛~골!

10월 9일 창단한 서울시 실버축구단의 슬로건이다.

서울시는 이날 오세훈 시장, 변일우 서울시 축구협회장, 노홍섭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버축구단 대표팀을 출범시켰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을 지낸 허윤정(8기) 동문이 단장겸 감독을 맡고, 김정남, 김호, 이희택, 정병택 등 기라성 같은 국가대표 및 실업팀 출신 28명으로 구성됐다.

▶ 케냐에서 한글 가르치는 前 전투기 조종사

현지 교민들에게 ‘대령님’으로 불리는 김응수(17기) 동문은 지난 2008년 8월 케냐에 단신으로 입국, 지금까지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한국문화를 알리며, 가난한 학생들에게는 장학금도 지급하고 있다. 그동안 나이로비 국립대학 등 대학교를 돌며 당국자들을 만나 한국어 과정 개설을 설득해 보았지만 혼자 힘으로는 여의치 않아 일단 현지 진출 한국 기업가로부터 강의실과 사무실을 지원받아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일주일에 2



번 3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무료로 초급과정의 한국어 강좌와 한국문화 수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그는 또 한국의 공군사관학교 동기생들과 지인들의 모금에 자신의 연금을 보태어 학업성적이 우수한 8명의 현지 고등학생에게 4년간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올해 첫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한다. 이 밖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인근 병원과 협조하여 나이로비 외곽의 빈민촌을 방문해 순회 진료 활동을 지원하며, 몸이 불편한 현지 주민들에게 밀가루, 설탕 등을 전달해 주고 있다. 특히 서울시와 나이로비 시와의 협약에 따라 서울시 지원하에 한글교실 학생 중 매년 4명을 선발해 서울시에 서 운영하는 직업학교에 1년간 유학을 보내는 계획도 잡혀 있어 케냐 학생들의 장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영하(22기) 동문 신인문학상 당선

이영하 주 레바논 대사가 계간 '문예춘추' 겨울호 신인문학상에 당선됐다고 외교통상부가 12월 24일 밝혔다.

이 대사는 수필 '동명부대, 오늘도 레바논에 평화를 심는다' 등으로 제26회 신인문학상 수필부문을 수상하게 되었다. 내용은 남부 레바논 UNIFIL(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에 파견중인 동명부대의 임무 및 현지 주민들과 소통 활동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 대사는 "대사로 부임한 후 고국에 있는 친지·친구들에게 주기적으로 안부편지를 수필식으로 써서 보내는 등 소위 '이영하'식 소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우리들 마음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글을 쓰고 싶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 대사는 2009년 3월 부임한 이래 한·레바논 간 우호협력관계 증진과 동명부대의 활동지원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한국과 레바논 언론 인터뷰 및 기고를 통해 양국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 김민정(55기) 동문 제52회 사법고시 합격



공군 재경군무지원단 정보통신중대에 근무하는 김민정(55기) 대위가 11월 27일 발표한 제52회 사법시험 3차 최종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공군 여군장교가 사법고시에 합격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사에서 전산통계를 전공한 김 대위는 2007년 임관 당시 국무총리상(2등)을 받았을 정도로 우수한 재원이다. 소위 계급장을 달고 곧바로 서울대 법대에서 학부생으로 3년간 위탁교육을 받으며, 밤낮없이 법전과 씨름한 결과 첫 도전에서 당당하게 합격증을 받아들었다.

2010년 2월 재경단으로 전입해 온 이후, 낮에는 부대 임무를 수행하고 밤에는 고시 준비를 하느라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자곤 적이 없다는 김 대위는 합격의 영광을 가족과 전우들에게 돌렸다. 김 대위는 2011년 3월 사법연수원에 입소, 2년간의 연수를 받고 공군 법무장교로 제2의 군생활을 시작한다.

▶ 다문화가정 지원나선 김도호(28기) 동문

베트남 결혼이민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1억 원을 목표로 장학기금을 마련하고 있는 공군16전투비행단 장병들과 김도호 공군준장의 이야기가 알려져 화제다.

김 준장은 지난해 3월 팜 띠엔 반 당시 주한 베트남 대사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부대를 방문한 반 대사가 지역에 거주하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 여성들을 만나고 싶다고 부탁을 하여 지역사회에 수소문해 3명의 베트남 여성을 초청, 반 대사와의 만남을 주선했다.



만찬을 겸한 간단한 행사를 마치고 반 대사가 친정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초청한 여성들을 일일이 끌어안으며 정을 나누는 모습을 보며, 김 준장은 결혼이민자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됐다고 한다.

이 일이 있는 직후 김 준장은 부대 전 장병에게 다문화 가정에게 도움을 주자는 전자우편을 보냈고, 다문화 가정을 위한 방과 후 학습 지원, 야간 한국어학당, 부대 초청행사, 장학재단설립, 학습용 문구류 지원, 주택 수리 지원, 대대별 자매결연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부대 장병들은 이런 김 준장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호응, 장교들을 중심으로 주 2회씩 방과 후 학습지원에 나서는 한편, 1계좌당 매달 2,000원씩 납부해 3년간 1억 원의 장학기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모금을 시작했다.

이 장학기금은 1년 3개월 만인 6월 말까지 4,700여만 원이 모였고 이 추세대로라면 3년을 다 채우기 전에 목표액인 1억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계획대로 내년까지 기금을 모아 장학재단을 설립한다면 군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최초의 장학재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스페이스첼린지 예선대회에 다문화 가정 400여 명과 반 대사를 비롯한 주한 베트남대사관 직원 26명을 초청, 다문화 가정과 지역주민이 군과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였고,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 여성을 체력단련장 경기보조원으로 채용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했다.

현재 국직부대 지휘관으로 복무하고 있는 김 준장은 “앞으로 글로벌 시대에서 살아남는 강대국은 민족주의·국수주의가 아니라 모든 문화와 인종을 초월하는 포용력을 가진 나라일 것”이라며, “베트남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이주 여성들에게 작은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성숙한 세계국가 ‘글로벌 코리아’를 향한 원대한 꿈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카시디안은 세계의 수호자로서 전세계
안보 전문가들을 지원합니다.

EADS DEFENCE & SECURITY가 카시디안
(CASSIDIAN)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앞으로도 카시디안은 세계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DEFENDING WORLD SECURITY.

WWW.CASSIDIAN.COM

AN EADS COMPANY

당신의 꿈과 행복을 키워드립니다!

예비역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목돈수탁 저축안내

목돈수탁저축은 회원의 여유자금을 수탁받아 높은 이율로
안전하게 증식시켜주는 저축제도입니다.

- 가입대상 : 현 회원, 회원으로 1년 이상 가입자 (예비역)
- 가입금액 : 100만원 이상 5억원 한도 (생계형저축 포함)
- 가입기간 : 6개월, 1년, 2년 (계속 재가입 가능)
- 이자지급 : 매월 또는 만기 시 이자지급
- 금 리

단위 : 연 / %

구 분	만기지급식		매월지급식	
	세전	세후	세전	세후
6개월	4.15	3.51	4.07	3.44
1년	5	4.23	4.88	4.13
2년	5.25	4.44	5.12	4.33

※금리는 가입 후 만기 시까지 확정금리이며 만기 후 재가입 시 금리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군인공제회
MILITARY MUTUAL AID ASSOCIATION

목돈수탁저축 가입 접수 및 상담
TEL (일반) 1544-9090, (군) 900-7227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67-12

총동창회 알림

- 
- 정기총회
 - 회비 납부 안내
 - 평생회비 납부 현황
 - 공사재단 발전기금 현황
 - 전역자 현황
 - 주소 변경
 - 각 기생회 임원 현황
 - 편집후기/기고안내

❖ 정 기 총 회 ❖

- 제18차년도 운영결과 보고 -



회칙 제4장 제12~15조에 의거 제18차년도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정기총회를 6월 22일 공군회관에서 개최하였다. 17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8차년도 업무를 결산하고,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총동창회를 맡아서 일할 제19차년도 회장단을 선출한 후 만찬을 즐기면서 회원 간의 친교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보고 된 지난 일년간의 총동창회 활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회무 보고

◇ 회원현황

- 임관 총 인원 : 8,982명
- 현재 인원 : 8,244명
- 예비역 인원 : 3,757명

◇ 적립기금(평생회비) 현황

구 분	금 액	비 고
기금 인수	595,904,814	17차년도
18차년도 적립	39,342,890	평생회비 : 19,100,000 이자수입 : 20,242,890
적립 총액	635,247,704	

◇ 18차년도 운영목표

‘전 동문이 협력하고 참여하는 동창회로 발전’

1. 회원 상호간 원활한 소통과 교류

- 2. 전 동문 행사 적극참여 유도
- 3. 모교와 공군 발전에 기여

◇ 주요 추진 업무 결과

1. 부대방문

가. 상급부대 : 공본, 공사, 작사, 교육사, 군수사, 북부사, 남부사

나. 일선부대 : 1전비, 11전비

※ 부대 방문시 총동창회 현황소개 및 현역 회원들의 적극 참여 유도

2. 친목의 날 행사

가. 등산

– 과천대공원('11. 5. 4) : 212명 참석

나. 바둑대회

– 공군회관('10. 11. 10) : 62명 참석

– 개인전, 단체전, 다면기 운영

3. 총동창회 임관기념 행사

가. 장소 : 공군사관학교('11. 5. 20)

나. 참가인원 : 9기 사관(50주년), 29기 사관(30주년),
39기 사관(20주년), 49기 사관(10주년)과 가족,
총동창회 임원 및 가족 약 1,000여 명

다. 주요행사 : 1부 행사 – 사관학교 계획에 의거

2부 행사 – 각 기수별 자체행사

※ 발전기금 : 기생 및 개인명의 8천3백여만원

4. 59기 사관 졸업식 대표보라매상 수여

가. 수상자 : 소위 최선규

나. 전면 평가에 의거 선발

5. 자랑스러운 공사인 선발

가. 10기 사관 강위훈

나. 후학양성 및 항공우주사업 육성에 기여

6. 총동창회 네트워크 강화 및 활성화 활동

가. 공사 졸업생(59기) 특강 및 기념품 증정('11. 2. 22)

● 총동창회 알림

- 나. 역대 회장, 사무총장 간담회('10. 9. 7)
- 다. 선배 이사기수 임원 간담회('10. 9. 29)
- 라. 후배 이사기수 임원 간담회('10. 10. 13)
- 마. 현역후배 임원기수 간담회('10. 9. 15)
- 바. 2차 이사기수 임원 간담회('11. 4. 13)
- 사. 신규 전역회원 간담회('10. 10. 6, '11. 5. 25)
- 아. 공무원 진출회원 간담회('10. 11. 19, 18~29기)
- 7. 홈페이지 동문 연락처 조회기능 구축
 - 가. 기생별, 개인별 조회 가능
 - 나. 정회원으로 홈페이지 가입자만 가능
 - 다.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복사 기능 제한
- 8. 조문활동
 - 가. 회원 및 배우자, 직계 사망시
 - 홈페이지 애경사 게시판을 통해 공지
 - SMS 전파(회원 및 배우자 사망시)
 - 조기를 통한 조문(79건)
- 9. 성무인 가을축제
 - 가. 일 시 : '10. 10. 30
 - 나. 참석 인원 : 약 400여 명
 - 다. 행사 내용 : 사관생도 성무의식 참관, 선·후배 만남의 장(운동 및 게임 등)
- 10. 공군 현안문제 해결 노력
 - 가. 순직조종사 유자녀 장학기금(하늘사랑 장학재단)
 - 나. 북한 도발행위 규탄 광고 게재(동아일보, 한겨레 신문)
 - 다. 군 개혁 관련 토론자로 참석(평화포럼 : 이선희 회장)
 - 라. 성무지 특집 발행(올바른 국방개혁을 위한 제언 등)

▣ 심의의결 안건

- 안건 1. 18차년도 적립기금 결산 : '적립기금(평생회비) 현황' 참조
- 안건 2. 19차년도 이사기수 의결 : '기별 분담금 납부안내' 참조
- 안건 3. 19차년도 임원선출 : 총동창회 소식 '정기총회' 참조

■ 운영금 현황

◇ 운영금 조성

(단위 : 만원)

항 목	계 획	실 적	비 고
18기 찬조	7,170	6,000	
기별 분담금	1,580	1,580	10~38기 이사기수
회원/특별 찬조금	800	1,030	
광고비	1,000	3,089	
이월 운영금	200	200	
총 계	10,750	11,960	이자수입 61만원 포함

◇ 회원/특별찬조

(단위 : 만원)

성 명	금 액	성 명	금 액
공군참모총장	600	천기광(18기)	200
이한호(17기)	100	심인태(30기)	40
김준수(7기)	20	박영민(사후53기)	20
윤자중(1기)	20	나병순(5기)	10
최홍선(5기)	10	정지수(11기)	10

◇ 후원업체

업 체 명	후 원 내 용
(주)라스하이텍	2차 이사기수 간담회 경비지원
(주)원일	등산대회 기념선물 지원
경주전장(주)	정기총회 선물세트 지원

❖ 회비 납부 안내 ❖

◎ 평생회비 납부 안내

◇ 평생 회비 입금 계좌

우리은행 319-239049-01-001

예금주 :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 평생회비란?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회원 전원이 평생에 한번 씩만 부담하는 회비로서 회원당 200,000원입니다.

현재 거출하고 있는 평생회비는 매년 총동창회운영에는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적립금의 이자로 총동창회를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원금 및 이자까지도 은행에 계속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총동창회 연간 운영경비는 기별분담금, 찬조금, 광고비, 운영기수 찬조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대부분 운영기수찬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운영기수 회원이 되면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먼 후배 기수를 위하여 선배 기수들이 감수하고 있는 현실임을 이해하고 미납회원은 평생회비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요망합니다.

◎ 기별 분담금 납부 안내

◇ 기별 분담금 입금 계좌

우리은행 1002-644-492243

예금주) 정하섭 (사무총장)

◇ 기별 분담금이란?

매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총동창회 운영경비의 일부를 일정액씩 분담하여 지원해주는 당연직 임원기수 연회비로써 운영기수를 기준으로 선배 8개 기수(11~18기)는 40만원씩, 운영기수를 포함하여 후배 21개 기수(19~39기)는 60만원씩 분담하고 있습니다.

제19차년도 운영기수는 19기로 임원기수는 11기~39기입니다.

본 회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로 기별 분담금은 총동창회 운영이 시작되는 매년 7월내에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회비 납부 현황 ❖

◎ 평생회비 완납기수

1~24, 27기, 28기 완납

◎ 18차년도 평생회비 납부자 현황

기간 : '10. 7. 1~'11. 6. 30

기수	현재 인원	납부 인원	미납 인원	납 부 자 명 단				
25	128	98	30	강진석, 권오숙, 권진식, 김경진, 김수현, 김화중, 문성균, 문성범, 성승식, 송기준, 신종원, 양대철, 엄성호, 유을규, 윤상주, 윤석철, 이규석, 이무훈, 이순웅, 정상용, 조남일, 주광덕, 천성희, 한인균, 홍석조				
26	118	84	34	김문석, 김석우, 김재식, 김재연, 김종철, 김창환, 김태규, 모희원, 박기순, 박충식, 박희수, 윤재규, 은영기, 이광우, 이항우, 이환수, 정곤양, 조운근, 최상문, 최태선, 황명진, 故 박명렬				
29	138	77	61	김용환, 조평현				
30	156	68	88	강병희, 김용훈, 김철포, 박상곤, 이경훈, 이성남, 이용곤, 장기석, 정재수, 최종목, 한진국, 황성돈				
31	164	60	104	고석목, 김현주, 손영철, 장덕봉, 전권천				
32	166	82	84	박지업				
33	174	43	131	조광제, 홍재기				
34	167	52	115	김영림, 김용복, 김종모, 김종범, 서종대, 이권표, 이성렬, 이인영, 이재소, 임삼규, 정찬기, 편완주				
35	249	22	227					
36	263	13	250	김남돈				
37	255	10	245	나은일, 박상균				
38	237	14	223		39	223	14	209
40	241	15	226	김문일	41	241	6	235
42	277	27	250	심대섭	43	271	4	267
44	218	11	212	이수훈, 故 김도현, 故 김상훈, 故 박정수, 故 이재욱, 故 이한기				
45	220	19	201		46	227	1	226
47	201	2	119	신범수	48	192	104	88
49	200	1	199		50	193	3	190
51	203	0	203		52	202	1	202
53	211	3	208		54	192	0	192
55	186	0	186		56	155	1	154
57	157	0	157		58	134	0	134
59	137	0	137					
합	현재인원 : 8,267			납부인원 : 2,684			미납인원 : 5,583	

□ 입금명 미확인 : 29기 김('08. 1. 30)

○ 기 납부자 현황

(2010. 6. 30 이전)

기수	납 부 자 명 단												
25	강대희, 김용전, 박기호, 심재명, 이성우, 전옥술, 홍원표	강신환, 김재중, 박용규, 안광진, 이성재, 정갑표	고경운, 김재훈, 박우성, 양해구, 이승구, 정 구	고덕천, 김진태, 박창규, 오창환, 이영보, 조성구	고재일, 김종흠, 박준한, 윤성현, 이장춘, 지해림	구도권, 김정렬, 김중수, 백문현, 윤양로, 이정표	권용국, 김중원, 서병권, 서상철, 윤용현, 이천상	김국휘, 김규철, 김동진, 김찬환, 김호식, 성신모	김규철, 김동진, 김호식, 손명환, 손종철, 이귀형	김병용, 김홍진, 손종철, 이석찬, 이석호, 임시영	김상진, 류홍규, 송명진, 이석호, 임종호, 임우규	김상진, 류홍규, 송명진, 이석호, 임종호, 임우규	김상진, 류홍규, 송명진, 이석호, 임종호, 임우규
26	강준수, 김준기, 박화영, 이봉준, 장래환, 최지수	강희규, 김태영, 배충영, 이상길A, 이상길B, 전병구	공진구, 김현영, 변종돈, 이상길B, 이태인, 전성관	구창설, 문길주, 문팔암, 성삼식, 성일환, 전영구	권재호, 문혜강, 송길수, 심상철, 오중기, 유지훈	기예호, 박성남, 박성보, 심준택, 윤덕중, 윤병학	김병선, 김세창, 김용홍, 김유상, 김인호, 김정식	김세창, 김용홍, 김유상, 김인호, 김정식, 김준수	김유상, 김인호, 김정식, 김준수, 김준수, 김준수	김인호, 김정식, 김준수, 김준수, 김준수, 김준수	김정식, 김준수, 김준수, 김준수, 김준수, 김준수	김정식, 김준수, 김준수, 김준수, 김준수, 김준수	김정식, 김준수, 김준수, 김준수, 김준수, 김준수
29	강동운, 김명철, 박준기, 윤정용, 이수억, 조병호, 홍상기	강명홍, 김원규, 김희영, 김원희, 박충민, 변우경	구용우, 김희영, 김원희, 박충민, 변우경, 윤한두	권오봉, 김원희, 김원희, 박충민, 변우경, 윤한두	김정호, 김광수, 김규진, 김석중, 김성전, 김순노	김광수, 김규진, 김석중, 김성전, 김순노, 김영권	김규진, 김석중, 김성전, 김순노, 김영권, 김영본	김석중, 김성전, 김순노, 김영권, 김영본, 박재복	김성전, 김순노, 김영권, 김영본, 박재복, 박재복	김순노, 김영권, 김영본, 박재복, 박재복, 박재복	김영권, 김영본, 박재복, 박재복, 박재복, 박재복	김영권, 김영본, 박재복, 박재복, 박재복, 박재복	김영권, 김영본, 박재복, 박재복, 박재복, 박재복
30	강구영, 김용환, 서희석, 이옥규, 정중규	강성호, 김일형, 손한섭, 이종돈, 조보근	강지순, 김정수, 김중선, 김진완, 안창경, 이지영	고영문, 김중선, 김진완, 안창경, 이지영, 이학주	구 정, 김호식, 나시중, 박국서, 박성희	권규홍, 권혁승, 김무겸, 김성용, 김세명	권혁승, 김무겸, 김성용, 김세명, 김영산	김무겸, 김성용, 김세명, 김영산, 김원규	김성용, 김세명, 김영산, 김원규, 김원규	김세명, 김영산, 김원규, 김원규, 김원규	김영산, 김원규, 김원규, 김원규, 김원규	김영산, 김원규, 김원규, 김원규, 김원규	김영산, 김원규, 김원규, 김원규, 김원규
31	강경한, 문순주, 오재현, 임봉수, 최병섭	강운성, 박병진, 유종성, 장동현, 최승준	고영대, 박승필, 유병길, 장영익, 한상훈	김남호, 박우일, 유보형, 장춘석, 허기주	김동철, 박향운, 윤흥기, 이병목, 이상호	김수복, 김시완, 김인택, 김정철, 김철승	김시완, 김인택, 김정철, 김철승, 김홍준	김인택, 김정철, 김철승, 김홍준, 마관용	김정철, 김철승, 김홍준, 마관용, 신재현	김철승, 김홍준, 마관용, 신재현, 이준희	김홍준, 마관용, 신재현, 이준희, 이준희	마관용, 신재현, 이준희, 이준희, 이준희	마관용, 신재현, 이준희, 이준희, 이준희
32	김석운, 김진식, 박동성, 신익현, 이문수, 이형걸, 최인영	김성수, 김성재, 김창석, 김창훈, 박승룡	김성환, 김창훈, 박승룡, 안상훈, 양용규	김연환, 김충원, 김태승, 김현곤, 김형식	김영권, 김태승, 김현곤, 김형식, 남동우	김영기, 김현곤, 김형식, 남동우, 문정주	김영수, 김우근, 김장욱, 김정룡	김우근, 김장욱, 김정룡, 김재구	김장욱, 김정룡, 김재구, 김재구, 김재구	김정룡, 김재구, 김재구, 김재구, 김재구	김재구, 김재구, 김재구, 김재구, 김재구	김재구, 김재구, 김재구, 김재구, 김재구	김재구, 김재구, 김재구, 김재구, 김재구
33	김대기, 박성용, 위강복, 정희주	김동수, 박수철, 박진용, 이성우, 조성호	김수태, 박진용, 이경재, 이도교, 최근영	김순길, 김유정, 김유현, 김재권, 김정태	김유정, 김유현, 김재권, 김정태, 김조진	김유현, 김재권, 김정태, 김조진, 김종도	김재권, 김정태, 김조진, 김종도, 노준갑	김정태, 김조진, 김종도, 노준갑, 박삼남	김조진, 김종도, 노준갑, 박삼남, 박찬현	김종도, 노준갑, 박삼남, 박찬현, 백호달	노준갑, 박삼남, 박찬현, 백호달, 심동섭	박삼남, 박찬현, 백호달, 심동섭, 임경수	박삼남, 박찬현, 백호달, 심동섭, 임경수

기수	납 부 자 명 단
34	감수봉, 강병철, 강우석, 고광준, 김승수, 김신욱, 김일웅, 김정열, 김종명, 김진우, 김학준, 김현수, 김형호, 노승환, 박기곤, 박상로, 박종용, 박홍식, 백운형, 서희창, 손 경, 송광혁, 심재관, 안상철, 안선환, 양희중, 윤기철, 윤진철, 이성용, 이성호, 이해원, 임상수, 임수훈, 임 원, 정병학, 정상길, 정찬영, 조현상, 차용재, 허남희
35	강규식, 강성구, 강정은, 강효석, 권기환, 김부국, 김종은, 류영관, 민태기, 서완석, 손환주, 송태섭, 신형철, 엄태화, 온용섭, 유진협, 윤재룡, 이영배, 이치원, 임채현, 정수성, 최병오
36	김보현, 김성균, 김응문, 김진우, 김하성, 나문관, 박종국, 박홍식, 오형식, 윤성모, 이준모, 임이철
37	기노신, 김연규, 이동훈, 이준혁, 이재섭, 지용해, 진광호, 최기명
38	강재성, 공도현, 구도윤, 김정태, 김성준, 박종환, 성규철, 신보현, 심재환, 윤보정, 윤상보, 이동민, 이정호, 장창열
39	강진구, 권성범, 김용희, 김재권, 김정훈, 이재욱, 이창수, 임정구, 임중택, 최정모, 최진원, 최한규, 허윤구, 홍봉선
40	강정현, 김재형, 김중기, 김진일, 김현수, 박기태, 박찬근, 손정국, 이길주, 이만우, 이봉세, 이현희, 현준호, 황희철
41	김민호, 송창희, 이진수, 임장석, 정진광
42	강문중, 금기호, 김성덕, 김의택, 김창진, 김태우, 박상진, 박세훈, 박윤철, 소상철, 신현구, 심대철, 온재섭, 윤성철, 이강녕, 이기영, 이범기, 이준재, 이지호, 이진수, 임유식, 장희준, 정우건, 천경덕, 최정욱, 한상형, 황수경
43	고정덕, 오동식, 이종원, 조진호
44	고준기, 권기범, 박세순, 이강희, 전용성
45	강영운, 광기훈, 금기호, 김범수, 김중수, 박도준, 안영록, 엄성범, 윤혁중, 이금규, 이길영, 이인구, 정치영, 정한영, 정희두, 조충석, 채 원, 하동열, 황성연
46	장순천
47	이선복
48	강규영, 고관진, 고종진, 구민규, 구본곤, 구필현, 금규태, 길태원, 김강주, 김경민, 김구일, 김년수, 김덕중, 김만중, 김민진, 김범준, 김상준, 김선규, 김성진, 김송현, 김시문, 김인영, 김용숙, 김우현, 김재훈, 김주배, 김창민, 김철한, 김태호, 김홍식, 나정흠, 남택수, 문보연, 민병익, 박경준, 박정수, 박준영, 박찬역, 박한민, 박희수, 사재철, 소영섭, 손성진, 송영권, 송영민, 신 환, 신기영, 안상철, 안효훈, 양함주, 엄일용, 오상원, 원용창, 유 홍, 윤경식, 이광일, 이규동, 이기영, 이대연, 이동수, 이동훈, 이명선, 이무강, 이상준, 이석현, 이순재, 이우열, 이윤진, 이인호, 이정원, 이정훈, 이재영, 이종원, 이종훈, 이창용, 이창중, 이태승, 이형주, 이효성, 임병철, 임병호, 임수홍, 임은수, 임창순, 장균홍, 장성진, 전대만, 정기만, 정인식, 정재훈, 조정흠, 조혁준, 채 석, 천영호, 최원석, 최규완, 최균수, 최성호A, 최성호B, 최영기, 최재호, 추광호, 한영중, 허석희, 홍문기
49	이상현, 이수리
50	안성민, 양정환
53	박주문, 문영섭, 최주영
56	이한준
	51, 52, 54, 55, 57~59기 납부자 없음.

❖ 공사재단 발전기금 현황 ❖

◆ 설립목적

생도 교육 및 학교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중 예산획득이 불가능하거나 적기 획득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 지원

◆ 기금모금 현황

구 분	금액(억)	비 고
기업 및 단체	32	삼성테크윈(주) 등 61개 단체
동 문	18	학교동문 1,543명
학부모/후원자	4	학부모 등 386명
합 계	54	총 1,929명, 61개 단체

◆ 기금사용 계획('11년)

구 분	금액(억)	비 고
생도 국외 견문확대	2.2	생도 1인 110만원 지원
생도 학술·문화 체육사업	0.6	생도 대외 학술대회 참가 및 대외 경기 출전
교수/훈육요원 학술연구	0.2	교수 학술 세미나 등 교육발전 연구지원
지정기부사업	0.3	풍석군사학기금 등 3개 사업
합 계	3.3	'96~'10 사용 총액(20억)

※ 기금원금은 영구 보존되며, 이자수입(4.0~7.7%)만으로 운영

◆ 기부자 예우

학교시설 우선 이용혜택(야외결혼식장, 체력단련장, 도서관 등)

학교본부 및 박물관 기부자 사진 및 명부유지, 고액출연자 감사패 증정



공군사관학교 발전기금 출연 현황

<< 1천만원 이상 >>

기금총액 : 54억원

(주)삼성테크윈(10억1천)	(주)삼양화학공업(5억3천1백)	(주)대우중공업(5억)
이종학(043, 2억6천2백)	(주)부영(2억)	최동환(공사27,1억5천)
보잉코리아(1억2천6백)	장지량(9대공참총장,1억5백)	

<< 1천만원 이상 >>

강민수(공사9)	곽현성(공군가족)	기업은행	김광순(공사9)	김규림(공사12)
김대중(역대대통령)	김상태(공사2)	김상태(공사9)	김선도(광림교회목사)	김용철(공군가족)
김재식(공군가족)	김진호(공사27)	공사발전후원회	공사총동창회	국민은행분평지점
국민카드	박영민(사후53)	박원석(사후2)	박진숙(공사5)	서정옥(사후37)
서진태(공사8)	(주)블루니어	승진기술(주)	양창근(공군가족)	온성철(공사4)
원불교충북교구	(주)원일인터내셔널	유상신(공사8)	윤대봉(공사8)	이성재(공사25)
이영수(공사2)	이일남(공군가족)	임용환(공군가족)	정제훈(공군가족)	최성열(공사15)
최용칠(공군가족)	(주)한국로스트왁스	한광희(공사9)	홍재학(공사4)	해인사(대한불교조계종)
공사2기생회	공사3기생회	공사4기생회	공사5기생회	공사6기생회
공사7기생회	공사8기생회	공사9기생회	공사17기생회	공사26기생회
공사35기생회	공사36기생회	공사37기생회	공사51기생회	공사52기생회
공사53기생회	공사54기생회	공사55기생회	공사56기생회	공사57기생회
공사58기생회				

<< 5백만원 이상 >>

강홍조(초정노인병원이사장)	경주전장	공영화(공사7)	김규태(공군가족)	김대욱(공사15)
김락은(공군가족)	김문숙(군무원)	김선곤(공군가족)	김인기(공사3)	김재환(란스튜디오)
박찬옥(공군가족)	안창명(공군가족)	이광학(공사11)	최춘홍(독지가)	공사1기생회
공사14기생회	공사15기생회	공사16기생회	공사20기생회	공사21기생회
공사22기생회	공사23기생회	공사24기생회	공사25기생회	공사27기생회
공사29기생회	공사30기생회	공사31기생회	공사32기생회	공사33기생회
공사34기생회	공사39기생회	공사40기생회	공사41기생회	공사42기생회
공사43기생회	공사44기생회	공사45기생회	공사46기생회	공사47기생회
공사49기생회				

● 총동창회 알림

<< 1백만원 이상 >>

강봉민(공군가족)	강석일(공군가족)	강성영(공사19)	강수준(공사22)	강태식(공군가족)
강호석(공사31)	강희간(공사17)	경운대학교	고영섭(공사17)	고종무(공사17)
고준기(공사44)	공군2사관총동문회	공군발전협회	공군전우회청주지회	공사교수친목회
곽갑순(공사13)	곽영달(공사7)	구정회(공사18)	군사과학원	권혁달(공사9)
금기연(공사21)	금학수(공군가족)	김경복(공사3)	김경중(공사12)	김국환(공군가족)
김 규(육사27)	김기부(공군가족)	김기영(공사46)	김남돈(독지가)	김덕실(공사19)
김도식(공사8)	김두만(사후5)	김만호(공사27)	김명립(공사19)	김상직(공사2)
김석우(공사17)	김성근(공사40)	김성수(공군가족)	김성일(공사20)	김성진(공사18)
김양수(공사13)	김연호(공사34)	김영본(공사29)	김영식(공군가족)	김영주(공사20)
김영준(공사23)	김영철(공사19)	김영환(공사1)	김우태(공사19)	김원규(공사30)
김윤수(공사31)	김윤주(공사10)	김은기(공사22)	김을식(공군가족)	김이곤(사후71)
김인택(공사31)	김일강(공군가족)	김일락(근무원)	김장호(공사22)	김재달(공사10)
김재문(공군가족)	김재운(공사18)	김정만(공군가족)	김정현(공군가족)	김종태(기무사령관)
김주식(공사15)	김준기(공사26)	김준수(공사7)	김진섭(공사3)	김창규(역대총장)
김창욱(공사21)	김태수(공사46)	김해인(공군가족)	김 현(공사14)	김현수(공사40)
김현진(공사19)	김호동(공사20)	김호배(공군가족)	김홍래(공사10)	김홍석(공사48)
김희복(공군가족)	농협물류센터지점	도재준(공사39)	라지균(공군가족)	(주)루시컨설팅
류광선(공군가족)	문국진(공사2)	문기철(공사13)	문봉한(독지가)	민정배(공군가족)
박경웅(공사16)	박귀자(공군가족)	박규복(공사19)	박기현(공사40)	박도영(공사46)
박동춘(공군가족)	박명우(공군가족)	박성국(공사16)	박성윤(공사10)	박수용(공사46)
박영준(공사36)	박예재(공사4)	박용태(공사5)	박재성(공사2)	박종선(공사14)
박창권(공사27)	박춘택(공사12)	배기준(공사12)	배양일(공사12)	배창식(공사21)
백낙승(공사3)	백동기(공사16)	비씨카드	사후77기동기회	서동열(공사4)
서명교(공사46)	성동주(공군가족)	성보경(공사5)	성용경(공군가족)	성일환(공사26)
손일호(공사46)	손정환(공사19)	송영섭(공사13)	송한복(공사24)	신균상(공군가족)
신문식(공사21)	신성환(공사26)	신영덕(공사28)	심성용(공사46)	심장섭(공사3)
안병걸(공사20)	안병문(공사11)	안병철(공사13)	안성덕(공군가족)	안영준(공군가족)
안택순(공사14)	양경철(공사46)	양동현(공사46)	엄상영(공사24)	연양희(공사21)
오일근(공군가족)	오정진(공사46)	오정치(공군가족)	오준영(공사35)	오필환(공사23)
외환카드	유병구(공사19)	유병희(공군가족)	유영국(공군가족)	유재호(공사3)

유재홍(공사21)	윤경식(공사48)	윤봉수(공사18)	윤용현(공사25)	윤 우(공사28)
윤자중(공사1)	윤재훈(공사18)	윤차영(공사23)	윤희준(공사46)	이강욱(공사19)
이강택(공사36)	이계오(공사19)	이규찬(공사19)	이기동(공사20)	이기택(공사18)
이기현(공사13)	이기호(공사41)	이길우(공사37)	이길환(공사15)	이달호(공사19)
이동식(공사46)	이만섭(공사3)	이명환(공사28)	이문호(공사17)	이봉운(공사24)
이상기(공사2)	이상배(공사6)	이상오(공사53)	이상해(공군가족)	이석민(공사46)
이석원(공군가족)	이선미(공사53)	이선희(공사18)	이순웅(공사46)	이승수(독지가)
이억수(공사14)	이영준(공사18)	이영하(공사22)	이영희(공사20)	이윤우(공사6)
이장호(공사10)	이재선(공사46)	이정석(공사22)	이정욱(공사23)	이정윤(공사45)
이정일(공군가족)	이정호(공사13)	이종록(공사20)	이종식(공사30)	이진학(공사18)
이창일(공군가족)	이철우(공사26)	이태식(공사11)	이한호(공사17)	이화민(공사21)
이흥기(공군가족)	일진중전기(주)	임남기(공군가족)	임병숙(공군가족)	임상훈(공군가족)
임정빈(공사16)	임호순(공사24)	장덕수(공사13)	장무익(공사4)	장부석(공군가족)
장성문(공사20)	장영수(공사18)	장영익(공사31)	장진수(공사16)	장호근(공사17)
장희천(공사19)	전춘우(공사6)	전환혜(공군가족)	정경두(공사30)	정귀균(공군가족)
정성규(공사14)	정중규(공사30)	정철호(공사20)	정해일(공사7)	정현욱(공사46)
정희두(공사45)	조규식(공사17)	조미행(공군가족)	조영근(공사3)	조옥찬(공사4)
조재찬(공사46)	조정숙(공군가족)	조태환(사후59)	주창성(공사16)	주님의교회
차옥환(공사17)	차종권(공사20)	차홍준(공군가족)	천기광(공사18)	최만호(공군가족)
최미락(공사25)	최범식(공사21)	최병삼(공군가족)	최병인(공군가족)	최부용(공사35)
최상곤(공군가족)	최성현(공군가족)	최승식(공사46)	최시수(공군가족)	최용준(공사46)
최용환(공사15)	최정봉(참사랑병원이사장)	최정숙(공군가족)	최호준(공사22)	하만운(공사22)
하성룡(공사32)	하태용(공사21)	학부모친목회	한봉철(공군가족)	(주)한드
한성주(공사24)	한영규(공사4)	한주석(공사7)	한주선(독지가)	함장환(공군가족)
허원욱(공사20)	홍강표(공사19)	홍성민(공군가족)	홍영식(공군가족)	황성연(공사45)
황원동(공사24)	212대대비행교수회	공사13기생회	공사18기생회	공사19기생회
공사28기생회	공사38기생회	공사44기순직자	공사48기생회	공사59기생회

❖ 전역자 현황 ❖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전역일	계급	성명	특기	기수	전역일	계급	성명	특기	기수
'10.07.31	준장	김상경	조종	27	'10.09.30	중령	유용수	인사행정	30
	준장	박경중	조종	27		중령	홍익표	정비	33
	준장	이광제	조종	27		소령	김규용	보급수송	36
	준장	이창현	조종	27		소령	박용일	인사행정	36
	대령	천호영	정비	27		중령	장인철	조종	37
	대령	남웅우	조종	29	'10.10.31	대령	김 인	항공통제	27
	중령	김 호	조종	30		대령	한상무	조종	27
	대령	현용희	조종	31		준장	김규진	정훈	29
	중령	안기룡	정비	32		중령	김성룡	정비	30
	중령	고성필	정비	33		대령	김세명	운관	30
	중령	김영진	시설	33		대령	박국서	인사행정	30
	소령	이광범	조종	44		소령	이재섭	보급수송	37
	대위	조진호	보급수송	48		중령	정태성	조종	37
'10.08.10	중령	김대현	헌병	36	'10.11.12	소령	김균세	조종	54
'10.08.31	대령	김용상	조종	27	'10.11.30	대령	김창환	정비	26
	대령	김영구	정보통신	30		대령	김경규	정비	27
	중령	강 철	조종	37		중령	김광수	방포	36
	소령	장강순	교육	37		중령	김상용	정보통신	36
	중령	김근영	조종	39		중령	이승구	정보통신	37
	중령	김주일	조종	39		중령	정종근	조종	37
	중령	김치혁	조종	39		중령	송희선	조종	39
	중령	신인철	조종	39		중령	이상현	조종	39
	중령	이동기	조종	39		소령	오병선	조종	42
	중령	장시영	조종	39		대위	전동식	정비	53
	중령	조인성	조종	39	'10.12.20	소령	이재근	보급수송	42
	중령	채호성	조종	39	'10.12.31	대령	강신종	조종	27
	소령	엄정호	정보	42		소장	권오성	조종	27
	소령	최승국	조종	43		대령	김동균	조종	27
	대장	이제훈	조종	23		대령	김수은	조종	27
'10.09.30	대령	이제인	관리	27		대령	류학정	조종	27

전 역 일	계급	성 명	특 기	기수	전 역 일	계급	성 명	특 기	기수
'10.12.31	대령	박준형	조종	27	'10.12.31	대령	염동선	조종	30
	대령	박현재	조종	27		대령	이승관	보급수송	30
	대령	손태용	정보	27		중령	이환영	인사행정	30
	대령	송진성	보급수송	27		대령	장석현	보급수송	30
	대령	신응균	조종	27		대령	정재수	관리	30
	대령	이수철	관리	27		대령	조홍대	정비	30
	대령	이희명	조종	27		대령	한진국	항공통제	30
	대령	이희봉	조종	27		중령	홍언표	정비	30
	대령	임종춘	조종	27		대령	황기영	정보	30
	대령	정성택	조종	27		대령	강경한	조종	31
	대령	최정기	조종	27		대령	이덕수	정비	31
	대령	한병국	조종	27		대령	장춘석	조종	31
	대령	황태익	조종	27		대령	조환기	교육	31
	대령	김재훈	헌병	28		중령	나석진	정보	32
	대령	임종춘	조종	28		대령	문채봉	인사행정	32
	대령	천홍우	보급수송	28		중령	윤금산	항공통제	32
	준장	김만수	방포	29		중령	오승윤	교육	35
	준장	남승우	조종	29		중령	박상배	정비	36
	대령	전동기	조종	29		소령	이수성	정비	36
	준장	최기식	항공통제	29		중령	고성호	헌병	37
	준장	최용준	조종	29		중령	이재연	방포	37
	대령	권혁천	정비	30		소령	최규태	방포	37
	대령	김오현	교육	30		대위	엄홍대	교육	50
	대령	김용훈	기상	30	'11.01.31	중장	황원동		24
	중령	류춘열	항공통제	30		소장	고덕천		25
	대령	박상근	헌병	30		소장	최미락		25
	중령	백승옥	시설	30		대령	최정근	정훈	27
	대령	신완희	관리	30		대령	한동욱	조종	27
	중령	신형수	보급수송	30		대령	박재현	항공통제	30
	대령	양희성	정비	30		대령	김정석	시설	31

● 총동창회 알림

전역일	계급	성명	특기	기수	전역일	계급	성명	특기	기수
'11.01.31	대령	김규석	정보통신	32	'11.03.31	소령	서기휘	시설	44
	소령	안창렬	기상	36		대위	이성호	정보통신	54
	소령	박성진	기상	38	'11.04.21	대위	김충원	교육	51
	소령	김정렬	조종	43		대령	김순걸	보급수송	27
'11.02.28	대령	고봉홍	정보통신	27	'11.04.30	중령	박우일	시설	31
	대령	김영만	조종	27		대령	이창희	보급수송	31
	중령	최규환	조종	39		대령	조철수	정비	31
	소령	장성철	조종	44		대령	김성수	정비	32
	소령	홍기정	조종	44		대령	김정룡	정훈	32
	소령	박수민	정보	46		대령	고지영	보급수송	33
	대위	김기현	정훈	54		소령	김종학	헌병	36
	대위	김대권	정보통신	54		중령	김진현	조종	38
	대위	박 걸	인사행정	54		소령	강희상	조종	44
	대위	박윤삼	정비	54		대위	김덕중	교육	54
	대위	박진우	보급수송	54	'11.05.31	대령	이명하	조종	27
	대위	신민섭	정비	54		중령	서교선	관리	30
	대위	이재희	정보통신	54		대령	김홍천	운항관제	31
	대위	이종무	시설	54		중령	이준희	정훈	31
	대위	이준민	보급수송	54		대령	조성욱	항공시설	31
	대위	이창현	시설	54		대위	정현성	정보	54
	대위	장하민	보급수송	54		대령	한진석	조종	27
	대위	황재민	조종	54		중령	김기현	정보	31
'11.03.31	대령	오상화	시설	28	'11.06.30	중령	이동환	보급수송	31
	대령	이성길	조종	28		중령	박동주	정보통신	32
	대령	전덕수	조종	28		중령	노청래	항공시설	33
	대령	오문철	인사행정	29		중령	김홍진	인사행정	36
	중령	공기명	항공통제	31		중령	오상섭	정비	37
	대령	김재환	정비	31		중령	정근화	조종	37
	중령	최승일	관리	35		중령	이준형	정비	38
	중령	정재호	정보통신	36					

❖ 주소 변경 ❖

('10년 7월~'11년 6월)

기수	성명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1	백용삼	인천 서구 왕길동 오류지구 80블럭 금호(아) 101-203	404-290	02-502-8818
2	김중렬	서울 송파구 잠실2동 리센츠(아) 248-1203	138-913	070-7578-1550
2	문국진	서울 강남구 도곡동 902-8 쌍용예가(아) 105-201	135-270	02-3461-0177
3	김상영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1540 아이파크 507-303	411-809	031-295-0751
3	김성하	서울 용산구 이촌1동 한강대우(아) 101-102	140-713	02-794-6333
4	안우일	서울 양천구 목1동 현대하이페리온2차 204-1204	158-741	02-6212-3649
5	최찬정	경기 과천시 부림동 주공(아) 805-702	427-735	02-502-8818
6	김명호	경기 용인 기흥구 마북동 삼성레미안1차(아) 117-1802	446-557	010-8831-0535
6	김형근	서울 강동구 명일2동 56 고덕현대(아) 11-1403	134-790	070-8614-3370
6	손중서	경기 군포 산본2동 1240 레미안 하이어스(아) 104-801	435-042	011-9019-1951
6	하두호	경기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93 주원파크빌 101-603	461-815	010-6820-5542
7	채인수	경기 구리시 수택동 853 럭키(아) 1-502	471-700	031-557-3298
8	강영진	서울 동작구 상도4동 216-3 롯데캐슬(아) 101-505	156-842	02-872-9102
8	우흥기	부산 남구 용호1동 176-30 LG메트로시티(아) 106-1405	608-776	051-612-9882
8	조현효	경기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1229 e편한세상 101-1302	464-925	031-607-3681
9	신도범	서울 강서구 가양2동 대림경동(아) 104-1103	157-751	02-2668-5267
9	이기봉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349 한진(아) 309-805	410-724	031-811-8922
10	김태석	서울 서초구 잠원동 70 신반포4차(아) 204-1002	137-949	02-808-5890
10	손동현	경기 성남 분당 삼평동 봇들마을 휴먼시아(아) 501-603	463-895	010-2987-0024
11	심기섭	경기 용인 수지 신봉동 신봉마을 동부센트레빌 606-602	448-150	031-307-1712
12	김태규	경기 의왕시 포일동 658 포일 숲속마을 103-801	437-120	031-397-6404
12	나광수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안동 899-2 현대4차(아) 201-701	431-794	031-399-5176
13	김양수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1069 파밀리에(아) 1207-1303	446-882	031-211-4434
13	김영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843-11 3F	411-812	031-901-7080
13	이태규	경기 파주시 교하읍 목동리 삼부르네상스(아) 506-402	413-833	031-944-2960
13	최길용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2 GS자이(아) 101-902	448-544	070-4045-6225
13	최종덕	서울 금천구 시흥2동 1013 벽산(아) 515-1605	153-764	02-894-9206
13	태종민	서울 마포구 용강동 380 용강레미안(아) 108-703	121-876	02-599-8813
14	김부곤	경남 남해군 창선면 당항리 338-4	668-854	055-867-8690
14	문정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원마을1단지 112-303	463-951	031-708-8528
14	신동열	서울 동작구 대방동 509 보라매 코오롱(아) 101-1207	156-020	02-836-5759
14	신재철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2동 그린타운 1329-103	420-721	032-321-8818
14	이억수	경기 용인 수지구 성북동 759 힐스테이트2차 203-1203	448-140	031-893-7345
16	함종하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15 영덕신일(아) 103-2001	445-741	031-302-1622
17	배종수	경기 성남 분당구 야탑동 367-6 노브릿지오피스텔 B-516	463-827	010-9376-9899
18	구세환	충북 충주시 연수동 현대힐스테이트(아) 107-1103	380-781	043-855-7401
18	김현규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282 포스홈타운 201-1901	446-913	031-889-3713
18	이기택	서울 강남구 도곡1동 삼익(아) 2-705	135-857	070-7538-3909

● 총동창회 알림

기수	성명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19	김구섭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790 롯데캐슬피렌체 103-1403	130-070	02-968-7020
19	조용희	충남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대림e편한세상 109-1303	321-764	042-543-5346
20	강만수	제주시 건입동 현대(아) 103-301	690-771	064-727-1346
20	김성일	서울 성북구 성북동 264-5 현대빌라 101-103	136-823	010-9127-0039
20	김영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54 백현마을 510-202	463-420	031-703-1877
20	김원춘	충남 계룡 금암동 190 신성1차 미소지움(아) 103-1002	321-761	042-524-4134
20	김호동	서울 동작구 대방동 506 현대2차(아) 202-1304	156-811	02-6267-1649
20	문태인	서울 강서구 화곡3동 화곡푸르지오(아) 139-102	157-773	02-2065-2655
20	서상용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아) 4단지 406-1804	121-270	02-302-0856
20	이보훈	서울 양천구 목1동 7단지(아) 714-306	158-757	02-3775-0909
20	이석규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 90 엘지빌리지2차 206-1203	448-981	031-266-1401
20	이철주	서울 양천구 신정동 1310 동일하이빌(아) 101-402	158-073	02-2065-9861
20	전호환	서울 서초구 서초4동 1681 삼익(아) 103-1106	137-073	02-3486-7631
20	최수길	경기 화성시 남양동 920-18 노블레스 3호	445-010	031-356-0957
20	최병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7 자이(아) 201-2001	150-918	02-780-1511
20	최창수	서울 구로구 구로5동 롯데(아) 107-404	152-770	02-857-9364
21	김광진	경기 시흥시 능곡동 우남퍼스트빌(아) 1401-1403	429-240	032-326-0786
21	김현식	서울 관악구 남현동 1139 대창센시티(아) 201-703	151-080	010-5393-8787
21	배민섭	서울 동작구 흑석동 10 명수현대(아) 101-1502	156-791	02-537-8828
21	신문식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1-170 반포(아) 1-907	140-769	02-264-4123
21	이경모	경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052 대우(아) 106-1101	415-759	031-991-3712
21	이상철	서울 송파구 잠실동 19 엘스(아) 115-1902	138-908	02-2677-9136
21	이정원	서울 구로구 구로3동 대림아르빌(아) 101-406	152-053	02-853-5396
21	이종기	서울 강서구 방화동 538-14 대경빌라 401	157-853	02-2665-3267
21	이종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12 주공5단지(아) 502-801	463-911	016-300-0933
21	이 찬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 556 백현마을7단지 702-103	463-887	031-708-4974
21	이화민	서울 서초구 반포1동 반포자이(아) 109-2202	137-041	02-3477-9664
21	정용운	서울 강서구 등촌동 694 대림(아) 108-401	157-755	02-3661-9532
21	최천락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2동 571-10 동산(아) B-103	427-803	031-466-3224
21	하태용	충북 괴산군 청천면 대티리 126-2	367-846	043-823-9337
21	홍종백	서울 동작구 사당2동 신동아(아) 407-1401	156-771	02-534-5749
22	김명대	서울 동작구 흑석동 28 한강현대(아) 105-302	156-792	02-536-0691
22	김병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513 현대(아) 1102-303	463-410	031-707-0985
22	김장호	인천 연수구 송도동 9-5 웰카운티 401-1302	406-749	070-7592-9792
22	김철구	서울 강서구 가양1동 1496 휴먼빌(아) 101-1501	457-201	02-6342-0475
22	배효직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강변삼성래미안(아) 301-1102	150-942	02-2634-9089
22	안중엽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엘스(아) 113-1603	138-908	02-413-0257
22	유치호	서울 관악구 신림6동 371-5 2층	151-016	02-303-7028
22	이광희	경기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 경남아너스빌2차 202-802	448-739	031-272-1288
22	이상성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0 시범(아) 20-15	150-894	02-785-9785

기수	성명	주 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22	이정석	경기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물푸레마을 휴먼시아 605-1002	446-915	070-8757-2543
22	장영현	광주 동구 신수2동 두암타운(아) 107-604	501-752	062-262-6389
22	전병만	대전 유성구 성북동 339번지	305-201	042-824-1469
22	정갑순	서울 강서구 방화3동 804 진로(아) 102-901	157-790	011-303-9677
22	조옥형	인천 서구 원당동 원당대림(아) 105-402	404-737	070-7558-7692
22	최무열	안양 만안구 석수동 석수역푸르지오(아) 101-1501	430-040	070-7527-3455
22	홍재근	서울 서초구 양재동 402-2 401호	137-130	02-532-9217
23	김진결	충북 청주시 연수동 605 연수아이파크 107-1506	380-778	043-284-8400
23	김재용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0 시범(아) 15-92	150-761	02-761-5578
23	최주식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부영사랑으로(아) 103-1101	534-821	070-7778-3150
24	김태열	충남 계룡시 금암동 우림루미아트(아) 104-1102	321-760	042-841-4651
24	박동문	경기 용인 수지구 동천동 굿모닝힐5차(아) 515-1003	448-710	031-272-7950
24	안인규	충남 계룡시 엄사면 유동리 대동(아) 116-701	321-755	042-542-4550
24	정진도	계룡시 금암동 신성2차 미소지움(아) 204-702	131-762	042-841-9235
24	조현규	경기 용인 수지구 풍덕천2동 삼성레미안5차 515-302	448-785	031-262-5481
24	최규철	서울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아) 317-1502	138-890	02-836-4630
24	최재희	경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힐스테이트 204-804	415-778	031-991-9989
25	김찬환	광주 동구 운림동 보라빌라 101-302	501-833	062-670-5043
25	최미락	충남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116 대림e편한세상 109-205	321-764	070-4312-7566
26	공진구	충남 공주시 장기면 도계리 174-10	314-913	010-5072-3585
26	김정식	서울 양천구 신정7동 목동(아) 1209-403	158-772	02-6342-6330
26	김재식	서울 강동구 암사동 414-2 강동롯데캐슬퍼스트 101-2504	134-715	011-217-5713
26	김태규	충남 계룡시 금암동 우림(아) 103-1501	321-763	010-5673-9702
26	김현영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두진(아) 102-102	446-740	070-8638-6339
26	오범석	대구 동구 율하동 1410 율하휴먼시아 1201-703	701-220	055-853-5519
26	오중기	서울 영등포구 신길7동 삼환(아)104-2303	150-782	02-846-2841
26	이요섭	충남 계룡시 금암동 대림(아) 106-703	321-900	010-5077-7495
26	임락봉	서울 성북구 종암동 34-3 종암 선경(아) 101-1706	136-769	010-4904-8083
26	조희연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대우월드마크(아) 101동 2702호	140-011	010-5079-8460
26	최병학	대전 유성구 구암동 424-19 17/1	305-800	011-420-1908
26	최상문	대구 북구 매천동 673 화성파크드림(아) 105-1701	702-826	053-322-0248
26	최태선	서울 관악구 신림1동 푸르지오(아) 107-1702	151-772	010-8772-1799
26	하대용	서울 구로구 개봉동 487 상우(아) 201-1601	152-090	019-319-6391
28	송명섭	부산시 부산진구 초읍동 401-3	614-873	051-818-0247
30	채종목	서울 양천구 신정7동 대림아크로빌 B동 1204호	158-739	02-2063-1892
34	심재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숲속마을9단지 907-2002	410-794	031-815-8712
40	서철모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88-64 현대힐스테이트 101-2107	136-130	02-596-2777
43	김상진	경기 평택시 동삭동 삼익사이버(아) 105-1501	450-717	010-5073-9543
43	박주철	충북 충주시 연수동 힐스테이트 101-502	380-781	043-856-6575

❖ 각 기생회 임원 현황 ❖

(‘11년 06월 현재)

기수	회장	총무	기수	회장	총무	기수	회장	총무
1기	최규순		21기	김영곤	정삼연	41기	김용태	신용규
2기	유기원	김종섭	22기	민형기	정갑순	42기	이종서	이동현
3기	손호인		23기	정대주	장창연	43기	김상진	이종훈
4기	박병순		24기	오연균	김수원	44기	류형년	홍창현
5기	정봉수	성보경	25기	류홍규	박기호	45기	이강훈	
6기	김원근	손중서	26기	강충순	박중석	46기	서정민	
7기	전상환	정구석	27기	정표수	최규돈	47기	이영진	문성훈
8기	장정효	송재선	28기	김영민	김명현	48기	고종진	원기탁
9기	강민수	천왕봉	29기	홍완표	최정근	49기	이정영	
10기	김홍래	김태석	30기	이광수	윤기성	50기	정병식	손다혜
11기	양민호	김광현	31기	임동훈	최세진	51기	김계한	이현석
12기	우대석	신동윤	32기	이건완	안상훈	52기	윤민록	조효희
13기	이승대	이준순	33기	전용성	조상용	53기	최주영	우승지
14기	민신웅	신재철	34기	김종범	편완주	54기	조원기	권선영
15기	김무웅	김평람	35기	진광수	박찬규	55기	이재환	강수정
16기	정해창	양길수	36기	김형식	윤성모	56기	조해광	정신기
17기	고영섭	김익창	37기	이상철	김현정	57기	정인식	이준범
18기	천기광	김정수	38기	현인하	김완룡	58기	박전규	최나라
19기	임종태	김두환	39기	김순태	김재권	59기	차규식	백승우
20기	이영희	최병철	40기	김운수	이동우			

편집후기

이번 호에는 두 개의 특집을 실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신 성무인 가을축제를 중심으로 한 '성무대 모교사랑'과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올바른 국방개혁을 위한 제언'입니다. 또 항공우주시대에 걸맞은 안보와 국방에 관한 회원논단을 편성하여 제40호의 편집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星武'지를 통하여 한 해 동안 있었던 공사총창회의 소식을 전하고 회원 간에 소통하는 창구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나 막상 편집을 끝내고 보니 아쉬움이 남습니다. 계획에 없었던 '특집 II'의 편성으로 부득이 일부 회원님의 옥고를 수록하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하여주시기 바라며, 바쁘신 중에도 귀한 글을 보내주신 기고자 동문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공사총동창회를 아끼고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편집에 수고하신 이봉길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들과 바쁜 업무 중에도 친절과 성의를 다해 새로운 디자인으로 편집, 발간해주신 국군인쇄창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편집인 〉

기고안내

공사총동창회 회지인 '성무'지는 연 1회(매년 7월) 발행되고 있습니다. 주로 회원들의 수필, 여행기, 사관학교 시절의 에피소드 및 취미활동 등을 주제로 한 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41호 성무지 원고는 2012. 3. 31에 마감합니다. 많은 기고를 부탁드립니다.

발행일 : 2011. 7. 1.

발행인 : 이 선 희

편집인 : 송 희 전

발행처 :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주소 : (우 156-600)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우체국사서함 5-1호

전화 : 02-823-1091, 팩스 : 02-823-1092

Home Page : <http://www.kafaaa.or.kr>

E-mail : 04airfa@hanmail.net







KOREA LOST-WAX

**한국로스트왁스를 알게되는 순간,
대한민국 부품소재산업의 미래를 만나시게 됩니다.**

자동차부품에서 선박부품, 항공기 부품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부품소재산업의 선두에는 언제나 한국로스트왁스가 있습니다.
1979년 이래, 32년간 정밀주조 연구, 개발 및 생산으로
세계와 겨루고 있는 한국로스트왁스!
기술이 세계를 지배하는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한국로스트왁스는 21세기 첨단소재산업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민국 부품소재산업의 미래, 저희가 책임집니다.



『2009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이명박 대통령 내외 한국로스트왁스(주) 부스 방문



발전설비 및 일반산업용 주요 부품



(주)한국소리마치

한국소리마치는 증권, 농업관련 S/W를
비롯하여 각종 멀티미디어, 시스템 S/W개발
전문업체입니다.

한국소리마치는 21세기가 요구하는 기술
동향을 예측,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조하고, 성실과 도전을
무기로 디지털 시대를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대표이사: 장세풍

관계사
풍림금속
정밀주조
(대표이사 고요현)

한국소리마치
한일합작(50:50)S/W개발회사
(대표이사 장세풍)



For life on a whole new scale [스케일이 다른 서비스]

고객의 기대와 상상조차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서비스—
대한항공은 스케일이 남다른 당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GE AVIATION

UNMATCHED ADAPTABILITY. CHECK.



F404/F414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GE의 F404/F414 엔진은 실전에서 검증된 신뢰성과 최선의 기술을 전세계 군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전장의 요구조건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F404/F414 엔진에 새로운 성능들이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있으며 2~3배 늘어난 부품 수명, 낮은 운용 비용과 20% 늘어난 추력을 제공하여 대한민국 공군의 T-50과 미래의 항공 전력에 최적의 임무 준비도 및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GE.COM/AVIATION을 참조하세요.



imagination at work



A man with dark hair, wearing clear safety glasses and a white flight suit, is focused on working on a large, yellow, perforated aircraft component. The background is dark and industrial.

한국을 위해 함께합니다.

보잉은 F-15K 생산을 위해 국내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
LIG 넥스원퓨처, 한화, 그리고 WIA가
최고의 전투기 F-15K 생산을 위해
다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잉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훌륭한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BOEING**



F-35.

한반도 안보를 위한 최선의 선택.

F-35
LIGHTNING II

설계 단계부터 진정한 스텔스 성능과 고도의 기술을 구현하도록 제작된 F-35는 대한민국 공군에 혁신적인 전투력을 제공합니다. F-35는 차세대 항공전자장비와 외형 디자인, 오차 범위가 모발 직경의 절반 이하인 정교한 생산 공정의 통합을 통해 절대 우위의 역량을 갖추었습니다. 진정한 스텔스 성능과 효율적인 비용, F-35 라이트닝 II는 한국에게 최선의 선택입니다.

THE F-35 LIGHTNING II TEAM

NORTHROP GRUMMAN BAE SYSTEMS PRATT & WHITNEY

LOCKHEED MARTIN